

채근담

홍자성 저 | 송정희 역 유불도(儒佛道)를 넘나드는 동양적 인간학의 백미! 풀뿌리를 씹듯 곱씹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난다하여 《채근담》이라 하였다. “하늘이 내 몸을 괴롭힌다면 나는 내 정신을 즐겁게 하여 보완하리라. 하늘이 내 삶을 곤경으로 몰아간다면 나는 내 도(道)를 높여 풀고 나가리라.” 껍데기만 좇는 세상을 관조한 홍자성의 금언들이 욕심에 빠져 삶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청량한 샘물과 같이 다가온다.



채근담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채근담》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주신 고 송정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스승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조영미, 김장환 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①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일러두기

(역자)

1. 채근담은 명나라 홍자성의 저 만력본(萬曆本)이 있고 청나라 홍응명(洪應明)의 저 건륭본(乾隆本) 두 가지가 있다. 이 책은 그 정본(正本)인 홍자성본 전집 225편, 후집 134편 도합 359편을 전역한 것이다.
2. 이 책은 먼저 역문을 싣고 다음 원문, 직역, 주석 순으로 엮였으며, 전후집에 관계없이 분량에 따라 上·下 두 권으로 나누었다. 역문은 원래 우리나라 산문으로 옮겨 놓으려 시도하였으나 워낙 뜻이 깊어 이루지 못하였다.
3. 채근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훌륭한 번역이 여러 권 나온 줄로 안다. 그러나 채근담은 유교(儒敎) 사상을 비롯하여 불교 노장(老莊) 등 동양 각종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짙막한 문장에 그 뜻이 너무도 심장(深長)하여 수양서로서 현대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버거울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새로 번역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이미 나온 다른 번안본(飜案本)과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첫째는 물론 일반 교양을 중심으로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문 학도를 위하여 원문 한자 한자에 충실한 직역을 했다는 점, 셋째는 장마다 거의 그 대의(大意)를 따서 소제(小題)를 달았으며, 그것이 그대로 명언(名言)으로 사람마다 입에 담아 마음의 거울을 삼기에 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책 원문에 붙인 현토(懸吐)의 대부분(4~20, 83~120 제외)이 본인이 중학시절 선친(晋山 宋寅輯)께 가르침을 받을 때 받아 적었던 현토라는 점이다.

(편집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엮었다.

1. 번역과 편집은 원의(原義)에 충실을 기하였다.
2. 주석은 간단한 것은 ()나 ()안에 간주(間註)하고, 그 밖의 것은 각주(脚註)하였다.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한자(漢字)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독음을 달았다.
5. <올제 클래식스>는 기존에 ‘직역-원문-주석’의 순으로 주로 편집해왔으나,

《채근담》의 경우 의역을 앞세운 역자의 의도를 살려, ‘의역-원문-직역-주석’의 순으로 편집하였음을 밝힌다.

머 리 말

(해제를 겸하여)

저자 홍자성(洪自誠)이 말마다 내성적(內省的)인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담박(淡泊)과 질박(質朴)을 부르짖으며, 험악한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원만하게 걸어 갈 수 있는 빈틈없는 처세의 비결을 짚막하게 적어 모아 이름하기를 채근담(菜根譚)이라 하였다.

채근이란 글자 그대로 나물 뿌리 및 풀 뿌리를 말한다. 하고 많은 좋은 음식 가운데 왜 하필 나물 뿌리 곧 채근이라 제명(題名)한 것일까! 그것은 저자 자신이 한평생 도덕을 닦으며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몸소 갖은 신고(辛苦)를 체험한 데에서 얻은 것이라고 다음의 우공겸(于孔兼) 제사(題詞)에서 말하고 있다.

사실 채근이란 말은 그 유래가 이보다 훨씬 오래다. 주자(朱子)의 《소학(小學)》 외편 끝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송(宋)나라 왕신민(汪信民)이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항상 채근(菜根)을 씹을 수 있다면 백 가지 일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하니, 호강후(胡康侯·文定公)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하였다.” 라고, 주자(朱子)는 이 글에 주하기를, “사람이 항상 마음 갖기를 자기 한 몸이 산 골짜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도의심이 무거워지고 죽음과 삶에 대하여 계교(計較)하는 얇은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지금 사람들은 채근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본성의 참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채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즐겨 찾는 기름지고 맛 좋은 음식에 취하여 인간의 그 무한한 욕망을 그대로 놓아 달리게 하지 말고, 오직 욕심 없는 담박한 마음으로 맑고 습습한 채근을 씹으며 오늘에 당한 모든 서러움을 꾸준히 인내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리라. 사람은 채근의 맛을 아는 여기서 점차 철들어 영원한 덕을 심고 영원한 성공을 가져 오게 되는 것이요, 또 사람은 모름지기 채근을 씹을 줄 알아야 인생의 진정한 의의를 알게 되고, 따라

서 어떠한 세파에도 인간 본연의 맑고 깨끗한 심성(心性)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간직해 나갈 수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 채근의 담박한 맛으로 말하면, 부귀한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됨과 동시에 스스로의 분한(分限)에 멈추어 서게 되고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인내력과 도덕에 사는 인생의 참 즐거움을 안겨 주니, 채근담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즐겨 씹고 새겨야 할 훌륭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하나의 성(性)을 타고 난다. 이것을 천성 또는 본성(本性)이라 한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며 더없이 밝고 중정(中正)하며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일러 도심(道心)이니 진성(眞性) 또는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요순(堯舜)과 같은 성인도, 도척(盜跖)과 같은 큰 도적도 그 본성에 있어서만은 한 가지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한 가지인데 어찌하여 그와 같이 선과 악의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인가! 요순이 성인이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타고난 본성의 참을 훌륭하게 닦아 밝힌 때문이요, 도척이 악인으로 떨어진 까닭은 인욕(人欲)에 얽매어 세상의 온갖 더러운 때와 먼지로 자기 본성의 참을 가리워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심성(心性)을 닦는 일, 곧 마음의 공부다. 거울에 먼지가 앉고 때가 끼게 되면 어떠한 물건도 밝게 비추어 볼 수 없듯, 사람의 마음이 한번 욕심 세계에 이끌리게 되면 참 나를 잃고 거짓 나(人形)에 매달려 어떠한 사물도 그 옳고 그름을, 거짓과 참됨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물욕(物欲)의 노예가 되어 그 덧없고 거짓된 부귀와 공명을 좇아 평생을 버둥대다가 끝내 참된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한줌 흙으로 돌아 가고 마는 것이다. 여기서 채근담은 인간이 되는 길, 심성(心性)을 닦는 방법을 참으로 간곡하게 일러 주고, 차가웠다 뜨

거위다 하는 인간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인간관계의 타당성을 위하여 백 가지로 말을 펴며, 험한 세상 바다를 건너는 데 모나지 않게 가장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읽는 이로 하여금 과연 그러리라 고개가 절로 끄덕여 지도록 여실(如實)하게 보여주고 있다. 채근담에서 이야기하는 수양은 어디까지나 청탁(靑濁)을 아울러 포용할 수 있는 수양이요, 따라서 어떠한 어지러운 세상, 티끌 많은 세상에 몸을 던져 두어도 다시금 그 티끌에 물들지 않는, 말하자면 더러운 진흙 속에서 한 떨기 깨끗한 연꽃을 꽃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수양을 말한다. 사람이 맑고 깨끗한 자기 본래의 심성(心性)만 깨달을 수 있다면 몸이야 산 속에 있든 지저분한 주막에 있든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채근담은 결코 인간의 자기 수양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하늘이 끊임 없이 만물을 낳고 또 만물을 차별 없이 길러주듯, 우리네 인간도 하늘의 그러한 큰 덕을 본받아서,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인간의 생(生)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수양과 학문은 그것이 바로 인류 문화에, 국가 사회에 이익이 됨으로써 참으로 귀한 것이니, 채근담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근담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며 산림(山林)의 한적(閑適)한 생활을 노래하는 뜻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인욕(人欲)의 경계를 벗어나 자기 본래의 심성을 잃지 않을 것을 말한 것이요, 단순히 자기 한 몸의 안일(安逸)을 위하여 만드시 세속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산 속에 숨어 사는 데 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때로 한적한 취미를 가짐으로써 불같은 욕망을 식힐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욕심 경계를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모든 얽매임에서 풀려나 어떠한 세상에 처하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몸은 비록 산림에 묻혀 있으나 세상을 바로잡고 만(萬) 인간을 이익 되게 하려는 정신만은 살아 있는 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채근담의 참뜻이다. 또 채근담은 고상하고 청아(清雅)하고 담박하고 청렴결백함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이 역시 너무 지나친 것을 경계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감정이 중용(中庸)을 잃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는 세상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요,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라 하더라도 전혀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채근담 359편은 그 한편 한편이 그대로 다 우주철학이요 인생철학으로, 짙막한 문장에 한없이 깊은 뜻을 담아 읽을수록 더욱 새롭고, 음미할수록 새 맛이 나며, 고요히 생각할수록 인간의 위선(僞善)과 그 거짓된 허물이 한 꺼풀 한 꺼풀씩 벗겨져 마침내는 환히 그 본체를 드러내어 준다. 천리(天理)를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인정(人情)에 통하고, 인정을 말하는가 하면 그것이 그대로 천리에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이지(理智)와 감정이 하나가 되게 하고, 저와 나, 이상(理想)과 현실이 둘이 아닌 도덕적인 최고의 경지로 이끌어 준다.

저자 홍자성의 벗 우공검은 그의 제사(題詞)에서 채근담의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천부(天賦)한 만물의 본성을 말하여 곧바로 현묘(玄妙)한 진리에 들어 가고, 인정의 기미(機微)를 말하여 딱딱하고 험악한 속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천지 간에 거침없이 노는 마음의 대(大) 자유를 보며, 공명(功名)이 마치 티끌이나 쓰레기 같아 지식의 더욱 고상하고 원대함을 알 수 있다. 붓으로 엮어낸 훌륭한 문장은 어느 것 하나 녹수요 청산 아닌 것이 없고, 입에서 흘러 나오는 조화무궁한 말솜씨는 문자 그대로 연비어약(鸞飛魚躍)이라, 술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노는 자연한 도(道)의 작용 아닌 것이 없으니 여기에 스스로 터득한 것이 그 얼마인가! ... 지은 바 글을 보면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병점을 고쳐 주는 돌침(砭)이요, 이욕(利

欲)에 취한 세상 사람들의 흐린 정신을 맑게 씻어 주고 깨우쳐 주는 참말로 요긴한 말로서, 오늘날 쉽게 귀로 들어 갔다가 쉽게 입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실속 없는 부화(浮華)한 것은 전혀 아니다.”

채근담의 내용을 말하라 한다면 이 말을 제쳐놓고 다시 무엇을 또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크게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은 채근담의 저자 홍자성의 행적에 대하여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나서 어디서 세상을 떠나갔는지 도무지 상고할 만한 곳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삼봉주인 우공검의 제자로 미루어 홍자성이 우공검과 같은 시대 곧 명나라 만력년간(萬曆年間)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채근담의 내용에서 우리는 홍자성이 유자(儒者)라는 사실과 유자이면서 불교 및 노장(老莊) 철학 등 동양 각종의 철학에 통달한, 참으로 깊은 학문과 높은 도덕과 고아(高雅)한 취미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또 다음의 제사(題詞)에서도 말하였듯이 홍자성은 어지러운 세상, 무상(無常)한 세정(世情) 속에서 인생의 온갖 쓰라린 맛을 골고루 맛본 사람으로서, 세속에 초연하면서도 끝내 도덕을 노래하며 세상을 걱정하고 명리(名利)에 취한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려는 참으로 훌륭한 정신과 인격의 소유자임을 넉넉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본서 내용으로 보나 우공검이 그토록 아프게 홍자성의 말에 공감하여 마지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 두 사람은 도(道)를 같이 하는 사이로 홍자성 또한 은거(隱居)하여 현실의 허위와 위선과 싸우며 학문과 수양에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은 참으로 진실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혹 참고가 될까 하여 여기에 우공검의 인물에 대하여 두어 줄 적어 두기로 한다. 우씨의 전기(傳記)는 명사(明史)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씨의 자는 원시(元時)요, 금단명족(金壇名族)의 출신으로, 만력(萬曆) 8년의 진사(進士) 급제를 비

못하여 뒤에 의제랑중(儀制郎中)의 벼슬에까지 올랐으나, 자주 묘당(廟堂)의 실정(失政)을 논하는 상소(上疏)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신종황제(神宗皇帝)에게 노염을 얻어 내침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 뒤로 은거하여 독서로 세월을 보낸 지 20년이라 하니, 아마 이 무렵 홍자성의 채근담을 얻어 읽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더 돋보이게 하며, 내 집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할까’ 한다. 그리하여 한(限)도 없는 욕심을 좇아 의(義)가 밥 먹여 주더냐 싶어 마구 치달아 배가 불러도 물릴 줄을 모른다. 만일 한 나라의 일꾼들이 높고 낮고 간에 모두가 그같이 생각이 돌아간다면 그 나라의 오늘이 참말로 다급해질 것이요, 만일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저마다 그 같은 생각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 것들 또한 도덕에 굶주린 채 정대(正大)한 정신을 싹 틔울 길이 없으리니 그 나라와 내일도 또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이 말을 들어 아니라 할 이가 있으리! 인간의 즐겨 하고 싫어함은 오로지 마음으로 짓는 것.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욕(利慾)의 심곡(深谷)에서 빼어다가 여기 이 채근(菜根)의 담박한 맛에 붙여, 그 맛에 맛들이길 조금씩 하여 오래 한다면, 마침내는 내 마음을 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산 인간이 될 것이요, 여기서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높은 도덕심과 즐기찬 노력과 인내력은 우리나라와 민족에 한몫 커다란 공헌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입으로 쉽게 교양인이니 문화인이니 하지만 참 교양인, 참 문화인은 역시나 진정한 도덕인이 되고서야 그리 일컬을 수가 있으리라!

1977년 11월 20일

역자 宋貞姬 적음

채근담 제사(菜根譚題詞)

오는 손을 쫓고 외로이 초가(草家)에 묻혀 도(道)를 함께 하는 사람은 더불어 놓고 그 밖의 사람은 놀지를 앓았다. 망령되이 천년 옛 성현들의 글을 놓고 시·서·역·춘추·예기(詩書易春秋禮記) 등 5경의 뜻의 같고 다름(同異)을 변론하며 세월을 보내되 부질없이 몇몇 소인들과는 함께 구름 산 변화 많은 환상의 산기슭에서 헛되이 자취를 흘리지는 아니하였다. 날마다 어부며 농부와 더불어 오호(五湖: 鄱陽湖, 丹陽湖, 青草湖, 洞庭湖, 太湖)와 호숫가에서 초목이 우거진 깊은 골짜기에서 소리 높이 시를 읊조리고 화답하되, 송곳 끝만한 작은 이익을 주고 다투거나 한 말(斗) 짜리 지위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과는 벗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린내, 노린내 나는 소굴에서 서로 열려 정을 퍼지 앓았다. 간간이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 북종(北宗)의 대학자의 설을 공부하는 이가 있으면 이를 길러주고, 불교를 공부하는 이가 있으면 이를 열어주되, 천명을 말하고 문장의 기교를 변론하는 이들은 멀리하였으니, 이것으로써 나의 산중생활에 서의 기량(伎倆)을 다하기에 넉넉하였던 것이다.

때마침 나의 벗 가운데 홍자성(洪自誠)이란 이가 있어 채근담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 주며 서문을 청하였다. 처음에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으나 책상 위에 펼쳐진 책들을 거두고 마음 속에 모든 잡념을 깨끗이 씻어버린 뒤 조용한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 보고서야 나는 깨달았다. 천부(天賦)한 만물의 본성(本性)을 말하매 곧바로 현묘(玄妙)한 진리에 들어가고, 인정(人情)의 기미(枝微)를 말하매 딱딱하고 험악한 속을 남김없이 드러내어 천지간에 거침없이 노는 마음의 대 자유를 보며 공명(功名)이 마치 티끌이나 쓰레기 같아 지식의 더욱 고상하고 원대함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붓으로 엮어내는 훌륭한 문장은 어느 것 하나 녹수요 청산 아닌 것이 없고 입에서 흘러 나오는 조화 무궁한 말씀씨는 문자 그대로 연비어약(鸞飛

魚躍)이라,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못에서 뛰노는 자연한 도(道)의 작용 아닌 것이 없으니 여기서 스스로 터득한 것이 그 얼마인가! 진실로 아직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지은 바 그의 글을 보면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병점을 고쳐 주는 돌침이요, 이욕(利欲)에 취한 세상 사람들의 흐린 정신을 맑게 씻어 주고 깨워 주는 참말로 요긴한 말로서, 오늘날 쉽게 귀로 들어 갔다가 쉽게 입으로 흘러 나오는 그런 실속 없는 부화(浮華)한 것은 아닌 것이다.

하필 변변치 못한 음식에 지나지 않는 나물 뿌리 곧 채근(菜根)으로써 이룬 것은 진실로 작자 자신이 청고(淸苦)를 겪고 단련하는 가운데에서 우러나온 것이요, 또한 스스로 끊임 없이 몸과 마음을 닦고 길러온 속에서 얻은 것이라, 풍파에 밀리고 쓰러지며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골고루 맛본 흔적을 넉넉히 찾아 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홍자(洪子)는 말한다.

“하늘이 나를 몸 수고를 심하게 하거든 나는 내 마음을 되도록 편안히 하여 수고로운 내 몸을 보충할 것이요, 하늘이 만일 나의 처지를 기할 수 없는 곤경으로 몰아넣는다면 나는 나의 도(道)를 더욱 높여 막힌 길을 뚫어 나가리라.”

여기서 또한 평소에 그가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힘써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몇 마디 말로 책머리에 적어 이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함과 동시에 이 채근담 가운데에는 인생의 허다한 진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바이다.

삼봉주인 우공겸제(三峰主人 于孔兼題)

차례

1. 인간이 가장 고귀한 것은 죽은 뒤의 이름을 생각하기 때문이다.31
2. 사람을 보는 데는 세련된 겉모양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중요하다. 32
3. 마음은 밝은 태양처럼 활짝 드러내고, 본능은 주옥처럼 깊이 감추어야 한다. 33
4. 최고의 결백은 악조건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34
5. 귀에 거슬리는 바른 말은 몸과 마음을 닦는 솜돌이다. 35
6. 조화로운 기운, 즐거운 마음은 그의 인생을 즐겁게 한다. 36
7. 최고의 도덕가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37
8. 한가로운 때엔 긴장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바쁜 때엔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38
9.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은 자기 본연의 참 마음을 관찰하여 밝히는 가장 중요한 때다. 39
10. 득의한 때일수록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실패한 때일수록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40
11. 명아주국, 비름나물 속에 마음이 맑아지고, 화려한 의복, 맛있는 음식 속에 절조는 사라진다.41
12. 살아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사상을 남기도록 한다. 42
13. 겸양의 덕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43
14. 큰 사업을 이룬 것은 없어도 명리(名利)의 속된 욕정에서 벗어나면 그가 곧 명사(名士)요, 성인이다. ... 44
15. 벼를 사귀는 데는 의협심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되어서는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45
16. 충애와 이익은 남보다 뒤지는 것이 좋고, 덕행과 공업은 남보다 앞설수록 좋다. 46
17.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곧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요, 남을 이익 되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이익 되게 하는 것이다. 47
18. 자랑할 긍(矜) 자는 큰 공을 무색하게 하고, 뉘우칠 회(悔) 자는 큰 쇠를 녹여버린다. 48
19. 좋은 이름은 남에게 돌리고, 나쁜 이름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 49
20. 겸손한 마음가짐에는 조물주도 시기하지 못하고 귀신도 해하지 못한다. 50
21. 참 부처와 참 도는 우리의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있다.51
22. 사람은 어느 환경에 처하든 중을 잡아 운용할 수 있는 중정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53
23. 남의 허물을 나무라는 데는 너무 엄하게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너무 높게 말아야 한다. 55
24. 깨끗한 것은 더러운 데서 생기고, 밝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생긴다. 56
25. 객기를 놀려야 정기가 드러나고, 망령된 마음을 없애야 참 마음이 나타난다. 57
26. 정욕이 가는 대로 따르다 보면 때로 만족스러움도 있으나, 남은 것은 후회로움 뿐이다. 59
27. 국가의 요직에 앉아 있어도 산림의 취미만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산림 속에 묻혀 있어도 나랏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60
28. 진정한 공덕은 한 평생 과실이 없는 것이요, 진정한 은덕은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61
29. 아무리 고상한 기풍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쳐 인간과 만물에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전연 무가치한 것이다. 62
30.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원인을 찾아보고, 일이 한창 잘 될 때는 말로를 생각해야 한다.

- 63
31. 부귀한 사람은 의당 마음을 느그럽고 후하게 써야 하고,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재주를 안으로 감추어야 한다. 64
32. 낮은 자리에 있어 보아야 높은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가를 알게 되고, 침묵을 기른 뒤에야 말 많은 것의 수선스러움을 알게 된다. 65
33. 부귀 공명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범인을 벗어날 수 있고, 도덕 인의에 얽매이지 않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 66
34. 마음을 좁히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사견(邪見)을 고집하는 것이요, 도의 방해물은 소리와 색이 아니라 잘못 풀린 총명이다. 67
35. 한 걸음을 물러서는 법과 삼분을 양보하는 덕을 지니면 무상한 인정, 험한 세상길을 탈 없이 걸어갈 수 있다. 68
36. 소인을 대하는 데는 엄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기란 어렵고, 군자는 공경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알맞게 공경하기란 어렵다. 69
37. 천지의 정기(正氣)는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머물고, 인간의 간교한 슬기와 총명에 사라진다. 70
38. 마귀를 항복 받으려면 자기의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하고, 빛나간 마음을 잡으려면 객기를 눌러야 한다. .. 71
39. 자제(子弟)를 기르는 데는 바깥 출입을 엄하게 하고, 빗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72
40. 육정으로 가는 길은 쉽고 편리하지만 발을 들여서는 안 되고, 바른 도리를 걸어 가는 길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물러서서는 안 된다. 73
41. 군자의 마음은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74
42. 저쪽에서 부(富)를 내세우면 나는 인(仁)을 내세울 것이요, 저쪽에서 벼슬을 내세우면 나는 의(義)를 높이 치켜 올릴 것이다. 75
43.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높은 지조와 한 걸음 물러서는 겸양의 덕이 있어야 안락할 수 있다. 76
44. 학문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길로 꿰뚫어 공명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그 깊이에 들 수 있다. 77
45. 사람마다 큰 자비심과 진정한 취미가 갖추어져 있다. 다만 사욕과 사정 때문에 선과 악의 엄청난 차이를 낼 뿐이다. 78
46. 도덕을 닦는 데는 목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정치를 하는 데는 뜬 구름과 같은 권세와 부귀에 애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79
47.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잠자는 혼까지도 온화한 기운에 젖어 있고, 마음이 흉한 사람은 그 목소리와 웃으며 하는 말까지도 살기에 가득하다. 80
48. 겉으로 나타나는 크고 작은 허물은 모두 감감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장 경계할 것은 감감한 속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생각들이다. 81
49. 복으로 말하면 한 평생 무사한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화로 말하면 많은 일에 마음 시달리는 것보다 더한 화가 없다. 82
50.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방정(方正)한 것이 좋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둥근 것이 좋고, 말세에서 살 때는 방정과 둥근 것을 아울러 쓰는 것이 좋다. 83
51. 입은 은혜는 생각하지 배운 은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허물은 잊을 수 없으되 원한만은 잊어야 한다. 84
52. 마음 없이 배운 은혜는 한 말의 곡식이라도 천만 석이요, 갇음을 염두에 둔다면 천만금이라도 한 톨의 공도

| | |
|--|-----|
| 없다. | 85 |
| 53. 고르지 못한 세상에서 어찌 나 혼자 좋은 것만 갖추며 내 생각대로 하라!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가 맞추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 86 |
| 54. 마음이 깨끗지 못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그것을 주어다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결점을 덮는 데 이용한다. | 87 |
| 55. 사치하는 사람은 부자이면서 늘 부족에 허덕이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하면서 늘 여유가 있다. | 88 |
| 56. 독서에 성현의 뜻을 보지 못하면 문자의 노예요, 학문에 실전이 없으면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다. | 89 |
| 57. 인간의 낯은 지혜로 엮어진 무가치한 책과 요사스런 음악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성의 참의 문장을 읽고 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 91 |
| 58. 인생의 고락(苦樂)은 돌고 도는 것. 뜻대로 안 된다고 슬퍼할 것이 없고, 뜻대로 잘 된다고 기뻐할 것도 없다. | 93 |
| 59. 도덕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산림 속의 꽃과 같고, 공업으로 얻은 것은 화분의 꽃과 같고, 권력으로 얻은 것은 화병의 꽃과 같다. | 94 |
| 60. 좋은 환경에 있는 군자가 훌륭한 계획을 세워 좋은 사업을 이룩할 생각을 않는다면 백 년을 살아도 값 있는 하루만 못하다. | 95 |
| 61. 학문을 하는 이는 엄격한 가운데 온화한 기상을 잃지 않음으로써 만물의 생에 이바지 한다. | 96 |
| 62. 참말로 청렴한 것은 청렴이란 이름조차 없으며, 교묘한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 98 |
| 63. 기웁게 만든 기기(敍器)는 가득 차면 없어지고, 돈 넣는 병어리는 속이 빈으로써 소용이 된다. 군자는 가득한 것을 피하고 텅 빈 상태에서 논다. | 99 |
| 64. 공면심과 객기의 발동으로 얻은 사업은 아무리 큰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모두가 속된 것 무익한 것이다. | 101 |
| 65. 마음이 밝으면 캄캄한 방 속도 푸른 하늘이요,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태양 아래에서도 귀신이 나온다. | 103 |
| 66.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즐거움보다 귀한 즐거움은 없다. | 104 |
| 67. 악을 하되 두려운 줄을 알면 착한 길로 들어설 여지가 있고, 선행을 하되 위선에 흐르면 선 속에 악의 뿌리가 자란다. | 105 |
| 68. 어떠한 영웅호걸도 천지자연의 조화의 손바닥 위에서 웃고 울다 갔지만, 오직 순경과 역경을 자유로이 받아 넘기는 군자만은 예외다. | 106 |
| 69. 또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간에 중정(中正)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원대한 사업을 도모할 수 없다. | 108 |
| 70. 복은 기쁜 정신을 기쁨으로써 불러들일 수 있고, 화(禍)는 남을 해치는 기운을 버림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 | 109 |
| 71. 열 마디 말에 아홉이 맞지도 훌륭하다 할 수 없다. 맞지 않은 나머지 한마디가 많은 허물을 묻고 오기 때문이다. | 110 |
| 72. 마음이 찔찔하면 받는 복도 그만큼 쓸쓸하고 옅고, 마음이 따뜻하면 받는 복도 그만큼 두텁고 오래 간다. | 111 |
| 73. 바른 도리에의 길은 지극히 너그러워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크게 키워주고, 인욕에의 길은 지극히 좁아 눈앞이 다 가시덤불이요, 진흙이다. | 112 |
| 74. 괴로움과 즐거움에 수없이 단련한 끝에 얻은 복이라야 오래 가고, 의문과 믿음에 수없이 반복 연구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 지식이다. | 113 |

75. 사욕을 쓸어내고 마음을 텅 비워 두어야만 의리의 참 마음이 들어와 살고, 의리의 마음으로 꼭 채워 두어야 물욕이 들어오지 못한다. 114
76.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많이 나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115
77. 몸에 병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마음에 번민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116
78. 옛 사람은 금은보화를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탐욕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배를 삼았다. 탐욕은 사람의 품위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118
79. 보고 들리는 것은 다 바깥 도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 도적이다. 그러나 주인공인 본심만 제자리에 깨어 있다면 이것들은 다 나의 심복이다. 119
80. 이 새로운 사업계획보다 현업(現業)에 더욱 힘쓰고, 지나간 실수에 사로잡히기보다 앞으로 실수 없기에 마음을 다한다. 121
81. 사람의 기상은 높고 느르되 소홀한 데 홀려서는 안 되고, 취미는 깨끗하되 메말라서는 안 된다. 122
82. 군자는 한 번 잊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일이 오면 오는 대로 응하고, 가면 가는 대로 잊어, 마음을 항상 비워 둔다. 123
83. 결백하면서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인정이 풍부하면서 결단을 잘 내리고, 총명하면서 까다롭지 않고, 정직하면서 남을 바로잡는 데 지나치지 않는다. 124
84. 사람은 먹이나 굶으니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지조만은 한결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126
85. 한가하다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고요하다고 정신적인 활동을 끊지 아니 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속이고 숨기지 않는다. 127
86. 바른 도리의 길은 삶이 있고, 인욕(人欲)에의 길은 죽음이 있다. 혹 자신이 인욕의 길 위에 있거든 곧바로 도리의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129
87. 마음의 참 본체를 보고, 마음의 진정한 활동을 알며, 마음의 참 취미를 얻는 것, 이것은 도를 깨달는 최상의 방법이다. 130
88. 즐거운 환경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 즐거움이 아니다. 험벗고 험벅은 구차한 환경 속에서도 도덕과 더불어 산다는 즐거움, 이것이 참 즐거움이다. 131
89. 참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버렸으면 그것으로 그쳐야 한다. 남의 딱한 처지에 인정이 넘쳐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132
90. 하늘이 만일 내게 복을 적게 주거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덕을 두터이 쌓아 나가리라. 그리하여 복이 아니 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133
91. 하늘은 사람들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욕심 없는 마음에 복을 주고, 욕심 많은 마음에 복을 덜어간다. 134
92. 노래를 팔던 기생도 늙바탕에 어진 남편 만나 살면 다 묻히고, 정절부인도 늙바탕에 정조 한 번 잃게 되면 남는 것은 치욕 뿐이다. 135
93. 평민도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지위 없는 왕공 · 재상이요, 높은 벼슬아치도 권세나 탐내고 임금의 총애나 판단면 벼슬 가진 걸인이다. 136
94.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행복은 조상이 피땀 흘려 쌓으신 덕택이요, 우리가 짓는 오늘의 사업은 훗날 자손의 행복의 발판이 된다. 137
95. 군자의 위선적인 행위는 소인의 드러내 놓고 하는 악행보다 나을 것이 없다. 138
96. 집사람에게 허물이 있거든 슬며시 돌려서 타이르며,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풀어 주듯, 서서히 마음 돌리기

| | |
|--|-----|
| 를 기다린다. | 139 |
| 97. 내 마음에 결함이 없으면 세상에 결함이 절로 없어지고, 내 마음이 관대하면 험악한 인정이 따로 없다. | 140 |
| 98. 군자는 세상 사람이 싫어하거나 의심한다고 자기의 지조와 도덕적인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 | 141 |
| 99. 역경에서의 괴로움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침과 약돌이요, 순경에서의 즐거움은 사람의 명치 끝을 노리는 창칼이다. | 142 |
| 100. 부귀와 권세에 대한 불같은 욕망에 청냉(淸冷)한 기미로 조화를 이루지 아니 하면, 결국 자신을 불사르게 된다. | 144 |
| 101.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참되면 오월에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금석도 꺾을 수 있다. | 145 |
| 102. 훌륭한 문장은 기교를 부리지 않는 것이요, 성인은 남다른 언어를 쓰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 147 |
| 103. 이 몸은 잠시 빌려 받은 환상과 같은 몸, 부귀공명은 헛된 꿈, 만물은 평등무차별한 것, 이 이치를 알아야 천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다. | 149 |
| 104. 입에 씹 좋은 음식은 위장을 해치는 독약이요, 마음에 씹 유쾌한 일은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그러나 반쯤에서 그치면 탈이 없다. | 151 |
| 105. 남의 사소한 잘못과 사사로운 비밀, 그리고 남의 지나간 악행에 관대해야 덕을 기를 수 있다. | 152 |
| 106. 몸가짐을 가버어 하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고, 마음을 무겁게 쓰면 활발한 기능을 잃는다. | 153 |
| 107. 이 몸은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몸, 죽는 날까지 즐겁게, 그리고 값있게 마쳐서 이 세상에 왔다 간 발자취를 굵직하게 남겨야 한다. | 154 |
| 108. 원망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다. 특별한 은혜를 심어 한편으로 원망을 사느니보다 은혜와 원망을 초월하여 다 같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 155 |
| 109. 늙어서 오는 질병은 젊었을 때 스스로 지은 것이요, 쇠한 뒤에 겹친 불행은 한창 왕성할 때 지어 놓은 것이다. | 156 |
| 110.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보다 옛 벗과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 훨씬 정이 길다. | 157 |
| 111. 공평한 정론에 반대의 손을 들면 만세토록 부끄러움을 남기게 된다. | 158 |
| 112. 내 뜻을 굽히면서까지 남에게 환심을 사기보다는 내 몸을 곧고 바르게 하여 죄 없이 남에게 미움을 받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다. | 159 |
| 113. 부모형제의 변을 당해서는 더욱 조용하고 침착해야 하고, 친구의 과실을 보았을 때는 적절한 충고를 주어야 한다. | 160 |
| 114. 진정한 영웅은 사소한 일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에 기만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망해가는 급박한 때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 161 |
| 115. 천금을 주고도 원망하는 마음을 살 수가 있고, 찬밥 한 그릇으로도 영원한 은혜를 심어 줄 수가 있다. | 163 |
| 116. 자기의 뛰어난 재주와 덕과 지조를 안으로 감추어 충실하게 키우면서, 겉으로 어리석은 양 평범하게 걸어가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한 처세법이다. | 165 |
| 117. 군자는 번영한 때에 앞으로의 환란을 미리 염려 하고, 영락한 때 백 번이라도 참고 견디며 기필코 이것을 성공으로 돌린다. | 167 |
| 118. 기이한 것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원대한 식견이 없고, 높은 지조를 세워 혼자서 나아가는 사람은 항구성이 없다. | 168 |

119. 불같은 노여움, 물 같은 욕심이 끓어오를 때는 얼른 참 마음을 불러일으켜 생각을 한 바탕 궁글리면 모두가 참 마음과 하나가 된다. 169
120. 사물을 보는 눈은 공경해야 하고 일은 자기의 역량을 저울질한 뒤에 맡고 남의 단점을 들추지 말며 나보다 나은 이를 시기하지 말라. 171
121. 남의 단점은 간곡히 타이르며 감싸주어야 한다. 만일 남의 단점을 드러내어 떠벌인다면, 이는 자기의 단점으로 남의 단점을 공격하는 셈이다. 172
122. 음흉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말고, 무엄한 사람에게는 말을 건네지 마라. 173
123. 마음이 혼미 속에 빠져들거든 마음을 깨워 일으켜야 하고, 마음이 긴장되어 굳어 있거든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아야 한다. 174
124. 하늘이 노하여 천둥 벼락 치다가도 한번 지나가버린 뒤에 흔적이 없듯, 사람도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 담아 두어서는 안 된다. 175
125. 지식이란 인육의 마귀를 비쳐보는 밝은 구슬이요, 인내의 힘은 인육의 마귀를 배어 버리는 지혜의 칼이다. 177
126. 속임을 당하여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태연할 수 있는 가운데 무궁한 뜻이 있고, 또 무궁한 활동이 가능하다. 179
127. 인생의 역경과 곤궁은 값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불가마와 쇠망치와 같은 것이다. 180
128. 천지가 사시(四時)의 운행을 어김없이 하여 만물을 길러주듯, 사람도 희노애락의 정을 바르게 하여 만물의 생에 이바지함이 있어야 한다. 181
129. 남을 해치는 마음은 있어서 안 되지만 해악을 예방할 만한 마음은 있어야 하고, 차라리 속을지언정 남의 마음을 지나치게 넘겨짚는 버릇은 좋지 못하다. 183
130.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되 공론을 무시하지 말며, 사사로운 은혜로 큰 덩치를 손상지 말며, 공론을 빌어 사정을 쾌하게 마라. 184
131. 친하고 싶은 어진 이가 있거든 미리 그를 찬양하지 말고 버리고 싶은 악인이 있어도 미리 그 뜻을 말 내지 않는 것이 좋다. 185
132. 날빛 같이 빛나는 큰 절의는 구석진 곳에서 길러져 나오고, 천지를 굴릴 만한 큰 경륜은 지극히 세심한 데에서 우러나온다. 186
133. 자애와 효도와 우애와 공경의 아름다운 덕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있다면 이것은 남남끼리 은혜를 팔고 사는 장터와 다를 것이 없다. 187
134. 내가 유독 고운 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밟다 아니 할 것이다. 188
135. 변덕은 빈천한 사람보다 부귀한 사람이 더욱 심하고, 질투심은 모르는 사이보다 친한 사이에 더욱 심하다. 189
136. 공로와 과실은 조금이라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인인과 원수만은 너무 두드러지게 밝힐 것이 못 된다. 190
137. 작위도 너무 높이 오르면 위태롭고, 행실도 너무 높게 가지면 험뜯긴다. 191
138. 악은 숨어 있기를 싫어하며, 선은 드러나기를 싫어한다. 따라서 숨은 악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 숨은 선만큼 큰 공덕도 없다. 192
139.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노복이다.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으면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노복들만 일할 처리하는 것과 같다. 193

| | |
|--|-----|
| 140. 간악한 무리와 요행을 바라는 아침꾼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단 한 곳 도망할 길을 터놓고 몰아내어야 한다. | 194 |
| 141. 낯은 일은 내가 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양보한다. | 195 |
| 142. 물질로 남을 돕는 것만이 돕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어리석음에서, 심한 곤궁에서 풀려나게 한다면 이 또한 무한한 공덕이다. | 196 |
| 143. 굶주려 굶고 배고프면 돈 많은 사람에게 붙고, 배불리 아쉬움이 없으면 떨어져 뒤도 안 돌아보는 것이 세정이다. | 197 |
| 144. 사물을 보는 눈은 냉정해야 하고, 사물에 처하는 마음은 철석같이 굳어야 한다. | 198 |
| 145. 덕은 도량의 크기에 따라 쌓이고, 도량은 식전의 높이에 따라 넓어진다. | 199 |
| 146. 모든 소리가 다 잠든 한밤과 이른 새벽,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몸은 온전히 물욕과 정욕에 수감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 200 |
| 147. 반성은 덕을 길러주는 보약이요, 원망은 덕을 깎아 내리는 칼이다. | 202 |
| 148.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옮겨 가지만 사람의 기개(氣概)와 절조는 영원한 것으로 천 년이 하루같이 빛나는 것이다. | 203 |
| 149. 천지자연의 무궁한 조화 속에서 작은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믿고서 잔꾀를 부린단 말인가! | 204 |
| 150. 인간에게는 진정과 원활한 활동의 맛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세상을 자유로이 건널 수가 있다. | 206 |
| 151.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아 때와 먼지만 끼지 않으면 항상 맑고 밝다. | 207 |
| 152. 한 생각으로 인도(人道)를 등지게 되고, 한마디 말로 인화(人和)를 깨며, 한 가지 일로 자손에게 재앙을 물리게 되는 수가 있다. | 208 |
| 153. 성급하게 하는 일은 남의 노여움을 사기 쉽고, 사람을 가르치되 심하게 다잡으면 도리어 빗나가기 쉽다. | 209 |
| 154. 아무리 높은 절의(節義)요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덕으로써 닦여진 것이 아니면 한 점의 가치도 없다. | 210 |
| 155. 한창 인기 좋은 때 물러나고, 남보다 뒤만큼 몸을 둔다는 것은 인생에 다시 없는 처세술이다. | 211 |
| 156. 덕은 사소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쌓이고, 은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 의의가 있다. | 212 |
| 157. 도시 사람보다 산중 늙은이를 사귀는 것이 좋고, 남의 험담을 늘어놓기보다 옛 사람의 아름다운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 213 |
| 158. 모든 사업은 덕으로 기초공사를 닦은 위에 세우지 아니 하면 성공도 그 한 때 뿐이다. | 214 |
| 159. 변영의 뿌리는 올바른 정신이니, 이것을 심지 않고 자손의 변영을 기대할 수 없다. | 215 |
| 160. 진리의 터전은 자기에게 있으니 밖에서 구걸하지 말며, 자기에게 있는 재능만이 참이 아니니 자랑은 말라. | 216 |
| 161. 도(道)란 공공물이니 사람마다 이 길을 밟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요, 학문이란 가정에서의 끼니라, 누구든 배워서 실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218 |
| 162. 남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성실한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이다. | 220 |
| 163. 후덕한 마음은 만물을 생생하게 길러주는 봄바람이요, 모진 마음은 만물을 얼려 죽이는 북풍 찬바람이다. | 221 |
| 164. 선악 간에 자기가 뿌린 씨는 모르는 사이에 어김없이 열매 맺는다. | 222 |
| 165. 옛 벼에 대한 정은 더욱 새롭게 하고, 숨은 일일수록 명백하게 하며, 불쌍한 사람일수록 정중하게 대하여야 | |

| | |
|---|-----|
| 한다. | 223 |
| 166. 근면과 검소! 군자는 이것을 도덕을 실천하기 위한 표적으로 삼고, 소인은 이것을 사리사욕을 피하는 도구로 삼는다. | 224 |
| 167. 일을 착수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거듭하여 전진하는 수레바퀴가 되어야 한다. | 225 |
| 168. 남의 허물은 관대하고 자기의 허물에는 엄격하며, 자기의 공공은 무뎌도 참아나가되 다른 사람의 공공만은 차마 볼 수 없어야 한다. | 226 |
| 169. 뛰어난 사람이란 현실에 참여하면서 현실의 온갖 이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 227 |
| 170. 은혜는 옳은 데서부터 차츰 두텁게 주고, 위업은 엄격한 데서부터 차츰 관대하여야 한다. | 228 |
| 171. 마음을 비워두면 지선(至善)의 본성이 나타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 229 |
| 172. 남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호화로운 겉모양이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초라한 겉모양이다. | 231 |
| 173. 죽임을 가없이 여기고 삶을 즐겨워 하는 인애(仁愛)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다. | 233 |
| 174. 사람이 인욕을 버리고 인의예지의 타고난 도덕성을 극진하게 하면 마침내 하늘의 큰 덕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 234 |
| 175. 한가한 때일수록 초롱초롱한 정신을 가져야하고, 바쁜 때일수록 마음에 고요를 찾아야 한다. | 236 |
| 176. 이해에 대한 생각은 사전에 의논할 일이요, 일단 일을 착수한 이상은 아주 잊어버려야 한다. | 237 |
| 177. 군자는 몸가짐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며 마음가짐은 관대하게 하여 어떠한 소인에게도 욕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 238 |
| 178. 군자는 절의와 도덕과 학문을 다하되 온화한 기운으로 현실에 처하여 누구에게도 비방이나 허물을 사는 일이 없다. | 239 |
| 179. 사람은 다 선적(善的)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성으로 선도하면 어떠한 악인도 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 240 |
| 180. 자비심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일으키고, 결백한 마음은 맑고 향기로운 이름을 남긴다. | 242 |
| 181. 기괴한 행동은 재앙의 씨앗이요, 평범한 덕행은 화평(和平)의 근원이다. | 243 |
| 182. 험악한 인정(人情)과 불우한 세상에서 인생의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참을 내(耐)'자 한 글자다. | 244 |
| 183.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욕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체를 잃지 않는 데 있다. | 246 |
| 184. 바쁜 속에서 마음의 한가로움을 얻고, 시끄러운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있어야 사물에 걸릴 것이 없다. | 247 |
| 185. 자기의 본심을 어두워지지 않도록 닦으며, 남의 마음을 나를 위하여 다하게 하지 말며, 짐승을 부리되 가혹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 249 |
| 186. 공평과 청렴은 벼슬살이의 보배요, 관용과 검소는 살림살이의 보배다. | 251 |
| 187. 부귀한 때는 빈천한 처지의 아픔을 생각하고, 젊고 건강한 때는 늙고 병들 때의 쓰라림을 생각해야 한다. | 252 |
| 188. 몸가짐은 너무 회고 깨끗하게 해서는 안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선악을 너무 분명히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 253 |
| 189. 소인과 맞서지 말고, 군자에게 아첨하지 마라. | 254 |
| 190. 보통 사람의 욕심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이치를 고집하는 지식인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 | 255 |

| | |
|---|-----|
| 191. 수양은 식물이를 다루듯 단련에 단련을 거듭하고, 일은 무거운 화살을 놓듯 천만 번을 생각한 끝에 실행해 야 한다. | 256 |
| 192. 차라리 소인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좋아하는 처지가 되지 말고, 군자의 심한 꾸지람을 받을지언정 관용 받는 처지가 되지 마라. | 257 |
| 193. 도덕의 테두리 밖에서 자행하는 드러난 악행은 미치는 해독이 얇고, 도덕의 테두리 안에 숨어서 저지르는 악행은 미치는 해독이 깊다. | 258 |
| 194. 은혜는 커도 갚지 않으면서 원한만은 미미한 것인데도 갚고야 말며, 남 헐뜯는 말엔 덮어놓고 동조하면서 남 칭찬하는 말엔 끝없이 냉정하다. | 259 |
| 195. 참소하는 말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곧 걷히지만, 아첨꾼의 달콤한 말은 사람의 덕을 훔쳐내는 무서 운 적이다. | 260 |
| 196. 산이 너무 높으면 나무가 없고, 사람이 너무 고상하면 외롭다. | 261 |
| 197. 사업에 거듭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바르고 원만한 사람이고,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고집불통한 사람이다. | 262 |
| 198.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세속과 동떨어진 행위를 해도 안 된다. | 263 |
| 199. 해가 서산에 기울 즈음이면 저녁노을로 아름답게 장식하듯, 군자는 만년에 더욱 분발하여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막을 멋지게 장식해야 한다. | 264 |
| 200. 좋은 재주를 안으로 감추며 병든 듯 어리석은 듯 함은, 때가 오면 크게 부리기 위함이다. | 265 |
| 201. 검소의 미덕이 지나치면 더러운 구두쇠가 되고, 겸양의 덕이 지나치면 간소한 행동이 된다. | 266 |
| 202. 역경의 근심과 순경을 기뻐하지 말며, 오래 평안함을 믿지 말며, 처음 고생을 두려워 마라. | 267 |
| 203. 술잔치 잦은 집 치고 모범 가정이 없고, 이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높은 인사가 없고, 이름과 지위에 밝은 사 람치고 모범 관리가 없다. | 268 |
| 204. 보통 사람은 욕망의 충족을 즐거움으로 삼고, 통달한 사람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 269 |
| 205. 만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욕심을 삼가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고비에서의 경솔한 행 동을 삼가야 한다. | 270 |
| 206. 사람은 이지적인 차가운 눈이라야 시비선악에 대한 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다. | 272 |
| 207. 마음이 너덕하면 하는 일도 너덕하게 풀리고, 마음이 웅색하면 하는 일도 웅색하게 죄어든다. | 273 |
| 208. 남의 악한 소문에 얼른 동조하지 말며, 착한 소문에도 냉정하게 그 진실 여부를 살펴라. | 274 |
| 209. 성질이 조급하면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이 화평하면 일마다 순조롭다. | 275 |
| 210. 사람을 모질게 부리면 좋은 일꾼까지 떠나가고, 벼를 함부로 사귀면 아침까까지 모여든다. | 276 |
| 211. 아름다운 꽃을 만나거든 눈을 고상하게 뜨고, 위험한 곳을 만나거든 얼른 머리를 돌려라. | 277 |
| 212. 절의(節義)는 조화로써 분쟁의 길을 막고, 공명은 겸양의 덕으로써 질투의 문을 막아야 한다. | 278 |
| 213. 관직에 있을 때는 마음속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고, 물러가 고향에 있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어 준다. | 279 |
| 214. 덕망이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방자한 마음이 안생기고, 서민을 두려워하면 횡포한 마음이 없어진다. | 280 |
| 215. 역경에 허덕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이 태만해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한다. | 281 |

| | |
|---|-----|
| 216. 마음이 기쁘다고 기쁜 바람에 가벼이 일을 떠벌이지 말고 마음에 권태증이 난다고 하던 일을 중도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 282 |
| 217. 독서에는 문자를 읽지 말고 사상을 읽어야 하며, 사물을 관찰하는 데는 형상에 매이지 말고 실상(實相)을 파고들어야 한다. | 283 |
| 218. 현능한 사람이 되어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기는 커녕 놀려 보며, 부귀한 사람이 되어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기는 커녕 업신여긴다면, 이는 처벌을 받을 인생이다. | 285 |
| 219.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이 자연에서 노는 사람이라야 함께 학문도 논할 수 있고 공업(功業)도 세울 수 있다. | 287 |
| 220. 입은 마음의 문이요 의지는 마음의 발이다. 문 단속 발 단속을 엄밀히 함으로써 속마음을 지키며 그릇된 길을 비껴갈 수 있다. | 289 |
| 221.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앞으로 허물 없기를 일깨워 주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항상 허물이 있는가를 돌아본다. | 290 |
| 222. 오늘의 자제들은 내일의 어른이요, 오늘의 수재들은 내일의 일꾼이다. 충분히 단련하지 않으면 큰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 291 |
| 223. 군자가 근심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즐거운 처지요,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높고 귀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 없는 외로운 사람이다. | 292 |
| 224. 곱고 쉬 지는 것이 담박하면서 오래 가는 것만 못하고, 일찍 열매 맺는 것이 늦게 성취되는 것만 못하다. | 293 |
| 225. 사람은 때로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고, 인생의 참된 경계와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 | 295 |
| 226. 명리(名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명리에 대한 생각을 다 잊지는 못한 사람이다. | 296 |
| 227. 많은 재주를 지닌 것보다는 무능한 상태 그대로 주어진 참 마음을 온전하게 간직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다. | 297 |
| 228. 오색 아름다운 분단장은 덧없는 거짓 모습이요, 발가벗은 가을의 쓸쓸한 풍경이 바로 천지와 인생의 변함없는 참 모습이다. | 299 |
| 229. 세월은 본래 한없이 긴 것을 이욕에 쫓기는 사람들이 저 혼자 짧다 하고, 세상은 본래 끝없이 너른 것을 이욕을 쫓는 사람들이 저 혼자 좁다 한다. | 300 |
| 230. 아름다운 풍취는 주먹 돌 사이에서도 얻을 수 있고, 훌륭한 경치는 가난한 집 대나무 지붕 밑에서도 볼 수 있다. | 301 |
| 231. 인생은 꿈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꿈 가운데의 꿈이다. 고요한 밤 종소리를 들으면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 인생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302 |
| 232. 세소리, 별레소리는 다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요, 꽃잎 풀빛은 다 진리를 읽는 훌륭한 문장이다. | 303 |
| 233. 책을 읽되 천지만물의 글자 없는 책을 읽고, 거문고를 타되 천지자연의 줄 없는 거문고를 탈 줄 알아야 참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 305 |
| 234. 욕심 없는 마음은 가을 하늘과 맑게 개인 바다요, 내 옆에 거문고와 책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다. | 307 |
| 235. 술에 든 부귀영화는 한번 크게 취했다가 깨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와 슬픔뿐이다. | 308 |
| 236. 사물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면 앉아서 천화와 명승을 구경할 수 있고, 홍망성쇠의 이치를 간파하면 천고의 | |

| | |
|---|-----|
| 영웅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 | 310 |
| 237. 산화와 대지는 하나의 작은 티끌이요 인생은 티끌 속의 티끌이며 이 몸은 하나의 물거품과 그림자요 부귀 공명은 그림자 밖의 그림자다. | 311 |
| 238. 사람의 일생은 눈 깜짝할 사이의 부싯돌 불빛이요, 사람이 명리를 다투는 것은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 싸움 을 하는 것과 같다. | 312 |
| 239. 탐욕과 번뇌를 끊고 공(空)한 자리로 돌아가되, 제도중생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 공이어야 한다. | 314 |
| 240. 은퇴하고 싶을 때 그 즉시 은퇴하면 은퇴 할 수 있지만, 세속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끝내 은퇴하지 못 하고 만다. | 316 |
| 241. 사람은 냉정한 상태로 되돌아 온 뒤에야 한창 열을 내어 뛰어나니던 지나간 일이 부질 없는 일이었음을 느 우치게 된다. | 318 |
| 242. 부귀를 뜬 구름 보듯 하되 세속을 등져서는 안 되고, 산수(山水)를 아무리 좋아하되 산수병에 걸릴 만큼 극 단을 달려서는 안 된다. | 319 |
| 243. 세상 사람들이 부귀공명에 다 취해 있어도 나만은 혼자 깨어 대자유의 경계에서 놀리라. | 321 |
| 244. 마음이 한가로운 사람은 하루가 천 년이요 생각하는 것이 느르고 큰 사람은 말(斗)만한 방이 저 하늘만큼이 나 느르다. | 322 |
| 245. 날마다 사욕을 덜고 덜면 자연의 대도(大道)에 합하게 되고, 날마다 물욕을 잊고 잊으면 무아경(無我境)에 이르게 된다. | 323 |
| 246. 현실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는 곳 마다 신선의 경계요, 항상 부족에 걸근거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범 속의 세계다. | 325 |
| 247. 권세가에 붙어 살다 겪는 재앙은 더 없이 비참하고도 빠르며, 욕심 없는 경계의 한가로운 취미는 더없이 맑 고도 오래 간다. | 326 |
| 248. 소나무 시냇가를 거닐며, 대나무 창 아래 책을 베고 높이 누웠다. | 327 |
| 249. 질병을 생각하면 불같은 정욕이 싸늘한 재로 변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명리에 대한 욕망이 일시에 가신다. | 328 |
| 250. 앞을 다투면 길은 자연 좁아지고, 한 걸음을 사양하면 길은 그 만큼 느르고 평탄해진다. | 330 |
| 251. 한가할 때 마음을 잘 담아 두어야 바쁜 때 마음의 동요가 없고, 살았을 때 생사의 이치를 터득해 놓아야 고 요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할 수 있다. | 331 |
| 252. 은사(隱士)의 마음에 영예와 치욕이 따로 없고, 인의도덕에 인정의 덩고 찬 것이 없다. | 332 |
| 253. 가난이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가난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마음은 항상 안락한 속에 머물게 된다. | 333 |
| 254. 앞으로 나아갈 때는 뒤로 물러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일을 착수할 때는 손을 떼야 할 때를 미리 생 각해 두어야 한다. | 335 |
| 255. 탐욕이 많은 사람은 권문세가요 부호라도 항상 부족에 걸근거리며 구걸하기를 좋아하니, 이는 곧 돈 많은 걸인이요 가난뱅이다. | 336 |
| 256. 보잘것없는 이름을 자랑하며 뽐내는 것처럼 보기 딱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이름인데도 드러내기를 부끄 러이 여기는 만큼 흐릿한 일도 없다. | 338 |
| 257. 천지만물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무차별계(無差別界)에서 노는 사람에게는 고요와 시끄러움이 따로 없고 변 영과 쇠퇴가 따로 없다. | 339 |

| | |
|--|-----|
| 258. 하늘에 구름은 가나 오나 걸릴 것이 없고, 하늘에 달은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세상을 차별 없이 비취 준다. | 340 |
| 259. 인생의 진정한 맛은 부귀영화와 진하고 맛 좋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렴결백한 속에서의 풍족 먹고 찬 물 마시는 가운데 있다. | 341 |
| 260. 도(道)라고 하는 것은 배 고르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가운데 있다. | 342 |
| 261. 인생은 유심(有心)한 경계를 벗어나 산처럼 구름처럼 대자유의 무심한 경계로 들어가야 한다. | 344 |
| 262. 마음에 애착을 버리면 티끌 세상도 신선의 세계요, 마음에 애착을 끊지 못하면 즐거운 세상도 괴로운 바다 다. | 345 |
| 263. 사람은 항상 안으로 고요를 지켜 바깥 경계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함으로써 또렷한 기억력과 밝은 마음을 간 직할 수 있다. | 346 |
| 264. 갈대 이불 아래 구름에 잠잘지라도 순결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고, 맺인 잔에 달을 희롱하면 티끌을 벗어날 수 있다. | 347 |
| 265. 짙고 화려한 맛은 맑고 깨끗한 맛을 따를 수 없다. | 348 |
| 266. 티끌 세상에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 본연의 심성을 깨닫는 여기에 수양의 참 뜻이 있다. | 349 |
| 267. 몸과 마음을 항상 고요 속에 앉혀 두면 영예와 치욕, 시비와 이해, 그 무엇으로도 나를 그릇되게 하고 내 마 음을 어둡게 할 수 없다. | 351 |
| 268. 산 속에서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구름 속 별천지요, 글방에서 매미 소리 까마귀 소리를 들으 면 고요 속 별천지다. | 352 |
| 269. 영달을 바라지 않거니, 이록(利祿)의 미끼가 나와 무슨 상관이라 ! | 353 |
| 270. 군자가 때때로 산 속을 소요하고, 시와 책과 그림을 더붙어 노는 뜻은 그것들을 빌려서 中正(중정)한 마음을 기르기 위함이다. | 354 |
| 271. 사람의 정신을 나른하게 하는 화려한 봄날보다 사람의 정신을 속속들이 맑게 띄워 주는 사색의 가을이 훨씬 즐겁다. | 355 |
| 272. 시에는 문자보다 시적 정취(情趣)가 있어야 하고, 선(禪)에는 언어와 문자를 떠나 마음으로 주고 받는 선의 참 취미가 있어야 한다. | 356 |
| 273. 마음이 동요되어 있으면 보이는 것이 다 나를 해칠 무서운 것들이요, 마음이 깨닫고 보면 모두가 나의 벗이 요 흥겨운 음악소리다. | 357 |
| 274. 이 몸은 매인 곳 없는 배, 이 마음은 생기 없는 고목. 이래서 한 세상을 시비 떠나 살 수 있다. | 359 |
| 275. 모두가 천부한 재주를 다 하는 것이어니, 피꼬리 소리라고 즐거울 것이 없고, 개구리 소리라고 듣기 싫을 것 이 없다. | 360 |
| 276. 이 몸은 잠시와 머물렀다 가야 할 환영과 같은 거짓 몸이나, 이 속에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성(眞性)의 절대 한 진리가 있다. | 361 |
| 277.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모진 더위 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듯, 시끄러운 장바닥에서도 시끄러운 줄을 모른 다. | 363 |
| 278. 부귀하고 근심 많은 것이 빈천하고 근심 없는 것보다 못하다. | 364 |
| 279. 새벽 창 아래서 주역(周易)을 읽고, 한낮엔 벼들과 불경을 이야기하며, 대숲 사이 맑은 바람 뚫고 오는 경쇠 소리에 마음을 씻는다. | 365 |

| | |
|---|-----|
| 280. 새들이 아무리 즐겁게 노래하여도 장 속에 갇혀 타고난 본성을 묶이게 되면 천연의 멋은 점차 사라진다. | 366 |
| 281. 우주만물은 본래 무차별한 것을 사람이 공연히 '나'라는 거짓 형체에 집착하여 스스로 차별을 짓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 367 |
| 282. 늙었다 생각하고 젊은 때의 나를 돌아보고 영락하였다 생각하고 번영하던 때의 나를 바라보면 불타던 욕망도 사치스런 생각들도 일시에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 369 |
| 283. 옛날에 내 것이라고 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바뀌어 저 사람의 것이 되니, 알 수 없구나! 오늘의 내 것이 또 뒤에 올 그 누구의 것이 될지! | 370 |
| 284. 시끄러운 속에서는 냉정한 눈을 부쳐 생각을 간추리고, 심한 곤궁 속에서는 한 마음 뜨거운 열을 올려 맹렬하게 떨치고 일어난다. | 371 |
| 285. 즐거움이 있으면 즐겁지 않은 것이 있으니, 차라리 즐거울 것도 즐겁지 않을 것도 없는 평범한 경지가 가장 안락한 집이다. | 372 |
| 286. 천지자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며 고요히 그 의미를 읽어나가면 나를 잊는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 373 |
| 287.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도(正道)를 따라 힘껏 노력하고 천명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따름이다. | 374 |
| 288. 달 그림자 연못을 뚫고 들어도 연못에는 사람이 어찌 그림자 같은 부귀공명에 매달려 제 갈 길을 잊는가! | 375 |
| 289. 솔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는 천지자연의 음악이요, 풀 속의 안개 빛, 물 속의 구름 그림자는 천지자연의 최상의 문장이다. | 377 |
| 290. 사나운 짐승은 복종시킬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행복 받기 어렵고, 깊은 골짜기는 가득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다 채우기 어렵다. | 378 |
| 291. 마음자리가 고요하면 가는 곳마다 녹수청산이요,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나 道(도)를 걸길 수 있다. | 380 |
| 292. 고관대작과 부호도 때로는 자연의 그 한적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여전히 부귀공명을 두고 무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 381 |
| 293. 물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이 있는 줄을 잊기에 더욱 자유롭고, 바람 타고 나는 새는 바람 있는 줄을 모르기에 더욱 자유롭다. | 383 |
| 294. 홍망성쇠의 덧없음을 생각하면, 그렇게도 불타던 부귀공명에 대한 생각이 식은 재처럼 느껴진다. | 384 |
| 295. 이 세상에 불나비 아닌 사람 몇이나 되며, 올빼미 아닌 사람 그 몇이라! | 385 |
| 296. 배는 물을 건네기 위한 도구요, 불경이란 불도를 얻기 위한 배다. 일단 불도를 얻었으면 불경은 곧 놓아야 한다. | 386 |
| 297. 욕심 없는 마음, 냉정한 마음으로 만사에 당하면 부귀공명도 시비도 다 끓는 물에 녹는 듯하다. | 388 |
| 298. 사람은 마땅히 슬퍼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마땅히 즐거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한다. | 389 |
| 299. 한 조각 달빛을 받은 맑은 물처럼, 내 마음만 밝고 깨끗하다면 그 어느 것도 내게 방해될 것이 없다. | 390 |
| 300. 사상(詩想)과 소박한 멋은 자연의 풍경에서 우러난다. | 391 |
| 301. 오래 었드렸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 392 |
| 302. 인생의 마지막 관 뚜껑을 닫을 무렵에야 사는 동안 붙들고 목숨을 떨던 것들이 다 쓸 때 없음을 알게 된다. | 393 |

| | |
|---|-----|
| 303.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간과 출세간(出世間)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공부에 있다. | 394 |
| 304. 임금이 나라와 부강을 위하여 마음을 수고롭게 하나 거지가 밤을 벌기 위하여 목소리를 수고롭게 하나 수고 롭기는 한 가지다. | 396 |
| 305. 세상 인정을 골고루 맛보고 안 사람은 남이야 나를 소 같다고 해도 끄덕, 말 같다고 해도 끄덕, 도무지 마음 을 쓰지 않는다. | 397 |
| 306. 무념(無念)의 경지를 얻는 방법: 과거와 미래의 일에 생각을 매어두지 말고, 오직 오늘을 중심으로 그날 하 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낸다. | 398 |
| 307. 마음은 우연히 맞는 것이라야 더욱 아름답고, 바람은 절로 부는 바람이라야 더욱 맑고 시원하다. | 399 |
| 308. 자기 본래의 심성(心性)이 맑지 못하면 참선(參禪)도 불경도 소용이 없다. | 400 |
| 309. 모든 생각을 잊고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본래의 참된 경계에서 소요할 수 있다. | 401 |
| 310. 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나오며 진리는 덧 없는 환상 속에 들어 있다. | 402 |
| 311. 속된 눈으로 보면 만물은 모두가 각각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없으나, 도의 눈으로 보면 만물은 본래 평등무 차별한 것이요, 영원히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 403 |
| 312. 천지의 조화로운 기운은 움집 속에서도 기를 수 있고, 인생의 참맛은 명아주국에서도 맛볼 수 있다. | 404 |
| 313. 본래의 참 마음을 깨달으면 티끌 경계가 참된 경계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신선한 중의 집도 속된 집이다. | 405 |
| 314. 온갖 근심·생각 다 끊어 버리면, 오두막집 골방 속이 그대로 고대광실 높고 화려한 집이다. | 407 |
| 315. 인간의 본성은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고 활동적인 정신은 사물에 부딪칠적마다 어김없이 나타난다. | 408 |
| 316.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연스러운 가운데 마음의 고삐를 풀어 놓기도 하고 거 두어 잡기도 한다. | 409 |
| 317. 천지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 여기에는 거리가 없고 사이가 없다. | 411 |
| 318. 문장과 도덕은 기교보다는 졸(拙)한 듯 수수한 데에서 더욱 나아가고, 멋은 공교로움보다 순박하고 자연한 멋이 으뜸이다. | 412 |
| 319. 바깥 사물을 마음대로 굴러 나가는 사람은 천지가 그대로 자기의 소요할 땅이니 좋은 일 것은 일이 따로 없 다. | 413 |
| 320. 현상과 본체는 형체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 414 |
| 321. 산 속에 숨어사는 사람의 최상의 즐거움은 대자유를 누리며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 | 415 |
| 322. 나 나기 이전의 내 꼴을 생각하고 나 죽은 뒤의 내 모양을 생각해 보면 천만 가지 망령된 생각들이 일시에 씨늘한 재가 된다. | 417 |
| 323. 병이 든 뒤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알고, 난리가 난 뒤에야 평화로운 때의 행복함을 생각하는 것은 일찍 안 것 이 아니다. | 418 |
| 324. 곱고 미운 것, 이기고 지는 것은 꿈 같은 인생의 꿈 속의 작란이다. | 419 |
| 325.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주인이 따로 없다. 오직 마음 고요하고 한가로운 사람만이 그 주인이요, 가지고 놀 권리가 있다. | 420 |
| 326. 타고난 본성의 순박함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인생 제일의 경계다. | 421 |
| 327. 사람의 본성은 본래 망령된 생각이 없으니 마음이 있는 줄 조작 잊어야 하며, 만물은 본래 하나이니 하나요 둘이요 생각을 말아야 한다. | 422 |

| | |
|---|-----|
| 328. 아무리 즐거워도 알맞게 마시고 알맞게 즐기며 그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서둘러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 424 |
| 329. 마음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았거든 산 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고, 마음이 확고하게 잡혔거든 풍진 세상에 나와 원만한 활동력을 길러야 한다. | 425 |
| 330. 고요함과 시끄러움,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동정(動靜)이 하나인 자유로운 활동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 | 426 |
| 331. 산에서 살아 가슴속이 맑고 시원하면 보는 것마다 아름다운 생각이요, 풍진에 몸담아 티끌에 굴리면 쓸모 없는 물건으로 떨어진다. | 427 |
| 332. 내 마을 무심하여 자연과 하나일 때, 들새도 흰 구름도 내게 와 멈춘다. | 428 |
| 333.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으로 지어 내는 것, 한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뜨거운 불꽃 속도 서늘한 연못이다. | 429 |
| 334. 물방울이 돌을 뚫어내듯 그렇게 공부하고, 외가 익을 대로 익어 저절로 꼭지가 빠지듯 그렇게 노력하며 때를 기다린다. | 431 |
| 335. 마음만 맑고 고요하다면 괴롭고 즐거운 곳이 따로 없고 시끄럽고 조용한 것이 따로 없다. | 432 |
| 336. 천지의 진정한 뜻은 만물을 오로지 끊임없이 생생발전하게 하는 데 있다. | 433 |
| 337. 비 갠 뒤의 산 경치는 더욱 새롭고, 고요한 밤 종소리는 더욱 맑고 드높다. | 434 |
| 338. 산은 사람의 마음을 넓혀 주고, 강물은 사람의 뜻을 깊고 멀게 한다. | 435 |
| 339. 마음이 넓으면 막대한 녹봉도 값 싼 오지그릇이요, 마음이 좁으면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큰 이익으로 보인다. | 436 |
| 340. 내가 물욕에 사역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을 마음대로 부린다면, 인간의 정욕과 기호(嗜好)도 다 본성의 작용으로 진리인 것이다. | 437 |
| 341. 자기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만물을 그대로 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각기 주어진 천연의 성(性)을 다하게 한다. | 439 |
| 342. 한가한 때에는 망령된 생각을 근심하고 바쁜 때에는 참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근심한다. | 440 |
| 343. 마음이 맑고 고요하다면 가는 곳마다 참된 경계요, 보고 듣는 것마다 참된 활동이다. | 441 |
| 344. 근심 없는 기쁨이 없고 기쁨 없는 근심이 없다. 그러므로 통달한 사람은 기쁨과 근심을 하나로 보고 둘 다 잇는다. | 442 |
| 345. 받는 마음은 연못 물이 달빛을 받듯 집착이 없고, 주는 마음은 달이 연못에 빛을 던져 주듯 무심해야 무아경에 노닐 수 있다. | 444 |
| 346. 이 세상은 티끌 세상도 아니요 괴로운 바다도 아니다. 사람들이 공연히 제 마음으로 티끌을 짓고 괴워하는 것뿐이다. | 445 |
| 347. 달도 차면 기우느니 꽃은 반쯤 핀 것이 아름답고, 술은 거나할 만큼 마시는 것이 기분이 좋다. | 446 |
| 348. 산에서 나는 식물, 들에서 자라는 날짐승들은 세간의 양육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맛이 더욱 향기롭고 독특하다. | 447 |
| 349. 좋은 광장을 앞에 놓고 한자 구경하고 노는 데에만 그쳐 마음에 조금도 깨달아 얻는 것이 없다면 이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 | 448 |
| 350. 이익의 구렁에 빠지느니보다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안은 채 죽음의 구렁에 빠지는 편이 마음 편하다. | 450 |
| 351. 분수 밖의 복과 이유 없는 이득은 조물주와 낚시미끼가 아니면 인간 세상이 파놓은 함정이다. | 451 |

| | |
|--|-----|
| 352. 인생은 꼭두각시 놀음터! 그러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운전해 나갈 마음의 고삐를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 452 |
| 353. 한 가지 일에는 반드시 한 가지 손해 될 일이 뒤따른다. 다만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453 |
| 354. 사원(寺院)이란 본래 음란하고 그릇된 사람들이 모이는 숲속이 아니다. | 455 |
| 355. 군자는 마음을 항상 일 밖에 두고, 내가 남을 보고 비평하듯 자기 자신의 잘 잘못을 냉정한 눈으로 관찰한다. | 456 |
| 356. 날마다 한 가지 일이라도 털어서 일을 적게 한다면 털어낸 만큼 속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 458 |
| 357. 사람이 차고 더운 마음의 번덕을 없애버리면 가슴 속 가득히 화한 기운이라, 가는 곳마다 봄바람이 인다. | 460 |
| 358. 사람은 모든 기욕(嗜欲)에서 벗어남으로써 항상 만족에서 머무르며, 인생의 보다 높은 진정한 맛을 얻을 수 있다. | 461 |
| 359. 불가(佛家)의 인연 따라 처신하는 일과 유가(儒家)의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는 험한 세상 바다를 건너는 부낭이다. | 462 |

상권

1. 인간이 가장 고귀한 것은 죽은 뒤의 이름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덕에 살고 도덕에 죽는 사람은 비록 쓸쓸한 생애를 보내기 쉬우나 그것은 한때에 불과하고 권세에 붙좃아 아부하는 사람은 한생전 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만 죽은 뒤엔 아무도 그를 생각하는 이 없으리니 만고에 처량하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達人)은 눈앞의 부귀영화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영구한 도덕에 뜻을 모으며 죽은 뒤의 이름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깨끗한 이름을 위하여 말없이 도덕을 지키며 한때의 쓸쓸한 생애를 보낼 망정 권세에 아부하다가 이름을 더럽히어 만고에 처량한 신세가 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다.

棲守道德者는 寂寞一時하고 依阿權勢者는 淒涼萬古하나니 達人은 觀物外之物하고 思身後之身하야 寧受一時之寂寞이언정 毋取萬古之淒涼이니라.

도덕에 몸담아 지켜나가는 사람은 한때에 적막하고, 권勢(권세)에 의지하여 아부하는 사람은 萬古(만고)에 처량하다. 통달한 사람은 物(물) 밖의 物을 보고 몸 뒤의 몸을 생각하여서 차라리 한때의 적막을 받을지언정 萬古에 淒涼(처량)함을 취하는 일이 없다.

• 物外之物(물외지물): 道德(도덕).

• 身後之身(신후지신): 죽은 뒤의 깨끗한 이름.

2. 사람을 보는 데는 세련된 겉모양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중요하다.

인간의 본성은 진실 그대로이나 세간의 온갖 經難(경난),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는다.

사람이 한 세상 태어나서 순풍에 돛을 단 듯 별로 모진 시련을 모르고 걸어가게 되면 세속의 악습에 물들어지는 것도 그만큼 적다. 그러나 모진 시련에 이 일 저 일 지나온 경력이 잡다하면 그에 따라 사람의 지혜가 간교한 데 흘러 권모와 술수에 뛰어나게 되고, 사람됨도 세련되어 겉으로 꼭 짜여 빈틈이 없다.

권모와 술수는 인간의 진실성을 몰아내고 지나친 세련은 인간의 허식을 낳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너무 세련되어 통달하기보다 차라리 소박하고 어수룩한 편이 좋다. 또 예의에 합하다면 이 위에 더할 것이 있으리요 마는, 이 또한 지나친 것일 바엔 예의에 오히려 서툰 편이 낫다.

涉世淺하면 默染도 亦淺하고 歷事深하면 機械도 亦深하나니 故로 君子는 與其 達練은 不若朴魯요 與其曲謹은 不若疎狂이니라.

세상살이에 경험이 얕으면惡의 물들임도 또한 얕고, 일의 경력이 깊으면 잔꾀도 그만큼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너무 단련되어 通達(통달)하기보다는 質朴(질박)하고 魯頓(노둔)한 편이 낫고,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謹直(근직)하기보다는 예의에 서툰 듯한 편이 낫다.

-
- 默染(점염): 세속의 惡習(악습)에 물들어지는 것.
 - 機械(기계): 남을 속이려는 잔 꾀. 權謀(권모)와 術數(술수).
 - 曲謹(곡근): 지나치게 공손하고 謹直(근직)한 것. '過恭(과공)은 非禮(비례)'라는 말이 있다.
 - 疎狂(소광): 조심성이 없고 常規(상규)에 벗어나는 것.

3. 마음은 밝은 태양처럼 활짝 드러내고, 본능은 주옥처럼 깊이 감추어야 한다.

군자의 마음가짐은 푸른 하늘 밝은 태양처럼 겉과 속이 하나같이 티 없이 맑고 희어 누구든 미더운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자의 재능은 진주와 구슬을 비단보에 싸고 또 싸듯 깊이 감추어 누구든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여야 더욱 귀한 것이다.

君子之心事는 天靑日白하야 不可使人不知요 君子之才華는 玉離珠藏하야 不可使人易知니라.

군자의 心事는 하늘이 푸르고 태양이 밝은 것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군자의 재능은 玉이 싸여 있고 구슬이 감추어져 있듯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최고의 결백은 악조건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권세와 명리와 분쟁과 사치 따위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더욱 깨끗한 것은 여기에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것이다.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것은 수양의 극치다.

또 지략과 잔피와 교묘한 솜씨 따위는 모르는 것이 고상하다. 그러나 더욱 고상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 부리지 않는 것은 도덕적 최고정신이다.

勢利紛華는 不近者爲潔이요 近之而不染者爲尤潔하며
智械機巧는 不知者爲高요 知之而不用者爲尤高니라.

權勢(권세)와 名利(명리)와 紛爭(분쟁)과 奢侈(사치) 등은 가까이하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 하고, 여기에 가까이 하되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더욱 깨끗하다고 한다. 智略(지략)과 잔피와 교묘한 솜씨 등은 모르는 것을高尚하다고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되 쓰지 아니하는 것을 더욱高尚하다고 한다.

5. 귀에 거슬리는 바른 말은 몸과 마음을 닦는 숫돌이다.

사람은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반성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에 거슬리는 말과 마음에 어긋나는 일은 덕을 쌓고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되는 것이다.

만일 들리는 말마다 듣기 좋은 말이요, 하는 일마다 만족을 가져오게 된다면 숫돌이 없으니 무엇으로 마음의 녹을 닦고 몸의 때를 벗기랴! 조금도 나아감이 없는 삶은 전연 무가치한 것이다. 이것이 自己의 一生을 스스로 독약 속에 묻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耳中에 常聞逆耳之言 하고 心中에 常有拂心之事하야 纔是進德修行的砥石이니 若言言悅耳하고 事事快心이면 便把此生하야 埋在鴆毒中矣니라.

귓속에서는 항상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 속에는 항상 마음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야 겨우 이것이 덕을 쌓고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되는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면 문득 이 생명을 잡아 鴆毒(짐독)속에 묻어두는 것이 된다.

• 鴆毒(짐독): 짐새는 毒鳥로서, 鴆毒이란 짐새의 깃에 있는 毒, 곧 毒藥(독약).

6. 조화로운 기운, 즐거운 마음은 그의 인생을 즐겁게 한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소나기 쏟아지는 험한 날씨엔 날짐승도 깃을 접고 서글픔에 젖는다. 그러나 맑은 바람 가볍게 불어오는 화창한 날씨엔 초목도 기쁨에 겨운 듯 흡족한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천지간에는 하루라도 조화로운 기운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네 인간은 하루라도 명랑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찌푸린 날씨처럼 우울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인생은 온통 서글픔에 젖게 되고, 화창한 날씨처럼 조화로운 기운,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인생은 마냥 즐거운 것이다.

疾風怒雨엔 禽鳥戚戚하고 靈日光風엔 草木欣欣하나니 可見天地에 不可一日無和氣요 人心에 不可一日無喜神이니라.

사나운 바람에 소나기 쏟아지면 날짐승도 두려워 근심하고, 활짝 개인 날 맑은 바람 불어오면 草木도 가득히 기쁨을 머금는다. 여기서 넉넉히 天地에는 하루도 和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루도 기꺼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喜神(희신): 神은 心, 곧 기뻐하는 마음. 明朗(명랑)한 마음.

7. 최고의 도덕가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겉쫘한 술과 살찐 고기와 山椒(산초), 胡椒(호초)와 같은 매운 맛 그리고 사탕과 같은 달콤한 맛 등은 다 각기 독특한 맛을 지닌 것으로서 사람이 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맛을 지닌 것은 다 참 맛이 아니다. 참 맛은 오직 물 맛 밥맛처럼 이렇다 할 맛이 없는 싱거운 맛일 뿐이다. 그것은 늘 먹어도 물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기한 일,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도덕의 최고경계에 도달한 사람(至人)일 수 없는 것이다. 최고의 도덕가는 별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다만,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이 도덕의지의 필요 없이 자연 그대로 인도에 합할 따름이다.

醯肥辛甘이 非眞味요 眞味는 只是淡이니라. 神奇卓異는 非至人이요 至人은 只是常이니라.

겉쫘한 술과 살찐 고기와 매운 맛 단맛 등은 참맛이 아니다. 참맛은 오직 淡淡(담담)한 맛 뿐이다. 神奇(신기)하고 보통과 뛰어나게 다른 사람이 至人(지인)이 아니다. 至人은 다만 平凡한 사람일 따름이다.

• 至人: 道德의 最高境界(최고경계)에 도달한 사람. 곧 最高의 道德家.

8. 한가로운 때엔 긴장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바쁜 때엔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늘과 땅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그 가운데 만물을 생성화육하는 대활동은 잠시도 쉬지 않고 또 멈추는 일이 없다. 또 해와 달은 밤낮 없이 달린다. 그러나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는 그 가운데 바르고 고요한 광명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네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함이 있는 저 천지의 대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군자는 일 없이 한가한 때에도 바쁜 때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또 일이 바쁘면 바쁜 그 가운데 한가로운 취미, 곧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天地는 寂然不動하되 而氣機는 無息小停하며 日月은 晝夜奔馳하되 而貞明은 萬古不易이니라. 故로 君子는 閑時에 要有喫緊의 心思하며 忙處에 要有悠閒의 趣味니라.

하늘과 땅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그 기운과 활동은 잠시도 쉬거나 멈추는 일이 없고, 해와 달은 밤낮을 두고 달리나 바른 光明은 만고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로운 때에 매우 긴요한 때의 마음가짐을 요하고, 바쁜 곳에 한가로운 趣味(취미) 갖기를 요한다.

-
- 氣機(기기): 氣는 天地陰陽(천지음양)의 氣요, 機는 그 作用으로서, 아울러 天地의 活動을 의미한다. 곧 陰과 陽이 번갈아 往來하며 萬物을 끊임없이 生成化育(생성화육)함을 말한다.
 - 貞明(정명): 貞은 바르고 변함이 없다는 뜻, 곧 永遠不變(영원불변)의 光明(광명).

9.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밤은 자기 본연의 참 마음을 관찰하여 밝히는 가장 중요한 때다.

만물이 잠든 고요한 방에 혼자 앉아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제야 비로소 온갖 망령된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인간 본연의 참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된다. 욕심 경계가 안으로 들어와 본연의 참 마음을 가렸던 것이 이제 고요한 맘 기운에 깨끗이 벗겨진 것이다. 이때 이 속에서는 일대 숙청작업이 벌어진다. 참 마음의 中正(중정)한 빛이 모든 사념을 골고루 비추어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소아에서 대인으로 한발 한발 착실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참 마음의 중정한 빛으로도 사념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안으로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리라. 사람은 또 반드시 부끄러워 할 줄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 하는 마음은 곧 자기 반성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어쨌건, 고요한 밤이면 본연의 참 마음을 불러 이것이 혹 사념에 둘러 싸여 본래의 빛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자주 돌아보고 일깨워야 할 것이다.

夜深人靜에 獨坐觀心하면 始覺妄窮而眞獨露라 每於此中에 得大機趣하나니 既覺眞現而妄難逃면 又於此中에 得大慚忸하니라.

밤이 깊어 사람 소리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망령된 생각들이 다하고 참된 생각이 홀로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매양 이러한 속에서 一大作用을 일으키게 된다. 이미 참된 생각이 나타났는데도 망령된 생각을 제거하기 어려움을 깨닫게 되면, 또다시 이러한 속에서 큰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 大機趣(대기취): 큰 作用. 곧 '眞(진)'이 '妄(망)'에 대한 一大 肅清作業(숙청작업)을 뜻한다. 이것은 곧 內省的(내성적) 自己修養(자기수양)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10. 득의한 때일수록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실패한 때일수록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예나 이제나 윗사람이 두터운 은총을 입어 한창 득의한 때가 바로 재해를 입기 쉬운 가장 위험한 때이다. 그러므로 뜻을 얻어 영달한 때일수록 한시 바빠 머리를 돌려, 행여 자신이 너무 오만하지 않은가, 또 행여 남의 말을 널리 받아들일 도량이 모자라지나 않은가, 깊이 반성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은 칠전팔기하는 곧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나는 꾸준한 진취력을 가져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요, 또 많은 실패는 그만큼 큰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번 실패하였다 하여 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이에 실의에 빠져 성급하게 하던 일을 집어치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恩裡엔 由來生害라 故로 快意時엔 須早回頭하고 敗後엔 或反成功이라 故로 拂心處엔 莫便放手하라.

恩惠(은혜)속에 예부터 害(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得意(득의)한 때에 모름지기 일찍이 머리를 돌려야 한다. 실패한 뒤에 혹 도리어 成功(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뜻대로 안 되는 곳에서 문득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11. 명아주국, 비름나물 속에 마음이 맑아지고, 화려한 의복, 맛있는 음식 속에 절조는 사라진다.

명아주 잎이나 비름나물과 같은 험한 음식으로 창자를 채우는 빈천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거의 얼음 같이 맑고 옥 같이 깨끗하다. 그 속에는 명리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화려한 의복에 좋은 음식을 먹는 부귀한 사람들 가운데는 굽실거리기는 계집종이나 아첨하는 낮빛으로 따르는 사내종처럼 남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자신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예사로이 여기는 실로 한심한 사람들이 많다. 화려한 의복과 좋은 음식 가운데는 명리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없는 깨끗한 데에서 맑아지고, 사람의 절조는 기름진 고기 맛 좋은 음식을 먹는 부귀한 가운데서 사라진다.

藜口莧腸者は 多永清玉潔하고 衰衣玉食者は 甘婢膝奴顏하나니 蓋志以擔泊明하고 而節從肥甘 喪也니라.

명아주 잎을 먹고 비름나물로 창자를 채우는 사람은 얼음 같이 맑고 옥 같이 깨끗한 이가 많은데 곤룡포를 입고 옥 같이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계집종이 무릎을 꿇고 사내종이 아첨하는 낮빛을 짓는 것을 달게 여긴다. 대개 뜻은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써 맑아지고, 節操(절조)는 달고 기름진 데에서 상실된다.

12. 살아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사상을 남기도록 한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은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 누구든 차별 없이 받아들이기 만한 넓은 도량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평하는 소리가 전혀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뒤에 남길 은혜와 덕택은 일시적인 짧은 것이어서는 가치가 없다. 그것은 후세에 전하여져 그들로 하여금 길이길이 칭송하여 마지 않도록 하는, 지극한 은혜, 영원한 은혜라야 하는 것이다.

面^면前^전의田^전地^지는 要^요放^방得^득寬^관하야 使^시人^인無^무不^불平^평之^지歎^탄하며 身^신後^후의惠^혜澤^택은 要^요流^류得^득久^구하야 使^시人^인有^유不^불匱^궁之^지思^사하니라.

남이 보는 앞에서의 마음자리는 開放(개방)하고 너그럽이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不平(불평)의 탄식소리가 없도록 할 것을 要하고, 죽은 뒤의 은혜와 덕택은 흘러서 永久(영구)토록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다함이 없는 생각을 지니도록 할 것을 要한다.

• 面^면前^전의田^전地^지(면전전지): ‘面^면前^전’은 서로 보는 앞. 곧 산 동안의 一時的인 것을 뜻하고, ‘田^전地^지’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心^심田^전, 心^심地^지와 같다.

• 不^불匱^궁之^지思^사(불궤지사): 다함이 없는 생각. 후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길이길이 그 은혜를 칭송하여 마지 않는 것. 곧 지극한 은혜요, 영원한 은혜다.

13. 겸양의 덕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산 비탈 좁은 길에서 행인을 만났을 때,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을 먼저 보내주고 가는 것은 겸양의 덕이다.

또 자양분이 많고 맛이 썩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삼분 쯤 덜어서 즐겨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한 겸양의 덕이다.

이 겸양의 덕은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徑路窄處엔 留一步하야 與人行하며 滋味濃的은 減三分하야 讓人嗜하라. 此是 涉世의 一極安樂法 이니라.

길 좁은 곳에서는 한 걸음 멈추어 다른 行人에게 길을 비켜 주고, 자양분이 많고 맛이 썩 좋은 음식은 三分을 덜어서 남이 즐기는 데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하나의 지극히 安樂(안락)한 방법이다.

14. 큰 사업을 이룬 것은 없어도 명리(名利)의 속된 욕정에서 벗어나면 그가 곧 명사(名士)요, 성인이다.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높고 원대한 사업을 이루어야만 명사에 드는 것은 아니다. 명리의 속된 욕정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가 곧 名士인 것이다.

성인도 마찬가지다. 학문을 하여서 반드시 많은 것을 알고 또 새로운 철학을 낳는다고 하여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욕심 세계의 온갖 고뇌에서 자신을 건져 낼 수 있는, 곧 외물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인의 영역에 든 사람이다.

作人이 無甚高遠事業이라도 擺脫得俗情하면 便入名流요 爲學이 無甚增益工夫라도 減除得物累하면 便超聖境이니라.

사람이 되어서 심히 高遠(고원)한 事業(사업)은 없다 할지라도 俗(속)된 欲情(욕정)에서 벗어남을 얻는다면 문득 名士들 가운데 들 것이요, 학문을 함이 심히 增益(증익)할 만한 工夫는 없다 할지라도 物累(물루)를 제거할 수 있다면 곧 聖人(성인)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
- 物累(물루):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世俗의 온갖 苦悶(고민).

15. 벼를 사귀는 데는 의협심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되어서는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벼를 사귀는 데는 반드시 타산적이어서는 안 된다. 선을 도우며 악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협심을 지녀, 심신을 오로지 의에 따라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

또 사람이 되어서는 세속의 어떠한 더러운 손길에도 때 묻지 않을 한 점의 순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기가 타고난 도덕심을 스스로 잘 지켜 인간 완성에로의 길을 닦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交友엔 須帶三分俠氣하고 作人엔 要存一點素心이니라.

벼를 사귀는 데는 모름지기 三分의 義俠心(의협심)을 띠어야 하고, 사람이 되어서는 한 점의 純潔(순결)한 마음을 지닐 것을 요한다.

16. 총애와 이익은 남보다 뒤지는 것이 좋고, 덕행과 공업은 남보다 앞설수록 좋다.

총애와 이익에 관한 일은 남보다 먼저 얻으려 앞서지 마라.

덕행과 공업에 있어서는 남보다 앞설수록 좋으니, 있는 힘을 다하여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남에게서 받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분수 밖의 것을 넘겨보지 마라.

학문의 수행과 도덕적 실천에 있어서는 인력의 극한을 다하여라.

寵利는 毋居人前하며 德業은 毋落人後하며 受享은 毋分外하며 修爲는 毋減分中하라.

寵愛(총애)와 利益(이익)에 있어서는 남보다 앞서 있지 말고, 德行(덕행)과 功業(공업)은 남보다 뒤떨어지지 말며, 받는 것은 분수 밖을 넘지 말고, 修行(수행)과 實踐(실천)은 分限(분한) 가운데서 덜지 말라.

17.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곧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요, 남을 이익 되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이익 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한 걸음을 양보하는 정신이 으뜸이다. 한 걸음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곧 한 걸음 나아가는 장본이요, 또 그것은 자기의 인격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데는 관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남을 관대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자기의 행복을 불러오는 것이다. 내가 남을 이롭게 하면 남도 나를 이롭게 할 것이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處世엔 讓一步爲高니 退步는 卽進歩의 張本이요 待人엔 寬一分이 是福이니 利人은 實利己의 根基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한 걸음을 양보하는 것이 높은 것이 되니,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곧 한 걸음을 나아가는 張本(장본)이다. 사람을 대우하는 데는 한 분을 너그러이 하는 것이 복이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실은 나를 이롭게 하는 터전이다.

18. 자랑할 긍(矜) 자는 큰 공을 무색하게 하고, 뉘우칠 회(悔) 자는 큰 죄를 녹여버린다.

아무리 큰 공로라 하더라도 한낱 ‘자랑할 긍’자를 당해내지는 못한다. 자랑하고 뽐내면 그 공로는 그만 빛을 잃고 마는 것이다.

또 아무리 큰 죄과라 하더라도 한낱 ‘뉘우칠 회’자를 당하지는 못한다. 스스로 지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과는 눈 녹듯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蓋世功勞라도 當不得一個矜字요 彌天罪過라도 當不得一個悔字니라.

세상을 뒤덮을 만한 功勞(공로)라도 한낱 자랑할 矜(긍) 字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 가득 찬 죄악이라도 한낱 뉘우칠 悔(회) 字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19. 좋은 이름은 남에게 돌리고, 나쁜 이름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한다.

티 한점 없는 완전한 명예라던가 훌륭한 공로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기 혼자 독점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만일 이것을 독점하려 든다면 사방에서 원망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일어나 결국 내 몸에게도 화가 미치게 된다. 아름다운 명예와 공로는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과 기쁨을 함께 함으로써 모처럼의 덕에 흠이 가지 아니하며, 또 내 몸을 보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욕된 행위와 더러운 이름은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만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 허물 가운데 얼마쯤은 자신에게 돌려, 함께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조그마한 빛을 감추며 안으로 덕을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完名美節은 不宜獨任이니 分些與人이라야 可以遠害全身이요 辱行汚名은 不宜全推니 引些歸己라야 可以韜光養德이리라.

完全(완전)한 名譽(명예)와 아름다운 節義(절의)를 혼자 독차지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 조금이라도 나누어 남에게 주어야 그것으로써 害(해)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요, 恥辱(치욕)된 行爲(행위)와 더러운 이름을 온전히 남에게 미룬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 조금이라도 끌어 내 몸에게 돌려야 그것으로써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20. 겸손한 마음가짐에는 조물주도 시기하지 못하고 귀신도 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또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을 있는 대로 다 써 없앤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무슨 일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힘의 여유를 두면서 자기의 힘이 다 미칠 수 없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나를 시기하고 나를 손해 보이려고 하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는 데나 공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 자신만만한 태도로, 그것이 반드시 완전하고 빈틈없이 가득 차기를 바라, 있는 힘을 여지없이 다 써 버린다면, 결국에는 나를 시기하고 해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안팎으로 근심 걱정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事事留個有餘不盡的意思면 便造物不能忌我하고 鬼神不能損我리라 若業必求滿하고 功必求盈者は 不生內變이면 必召外憂리라.

일마다 餘力(여력)과 不盡(부진)한 듯한 意思(의사)를 남겨둔다면 문득 造物主(조물주)도 나를 猜忌(시기)하지 못할 것이요, 귀신도 나를 손해보이지 못할 것이다. 만약, 사업은 반드시 만족하기를 求하고, 功名은 반드시 가득차기를 求한다면, 이는 안으로 變(변)이 생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밖으로 근심을 부르게 될 것이다.

21. 참 부처와 참 도는 우리의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있다.

진실하여 망령된 생각이 없는 것을 불실이라 한다.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이것을 말하여 인도 또는 도라고 한다. 오륜이니 仁義禮智信 (인의예지신) 등 다섯가지 떳떳한 덕은 곧 道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 인의예지신의 도덕성을 타고 난다.

이렇게 보면 진실된 마음, 성실한 마음이 곧 불심과 같은 것이니 부처는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러 깊은 곳에 들어 앉아 오는 망령된 생각을 물리치고 인간 본연의 참 마음을 관찰하여 밝히는 따위의 수심의 공부를 통해야만이 불성을 구하고 도를 얻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기만 하면 참 부처와 참 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오로지 자기의 마음 속에 참 부처가 있고 참 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더욱 충실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넓혀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성실한 마음과 화평한 기운을 가지고, 유쾌로운 안색에 부드러운 말씨를 쓰며, 부모형제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요,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를 타당하게 하여 너도 나도 다 같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 부처와 참 도는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수심의 공부를 통하여 얻은 도보다 그 값이 만 배나 더한 것이다.

家庭에 有個眞佛하고 日用에 有種眞道하니 人能誠心和氣하고 愉色婉言하여 使父母兄弟間으로 形骸兩釋하고 意氣交流하면 勝於調息觀心이 萬倍矣리라.

가정에 하나의 眞正한 부처가 있고, 날마다의 쓰임에 한 가지 眞正한 道가 있다. 사람이 능히 마음을 성실하게 하고 기운을 차게 하며, 얼굴 빛을 기쁘게 하고 말을 곱게 해서, 부모형제 사이로 하여금, 몸과 몸을 서로 풀고 마음과 기분을 서로 통

하게 하면,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보다 만 배나 나은 것이다.

-
- 眞佛(진불): 가정마다 하나의 眞佛이 있다 함은, 佛을 곧 내 마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眞實하여 망령된 생각이 없는 것을 佛이라 한다면, 誠心和氣(성심화기)로운 人心이 또한 佛心인 것이다. 佛은 멀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佛을 구하기만 하면 佛은 곧 자기 마음 속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 道: 人間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인간이기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곧 人道를 말한다. 五倫, 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 五常의 덕은 바로 이 道の 總名(총명)이다. 道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날 적부터 五常의 德, 곧 도덕성을 타고 나니, 도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에 도의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 形骸兩釋(형해양식): 두 몸이 한 몸처럼 되는 것, 곧 부모형제가 한 몸인 양 화합함을 뜻한다.
 - 調息觀心(조식관심): 이란 마음을 닦는 공부를 말한다. 고요히 정좌하여 모든 망령된 생각을 물리치고 인간 本然의 참 마음을 관찰하여 밝히는 공부다. 곧, 佛家에서 佛性を 구하기 위한 參禪工夫(참선공부)와 같은 것이다.

22. 사람은 어느 환경에 처하든 中을 잡아 운용할 수 있는 중정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세상에는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동·정 어느 것이든 한쪽에만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중정을 잃었으니 ‘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동적인 사람은 사업을 한답시고 밤낮 없이 뛰어 다닐 뿐, 그 가운데서 잠시라도 정한을 찾아 自身을 돌아보는 내면적인 활동을 전혀 잊고 있을 것이니, 그 모습은 마치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번갯불과도 같고 바람 앞에 까불거리는 등불과도 같아 위태롭기 그지없다. 반대로 정적인 사람은 정한만을 즐겨 밤낮없이 눈감고 앉아 외부와의 활동을 끊을 것이니, 그 모습은 마치 싸늘하게 식은 재와도 같고 말라 죽은 고목과도 같다. 성인은 맑은 세상이거나 흐린 세상이거나 자기 앞에 펼쳐진 환경의 변화를 잘도 받아 넘긴다.

마찬가지다. 적어도 도를 깨달은 사람(有道者)의 마음은 마치 솔개가 고요한 하늘을 날듯, 물고기가 잔잔한 물속에서 뛰어놀 듯, 고요 속에서의 움직임, 움직임 속에서의 고요를 알아서 동과 정, 어느 것에 처하든 자유로이 활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好動者는 雲電風燈이요 嗜寂者는 死灰槁木이니 須定雲止水中에 有鳶飛魚躍氣象이라서 纔是有道의 心體니라.

動的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 속의 번갯불이나 바람 앞의 등불이요, 靜的인 것을 즐기는 사람은 식은 재나 마른 나무와 같다.

모름지기, 가만히 있는 구름과 잔잔한 물 가운데서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기상이 있어야 겨우 이것을 道를 깨달은 마음이라 한다.

-
- 鳶飛魚躍(연비어약): 《詩經》〈大雅旱麓(대아한록)〉편에

‘鳶개는 날아 하늘에서 놀고, 물고기는 펄쩍 물속에서 뛰노네(鳶飛戾天 魚躍于淵).’

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곧 위 아래의 조화로움, 中和의 모습을 나타낸 글이다.

- 有道的心體(유도적심체): 靜的이든 動的이든 그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은 道라 할 수 없다.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中正한 것이라야 참 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道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란, 마치 고요한 하늘 가운데에서 솔개가 날고 잔잔한 물속에서 고기가 뛰어 놀듯, 動과 靜의 조화로움 속에서 그 어느 것에 치하든 自由로이 活動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

23. 남의 허물을 나무라는 데는 너무 엄하게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너무 높게 말아야 한다.

사람은 흔히 남의 허물은 얼른 눈에 들어오되 자기 허물은 잘 모른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친한 사이에 잘못이 있을 때 서로가 나무라고 충고하여 고쳐 나가도록 일깨워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러나 남의 허물을 두고 나무라되 너무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듣는 사람이 내 말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여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놓고 착한 일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고상한 데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내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실천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기꺼이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 허물을 고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남에게 착한 일을 가르칠 때에는 그로 하여금 어김없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攻人之惡하되 毋太嚴하야 要思其堪受하고 教人以善하되 過高하야 當使其可從
이니라.

남의 허물을 공격하되 너무 엄하게 하지 말아서, 그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를
要하고, 남을善으로써 가르치되 너무 높게 하지 말아서, 마땅히 그로 하여금
따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4. 깨끗한 것은 더러운 데서 생기고, 밝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생긴다.

똥 속에서 생기는 콩지벌레는 더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모두가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는 그 콩지벌레가 변해서 매미가 되어서는, 더러운 것은 일체 먹지 않고 오직 가을바람 나뭇잎에 달린 맑고 깨끗한 이슬만을 먹으며 산다.

또 썩은 풀은 거멓게 된 채 본래 빛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변해서 개똥벌레가 되어서는 오뉴월 여름밤을 반짝반짝 빛을 뿜으며 날아다닌다.

그러면 대체 깨끗한 것(潔)은 어디서부터 생기며, 밝은 것(明)은 또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깨끗한 것은 언제나 더러운 것(汚)에서 생기고, 밝은 것은 도리어 어두운 것(暗)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糞虫은 至穢로되 變爲蟬하야 而飲露於秋風하고 腐草는 無光이로되 化爲螢하야 而輝采於夏月하나니 固知潔常自汚出하고 明每從晦生也니라.

똥 속에서 생기는 콩지벌레는 지극히 더러운 것이지만, 변하여 매미가 되어서 가을 바람에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化해서 개똥벌레가 되어서 여름 달에 빛을 낸다. 진실로 깨끗한 것은 항상 더러운 데서 부터 나오고 밝은 것은 매우 어두운 데서 쫓아 나온다는 것을 알겠다.

25. 객기를 눌러야 정기가 드러나고, 망령된 마음을 없애야 참 마음이 나타난다.

남의 앞에서 자랑하고 큰 체 우쭐대기를 좋아한다던가,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양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부리는 따위, 이것은 모두가 객적은 혈기, 곧 객기의 작란 탓이다. 객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본래 자기 안에 있는 바른 기운(正氣)이 아니라 바깥 욕심의 세계에서 들어온 보잘것없는 가짜 혈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객기가 한 번 들어오기만 하면 안에 있는 자기 본래의 정기는 거의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정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공명정대한 기운으로, 요순과 같은 성왕에게도 도척(盜跖)과 같은 큰 도적에게도 다 그 마음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정기가 객기를 눌러 이기면 요순과 같은 선인이 되는 것이요, 반대로 객기가 정기를 눌러 이기면 도척과 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시 바빠 객기를 항복 받아 꺾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기가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고자 하는 것 등, 이 일곱가지 인간의 감정의 욕구와 시비 선악에 대한 사려의 분별력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잘못 헛갈리기 쉬운 것이라 모두가 망령된 마음(妄心)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망령된 마음을 모조리 소멸시켜서 본래의 진실한 마음이 고개를 들어 유감없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행여 망령된 마음으로 인하여 진실한 마음이 가리워지고 때가 묻지 않는가 항상 돌아보고 닦고 또 닦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矜高妄傲에 無非客氣니 降伏得客氣下라야 而後正氣伸하고 情欲意識은 盡屬妄心하나니 消殺得妄心盡이라야 而後眞心現이니라.

자랑하고 높은 체 뽐내고 거만하고 오만한 기운치고 객적은 혈기(客氣) 아닌 것이 없으니, 客氣를 항복받아 낮춘 뒤에야 正大한 기운이 펴진다. 情欲(정욕)과 意識(의식)은 다 망령된 마음에 속한 것이니, 망령된 마음을 消滅(소멸)하여 없애버려

야, 그런 뒤에 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
- 客氣正氣: 마음의 정과邪를 區別한 말로서, 客氣는 객적은 血氣, 곧 邪氣(사기)를 뜻하는 것이요,
 - 正氣는 公明正大한 기운, 곧 正氣를 의미한다.
 - 情欲(정욕): 喜怒哀樂愛惡欲(희노애락애오욕) 등 人間의 일곱 가지 감정의 욕구요, 意識은 思慮(사려)의 分別力을 뜻한다.

26. 정욕이 가는 대로 따르다 보면 때로 만족스러움도 있으나, 남은 것은 후회로움 뿐이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그 맛을 생각해 보면, 먹을 때와는 달리, 맛이 좋았는지 나뻐는지 관심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별마저 없어지고 만다.

또 남녀 간에 색을 풀고 난 뒤에 다시금 음욕을 생각해 보면 먼저와는 달리 이성에 대한 그리운 생각이 깨끗이 사라져 덧정이 없다.

인간의 모든 정욕은 분별을 모르는 망령된 마음이라, 그것이 하고자 한 그대로 따르고 보면 뒤에 남은 것은 모두가 그와 같이 무의미하고 후회로움 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만족을 얻은 뒤에 오는 무의미하고 후회로운 생각,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 다시금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를 정욕의 발동을 미연에 쳐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인 참 마음이 편안히 자리를 잡게 될 것이요, 그러한 뒤에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행동하여도 어느 한 가지 바른 도리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는 훌륭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飽後思味하면 則濃淡之境이 都消하고 色後思姪하면 則男女之見이 盡絶하나니 故로 人常以事後之悔悟로 破監事之癡迷하면 則性定而動無不正하니라.

배가 부른 뒤에 맛을 생각하면 짹짹하고 싱거운 경계가 도무지 사라져 버리고, 색을 푼 뒤에 淫慾(음욕)을 생각하면 남녀 간에 대한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일 뒤의 뉘우침을 가지고서, 일에 다달았을 때의 어리석음을 부수어 버린다면, 곧 本性이 자리 잡혀져서 움직여도 바르지 않은 것이 없게 된다.

• 男女之見(남녀지견): 異姓(이성)에 대한 그리운 생각.

• 性: 이것은 人間の 타고난 本性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眞心, 곧 道德性을 말한다.

27. 국가의 요직에 앉아 있어도 산림의 취미만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산림 속에 묻혀 있어도 나라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요직에 앉아 국정에 여념이 없는 고관대작일수록 세속의 온갖 명리를 현신 짝처럼 버리고 山林속에 숨어사는 은사와 같은 마음가짐과 취미가 없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중요한 지위에 앉게 되면,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경륜을 펴는 데 몸과 마음을 다할 따름이요, 티끌만큼이라도 권세에 지위에, 名聞(명문) 이욕에 애착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대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아낌 없이 그 자리를 내어놓고 山林 속에서 소요하며 도를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마음의 준비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경륜은 오로지 정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벼슬을 마다하고 山 좋고 물 맑은 곳에 들어가 도를 더블고 사는 은사라 할지라도 현실을 아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몸은 비록 산림 속에 묻혀 있으나 마음에는 항상 조정에 앉아 국가를 경륜하는 포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참 '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 가운데 어느 한편에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중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쪽과 저쪽, 현실과 이상, 이 두 가지를 조화·통일함으로써 비로소 참 도를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居軒冕之中이나 不可無山林의氣味요 處林泉之下나 須要懷廊廟의經이라.

초현과 높은 冠 가운데 있을지라도 山林의인 취미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山林 속 샘물 아래 살지라도 모름지기 朝廷(조정)에서의 國家를 經綸(경륜)하는 포부를 지닐 것을 요한다.

-
- 軒冕(현면): 軒은 초현으로 大夫以上이 타는 수레요, 冕은 禮冠(예관)으로 역시 大夫以上の 賢인이 쓰는 冠이다. 한마디로 國家의 要職(요직)에 있는 高官大爵(고관대작)을 의미한다.
 - 林泉(임천): 隱士(은사)가 거처하는 山 좋고 물 맑은 곳.
 - 廊廟(낭묘): 天下 國家를 經綸(경륜)하는 朝廷(조정)을 말한다.

28. 진정한 공덕은 한 평생 과실이 없는 것이요, 진정한 은덕은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서 功名(공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요, 또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마다 공을 앞세우게 되면, 바라던 공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뜻하지 않은 허물만 짓게 되는 수가 있다. 진정한 공은 한평생 과실이 없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 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게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어 잡고 오로지 한평생 허물 없기만을 기도하는 정신으로 일해 나가는 데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는 데 있어서도 이와 똑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이 반드시 나의 은덕에 감격하여 마지 않겠거니’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으로 남을 돕게 되면, 기왕에 입혀 준 은덕마저 무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도 원망하는 마음까지 사게 된다. 진정한 은덕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하는 마음이 일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돕는다는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하는 그것 뿐이다. 여기에 무슨 값음이 필요하랴! 다만 평생을 두고, 나로 인하여 남의 가슴에 아픔 주지 않고 원망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훌륭한 은덕이 아니겠는가!

處世에 不必邀功이라 無過便是功이요 與人에 不求感德이라 無怨이 便是德이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반드시 功을 구하지 말 것이니, 허물 없는 것이 곧 이 功이요, 사람에게 주는 데 恩德(은덕)에 감격해 할 것을 바라지 말 것이니, 원망 없는 것이 곧 德이다.

29. 아무리 고상한 기풍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쳐 인간과 만물에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전연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은 보통 무슨 일이 되었던 일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 일에 몰두하여 갖은 애를 다 쓰며 부지런히 노력한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한갓 일에 몰두할 때일수록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이다. 열심히 뛰고 달리는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자신을 돌아보며, 일이 너무 지나치지 아니한가, 마음이 너무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를 자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한치의 틈도 없이 근심걱정에 사로 잡혀 헤어나지 못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시달림을 받은 나머지 자기의 본성을 편안하게 닦을 수도 없거니와 기본마저 유쾌하게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澹泊(담박)하다고 하는 것, 곧 세상 명리에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이것은 참말로 고상한 기풍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기풍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담박하고 보면 현실에 또한 너무 소극적일 것이다. 이것이 무엇에 소용이 되겠는가! 지나친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나 중정을 잃기는 한가지다. 중정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서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주고 만물을 이익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고상한 기풍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과 만물에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전연 무가치한 것이다.

憂勤은 是美德이로되 太苦則無以適性怡情이요 擔泊은 是高風이로되 太枯則無以濟人利物이니라.

근심하고 부지런한 것은 이 아름다운 덕이로되, 너무 괴롭히면 그것으로 本性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것이요, 擔泊(담박)한 것은 고상한 氣風이로되, 너무 메마르면 그것으로 사람을 건져주고 만물을 이롭게 할 수가 없다.

30.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원인을 찾아보고, 일이 한창 잘 될 때는 말로를 생각해야 한다.

일마다 다 어그러지고 형세가 바싹 오그라들어 궁박하기 이를 데 없이 된 사람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먼저 마음의 고요를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 고요 속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을 때 그때로 돌아가 차근차근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 때는 미처 몰랐던 아쉬웠던 일, 어리석었던 일, 잘못 되었던 일, 이 일, 저 일 생각하다 보면 자연 방향이 잡혀지고 또 새로운 자신이 생겨나 앞길이 훤히 보이는 듯 하리라.

반대로 일마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어 공명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이루어 놓고, 사업 또한 한창 잘 되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까지고 행복과 만족에 젖어 있어도 좋을 것인가!

달도 차면 기우느니, 공명과 사업이 만족한 상태에 이를수록 멀리 자기의 말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하여 스스로 물러가야 할 시기를 잘 알아 때에 알맞게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명과 사업은 완전한 상태로 길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

事窮勢蹙之人은 當原其初心이요 功成行滿之士는 要觀其末路니라.

일이 궁하게 되고 형세가 쭈그러든 사람은 마땅히 그 처음 마음을 찾아 볼 것이요, 功이 이루어지고 행하는 일이 가득 차게 된 사람은 그 末路(말로)를 내어다 봄을 要(요)한다.

31. 부귀한 사람은 의당 마음을 너그럽고 후하게 써야 하고,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재주를 안으로 감추어야 한다.

돈 많고 지위 높아 부귀를 한꺼번에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너그럽고 후하게 가져야 할 것이요, 또 그래야만이 그 부귀를 오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 같은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서 마음을 너그럽고 후하게 쓰기는커녕, 도리어 남 잘 되는 것은 보기조차 역겨워하고 잔인하기 또한 그지없는 사람이 있다. 사실로 그토록 좋은 환경 속에서 그토록 마음을 아박하게 쓴다면 이것은 분명 부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빈천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 이리고서 어떻게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부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빈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의 행동에 어울리는 빈천한 데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총명한 사람은 자기의 재지를 안으로 감추어 남의 앞에 가볍게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시기하고 나를 해할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요, 또 여기서 보다 큰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좋은 재주를 함부로 내보이며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야 말로 총명하면서 우매한 사람의 미련한 짓을 그대로 저지르는 것이니, 이리고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견디랴!

富貴家は 宣寬厚어늘 而反忌刻이면 是는 富貴而貧賤行矣라 如何能享이리오.
聰明人は 宜斂藏이어늘 而反炫耀면 是는 聰明而愚憊其病矣라 如何不敗이리오.

富하고 貴한 집은 너그럽고 후덕해야 마땅한데 반대로 셈 많고 잔인하다면 이는 부귀하면서 행동을 빈천하게 하는 것이라, 어떻게 복 받을 수 있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거두고 감추어야 마땅한데, 반대로 환히 드러낸다면 이는 총명하면서 愚昧(우매)한 사람의 미련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 어떻게 실패하지 않겠는가!

32. 낮은 자리에 있어 보아야 높은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가를 알게 되고, 침묵을 기른 뒤에야 말 많은 것의 수선스러움을 알게 된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가를 모른다. 낮은 자리에 앉아 보아야 비로소 그곳이 그토록 위험한 자리였음을 알게 된다.

밝은 곳에 늘 있을 때는 그곳이 얼마나 밝은가를 모르고 산다. 어두운 곳에 있어 본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너무 환히 드러났던 곳임을 알게 된다.

활동하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바쁘게 돌아다닐 때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인가를 모른다. 깊숙이 들어 앉아 고요함을 맛본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너무나 부질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거니 받거니 떠들어대던 말 많은 때는 그것이 얼마나 수선스러운 일인가를 미처 모른다. 고요함을 맛본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참말로 수선스럽던 것임을 알게 된다.

居卑而後에 知登高之爲危하고 處晦而後에 知向明之太露하며 守靜而後에 知好動之過勞하고 養默而後에 知多言之爲躁一니라.

낮은 데서 있어본 뒤에야 높은 데 오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두운 데서 있어본 뒤에야 밝은 데로 향하는 것이 너무 드러나는 것을 알며, 고요함을 지켜본 뒤에야 움직임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 수고로움을 알고, 침묵을 기른 뒤에야 말 많은 것이 시끄러운 줄을 알게 된다.

33. 부귀 공명에 대한 마음을 버려야 범인을 벗어날 수 있고, 도덕 인의에 얽매이지 않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

공명과 부귀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으로 착실하게 학문과 덕행을 쌓아나갈 생각을 아니하고 마음이 온통 공명과 부귀에만 들떠 따라다닌다면 이는 범인이다. 마음으로부터 공명이니 부귀니 하는 생각을 쫓아 없애야 비로소 범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말마다 도덕이니 인의니 하여, 어느 한 가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없고 오직 도덕과 인의에 얽매어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면, 아무리 도덕에 밝고 또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성인이 아니다. 성인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다 도덕에 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도덕에 합하는 것이니 행하고, 이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니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곧 도덕적인 선택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그대로가 다 도덕에 합하고 인의에 합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자유를 얻은 경지다. 한마디로 마음 가운데 도덕이니 인의니 하는 생각이 따로 없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도덕이요,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도덕이라 도덕·인의와 내가 하나일 때, 비로소 성인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放得功名富貴之心下라야 便可脫凡이요, 放得道德仁義之心下라야 纔可入聖이 나라.

功名과 富貴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문득 凡人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道德과 仁義에 대한 마음을 내려 놓아야 비로소 聖人에 들 수가 있는 것이다.

34. 마음을 졸먹는 것은 이욕이 아니라 사견(邪見)을 고집하는 것이요, 도의 방해물은 소리와 색이 아니라 잘못 뚫린 총명이다.

세상에서는 흔히 이욕이 사람의 본심을 졸먹는 것인 줄로 안다. 그러나 이욕이 있다고 해서 다 반드시 본심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의 그릇된 의견을 모르고 여기에 집착하여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 그릇된 의견이야말로 본심의 뿌리를 갉아먹는 마음의 좀벌레인 것이다. 이욕은 사람마다 경계할 줄을 알지만, 한 번 그릇된 의견에 사로잡히고 보면 자신이 미처 깨닫지를 못하니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이다. 또 사람은 흔히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女色이 도를 막는 데 전적으로 방해가 되는 줄로 안다. 그러나 소리와 색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경계할 줄을 아니, 이것이 다 반드시 도를 얻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진정한 방해물은 소리와 색이 아니라 소인의 잔재주와 같은 잘못 뚫린 총명이다. 그릇된 총명을 그릇된 것인 줄로 제 스스로 깨닫기만 한다면 무슨 병일까마는, 그것을 모르고 총명한 체 영리한 체 남을 깔보고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니, 이것이 어떻게 도의 방해물이 되지 않겠는가!

利欲이 未盡害心이라 意見이 乃害心之蠱賊이요 聲色이 未必障道라 聰明이 乃障道之藩屏이니라.

利欲(이욕)이 다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意見(의견)이 곧 마음을 해치는 좀벌레요, 소리와 색이 반드시 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총명이 곧 도를 막는 울타리와 병풍이 되는 것이다.

• 意見(의견): 그릇된 견해, 곧 正見이 아니고 邪見(사견)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의 邪說(사설)을 이루어 많은 사람의 정신을 현혹케 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엔 社會的으로 國家的으로 크게 해독이 미친다.

• 蠱賊(모적): 곡물의 뿌리를 갉아먹는 害虫.

35. 한 걸음을 물러서는 법과 삼분을 양보하는 덕을 지니면 무상한 인정, 험한 세상 길을 탈 없이 걸어갈 수 있다.

인정은 무상한 것이라서 이리 얹어졌다 저리 져혀졌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어제 오늘의 마음이 같지 않으니 도무지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은 산 넘어 또 산이요, 물 건너 또 물이라 험악하고 가파르기 비길 데가 없다.

그러면 그토록 무상한 인정에 또 그토록 험악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만이 탈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가다가 내가 살만한 세상이 못 되거든 언제든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 가다가 내가 살 만한 세상을 만나게 되더라도 삼 분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덕을 베풀어야 할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한 걸음을 물러서는 법과 삼분을 양보하는 덕,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둔다면 아무리 험악한 세상길이라 하더라도 큰 탈 없이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人情은 反覆하고 世路는 崎嶇하니 行不去處엔
須知退一步之法이요 行得去處엔 務加讓三分之功이니라.

사람의 情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세상길은 험하고 가파르니, 가서 갈만하지 못한 곳에서는 모름지기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할 것이요, 가서 갈만한 곳에서 는 힘써 三分을 사양하는 功德을 더하여야 한다.

36. 소인을 대하는 데는 엄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기란 어렵고, 군자는 공경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알맞게 공경하기란 어렵다.

수양이 부족한 소인은 얹으나 서나 허물을 짓기가 일쑤다. 이 허물을 나무라는 데 있어서는 되도록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엄격하게 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허물만은 미워하여 엄격히 다스리되 사람만은 미워하지 말아야 결국 나무란 보람이 있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군자라면 어디서 만나든 마땅히 공경의 예를 다해야 할 것이요, 또 이런 분을 공경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공경도 너무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라니, 공경하기란 쉬워도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알맞게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待小人에 不難於嚴이라 而難於不惡요 待君子에 不難於恭이라 而難於有禮니라.

小人을 대하는 데 엄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미워하지 않기가 어렵고,君子를 대하는 데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의 있게 하기가 어렵다.

37. 천지의 정기(正氣)는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머물고, 인간의 간교한 슬기와 총명에 사라진다.

천지는 질박하고 엄숙한 모양 그대로 만고에 말이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 말 없는 천지의 정기를 타고 난다. 이 정기는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에서 머물고, 인간의 날로 늘어가는 간교한 슬기와 총명에 사라진다. 차라리 천지와 함께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를 굳게 지키며 헛된 총명을 물리치고서 한평생 정기를 잘 간직하였다가 돌아갈 때 천지에 되돌려 주고 가는 것이 어떠한가!

번잡하고 화려한 세상에서는 깨끗한 이름을 지키기가 어렵다. 한평생 화려한 속에서 불나비처럼 춤추다 쓰러지느니, 차라리 번잡한 세상을 멀리 떠나 욕심 없고 깨끗한 마음을 더불고 살다가 천지와 함께 영원할 하나의 청렴결백한 이름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어떠한가!

寧守渾噩而黜聰明이라야 留些正氣還天地요
寧謝紛華而甘澹泊이라야 遺個清名在乾坤이니라.

차라리 질박하고 엄숙한 상태를 지키고, 총명을 물리쳐야 바른 기운을 멈추어 두었다가 天地에 되돌리게 될 것이요, 차라리 번잡하고 화려한 곳을 버리고, 욕심 없고 깨끗한 것을 달게 여겨야 한낱 맑은 이름을 남겨 천지에 두고 가게 되리라.

• 渾噩(혼악): 渾은 渾渾으로 天地와 같이 質朴하고, 簡略(간략)하여 참 뜻을 알기 어려운 모양이요, 噩은 噩噩으로 天地의 엄숙한 모양을 뜻한다. 渾噩은 한마디로, 말 없고 質朴한 상태를 말한다.

• 乾坤(진곤): 하늘과 땅.

38. 마귀를 항복 받으려면 자기의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하고, 빗나간 마음을 잡으려면 객기를 눌러야 한다.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마귀에 항복받아야 한다. 마귀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참 마음(眞心)의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말한다. 곧 욕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갖가지 망령된 생각들이다. 마귀에 항복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눌러 항복받아야 한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많은 마귀들을 불러 일으키는 마음의 마귀 말이다. 이 마음이 항복을 하게 되면 그 밖에 모든 마귀들은 제 스스로 물러가 참 마음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빗나간 마음을 고삐 매어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바깥 욕심의 세계에서 들어온 객찍은 혈기, 곧 객기를 붙들어 작란을 못하도록 눌러 놓아야 한다. 이 객기가 고개를 숙이게 되면 빗나간 마음이 다시금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다.

降魔者는 先降自心이니 心伏則群魔退聽하고
馭橫者는 先馭此氣니 氣平則外橫不侵이리라.

마귀를 항복 받을 사람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마음이 항복하게 되면 모든 마귀가 물러가서 듣는다. 빗나간 것을 잡으려는 사람은 먼저 이 객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니, 객기가 평정되면 밖의 빗나간 것이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 魔(마): 欲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갖가지 망령된 생각들을 魔鬼(마귀)라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참 마음의 활동을 방해하는 障礙物(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 橫(횡): 正道에 벗어난 길. 곧 橫道로서, 여기에서는 사리에 어긋나진 그릇된 마음을 뜻한다. 氣에는 正氣와 客氣가 있다. 正氣는 곧 正心이요, 客氣는 邪心이다. 여기에서는 바로 客氣를 가리킨다.

39. 자제(子弟)를 기르는 데는 바깥 출입을 엄하게 하고, 벼 사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자녀나 제자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바깥 출입을 엄하게 하고, 벼를 사귀는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안방에 처녀를 기르듯 그렇게 자상하게 보살펴야 한다. 출입이 너무 잦으면 마음이 제 멋대로 돌아가기가 쉽고, 벼를 잘못 사귀면 나쁜 물에 물들여지기가 쉬운 것이다. 만일 한 번 나쁜 사람을 사귀어 거기에 물들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착한 마음을 되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나쁜 사람을 사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잡초 한 포기 없이 깨끗하게 다듬어 놓은 밭 가운데 한 알의 몸쓸 잡초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 한 알의 잡초씨가 자라 온 밭을 뒤덮어버린다면, 여기에 어떻게 좋은 곡식을 심을 수 있겠는가!

教弟子를 如養閨女하야 最要嚴出入謹交遊니 若一接近匪人이면 是는 淸淨田中에 下一不淨種子라 便終身難植嘉禾矣니라.

弟子를 가르치는 것은 안방 속에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하여서, 무엇보다도 밖의 출입을 엄하게 하고 벼를 사귀어 노는 것을 조심시켜야 한다. 만일에 한 번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것은 깨끗한 밭 가운데 한 알의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문득 몸을 마치도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려울 것이다.

40. 욕정으로 가는 길은 쉽고 편리하지만 발을 들여서는 안 되고, 바른 도리를 걸어 가는 길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물러서서는 안 된다.

사람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이다. 눈은 아름다운 色을 좋아하여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입은 맛 좋은 음식을 즐겨 하여 각각 그 부족을 채우려고 혈떡거린다. 그리고 몸은 편안한 것을 즐겨하여 아무리 편안하여도 만족을 느낄 줄 모르고, 마음은 항상 사랑과 미움과 탐욕, 그리고 공명심에 충동질치고 있다.

누구든 이 모든 욕정이 가는 대로 따르기란 지극히 쉽고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욕정에 관한 일만을 다만 손가락 끝만큼이라도 맛을 들여서는 안 된다. 만일 여기에 잠시라도 맛을 들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송두리째 젖어들어 다시금 빠져나올 수 없는 만 길 깊은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욕정이 가는 대로 따르기란 편리해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따르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러나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바른 도리를 눈 앞에 두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도리에 관한 일만은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다. 어렵지만 그때그때에 따라 애써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한 번 물러서게 되면 바른 도리와 나 사이에는 천이나 되는 山이 가로막혀 있듯 아득히 멀어져, 영영 인간의 바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欲路上事는 毋樂其便而姑爲染指니 一染指면 便深八萬仞이요 理路上事는 毋憚其難而稍爲退步니 一退步는 便遠隔千山이니라.

欲情上(욕정상)의 일은 그 편리한 것을 즐거워하여 잠시라도 손가락에 묻혀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한 번 손가락에 묻히게 되면 문득 만 길이나 깊이 빠져들게 된다. 道理上(도리상)의 일은 그 어려운 것을 꺼려해서 조금이라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한 번 물러서게 되면 문득 멀기가 千의 山을 사이에 둔 듯할 것이다.

41. 군자의 마음은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자상하고 후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모든 일에 욕심이 없고 데면데면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

자상하고 후덕스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자상하고 후덕스러우며 그 밖에도 무엇 하나 빈틈이 없다.

데면데면하고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거니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데면데면하고 무관심하며 그 밖에 하는 일마다 다 그 모양이다. 하나는 너무 지나치고 하나는 너무 모자라니, 중도를 잃기는 한 가지라 둘 다 취할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애 자기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두텁고 화려하게 하여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메마르고 쓸쓸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오직 그 가운데를 잡아 어느 한편에도 치우침이 없는 생각, 이것이 군자로서 가질 마음가짐인 것이다.

念頭濃者는 自待厚하고 待人亦厚하여 處處皆濃이요 念頭淡者는 自待薄하고 待人亦薄하여 事事皆淡이니 故로 君子는 居常嗜好를 不可太濃艶이요 亦不宜太枯寂이니라.

생각하는 것이 濃厚(농후)한 사람은 自身을 대하는 것도 厚하고 남을 대하는 것도 또한 후해서 곳곳마다 다 濃厚하고, 생각하는 것이 淡泊(담박)한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것도 薄(박)하고 남을 대하는 것도 또한 박해서 일일이 다 淡泊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너무 두텁고 아름다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메마르고 쓸쓸하여서도 안 된다.

42. 저쪽에서 부(富)를 내세우면 나는 인(仁)을 내세울 것이요, 저쪽에서 벼슬을 내세우면 나는 의(義)를 높이 치켜 올릴 것이다.

저쪽에서 부를 내세우면 나는 인을 내세울 것이요, 저쪽에서 벼슬을 내세우면 나는 의를 높이 치켜 올릴 것이다. 부와 벼슬은 우리나라 새장과 같다. 사람이 한 번 여가에 마음이 팔리게 되면 새장 안에 갇힌 격이라 그로부터 인간의 소중한 자유는 영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인의에 살고 인의에 죽는 것이 군자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재상이 두터운 녹과 높은 벼슬을 가지고 손짓을 한다 해도 군자는 결코 그들의 수중에 들어 놀림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타고난 운명을 짓밟고 용감하게 올라설 수가 있고, 뜻을 오로지 하나로 모아 꿰뚫어 나간다면 사기를 움직여 정기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임금과 재상의 놀림감이 되지도 아니할뿐더러 조물주에게까지도 그 사상의 자유를 구속받지 아니한다. 오직 자기의 사상을 거침 없이 펴며 굳건히 앞을 헤쳐 나아가는 것이다.

彼富我仁이요 彼爵我義니 君子는 固不爲君相의 所牢籠이요 人定勝天하고 志一動氣하니 君子는 亦不受造物之陶鑄니라.

저쪽에서 富(부)로 하면 나는 仁(인)으로 하고, 저쪽에서 벼슬로 하면 나는 義(의)로 할지니, 군자는 진실로 임금과 재상의 우리와 새장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정하면 하늘을 이기고 뜻이 한결 같으면 기운을 움직이는 것이라, 군자는 또한 造物主(조물주)의 물건을 만드는 틀(模型)을 받지 아니한다.

-
- 動氣: 邪氣를 움직여 正氣로 바꾸어 놓는다는 뜻.
 - 陶鑄: 陶(도)는 흙을 구워서 질그릇을 만드는 것이요, 鑄(주)는 쇠붙이를 녹여서 만드는 것으로 어느 것이나 다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된 일정한 틀(模型)에 부어진다. 곧 사상의 자유를 구속 또는 지배 받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43.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높은 지조와 한 걸음 물러서는 겸양의 덕이 있어야 안락할 수 있다.

세상에 나가 자기가 설 자리를 확고하게 세우는 데는 마음을 항상 속된 곳에 두지 말고 거기에서 한 걸음 높이 세워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물에도 발을 씻는 것과 같아 털어도 먼지요, 씻어도 때라, 속된 속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르고서 어떻게 남다른 지조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몸을 항상 남보다 한걸음 뒤에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 몸을 낮추고 남에게 양보하는 겸양의 덕을 앞세워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불나비가 불 속에 뛰어들고 염소가 울타리를 들이받다가 뿔이 걸려 빼도 박도 못하는 격이라 위태롭기 그지없다. 세상을 안락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남보다 한걸음 물러서는 겸양의 덕, 여기에 있는 것이다.

立身에 不高一步立이면 如塵裡振衣하고 泥中濯足이라 如何超達이며 處世에 不退一步處면 如飛蛾投燭하고 羝羊觸藩이라 如何安樂이리오.

몸을 세우는 데 한 걸음 높이 세우지 않으면 마치 티끌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거니 어떻게 뛰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한 걸음 물러서 있지 아니하면 마치 불나비가 촛불에 뛰어들고 염소가 울타리를 들이받는 것과 같거니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44. 학문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한 길로 꿰뚫어 공명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그 깊이
에 들 수 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정신을 한데 묶어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전심하도록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만일 덕을 닦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에
공적을 올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다면, 이는 수양의 깊이에 들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
고 마는 것이다.

또, 책을 읽는다는 사람이 시나 읊조리고 풍류에나 흥미를 붙인다면, 그 사람은 평
생을 두고 학문을 하여도 그 참 뜻이 무엇인가를 모를 뿐더러 그 학문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學者는 要收拾精神하여 併歸一路니 如修德而留意於事功名譽면 必無實詣요 讀
書而寄興於吟咏風雅면 定不深心이니라.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정신을 수습하여 한 길로 아울러 돌릴 것을 요한다. 만일 덕을
닦으면서 뜻을 사업의 공적에나 명예에 준다면 반드시 실지로 나아가는 것이 없을
것이요, 책을 읽으면서 흥미를 詩와 풍류에 붙인다면 결단코 깊은 마음이 못 될 것
이다.

45. 사람마다 큰 자비심과 진정한 취미가 갖추어져 있다. 다만 사욕과 사정 때문에 선과 악의 엄청난 차이를 낼 뿐이다.

사람마다 남을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불심과 같은 큰 자비심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것은 도덕이 높기로 이름 높은 인도의 維摩(유마)라는 사람이나 마소를 때려 잡는 백성 또는 죄인의 목을 베는 사남(劊手)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자비로운 인간미가 있을 뿐 아니라, 또 어디를 가나 가는 곳마다 인간의 진정한 취미는 한 가지씩 다 지니게 마련이다. 그것은 대궐과 같은 화려한 집이거나 띠로 입힌 오막살이 초라한 집이거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자비로운 인간미, 인간의 진정한 취미야 화려한 집이라고 다르고 초라한 집이라고 다르랴!

다만 다른 것은, 사욕에 가리우고 사정에 이끌리어 눈앞에 아차 한 번 잘못 생각이 들게 되면, 아름다운 인간미, 진정한 취미야 바로 자기의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건만, 그것이 그토록 멀리 천리의 동떨어진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人人이 有個大慈悲하니 維摩屠創無二心也요 處處에 有種眞趣味하니 金屋茅簷이 非兩地也라 只是欲蔽情封하야 當面錯過하면 使咫尺千里矣니라.

사람마다 하나의 큰 慈悲心(자비심)이 있는 것이니 維摩(유마)와 백정에 두 마음이 없고, 곳곳마다 한가지의 참 취미가 있으니 대궐과 오막살이집이 두 곳이 아니다. 다만 이 욕심에 가리고 情에 닫혀져 눈앞에 당하여 잘못 생각하게 되면 咫尺(지척)으로 하여금 천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 維摩: 維摩居士(유마거사). 인도의 석가모니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俗人(속인)으로 앉아 大德(대덕)을 이룬 사람이다. 佛菩薩(불보살)의 化身(화신)이라 일컬을 정도로 자비심이 많기로 이름이 높다. 居士(거사)라 함은 處士(처사)와 같은 말로서, 俗人(속인)으로 벼슬도 하지 않고 野(야)에 묻혀 사는 선비를 말한다.

46. 도덕을 닦는 데는 목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정치를 하는 데는 뜬 구름과 같은 권세와 부귀에 애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덕을 쌓고 道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물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을 木石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만일 조금이라도 名利를 생각한다면 부귀를 염두에 둔다든가 하여, 여기에 한 번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날로 욕심의 세계로 줄달음질 쳐 영영 그 속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세상을 구제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는 사람은 한 조각 뜬 구름이나 흐르는 물과 같은 욕심 없는 깨끗한 취미를 가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생각이 권세와 부귀에 미쳐 여기에 탐욕하고 애착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나라를 다스리기는커녕 자기 한 몸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위험한 지경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進德修道엔 要個木石의念頭니 若一有欣羨이면 便趨欲境이요
濟世經邦엔 要段雲水の趣味니 若一有貪着이면 便墮危機니라.

덕을 나아가게 하고 道를 닦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木石과 같은 마음가짐을 요하는 것이니, 만일 한 번 좋아한다든가 부러워하는 생각을 두게 되면, 문득 욕심 세계로 달리게 될 것이다. 세상을 건져내고 나라를 경륜하는 데 있어서는 한 조각 구름이나 물과 같은 취미를 요하는 것이니, 만일 한 번 탐욕과 애착을 두게 되면 문득 위험한 경우에 떨어지게 된다.

47.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잠자는 혼까지도 온화한 기운에 젖어 있고, 마음이 흉한 사람은 그 목소리와 웃으며 하는 말까지도 살기에 가득하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평소의 몸가짐이 편안하고 자상하여서 잠을 자며 꿈을 꾸는 동안에도 그 심혼이 온화한 기운에 젖어 있다.

마음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평소에 하는 짓 모두가 이리와 같이 탐욕을 부리고 도리에 뒤틀리는 짓뿐이라서 심지어 그 목소리, 웃으며 하는 말까지도 殺氣(살기)에 가득 차 있다.

吉人은 無論作用安祥이라 卽夢寐神魂이 無非和氣요 凶人은 無論行事狼戾라 卽聲音咲語에 渾是殺機니라.

착한 사람은 動作이 편안하고 자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어 잠을 자며 꿈을 꾸는 혼까지 和한 기운 아닌 것이 없고, 나쁜 사람은 행하는 일이 이리와 같이 비뚤어져 목소리와 웃는 말까지 모두가 살기에 차 있다.

48. 겉으로 나타나는 크고 작은 허물은 모두 캄캄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장 경계할 것은 캄캄한 속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생각들이다.

우리의 몸 안쪽에 있는 肝(간)이 병들면 몸 바깥쪽에 있는 눈이 잘 안 보인다. 또 몸 안쪽에 있는 腎(콩팥)이 병들면 바깥쪽에 있는 귀가 잘 안 들린다.

이와 같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에 들어서 사람의 눈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난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로서 만일 남이 환히 보는 앞에서 죄를 얻지 않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이 보지 않는 캄캄한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캄캄한 속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생각들이다.

肝受病하면 則目不能視하고 腎受病하면 則耳不能聽이라 病受於人所不見하여 必發於人所共見하나니 故로 君子는 欲無得罪於昭昭어든 先無得罪於冥冥이니라.

肝이 병을 받으면 곧 눈이 볼 수 없고, 腎이 병을 받으면 곧 귀가 들을 수 없다. 병이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받아 반드시 사람이 다 함께 보는 곳에서 발한다. 그러므로 군자로서 환히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고자 한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49. 복으로 말하면 한 평생 무사한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화로 말하면 많은 일에 마음 시달리는 것보다 더한 화가 없다.

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복 무슨 복하며 열 손이 모자라도록 꼽아나갈 것이다. 사실 뭐니 해도 한평생 탈 없이 무사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다. 또 災禍(재화)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각기 이런 저런 사고뭉치를 끌러 놓을 것이다. 사실 재화라면 자기와 마음을 많은 일에 시달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재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사람들은 다 모른다. 오직 뜻 아니한 일로 많은 고초를 겪어 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무사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를 알게 될 것이요, 또 오직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속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재화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福莫福於少事요 禍莫禍於多心이니 唯苦事者라야 方知少事之爲福이요 唯平心者라야 始知多心之爲禍니라.

복은 일이 적은 것보다 더한 복이 없고, 화는 마음을 많이 쓰는 것보다 더한 화가 없다. 오직 일을 괴로워하는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일 적은 것이 복이 되는 것임을 알 것이요, 오직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화가 되는 줄을 알게 된다.

50.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는 방정(方正)한 것이 좋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둥근 것이 좋고, 말세에서 살 때는 방정과 둥근 것을 아울러 쓰는 것이 좋다.

도덕 정치가 행하여지는 태평한 세상에서 살 때에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여 사실 그대로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도덕이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 때에는 때로는 옳은 것도 그른 양 그른 것도 옳은 양 하여 서로 맞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둥글둥글 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좋다. 도덕이 땅에 떨어진 말세에서 살 때에는 반듯해야 할 때 가서는 반듯하게 하고, 둥글어야 할 때 가서는 둥글게 하여 그때 그때에 따라 알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이치로 착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관대한 것이 좋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엄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 가운데 보통 사람을 대할 때에는 관대하기도 하고 엄하기도 하여 이 두 가지를 때에 알맞게 둘러쓰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관대하게 대함으로써 착한 사람을 더욱 나아가게 하고 엄격하게 대함으로써 악한 사람을 반성하여 고치도록 하고 관대하고 엄격한 것을 자유롭게 둘러쓰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處治世엔 宜方하며 處亂世엔 宜圓이요 處叔季之世엔 當方圓並用이니라 待善人엔 宜寬하며 待惡人엔 宜嚴이요 待庸衆之人엔 當寬嚴互存이니라.

잘 다스려진 세상에서 살 때에는 方正(방정)한 것이 좋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 때에는 둥근 것이 좋고 다 되어가는 세상에서 살 때에는 마땅히 方正하고 둥근 것을 아울러 쓰는 것이 좋다. 착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러운 것이 좋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엄하게 하는 것이 좋고 보통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너그럽고 엄한 것을 번갈아 두는 것이 좋다.

51. 입은 은혜는 생각하되 베푼 은혜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허물은 잊을 수 없으되 원한만은 잊어야 한다.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남에게 은혜를 입은 때도 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허물을 지을 때도 있고 반대로 남이 나에게 원한을 안겨다 줄 때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잊어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만은 잊어버리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지은 허물만은 영념이 가슴에 새겨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는 평생을 두고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안겨다 준 원한만은 깨끗이 잊고 다시금 생각을 말아야 하는 것이다.

我有功於人은 不可念이로되 而過則不可不念이요 人이 有恩於我는 不可忘이로되 而怨則不可不忘이니라.

내가 남에게 공을 둔 것은 생각을 말아야 하나 허물이라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남이 내게 은혜를 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나 원한이라면 잊지 아니하면 안 된다.

52. 마음 없이 베푼 은혜는 한 말의 곡식이라도 천만 석이요, 갚음을 염두에 둔다면 천만금이라도 한 톨의 공도 없다.

남에게 은혜를 베푼 때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주고 받는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거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받거니……’

하는 우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남에게 덕을 베푼다면 그것이 비록 단 한 말의 곡식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만 석이나 되는 쌀을 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 남에게 이익을 주고자 할 때는 조금이라도 이해 관계를 셈한다든가 갚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에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을 속으로 셈해 보고서 그만큼 갚음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다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은혜를 모른다고 나무라고 갚기를 재촉한다면, 베푼어 준 돈이 비록 천만금이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 한 톨어치의 공도 없는 것이다.

施恩者 內不見己하고 外不見人하면 則斗粟도 可當萬鍾之惠요 利物者 計己之施하고 責人之報하면 雖百鎰이라도 難成一文之功이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안으로는 자기를 보지 않고 밖으로는 남을 보지 않는다면, 한 말의 곡식도 넉넉히 萬의 種의 은혜를 당할 것이다. 만물을 이익 되게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베푼 것을 계산하고 남이 갚기를 재촉한다면, 비록 百의 鎰이라 하더라도 一文의 功도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 鍾(중): 數量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여섯 섬 너 말을 한 鍾이라 한다.

• 鎰(일): 역시 量의 이름으로 스물네 냥중을 한 鎰이라 한다.

53. 고르지 못한 세상에서 어찌 나 혼자 좋은 것만 갖추며 내 생각대로 하려! 내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가 맞추어 나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은 거의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부귀를 누리는가 하면 건강이 나빠던가 수명이 짧던가 아니면 자손의 덕이 없고, 건강이 좋고 수명이 긴가 하면 먹을 것이 없고.... 어쨌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좋은 조건만을 빠짐없이 다 갖추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같이 갖추고 아쉬움 없이 사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썩 드문 일이다. 그런 것을 나라고 어떻게 유독 좋은 것만 오붓하게 갖추고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또 사람의 마음은 한결 같지 못한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도리에 맞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도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 心情의 흐름도 이러한데 남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같이 도리에 맞게 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마음마다 자기의 마음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서로 비추어 보고 서로 맞추어 나간다면 이것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닦으며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편리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人之際遇有齊有不齊하나니 而能使己獨齊乎며 己之情理도 有順有不順하나니 而能使人皆順乎아 以此相觀對治하면 亦是一方便法門이니라.

사람의 만남은 가지런할 수도 있고 가지런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자기로 하여금 혼자만 다 갖추게 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의 心情의 흐름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다 따르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로써 서로 관찰하고 마주 다스려 나간다면 또한 이것이 하나의 편리한 방법인 것이다.

**54. 마음이 깨끗지 못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그것을 주어다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결점을 덮는 데 이용한다.**

학문을 하는 데는 먼저 옛 성현의 훌륭한 말씀을 받아들일 정성 어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고요히 마음의 눈을 떠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구석구석 둘러보고, 행여 名聞(명문) 利慾(이욕)에 대한 잡초가 뿌리박혀 있지 아니한가 살피며, 깨끗이 쓸고 닦아 비단결 같은 마음의 밭을 이루어놓는 일이다. 그런 뒤에 책을 읽고 옛 성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서, 마음자리가 온통 잡초가 우거진 것을 그대로 둔 채 책을 읽고 옛 것을 배운다면, 이 사람은 필시 한 가지 옛 착한 행위를 보게 되면 재빨리 그것을 흠쳐다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할 것이요, 또 한 가지 옛 착한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빌려다가 자기의 결점을 덮어 나가는 데 이용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쳐들어온 적에게 무기를 빌려주는 격이요, 또 도적에게 양식을 대어주는 격이라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心地乾淨이라야 方可讀書學古요 不然이면 見一善行에 竊以濟私하고 聞一善言에 假以覆短하나니 是又藉寇兵而齎盜糧矣이라.

마음의 밭이 맑고 깨끗해야 바야흐로 책을 읽고 옛 것을 배워도 좋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의 착한 행위를 보고는 흠쳐다가 그것으로써 私利를 건지고, 하나의 착한 말을 듣고는 빌려서 써 短點을 덮어버린다. 이것은 또한 적에게 병기를 빌려 주고 도적에게 양식을 대어 주는 것이 된다.

55. 사치하는 사람은 부자이면서 늘 부족에 허덕이고, 검소한 사람은 가난하면서 늘 여유가 있다.

사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하고 싶어 하니, 하고 싶은 그대로 따르다 보면 실상 부자이면서 늘 부족에 허덕이게 된다.

검소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써야 할 때에만 쓰고 그 밖에는 되도록 아껴 두기 때문에 실상 가난하면서도 언제나 여유가 있다.

부자이면서 不足에 허덕일 바엔 차라리 가난하면서 부족을 모르는 여유 있는 생활이 얼마나 떳떳하고 행복스러운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잔재주를 부리는 바람에 술한 애를 쓰고서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사게 된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서툴러 아무런 꾸밈이 없이 곧이곧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타고난 참 마음을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간직하게 된다. 어쩐가! 애써 노력하고서 많은 사람의 원망을 사느니보다 서투른 그대로 편안한 가운데 참을 지키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奢者는 富而不足이니 何如儉者 貧而有餘며 能者는 勞而府怨이니 何如拙者 逸而全眞이리오.

사치하는 사람은 부자이면서 부족해 하니 어찌 검소한 사람의 가난하면서 남음이 있는 것만 같으며, 재능이 있는 사람은 수고로우면서 원망을 모르니 어찌 서투른 사람의 편안하면서 참을 온전히 하는 것만 같겠는가!

56. 독서에 성현의 뜻을 보지 못하면 문자의 노예요, 학문에 실천이 없으면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다.

책을 읽는다고 하면 여기서 옛 성현의 고귀한 정신을 찾아 본받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생각은 아니하고, 다만 文章(문장)에만 얽매어 읽고 외우기에 마음을 쏟는다면, 이는 한낱 붓과 종이, 곧 文學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녹을 먹는 벼슬아치들은 저들더러 ‘권세나 부리며 잘 먹고 놀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 주라’고 그 자리에 앉혀 둔 것이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망각하고 권세나 부리며 국민을 학대한다면, 그 사람은 갈 데 없이 국가의 녹을 훔쳐 먹는 도둑이다.

옛 성인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데는 몸소 실천하는 여기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전하는 사람이나 전해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실천을 목표로 하여 연구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이론에만 밝아 입으로 모르는 것이 없이 떠들어 대면서 실천할 것을 전혀 잊고 있다면, 이는 마치 입으로만 하는 참탄의 격이라, 결국 공염불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무릇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대의 영화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긴 안목을 열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영구한 덕의 씨를 심어주지 아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은 만인을 다 같이 이익 되게 하는 영원한 은덕의 씨를 뿌리게 된다. 만일, 사업을 하면서 덕의 씨를 심을 생각을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위하여 급급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눈앞에 활짝 피었다가 스러지는 한 송이 허무한 꽃이 되고 마는 것이다.

讀書에 不見聖賢이면 爲鉛槧傭이요 居官에 不愛子民이면 爲衣冠盜요 講學에 不尙躬行이면 爲口頭禪이요 立業에 不思種德이면 爲眼前花니라.

책을 읽고 성현을 보지 못하면 붓과 종이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요, 벼슬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衣冠의 도적이 되는 것이요, 학문을 연구하면서
몸소 실천하기를 높이지 아니하면 입부리의 參禪이 되는 것이요, 사업을 세우고서
도 德 심을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눈앞의 꽃이 되고 만다.

-
- 鉛槧: 鉛(연)은 붓이요, 槧(참)은 옛날에 종이 대신으로 쓰던 나무 판때기이니 지금의 종이를 말한다.
곧 붓과 종이.
 - 禪: 禪(선)이란, 고요히 눈감고 정좌하여 일체의 妄念(망념)을 끊고 자기 본연의 性(성)을 구하는 것,
곧 佛家(불가)에서의 參禪工夫(참선공부)다. 이 글에서 口頭禪(구두선)이라 함은, 말로만 하는 禪이니 전
혀 無益(무익)하다는 뜻이다.

57. 인간의 낯은 지혜로 엮어진 무가치한 책과 요사스런 음악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성의 참의 문장을 읽고 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한 권의 참 문장이 들어 있다. 그것은 날 적부터 타고난 것으로 인간의 本然의 性, 곧 참 마음이 속삭이는 참의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낯은 지혜로 엮어진 전혀 무가치한 책으로 인하여 완전히 간혀버려 아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참 문장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한가락 참 음악이 들어 있다. 이것도 날 적부터 타고난 것으로 인간의 참 마음이 노래하는 티 한 점 없는 참의 노래인 것이다. 그러나 애석한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밖에서 들려오는 요사스런 노랫소리와 음탕한 춤에 깊숙이 빠져 자기 본래의 아름다운 참의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낯은 책이나 요사스런 노래와 춤 등, 인간의 참 마음을 가리워 버리는 이 모든 바깥 사물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참 문장과 참 음악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내성적인 자기 수양을 극치에 이르게 하는 참된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人心에 有一部眞文章이로되 都被殘編斷簡封錮了하고 有一部眞鼓吹로되 都被妖歌艷舞湮沒了하나니 學者須掃除外物하고 直覓本來하야 纔有個眞受用이라.

사람의 마음에 한 권의 참 문장이 있으나 다 낯아 못 쓰게 된 옛 책에 간혀버렸고, 한 가락 참 음악이 있으나 요사스런 노래와 고운 춤에 깊숙이 묻혀버렸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바깥 사물을 말끔히 쓸어버리고 곧바로 본래의 것을 찾아야 겨우 하나의 참된 것을 받아쉴이 있을 것이다.

• 殘編斷簡: 옛날에는 대나무를 써서 책을 만들었으므로 編(편) 또는 簡(간)이라 하였다. 殘編斷簡(잔편단간)이란 여러 동강이가 난 글이 조각조각 흩어져 못 쓰게 된 책을 말한다. 古人(고인)이 남긴 책 가운데 무가치한 책을 의미한다.

- 鼓吹(고취): 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것이니, 곧 음악을 가리킨다.
- 眞受用(진수용): 이 글에서 참이라 함은 인간 本有의 아름다운 문장과 음악을 의미 한다. 참된 것을 受用한다 함은, 자기 속에 있는 참 마음의 글과 참 마음의 노래를 자유로이 읽고 들으며, 스스로 수양의 극치에 이를 수 있는 참된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58. 인생의 고락(苦樂)은 돌고 도는 것. 뜻대로 안 된다고 슬퍼할 것이 없고, 뜻대로 잘 된다고 기뻐할 것도 없다.

인생의 고통(고)과 낙(낙)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괴로움 가운데에는 즐거움이 엮리어 있고 즐거움 가운데에는 괴로움이 엮리어 있어 괴로움이 다하는가 하면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무르익는가 하면 괴로움이 온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맞볼 수 있고, 즐거움 속에서 괴로움을 맞볼 수 있는 것이다.

득의할 때와 실의할 때도 마찬가지다. 뜻을 얻어 한창 잘 되어 나가는 그 기쁨 가운데에는 뜻대로 안 되어 실의에 찬 슬픔이 도사리고 있고, 실의에 찬 슬픔 가운데에는 득의의 기쁨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고 보면 괴롭다고 마음이 상하도록 괴로워할 것도 없고 즐겁다고 언제까지고 즐거움에만 취해 있을 것도 못 되며 뜻대로 잘 된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뜻대로 안 된다고 슬픔에 잠길 것도 없다.

다만, 괴로울 때에는 바로 그 밑에 엮리어 있을 즐거움을 생각하여 새로운 힘을 내고, 즐거울 때에는 역시 그 아래 엮리어 있을 괴로움을 생각하여 더욱 삼가야 하는 것이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오로지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참 즐거움을 맞볼 수가 있는 것이다.

苦心中에 常得悅心之趣하고 得意時에 便生失意之悲니라.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쁜 마음의 취미를 얻고, 뜻을 얻은 때에 문득 뜻을 잃는 슬픔이 생긴다.

59. 도덕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는 산림 속의 꽃과 같고, 공업으로 얻은 것은 화분의 꽃과 같고, 권력으로 얻은 것은 화병의 꽃과 같다.

부귀와 명예! 이것은 사람마다 희구하여 마지않는 것이요, 또 한 번 얻게 되면 행여 오래지 못할세라 영구히 함께 하기를 원하여 마지않는 것이 또한 보통의 인정이다. 그러나 같은 부귀요 같은 명예로되 이것을 어떻게 얻어 왔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순전히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얻어진 부귀와 명예는 산림 속에 자라는 꽃과 같아서 저절로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고 가지와 잎이 갈수록 무성하니 자연 그 수명이 오랜 수밖에 없다.

순전히 공업을 이룩함으로써 얻어진 부귀와 명예는 화분이나 화단 가운데 자라는 꽃과 같아서 땅 속 깊이 뿌리박을 수도 없거니와 때로는 이리저리 옮겨 심게 되니 시들었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다가는 다시 시들어 얄으나마 뿌리가 있어 얼른 죽지는 않으나 흥폐가 심하다.

순전히 권력의 힘으로 얻어진 부귀와 명예는 화병에 꽂힌 꽃과 같아서 그 뿌리를 심어두지 않았으니 뿌리 없는 꽃이 얼마나 가랴! 선 채 시드는 모양을 구경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富貴名譽 自道德來者는 如山林中花하야 自是舒徐繁衍하고 自功業來者는 如盆檻中花하야 便有遷徙廢興하고 若以權力得者는 如瓶鉢中花하야 其根不植이니 其萎를 可立而待矣니라.

부귀와 명예가 도덕으로부터 오는 것은 마치 山林 가운데의 꽃과 같아서 저절로 이것이 뿌리가 뻗고 잎이 무성해진다. 功業으로부터 오는 것은 마치 화분이나 화단 가운데의 꽃과 같아서 문득 옮겨서 시드는 수도 있고 살아나는 수도 있다. 만일 권력으로써 얻은 것이면 마치 화병 가운데 있는 꽃과 같아서 그 뿌리를 심지 못하였으니 그 시드는 것을 선 채 기다릴 수가 있다.

60. 좋은 환경에 있는 군자가 훌륭한 계획을 세워 좋은 사업을 이룩할 생각을 않는다면 백 년을 살아도 값 있게 사는 하루만 못하다.

화창한 봄이면 무심한 꽃도 한층 아름다운 빛을 자랑하고 새도 따라서 몇 구절 아름다운 노래를 읊조린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공부하는 선비로 태어나서 더욱이 두각을 나타내어 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또 여기에 의식주의 불편 없이 등 따습고 배부른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마음에 훌륭한 계획을 세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큰 사업을 이룩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을 수 없다.

만일 그토록 좋은 환경 속에서 평생을 하는 일 없이 세월을 흘려보낸다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무엇인가! 또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내세우겠는가!

그렇게 산다면 백 년을 산다 한들 어디 단 하루를 값 있게 산 것만 하랴!

春至時和하면 花尙鋪一段好色하고 鳥且囀幾句好音하니니 士君子 幸列頭角하야 復遇溫飽오도 不思立好言行好事하면 雖是在世百年이라도 恰似未生一日이니라.

봄이 되어 시절이 화창하면 꽃은 오히려 한층 좋은 빛을 피우고 새도 또한 몇 구절 좋은 소리로 지저귄다.

士君子(사군자)가 다행히 頭角(두각)을 나란히 하여 다시금 따습고 배부름을 만나 고서도 좋은 말을 세워 좋은 일을 행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록 이 세상에 살기 백 년이라 하더라도 흡사 하루도 살지 못한 것과 같다.

61. 학문을 하는 이는 엄격한 가운데 온화한 기상을 잃지 않음으로써 만물의 생에 이바지 한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말 없는 가운데 끊임없이 만물을 生成化育(생성화육)하는 하늘을 본받아 모든 인간의 생을 위하여 기여함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매사에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이 없어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여기에 다시 천지와 같이 크고 너른 마음, 시원스럽고도 깨끗한 맛이 없어서도 안 된다. 그 어느 한편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정의 도를 얻어서 지극히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없이 너르고 시원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서 외곬으로 너무 엄격하고 긴장하고 청렴결백한 데에만 치우치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온화한 기상이 비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만물을 말려 죽이는 살벌한 기운만이 있고 만물을 소생시켜주는 和氣 어린 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고서 어떻게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최고 목표인 만물의 생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學者要有段兢業的心思요 又要有段瀟灑的趣味니 若一味斂束清苦하면 是有秋殺無春生이라 何以發育萬物이리오.

학자는 한층 일에 있어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이 있기를 요하고, 또 한층 시원하고 깔끔한 취미를 갖기를 요한다. 만일 한 가지 맛으로 너무 엄하게 거두어 다잡고 청렴하기만 하다면 이것은 가을의 죽임만 있고 봄의 소생함이 없는 것이니, 무엇으로써 만물을 발육하겠는가!

• 兢業(궁업): 모든 일에 조심하고 몹시 두려워하는 모양.

• 瀟灑(소쇄): 산뜻하고 깨끗하다는 뜻이니, 여기서는 사방이 툭 트여 시원스럽고 깔끔한 마음을 가리

킨다.

- 斂束淸苦: 斂束(렴속)은 너무 거두어 들여 다잡는 것이니, 지나치게 엄하고 긴장된 상태를 말한다. 淸苦(청고)는 청렴결백하여 빈한한 생활을 달게 여기는 것이다.

62. 참말로 청렴한 것은 청렴이란 이름조차 없으며, 교묘한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마음 가운데 名利(명리)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참말로 청렴결백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붙여 다니지 않는다. 적어도 청렴하다는 이름을 듣는 사람은 마음속 어디엔가 명성에 대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이니, 이것은 참말로 청렴한 것이 아니다. 청렴하다는 그 이름 속에는 벌써 탐욕 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또 크게 교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재주를 부리는 일이 없다. 애써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어딘가 서투른 데가 있기 때문이니 이것은 참말로 교묘한 것이 아니다. 참말로 교묘한 것은 무심한 가운데 저절로 재주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眞廉은 無廉名이라 立名者는 正所以爲貪이요 大巧는 無巧術이라 用術者는 乃所以爲拙이니라.

참으로 청렴한 것은 청렴이라는 이름이 없다. 이름을 세우는 사람은 바로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크게 교묘한 것은 교묘한 기술이 없다. 기술을 부리는 사람은 곧 서툴기 때문이다.

63. 기울게 만든 기기(敝器)는 가득 차면 엎어지고, 돈 넣는 병어리는 속이 빔으로써 소용이 된다. 군자는 가득한 것을 피하고 텅 빈 상태에서 논다.

한쪽이 기울게 만들어진 敝器(기기)라는 그릇은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서고 물이 중간쯤 알맞게 들어가면 반듯하게 놓이고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엎어진다. 이것은 옛날 군자들이 곁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반성을 삼던 한 도구다.

또 撲滿(박만)이라고 하여 질그릇으로 된 병어리는 돈이 들어갈 구멍만 있고 나올 구멍은 없다. 그래서 그 속이 꽉 차게 되면 부득이 두드려 깨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속이 비어 있음으로써 소용이 되는 것이요, 꽉 차게 되면 무용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만은 언제든지 속이 텅 비어 있어야 그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여기서 군자는 무엇이든 가득 차게 되면 갈 데 없이 기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음을 텅 빈 박만의 속처럼 차라리 無의 상태에 돌지언정 가득 찬 有의 상태에 두지 않는다. 또 군자는 기울어진 기기처럼 차라리 불완전한 상태에서 머물지언정 완전한 상태에서 머물지 않는다.

敝器는 以滿覆하고 撲滿은 以空全하니 故로 君子는 寧居無不居有하고 寧處缺不處完이니라.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참으로써 엎어지고, 병어리는 속이 빔으로써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無에 있을지언정 有에 있지 아니하고, 차라리 모자라는 그대로 있을지언정 완전한 데 있지 않는다.

• 敝器(기기): 한쪽이 기울게 만든 그릇으로, 속이 비면 서고 물이 알맞게 들어가면 반듯하고 물을 가득 채우면 엎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옛날 군자들이 곁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반성을 삼던 그릇으로 쓰인 것이다.

• 撲滿(박만): 풍돈을 넣어 모으는 질그릇. 곧 병어리로, 돈이 들어갈 만한 구멍만 있고 나오는 구멍이

없다. 그러므로 속이 가득 차면 두드려 깨어야 한다. 속이 빔으로써 用(용)이 되고 속이 차면 無用物(무용물)이 되는 것이다.

64. 공명심과 객기의 발동으로 얻은 사업은 아무리 큰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모두가 속된 것 무익한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恩澤(은택)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공명심과 객쩍게 부리는 혈기 곧 객기, 이 두 가지를 깨끗이 몰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마음 속에 공명심을 뿌리째 뽑아버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왕후·장상과 같은 큰 부귀를 마다하고 한 그릇의 도시락밥과 표주박 물로 목숨을 잇는 지극히 빈한한 생활을 달게 여기며 도덕을 즐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속된 인정에 떨어지고 만다. 그것은 마음속 어디엔가 자리 잡고 있는 공명심의 발동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마음 한 구석에 공명심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직도 욕정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마음속에 객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설령 온 세상을 잘 살게 하고 만 세토록 이익이 될 만한 큰 사업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허세에 의한 객기의 재주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객기라고 하면 정기를 벗어난 아기의 발동이니, 적어도 온 세상에 이익이 될 만한 큰 사업이라면 정기에 의한 진실의 발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기의 재주부림은 그것이 아무리 큰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재주가 되고 마는 것이다.

名根未拔者は 縱輕千乘甘一瓢라도 總墮塵情하고 客氣未融者は 雖澤四海利萬世라도 終爲剩技니라.

功名心を 뿌리째 아직 뽑아버리지 못한 사람은 비록 千乘(천승)을 가버이 여기고 한 표주박의 음식을 달게 여긴다 하더라도 모두가 塵世(진세)의 人情(인정)에 떨어질 것이요, 客氣가 아직 녹아버리지 않은 사람은 설령 사방을 은혜롭게 하고 만세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쓸데 없는 재주가 되고 마는 것이다.

• 千乘: 周나라 때의 軍制로, 天子는 만 대의 兵車를 내놓을 수 있으므로 萬乘之國이라 하고 諸侯(제

후)는 천 대의 병거를 내놓을 수 있으므로 千乘之國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王侯의 지위에 있는 큰 부귀를 가리키는 말이다.

- 一瓢(일표): 《論語(논어)》〈雍也(옹야)〉에 ‘一簞食(일단사) 一瓢飲(일표음)’이란 말에서 나온 말로, 이것은 孔子(공자)의 제자 顏回(안회)가 한 그릇의 도시락밥과 한 그릇의 표주박 물을 마시는 지극히 貧寒(빈한)한 생활을 하면서도 道를 즐기는, 곧 安貧樂道(안빈낙도)하는 생활을 드러낸 글이다.

65. 마음이 밝으면 캄캄한 방 속도 푸른 하늘이요,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태양 아래에서도 귀신이 나온다.

사람은 나면서 하늘로부터 참 마음(眞心)을 부여 받는다. 이 참 마음은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며 태양처럼 환하여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본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광명을 잘 닦아 한 줄기 빛을 잃지 않는다면, 비록 캄캄한 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대낮처럼 환히 밝은 것이다.

그러나 허다한 욕심에 허다한 망령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 본래의 광명을 덮어버린다면, 마음속이 어두워져 밝은 태양 아래에서도 캄캄한 밤중인 양 못된 잡귀들이 어지러이 머릿속을 줄달음질 치는 것이다.

心體光明하면 暗室中에 有靑天하고 念頭暗昧엔 白日下에 生厲鬼니라.

마음의 본바탕이 光明하면 캄캄한 방 가운데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마음 속이 어두우면 대낮 환한 태양 아래에서도 못된 귀신들이 나온다.

66.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즐거움보다 귀한 즐거움은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름과 지위를 얻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을 이름과 지위에 팔려 바빠 뛰어다닌다. 그러나 이름을 날리고 지위를 얻었을 때 따르는 근심 걱정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인가! 행여 나의 이름을 헐뜯는 이는 없을까, 또 행여 나의 지위가 오래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을까 등등.... 마음속이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을 이것이 무슨 인생의 즐거움이란 말인가! 이름과 지위, 여기에 너무 애착하고 매달려 걸근거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대개 가난을 큰 근심거리로 안다. 그러나 부귀를 누릴 때 따르는 근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행여 나의 부귀를 도둑 맞지나 않을까 부귀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나 않은가....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귀로 인한 근심이 어디 가난으로 인한 근심에 비길 바이랴!

덧여놓고 부귀에만 매달려 인생을 헛되이 보낼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人이 知名位爲樂호되 不知無名無位之樂이 爲最貴하고 人이 知饑寒爲憂호되 不知不饑不寒之憂爲更甚이니라.

사람은 이름과 지위가 즐거움이 되는 줄은 알아도 이름도 없고 지위도 없는 즐거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은 모른다. 사람은 배고프고 추운 것이 근심이 되는 줄은 알아도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근심이 한층 심하다는 것을 모른다.

67. 악을 하되 두려운 줄을 알면 착한 길로 들어설 여지가 있고, 선행을 하되 위선에 흐르면 선 속에 악의 뿌리가 자란다.

세상에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조금도 남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전혀 구제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악한 짓을 하면서도 남이 알까봐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짓을 하기는 하되 그 가운데 한 줄기 양심의 빛이 남아 있으니, 그래도 착한 길로 들어설 여지가 있어 좋다.

반면에 세상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착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행여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여 애를 태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착한 일을 하기는 하되, 마음 가운데 공명심이 자리 잡고 있으니, 착한 체 하는 마음, 곧 이것이 악의 뿌리다.

악의 뿌리에서 싹튼 선의 행위보다는 차라리 양심의 빛을 바탕으로 한 악의 행위가 그래도 나을 것이다.

爲惡而畏人知하면 惡中에 猶有善路요 爲善而急人知하면 善處即是惡根이니라.

악한 짓을 하되 남이 알 것을 두려워하면 악한 가운데 오히려 착한 길이 있고, 착한 일을 하되 남이 알아 줄 것을 급해 하면 착한 점이 곧 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68. 어떠한 영웅호걸도 천지자연의 조화의 손바닥 위에서 웃고 울다 갔지만, 오직 순경과 역경을 자유로이 받아 넘기는 군자만은 예외다.

하늘은 우리네 인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쥐었다 폈다 하는 묘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조화 속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느 때는 꼭 놀려 비참한 환경에서 허덕이게 하고, 또 어느 때는 활짝 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도 한다. 부귀를 누리는가 하면 逆境(역경)으로 몰아붙이고 逆境에 몸부림치는가 하면 고통이 다하고 뜻 아닌 기쁨에 웃음 피운다. 옛날로부터 술한 영웅호걸들도 다 그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도덕이 높은 군자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하늘이 만일 역경으로 몰면 군자는 이것을 받아 순경으로 돌린다. 그리고 순경에 뜻을 단 듯 아무 근심 없는 편안한 때라도 언젠가 불어 닥칠 위험한 때를 군자는 미리 생각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마음을 잠시도 놓지 않는다. 그러니 하늘이 아무리 묘한 재주가 있을지 여기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떠한 재주로도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군자는 하늘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에 앉아, 허다한 변화를 그때 그때에 알맞게 처리하면서, 오로지 도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진해 나가는 것이다.

天之機緘이 不測이라 抑而伸하며 伸而抑하나니 皆是播弄英雄하고 顛倒豪傑處라 君子는 只是逆來順受하고 居安思危하나니 天亦無所用其伎倆矣니라.

하늘의 여단은 작용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놀렸다가는 펴고 폈다가는 누르니, 모두 이것이 영웅들을 희롱하고 호걸들을 떨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곳이다. 군자는 다만 이것이 거슬러 오면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편안한 데 있어서는 위험한 것을

생각하므로 하늘도 또한 그 재주를 쓸 곳이 없어지고 만다.

-
- 機緘: 機(기)는 關(관)이니 通(통)한다는 뜻이요, 緘(함)은 봉하는 것이니 닫는다는 뜻이다. 하늘의 기함이란 때로는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닫아 버리기도 하는 하늘의 인간에 대한 다스림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神(신)의 섭리 또는 조물주의 조화의 속과 같은 뜻이다.

69. 또 지나치거나 모자라거나 간에 중정(中正)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원대한 사업을 도모할 수 없다.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무엇이든 부닥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기가 일쑤다.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얼음 같이 차고 막아서 무엇이든 만나는 대로 얼려버리고 만다.

사람됨이 사방이 꽉 막혀 소견이 좁고 고집이 센 사람은 썩은 나무나 흐르지 않고 한 자리에 괴어 있는 물과 같아서 생생한 기능은 이미 끊어져 버린 사람이다.

위에 말한 세 가지 인물은 어느 것이나 다 중용을 잃고 극단으로 흘렀으니 취할 인물이 못 된다. 이들은 모두가 훌륭한 사업을 이룩하고 무한한 행복과 이익을 도모하기에는 이미 거리가 먼 것이다.

燥性者는 火熾라 遇物則焚하고 寡恩者는 氷清이라 逢物必殺하고 凝滯固執者는 如死水腐木하야 生機已絶이니 俱難建功業而延福祉니다.

조급한 성질을 가진 사람은 불이 활활 붙은 듯하여 物을 만나면 곧 불살라 버리고, 은혜가 적은 사람은 얼음같이 차고 막아서 物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 버리며, 꽉 막혀 고집스러운 사람은 괴어 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 生의 機能(기능)이 이미 끊어진 것이다. 어느 것이나 다 功業(공업)을 세우고 福祉(복지)를 뻗어가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70. 복은 기쁜 정신을 기쁨으로써 불러들일 수 있고, 화(禍)는 남을 해치는 기운을 버림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복을 가까이하고, 재앙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할 것이다. 그러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재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나 이것을 멀리 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복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며 재앙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들은 모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를 박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반면, 원치 않는 것을 멀리 할 수가 있을까! 복이나 재앙이나 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이 저마다 올바른 정신을 갖느냐, 또는 옳지 못한 정신을 갖느냐 하는 데에 따라 갈리는 것이다.

올바른 정신이야말로 명랑하고 즐거운 정신이니, 사람은 오직 이것을 길러나가는 것으로 복을 불러오는 근본을 삼아야 한다.

그리고 옳지 못한 정신이야말로 남을 해치는 무서운 정신이니, 사람은 오직 이것을 뿌리째 뽑아 없애는 것으로 재앙을 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福不可徼라 養喜神以爲召福之本而已요 禍不可避라 去殺機以爲遠禍之方而已니라.

복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기뻐하는 정신을 기쁨으로써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을 따름이다.禍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해치는 기운을 버림으로써禍를 멀리 하는 방법을 삼을 따름이다.

71. 열 마디 말에 아홉이 맞아도 훌륭하다 할 수 없다. 맞지 않은 나머지 한마디가 많은 허물을 몰고 오기 때문이다.

사람은 흔히 남의 공을 들추어 칭찬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잡아 헐어 말하기가 쉽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열 마디 말 가운데서 아홉이 맞고 단 한마디가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통하다고 칭찬할 것이 아니다. 맞지 않은 그 한마디 말이 술한 허물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 가지 도모하는 일 가운데 아홉 가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몽땅 공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단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술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말 못할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군자는 세상 인정이 이러한 줄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여서 많은 말을 지껄이지 아니하고 또 차라리 서투른 양 그대로 있어 애써 남의 앞에 교묘한 재주는 피우지 않는다.

十語九中이라도 未必稱奇라 一語不中 則愆尤駢集하고 十謀九成이라도 未必歸功이라 一謀不成 則訾議叢興하니 君子는 所以로 寧默毋躁하고 寧拙毋巧니라.

열 마디 말에서 아홉 가지가 맞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통하다고 칭찬할 것이 아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허물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것이다. 열 가지 꺾에서 아홉 가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功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한 꺾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험뜯는 말이 무더기로 일어나는 것이다. 군자는 이 때문에 차라리 침묵할지언정 지껄이지 아니 하고, 차라리 서툴지언정 교묘한 체를 하지 않는다.

72. 마음이 쌀쌀하면 받는 복도 그만큼 쓸쓸하고 옅고, 마음이 따뜻하면 받는 복도 그만큼 두텁고 오래 간다.

천지의 기운이 봄 여름처럼 따뜻하면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가을 겨울처럼 차가우면 만물은 얼어 죽는다.

사람이라고 다르랴! 마음을 쌀쌀하고 박정하게 가지게 되면 하늘로부터 받는 복도 그만큼 쓸쓸하고 옅은 것이다. 오직 화기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도 그만큼 두텁고 은택도 또한 오래가는 것이다.

天地之氣暖則生하고 塞則殺하니 故로 性氣清冷者는 受享亦涼薄이요 唯和氣熱心之人이야 其福亦厚하며 其澤亦長이니라.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生長하고 차가우면 죽는다. 그러므로 성품과 기질이 맑고 차가운 사람은 받아서 누리는 것도 또한 차고 짧다. 오직 和한 기운과 더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복도 또한 두터우며 그 恩澤(은택)도 또한 오래 가는 것이다.

73. 바른 도리에의 길은 지극히 너그러워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크게 키워주고, 인욕의 길은 지극히 좁아 눈앞이 다 가시덤불이요, 진흙이다.

사람이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 곧 인간의 본성의 참을 밝혀 나가는 길이요, 하나는 무한한 욕심의 세계로 달리는 人欲(인욕)에의 길이다. 사람의 본성을 밝혀 나가는 길은 그것이 곧 천리의 길이니,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인 것이요, 인욕의 길은 그것이 곧 인간의 진실을 가리워 버리는 장애물이니, 인간으로서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도인 것이다. 천리의 길은 지극히 크고 너그러운 길이다. 사람이 한 번 여기에 마음을 붙이기만 하면 가슴 속이 툭 트여 어느덧 벌써 크고 너르고 명랑해진 마음을 느끼게 된다. 인욕의 길은 지극히 좁고도 험한 길이다. 사람이 한 번 여기에 발을 들여 놓기만 하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방이 그대로 가시덤불이요 진흙일 뿐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멀리 인욕에서 벗어나 자기 본래의 진실을 고이 키우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도의 큰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天理路上은 甚寬이라 稍游心이면 胸中이 便覺廣大宏朗하고 人欲路上은 甚窄이라 纔寄迹이면 眼前이 俱是荊棘泥塗니라.

하늘의 바른 도리에의 길 위는 대단히 너그러운 것이라, 잠깐이라도 마음을 노닐게 하면 가슴속이 문득 너르고 크고 명랑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욕망으로 달리는 길 위는 지극히 좁은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취를 부치게 되면 눈앞이 모두가 이 가시덤불이요 진흙바닥이다.

74. 괴로움과 즐거움에 수없이 단련한 끝에 얻은 복이라야 오래 가고, 의문과 믿음에 수없이 반복 연구한 끝에 얻은 지식이라야 참 지식이다.

사람이 한 평생 사노라면 괴로움과 즐거움이 때 없이 번갈아 든다. 그러나 괴로움과 즐거움이 오가는 이 가운데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영글어 간다.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의 끝에 묻어오는 것도, 그렇다고 즐거움의 끝에 묻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느 때는 괴로움에, 또 어느 때는 즐거움에 몸과 마음이 수없이 갈리고 닳아고 하여 심신의 단련이 궁극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맞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요, 영구한 행복이다.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덮어놓고 많은 의문을 일으킨다고 좋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는 의문도 가져보고, 또 어느 때는 믿음도 가져보고, 이리하여 이것을 백 가지로 참조하고 연구검토하고 생각을 거듭한 뒤, 그 생각이 궁극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얻어진 지식, 이것이 곧 진정한 지식이요, 영구한 지식인 것이다.

一苦一樂이 相磨練하나니 練極而成福者는 其福이 始久하고 一疑一信이 相參勘하나니 勘極而成知者는 其知始眞이니라.

한 괴로움과 한 즐거움이 서로 갈리고 닳이는 것이니, 단련이 극진하여서 복을 이룬 사람은 그 복이 비로소 오래 간다. 한 의심과 한 믿음을 서로 참조하고 조사해야 하는 것이니, 조사가 극진하여서 지식을 이룬 사람은 그 지식이 비로소 참 지식이다.

75. 사욕을 쓸어내고 마음을 텅 비워 두어야만 의리의 참 마음이 들어와 살고, 의리의 마음으로 꽉 채워 두어야 물욕이 들어오지 못한다.

사람은 마음 가운데 행여 사욕이 잠자고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이것을 깨끗이 쓸어 없애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항상 텅비워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마음을 비워두어야만이 여기에 의리의 참 마음이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물욕이 침입할 만한 빈틈이 있는가 돌아보고 이것을 의리의 참 마음으로 꽉 채워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마음을 채워두어야 어떠한 물욕도 들어와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心不可不虛라 虛則義理來居하고 心不可不實이라 實則物欲不入이니라.

마음은 비워 두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비어야만 의리가 와서 살게 된다. 마음은 꽉 채워 두지 아니 하면 안 되는 것이니 꽉 채워야만 物欲(물욕)이 들어오지 못한다.

76.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많이 나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많이 나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너무 결백하고 고상한 것을 세우게 되면 사람이 오지 않는다. 외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때 묻은 것,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과 아울러 받아들일 만한 도량을 가져야 한다. 결백을 좋아한다고 혼자만 깨끗한 체 외곬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을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이다.

地之穢者是 多生物하고 水之淸者は 常無魚하나니 故로 君子는 當存含垢納汚之量이요 不可持好潔獨行之操니라.

땅이 더러운 곳은 많은 物이 생기고 물이 맑은 곳은 항상 물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마땅히 때를 머금고 더러움을 받아들일 도량을 두어야 할 것이요, 깨끗한 것을 좋아하여 혼자만 걸어가는 지조는 가져서는 안 된다.

77. 몸에 병이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 마음에 번민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수레를 뒤엎는 난폭한 말이라도 잘 가르쳐서 길들이면 훌륭한 말이 될 수 있다. 용광로 속에서 텅겨져 나오는 다루기 힘든 질 나쁜 쇠붙이이라도 잘 다루기만 하면 마음대로 鑄型(주형) 속에 넣어 무슨 물건이든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리 난폭한 말이라도, 또 아무리 질 나쁜 쇠붙이이라도 다 그와 같이 단련하기에 따라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가르칠 수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 무엇인가 두드러지게 나쁜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좋은 점이 있다던가 하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가지 특성이 있는 사람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분명치 않은 성질로서 오늘날도 그만 내일도 그만인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르치기 곤란한 사람이다. 사람이 만일 한 번이라도 분발하여 떨치고 일어날 생각을 아니하고 평생을 어물어물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다하도록 한 치의 진보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옛날 명나라 때의 학자 白沙(백사) 선생이 한 말이 있다.

“사람이 되어서 몸에 병이 많은 것은 부끄러워 할 것이 못 되나, 마음에 병이 없는 것, 곧 한 평생 근심걱정을 몰라 마음에 번민이 없는 것, 이것이 나의 근심거리다.”

사람이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민하는 이 가운데 진보·발전하는 것이요, 또 여기서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평생 마음에 번민을 모른다면 어찌 되겠는가! 백사 선생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의 근심되는 점을 참으로 정확하게 드러낸 말이라 하겠다.

泛駕之馬도可就驅馳요 躍冶之金도終歸型範이로되 只一優游不振하면 便終身無個進步라 白沙云 爲人多病이 未足羞요 一生無病이 是吾憂라하니 眞確論也니라.

수레를 뒤엎는 말이라도 몰아서 빨리 달리게 할 수 있고, 용광로 속에서 뛰쳐나오는 쇠붙이도 마침내는 鑄型(주형) 속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만 하나같이 우유해서 떨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득 몸을 마치도록 하나의 진보도 없을 것이다.

白沙가 말하기를,

“사람이 되어서 병이 많은 것은 마치 부끄럽지 않으나 한평생 병이 없는 것이 나의 근심이라.”

하니, 참말로 확실한 말이라 하겠다.

-
- 泛駕之馬(붕가지마): 수레를 뒤집는 말이니, 곧 성질이 난폭한 말을 뜻한다.
 - 鑄冶之金(약야지금): 《莊子(장자)》에 이런 말이 있다.

有名な 鑄匠(주장)이 쇠붙이를 다루는데, 그 쇠붙이가 鑄鑪(용광로)에서 뛰쳐나오며 하는 말이 “나는 반드시 鑄鄒(막야)라는 名劍이 되겠다.”고 하였다. 이에 鑄匠(주장)이 그것을 반드시 상서롭지 못한 쇠붙이라 하였다.〈內篇 大宗師〉 鑄冶之金이란 용광로에서 뛰쳐나오는 쇠이니, 다루기 어려운 가장 질이 나쁜 쇠를 말한다.

- 白沙(백사): 明나라 때의 學者로서 이름을 陳獻章(진헌장)이라 한다. 號(호)는 石齋(석제)라고 하며, 白沙(백사) 땅에 살았으므로 다시 白沙先生(백사선생)이라고 불리었다.

78. 옛 사람은 금은보화를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탐욕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배를 삼았다. 탐욕은 사람의 품위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으로부터 사욕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욕이란 몹시 자극적이고 무지스럽고 잔인한 것으로 거의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무서운 것이다. 사람으로서 만일 한결 같이 사욕만을 생각한다면, 본래는 굳세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사욕의 독기에 녹아 죽대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만다. 또 본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 사욕에 가리어 사리에 더 없이 어두워진다. 또 본래는 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 그지없이 잔인한 사람으로 변한다. 또 본래는 결백한 사람이었던 것이 마음이 그토록 더러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욕은 결국 사람의 一生의 품위를 깨뜨리고 만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금 은 보화를 보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욕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배를 삼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초월하여 한생전 멋지게 살다 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人이 只一念貪私하면 便銷剛爲柔하고 塞智爲昏하고 變恩爲慘하고 染潔爲汚하여 壞了一生人品이라 故로 古人은 以不貪爲寶하나니 所以로 度越一世니라.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생각 私를 탐하면 문득 굳센 것이 녹아 柔弱(유약)한 것이 되고 지혜가 막혀 어두움이 되고 은혜가 변하여 잔인한 것이 되고 결백한 것이 물들여져 더러운 것이 되어서 一生의 人品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탐내지 않는 것으로써 보배를 삼았으니, 이 때문에 한 세상을 초월했던 것이다.

**79. 보고 들리는 것은 다 바깥 도적이요, 정욕과 의식은 안 도적이다. 그러나 주인공
인 본심만 제자리에 깨어 있다면 이것들은 다 나의 심복이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주인공인 본심이 제자리에 반듯하게 앉아 있는가를 때때로 돌아보며 잠시도 마음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本心이란 진실하여 망령된 생각이 전혀 없는 인간 본래의 참 마음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이 참 마음은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안팎으로부터 허다한 유혹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하고 사람의 눈은 좋은 빛깔을 즐겨하고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고 입은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 귀와 눈과 코와 입이 각기 즐겨하는 아름다운 소리와 좋은 빛깔과 향기로운 냄새와 맛있는 음식 등은 모두가 밖에서 오는 도적으로서 이것들은 언제나 틈만 있으면 안으로 들어와 인간의 참 마음을 유혹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등, 마음으로 부터 일어나는 허다한 욕구며,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판단 분별하는 의식으로 하여 적지 아니한 본심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들은 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적으로서, 틈만 있으면 참 마음의 중정한 도를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해치려는 안팎의 도적들을 무엇으로 막으며 또 무엇으로 행복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주인공인 本心이 깨어 있는가 아니면 흐리멍덩한 가운데 졸고 있는가에 따라 내가 도적에게 먹히느냐 또는 도적으로부터 행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가름되는 것이다. 이 때를 당하여 나의 주인공인 본심이 어떠한 유혹에도 까딱없이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마음 한 가운데 반듯하게 앉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토록 나를 괴롭히며 따라다니던 도적들이 어느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본심이 또렷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떠한 망령된 생각들도 감히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바로 그 망령된 생각들이 도리어 나의 심복이 되는 것이다.

耳目見聞이 爲外賊이요 情欲意識이 爲內賊이니 只是主人翁이 惺惺不昧하여 獨座中堂하면 賊便化爲家人矣리라.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바깥 도적이 되고, 情欲과 의식은 안의 도적이 된다. 다만 이 主人公이 초롱초롱하여 어둡지 아니해서 홀로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도적이 문득 변해서 집사람이 된다.

-
- 主人翁(주인翁):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는 인간의 본심을 가리킨 말이다. 사람의 육신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니, 마음은 바로 육신의 주인공이요, 임금이기 때문이다.
 - 中堂(중당): 여기에서는 마음이 앉아 있어야 할 한 가운데 자리, 곧 마음의 본디 자리를 말한다.

**80. 이 새로운 사업계획보다 현업(現業)에 더욱 힘쓰고, 지나간 실수에 사로잡히기
보다 앞으로 실수 없기에 마음을 다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 계획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두고 머리를 짜기보다는 이미 이루어 놓은 사업에 눈을 돌려 이것을 길이 보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또 사람들은 흔히 한 번 실수가 있게 되면 여기에 사로 잡혀,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실수에 매달려 후회를 거듭하기보다는 앞으로 다시금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과오를 예방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편이 훨씬 현명한 일이다.

圖未就之功이 不如保己成之業이요 悔既往之失이 不如防將來之非니라.

아직 성취하지 못한 공을 꾀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 놓은 사업을 보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미 지나간 失手를 뉘우치는 것이 장차 올 허물을 예방하는 것만 못하다.

81. 사람의 기상은 높고 너르되 소홀한 데 흘러서는 안 되고, 취미는 깨끗하되 메말라서는 안 된다.

사람의 기상은 되도록 높고 너르게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너무 지나친 데 흘러 만사를 소홀히 여기고 또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쓰는 데는 모든 일에 세심하여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세심하여 너무 잘고 좀스러워서는 안 된다.

사람의 취미는 되도록 맑고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백한 것도 한계가 있다. 결백한 데 너무 치우쳐서 차가운 느낌마저 들 정도로 메마른 데 흘러서는 안 된다.

사람의 주의 주장은 엄정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엄정하여 외골으로 혼자 나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氣象은 要高曠이로되 而不可疎狂이요 心思는 要縝密이로되 而不可瑣屑이요 趣味는 要冲淡이로되 而不可偏枯요 操守는 要嚴明이로되 而不可激烈이니라.

기상은 높고 너르게 갖기를 要하되 성기거나 常道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요, 心思는 세심하고 뽁뽁하기를 要하되 잘고 좀스러워서는 안 된다. 趣味(취미)는 맑고 깨끗하기를 요하되 치우치고 메말라서는 안 되고, 지조의 지킴은 嚴正(엄정)하고 明白하기를 요하되 너무 거세어서는 안 된다.

82. 군자는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않는다. 일이 오면 오는 대로 응하고, 가면 가는 대로 잊어, 마음을 항상 비워 둔다.

성긴 대숲에 바람이 불어오면 댓잎이 산들거리며 무엇인가 소리를 낸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뿐이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까지 대나무가 그 소리를 머물게 두지는 않는다. 바람과 함께 보내버리고 마는 것이다.

차가운 연못 위를 기러기가 날아가면 울동적인 한 그림자가 연못을 미끄러져 간다. 그러나 그것은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때뿐이다. 기러기가 지나가 버린 뒤에 까지 연못이 그 그림자를 붙잡아 두지는 않는다. 기러기와 함께 자취 없이 보내버리고 마는 것이다.

사물이 오면 오는 대로 응하고, 가면 또 가는 대로 보내어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 대나무와 연못, 그것은 흡사 군자의 마음과도 같은 것인가!

도덕이 높은 군자는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도록 담아 두는 일이 없다. 사물이 오면 고요하던 마음이 비로소 움직여 그에 따라 알맞게 응하고, 사물이 가버리면 가는 대로 그 일은 깨끗이 잊고 마음이 다시금 공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군자의 마음은 고요하여 항상 비어 있다. 그래서 군자는 허다하게 들이 닥치는 변화로운 사건을 그때마다 다 알맞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군자는 마음을 써도 써도 피로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風來疎竹호되 風過而竹不留聲하고 雁度塞潭호되 雁去而潭不留影하나니 故로 君子는 事來而心始現하고 事去而心隨空이니라.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오되 바람이 지나가버리면 대나무는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건너되 기러기가 가버리고 나면 연못은 그림자를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事物이 오면 마음이 비로소 나타나고 사물이 없어지면 마음도 따라서 비어버린다.

83. 결백하면서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인정이 풍부하면서 결단을 잘 내리고, 총명하면서 까다롭지 않고, 정직하면서 남을 바로잡는 데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은 모름지기 청렴결백해야 한다. 그러나 청렴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용납할 만한 관용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청렴하면서 곧 잘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또 반드시 仁愛(인애)하는 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人情(인정)이 지나치게 되면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인정이 풍부하면서 사람은 모름지기 청렴결백해야 한다. 그러나 청렴이 지나치게 되면 사람을 용납할 만한 관용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청렴하면서 곧 잘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또 반드시 인애하는 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정이 지나치게 되면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인정이 풍부하면서 결단을 잘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또 반드시 총명해야 한다. 그러나 총명이 지나치게 되면 아주 작은 일까지 까다롭게 살피게 되니, 자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목을 사게 된다. 그러므로 총명하면서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또 사람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직하게 되면 말마다 바른 말을 하며 남의 결점을 바로 잡는 데 무리를 더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직하면서 남을 바로잡는 데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결백하면서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인정이 풍부하면서 결단을 잘 내리고, 총명하면서 까다롭지 아니하고, 정직하면서 남을 바로잡는 데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꿀을 바른 음식이지만 꿀맛만 두드러지지 않고, 바다에서 나온 식물이지만 바닷물 맛으로 사람의 혀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이 맛과 저 맛이 두루 합하여 하나의 조화된 맛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쪽과 저쪽, 그 두 끝을 잡아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화의 상태를 이룬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중정의 자리를 얻은, 참으로 아름다운 덕이라 할 것이다.

淸能有容하며 仁能善斷하며 明不傷察하며 直不過矯하나니 是謂蜜餞不蛄하고
海味不醎이라 纔是懿德이니라.

청렴하면서 능히 관용성이 있고, 어질면서 능히 決斷(결단)을 잘 하며, 총명하
면서 상세한 것을 해하지 아니하고, 正直하면서 바로잡는 데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
니 이것이 이르되 꿀을 바른 음식이 달지 아니하고, 바다의 맛이 짜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비로소 이것이 아름다운 덕이 되는 것이다.

84. 사람은 먹으나 굶으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지조만은 한결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아무리 볼품없는 가난한 집이라도 사방을 돌아가며 깨끗하게 쓸어내고 또 아무리 험벗은 가난한 집 여자라도 머리를 매끈하게 빗질하고 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화려하고 아름다운 줄은 모르겠지만 그 기상이 저절로 풍치 있고 우아한 멋이 돈다.

사람은 먹으나 굶으나 사람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위만은 끝까지 지켜 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런대로 품위를 갖추느라 마음을 쓰다가도, 험먹고 험벗게 되면 그만 스스로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

학문과 덕행을 닦아나가는 선비로서야 자신이 한 번 궁지에 떨어지고 쓸쓸한 零落(영락)의 경우를 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내동댕이칠 수가 있었겠는가!

굶든 먹든 한결 같이 품위와 지조를 지켜 잃지 않는 여기에 군자다운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貧家淨拂地하고 貧女淨梳頭하면 景色이 雖不艷麗나 氣度自是風雅니 士君子一當窮愁寥落이언정 奈何輒自廢弛哉리요.

가난한 집도 깨끗하게 땅을 쓸고, 가난한 집 여자도 매끈하게 머리를 빗질하고 나면 겉모양이 비록 곱고 화려하지는 않으나 기상이 저절로 풍치 있고 우아하다. 士君子가 한 번 곤궁한 근심과 영락의 경우를 당한다고 해서 어떻게 문득 스스로 버리고 느즈러질 수 있겠는가!

85. 한가하다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고요하다고 정신적인 활동을 끊지 아니 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속이고 숨기지 않는다.

한가한 때에 마음을 다잡아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면, 바쁜 일을 당했을 때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 일을 처리하여 조금도 막히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또 고요한 때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빈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는다면, 뒷날 활동해야 할 시기에 가서 역시 여유 있고 자유로운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고 잘못을 숨기며 온갖 부끄러운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보는 밝은 곳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여 거리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활동을 하든 아니하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줄기 정신적인 활동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이 보는 앞이든 보지 않는 어두운 방속이든, 오직 한 가닥 성실한 마음으로 일관하여 조금이라도 안으로 부끄러운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활동의 대자유를 맞볼 수 있는 것이다.

閑中에 不放過하면 忙處에 有受用이요 靜中에 不落空하면 動處에 有受用이며 暗中에 不欺隱하면 明處에 有受用이니라.

한가한 가운데에서 놓아 보내지 아니하면 바쁜 곳에서 받아서 활용함이 있을 것이요, 고요한 가운데에서 잠재우고 비워주지 아니하면 움직이는 곳에서 받아서 활용함이 있을 것이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속이고 숨기지 아니 하면 밝은 곳에서 받아서 활용함이 있을 것이다.

-
- 放過(방과): 放心(방심)하여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
 - 受用(수용):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한다.

- 落空(낙공): 아무런 계획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이니, 정신적인 활동이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

86. 바른 도리에의 길은 삶이 있고, 인욕(人欲)에의 길은 죽음이 있다. 혹 자신이 인욕의 길 위에 있거든 곧바로 도리의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욕심의 세계로 가는 인욕에의 길ियो, 또 하나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 곧 참 마음을 밝혀 나가는 바른 도리에의 길이다. 인욕의 길은 인간이 가서는 안 될 아도로서 재앙과 죽음을 맞으러 가는 길ियो, 바른 도리에의 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정도로서 행복과 삶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이 어느 길로 달리고 있는지, 자기관찰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만일, 다만 한 생각이라도 인욕의 길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곧바로 생각을 돌이켜서 도리의 바른 길로 가도록 방향을 바꾸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번 생각이 일어나면 도리나 인욕이나를 곧 깨달아 알도록 하고, 한 번 깨닫게 되면 어김없이 도리에의 길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참말로 이렇게만 한다면, 이것이 이른바 재화를 바꾸어 복으로 돌리고, 죽을 것을 일으켜서 삶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곧 화와 복, 죽음과 삶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다.

도리에의 길은 행복과 삶의 길ियो, 인욕에의 길은 재앙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부디 마음에 잊지 말아서 생각마다 깨달음이 있도록 하고, 깨닫는 것마다 도리에의 길로 방향을 돌려놓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念頭起處 纔覺向欲路上去어든 便挽從理路上來니 一起便覺하고 一覺便轉하면 此是轉禍爲福이요 起死回生の關頭라 切莫輕易放過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겨우 욕망의 길 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문득 끌어당겨 바른 도리의 길로 오게 할 것이다. 한 번 일어나자 곧 깨닫고 한 번 깨닫자 곧 굴리면 이것이 災禍(재화)를 굴려 복을 만들고 죽을 것을 일으켜 삶으로 돌리는 분기점이니, 부디 가볍고 쉽게 여겨 마음을 놓아 보내지 않도록 할 것이다.

**87. 마음의 참 본체를 보고, 마음의 진정한 활동을 알며, 마음의 참 취미를 얻는 것,
이것은 도를 깨닫는 최상의 방법이다.**

모든 생각이 잠들어 고요할 때 마음이 속속들이 맑게 띄어 있으면 비로소 마음의 본래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환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것은 인욕에 가리워지지 않은 순전한 도덕심이니, 다만 한 생각이라도 망령된 생각이 없는 진실 그대로인 것이다.

한가할 때 자기의 氣象(기상)이 조용하면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이 행하여서 바른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취미가 조화롭고 평온하면,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취미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화롭고도 평온한 천지자연의 大道(대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마음의 참 모습을 관찰하고 도를 몸소 체험하여 얻는 데는 위에 말한 세 가지보다 더한 것은 없다.

靜中念慮澄澈하면 見心之眞體하고 閑中氣象이 從容하면 識心之眞機하며 淡中意趣冲夷하면 得心之眞味하나니 觀心證道는 無如此三者니라.

고요한 가운데의 마음이 속속들이 맑게 트이면 마음의 참 본체를 볼 수 있고, 한가한 가운데의 氣象이 종용하면 마음의 참 작용을 알 수 있고, 맑고 깨끗한 가운데에서 취미가 平和로우면 마음의 참 취미를 얻을 수 있다. 道를 증험하는 데는 이 세 가지만한 것이 없다.

88. 즐거운 환경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 즐거움이 아니다. 험벗고 험먹는 구차한 환경 속에서도 도덕과 더불어 산다는 즐거움, 이것이 참 즐거움이다.

사람은 보통 고요한 환경 속에서는 마음의 고요를 얻기 쉬워도, 시끄러운 환경 속에 들게 되면 마음의 고요를 얻기 어렵다. 사람은 또 즐거운 환경 속에서 지낼 때는 마음이 항상 즐거울 수 있어도, 괴롭고 구차한 환경 속에서 지낼 때는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란 참말로 어렵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환경의 바뀔에 따라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고요한 환경 속에서의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변화하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참 고요요, 이 자리가 바로 타고난 심성의 참 경계를 얻은 자리이다.

그리고 즐거운 환경 속에서의 즐거움은 참 즐거움이 아니다. 험벗고 험먹는 구차한 환경 속에서도 도덕과 더불어 산다는 즐거움, 이것이 곧 참 즐거움이요, 또 여기서 비로소 참 마음의 진정한 활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靜中靜은 非眞靜이라 動處에 靜得來라야 纔是性天之眞境이요 樂處樂은 非眞樂이라 苦中에 樂得來라야 纔見心體之眞機니라.

고요한 가운데의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요,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 와야 비로소 이것이 타고난 마음의 참 경계인 것이다. 즐거운 곳에서의 즐거움은 참 즐거움이 아니요, 괴로운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얻어 와야 비로소 마음의 본체의 참 작용을 보는 것이다.

• 性天(성천):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性品(성품)을 타고 난다 하여 性天이라 하였다. 곧, 本性(본성) · 本心(본심)(真心)을 가리킨다.

89. 참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버렸으면 그것으로 그쳐야 한다. 남의 딱한 처지에 인정이 넘쳐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남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토록 어려운 일을 決行하고서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셈하여 고개를 갸우뚱한다고 하면, 이것은 모처럼 남을 위하여 자기를 버린 그 본래의 훌륭한 정신에 대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크나 작으나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 또한 썩 쉬운 일이 아니다.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마음에 측은한 仁情(인정)이 넘쳐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것으로 만족할 따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오는 보답을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자기가 베푼 은혜에 대하여 참말로 보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처럼 베푼 그 은혜는 물론이요, 은혜를 베풀게 된 그 본래의 아름다운 仁心마저 다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舍己하야는 毋處其疑니 處其疑하면 卽所舍之志多愧矣리라 施人하야는 毋責其報니 責其報하면 併所施之心이 俱非矣니라.

자기를 버리고는 그 의심을 두지 말 것이니, 그 의심을 두게 되면 곧 버린 바의 뜻이 부끄러움이 많으리라. 남에게 베풀고는 그 갚기를 재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그 갚기를 재촉하면 베푼 바의 마음이 한 가지로 그릇된다.

90. 하늘이 만일 내게 복을 적게 주거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덕을 두터이 쌓아 나가리라. 그리하여 복이 아니 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하늘이 만일 나에게 복을 적게 주거든,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덕을 더욱 두터이 쌓아 나가리라. 그리하여 복이 아니 오지 못하도록 하리라.

하늘이 또 만일 내게 몸수고를 심하게 하거든, 나는 또 여기서 나의 마음을 되도록 편안하게 가져 심한 勞苦(노고)로 하여 지친 내 몸을 보충해 나가리라. 그리하여 어떠한 노고에도 끝내 쓰러지지 않는 인간의 굳건한 모습을 보이리라.

또 하늘이 만일 나를 더할 수 없는 곤경으로 몰아넣어 사방이 꽉 막힌 절박한 형세에 놓이게 한다면, 나는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나의 도덕을 굳게 지키며 이것으로 사방에 길을 뚫어 나가리라. 그리하여 도덕의 대자유를 마음껏 누리리라.

이렇게 한다면, 하늘이라도 여기서 또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天이 薄我以福이어든 吾厚吾德하야 以迓之하고 天이 勞我以形이어든 吾逸吾心하야 以補之하며 天이 陋我以遇이든 吾亨吾道하야 以通之하리니 天且我에 奈何哉리요.

하늘이 나에게 박하게 하기를 복으로써 하거든 나는 나의 덕을 두터이 해서 그것으로 이것을 맞이하고, 하늘이 나에게 수고롭게 하기를 몸으로써 하거든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그것으로 이것을 보충하며, 하늘이 나에게 아주 궁색하게 하기를 형세로써 한다면 나는 나의 道를 실천하여 그것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이니, 하늘이 또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91. 하늘은 사람들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욕심 없는 마음에 복을 주고, 욕심 많은 마음에 복을 떨어간다.

절의가 있는 선비는 오직 절의를 위하여 있을 뿐, 나 하나를 위하여 복을 구하고저 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다. 그래서인가 하늘은 도리어 복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이곳을 찾아가 그 마음속을 활짝 열어 주고 행복의 열쇠를 내어 준다.

음흉한 사람은 스스로 재앙될 일을 지어 놓고서 그 재앙을 피하는 데 온 정신을 기울인다. 그래서인가 하늘은 도리어 애써 피하고자 하는 이 곳을 찾아가 큰 재앙을 내려 혼을 빼어 준다.

하늘은 우리네 사람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어 주지도 아니할 뿐더러, 원치 않는다고 또한 원치 않는 대로 되어 주지도 않는다. 사람이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는 아랑곳 없이, 오로지 욕심 없는 마음을 찾아가 복을 주고, 욕심 많은 마음을 찾아가 복을 떨어 갈 따름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하늘의 활동인가! 여기에 우리네 인간의 작은 지혜며 교묘한 재주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貞士는 無心徼福이라 天卽就無心處牖其衷이요 憊人은 著意避禍라 天卽就著意中奪其魄하나니 可見天之機權이 最神이라 人之智巧何益이리오.

貞節(정절)의 선비는 복을 구하는 데 마음이 없으니, 하늘은 곧 마음이 없는 곳에 나아가 그 속을 열어준다. 음험한 사람은禍를 피하는 데 뜻이 붙어 있으니, 하늘은 뜻이 있는 속에 나아가 그 혼백을 빼앗아 버린다. 하늘의 機能(기능)과 權變(권변)이야 말로 가장 신비롭다는 것을 넉넉히 볼 수 있으니, 사람의 지혜와 공교로움이 무엇에 보탬이 되겠는가!

92. 노래를 팔던 기생도 늙바탕에 어진 남편 만나 살면 다 묻히고, 정절부인도 늙바탕에 정조 한 번 잃게 되면 남는 것은 치욕 뿐이다.

노래와 웃음을 팔며 청춘을 보낸 왕년의 기생도 늙바탕에 어진 남편을 만나 좋은 아내 노릇을 하며 훌륭한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지난날 연지 분 바르고 기생 노릇 하던 일이 무슨 거리낄 게 있겠는가!

그러나 정절을 지키던 사람이 중간에 와서 이것을 잃었다고 하면 이야기는 다르다.

아까운 청춘을 수절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쓰라림을 참고 견뎌 온 정절부인도 늙바탕에 가서 어찌다 한 번 정조를 잃게 되면, 반평생을 지켜오던 깨끗함도 쓰라림도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고, 남는 것은 치욕 뿐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거든 그의 생애의 뒤에 남은 半生을 보라.”

하였으니, 참말로 꼭 들어맞는 훌륭한 말이다.

聲妓도 晩景從良하면 一世之烟花無碍요 貞婦도 白頭失守하면 半生之清苦俱非 하나니라 語에 云看人엔 只看後半截이라하니 眞名言也니라.

노래하는 기생도 늙바탕에 남편을 따르면 한 평생의 연지분도 걸릴 것이 없고, 貞節의 부인도 늙바탕에 정조 지킴을 잃게 되면 반평생의 깨끗함과 괴로움도 다 함께 그릇 된다.

옛 말에 말하기를,

“사람을 보는 데는 다만 後半生(후반생)을 보라.”

하니, 참말로 名言이다.

**93. 평민도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지위 없는 왕공 · 재상이요, 높은 벼슬아치도
권세나 탐내고 임금의 총애나 판다면 벼슬 가진 걸인이다.**

왕공 · 재상이 따로 있는가! 벼슬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도 마음에 인정이 넘쳐서
기꺼이 덕을 심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이 사람은 곧 지위 없는 王公 ·
재상인 것이다.

걸인이 따로 있는가! 문벌이 좋은 양반이라도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 앉아 권세나
탐내고 임금의 은총이나 팔면서 손을 벌려 재물을 요구한다면, 이 양반은 바로 벼
슬을 가지고 있는 걸인인 것이다.

平民도 肯種德施惠하면 便是無位的公相이요 士夫도 徒貪權市寵하면 竟成有爵
的乞人이니라.

平民도 즐거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문득 이것이 位가 없는 王公 宰相이요,
벼슬과 문벌이 높은 사람도 한갓 권세를 탐내고 恩寵(은총)을 팔면 마침내는 벼슬
이 있는 거지가 되고 만다.

**94.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행복은 조상이 피땀 흘려 쌓으신 덕택이요, 우리가 짓는
오늘의 사업은 훗날 자손의 행복의 발판이 된다.**

조상의 덕택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행복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아쉬움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조상이 피땀 흘려 쌓아놓고 가신 덕택인 것이다. 그 얼마나 쌓아 올리기 어려운 것을 쌓고 또 쌓아 오늘을 있게 하셨던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도 그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이제 자손의 행복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짓고 있는 바로 이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다행하게도 우리의 조상이 당신네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상의 뜻을 받들어 많은 德行을 쌓아올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의 행복은 다시금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조상이 지은 것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지은 것은 자손이 받는 것이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조상의 은덕을 영원히 기리며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問祖宗之德澤하면 吾身所享者是니 當念其積累之難하고 問子孫之福祉하면 吾身所始者是니 要思其傾覆之易니라.

조상의 덕택을 묻는다면 내 몸이 누리는 바 그것이 이것이니, 마땅히 그 쌓아 올리기 어려움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손의 행복을 묻는다면, 내 몸이 끼친 바 그것이 이것이니, 그 기울어지고 엎어지기 쉽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요한다.

95. 군자의 위선적인 행위는 소인의 드러내 놓고 하는 악행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명색이 군자라고 하면서 속 다르고 겉 다른 위선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무식한 소인이 악한 짓을 드러내 놓고 마음대로 하는 것과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 또 명색이 군자라고 하면서 이름에 또는 돈에 팔려 함부로 지조를 바꾼다고 하면, 이것은 망나니짓을 하던 소인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이 된 것만 훨씬 못한 것이다.

君子而詐善은 無異小人之肆惡이요 君子而改節은 不及小人之自新이니라.

군자로서 좋을 속인다면 小人이惡한 짓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군자로서 절개를 바꾼다면 소인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96. 집사람에게 허물이 있거든 슬며시 돌려서 타이르며,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풀
어 주듯, 서서히 마음 돌리기를 기다린다.**

집사람에게 허물이 있거든 너무 심하게 화를 내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벼이
여겨 그대로 버려두어서도 안 된다. 먼저 그 일이 직접 맞대어 놓고 말해도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일 직접 말하기 곤란한 일이라면, 다른 일을 내세워 감
정을 다치지 않도록 슬며시 돌려서 말한다. 그리하여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
을 기다려서 다시금 깨칠 수 있도록 타이르는 것이다. 마치 봄 바람이 언 땅을 풀
어 주듯, 화한 봄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다잡지 말고 그렇게 서서히 마음을 돌리
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가정을 이
룰 수 있는 것이다.

家人有過어든 不宜暴怒하고 不宜輕棄니 此事難言이어든 借他事隱諷之하야 今日
不悟어든 俟來日再警之하야 如春風解凍하고 如和氣消永하면 纔是家庭의型
範이니라.

집사람이 허물이 있거든 사납게 성내는 것도 옳지 못하고, 가벼이 버려두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 일이 말하기 곤란한 일이거나 다른 일을 빌려와서 가만히 이를 풍
자해서 오늘 깨닫지 못하거든 내일을 기다려서 다시 이를 경계하도록 한다. 마치
봄바람이 언 것을 풀고, 화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하는 것이니 비로소 이것이 가
정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97. 내 마음에 결함이 없으면 세상에 결함이 절로 없어지고, 내 마음이 관대하면 험악한 인정이 따로 없다.

사람은 항상 자기 관찰을 통하여 결함이 없는 원만한 심성을 닦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의 마음이 항상 원만한 상태 그대로 있어 어느 한쪽 이지러진 구석이 없다면, 이 세상 또한 흠이 될 만한 곳은 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또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항상 관대하고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마음의 고삐를 활짝 풀어 어디든 자유로이 내놓아도 마음이 항상 관대하고 평온하다면, 이 세상 어디를 가나 험악한 인정은 다 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此心이 常看得圖滿하면 天下自無缺陷之世界요 此心이 常放得平하면 天下自無險側之人情이니라.

이 마음이 항상 보아서 원만하면 천하에 저절로 결함의 세계가 없을 것이요, 이 마음이 항상 놓아서 너그럽고 평온하면 천하에 저절로 험악하고 비뚤어진 인정이 없을 것이다.

98. 군자는 세상 사람이 싫어하거나 의심한다고 자기의 지조와 도덕적인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

평소에 욕심이 없고 마음이 청렴결백한 선비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 이상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반드시 놀림을 받게 된다.

또 평소에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 멋대로 노는 사람들 눈에 가시로 비쳐 미움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군자는 여기서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군자는 남이야 나를 이상하게 보든 또는 싫어하든 여기에 하등 구애될 것이 없다. 세상이야 무어라든 내가 간직한 지조며, 도덕적인 행위를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만일, 세상 사람들의 편파적인 태도에 흔들려 조금이라도 지조와 행위를 바꾸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는 이미 군자가 아니다.

그러나 군자는 또 너무 각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남이 무어라든 상관없이 자기의 지조와 행위를 바꾸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되,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너무 모나게 드러내어 사람들과 더불어 받고 부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의 지킬 바를 다하면서 각을 드러내지 않는 여기에 군자다운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澹泊之士는 必爲濃艷者所疑요 檢飭之人은 多爲放肆者所忌니 君子處此하야 固不可少變其操履며 亦不可太露其鋒鋦이니라.

맑고 깨끗한 선비는 반드시 질고 화려한 사람의 의심하는 바가 되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제멋대로인 사람의 꺼려하는 바가 된다. 군자가 여기에 있어서 진실로 조금이라도 지조와 행실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또한 너무 그 칼날의 서슬을 드러내어서도 안 된다.

99. 역경에서의 괴로움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침과 약돌이요, 순경에서의 즐거움은 사람의 명치 끝을 노리는 창칼이다.

일마다 뜻에 어그러지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 허덕일 때는 주위에 벌려 있는 모든 것이 다 쇠바늘, 돌바늘이요 약이 되는 돌이다. 바늘은 찌르면 살이 아프고 약은 먹으면 입에 쓰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역경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역경 속에서 허덕일 때는 모두가 쓰고 아픈 괴로움뿐이지만, 사람은 역경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쇠바늘과 돌바늘에 자극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 약돌에 굳은 절조와 변함없는 행실을 닦아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미처 그런 줄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반대로, 일마다 뜻대로 잘 되는 행복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모두가 싸움의 칼이요 창이다. 이것들은 행복한 환경 속에서 안락을 누리는 사람의 적이 되어 항상 그 명치 끝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다할 때는 모두가 편하고 즐거움뿐이지만, 사람은 행복한 환경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기름이 빠지고 뼈가 깎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바로 그 즐거움이 자기 몸에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참말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은 역경에서보다도 행복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다. 사람은 행복한 환경에 있을수록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더욱 억제하여 그 창칼에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행동을 삼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居逆境中엔 周身이 皆鍼砭藥石이라 砥節礪行而不覺하고 處順境內엔 眼前이 盡兵刃戈矛라 銷膏磨骨而不知니라.

역경의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몸의 둘레에 있는 것이 모두가 쇠바늘 돌바늘이요 약

이 되는 돌이라, 節操(절조)를 갖고 행실을 닦으면서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순경의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눈앞에 것이 다 싸움의 칼이요 창이라,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내는데도 모르고 있다.

-
- 鍼砭藥石: 鍼(침)은 쇠바늘이요, 砭(땀)은 돌바늘이요, 藥石(낙석)은 돌을 구워 몸에 품어서 병을 치료 하는 것이니, 약돌이다.

100. 부귀와 권세에 대한 불같은 욕망에 청냉(淸冷)한 기미로 조화를 이루지 아니 하면, 결국 자신을 불사르게 된다.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하여 조금이라도 부족을 모르고 자라난 사람은, 무엇이든 자기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욕심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아 겹잡을 수가 없다. 또 한 번 권세를 부리기로 들면 그 기세가 마치 무섭게 튀기는 불꽃과도 같아 인정사정이 없다. 그것은 부귀한 환경 속에서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또 기분에 내키는 그대로 거침없이 내달아 조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만일 여기에 조금이라도 淸廉(淸렴)한 氣味(기미)를 띠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결국 그 겹잡을 수 없는 불길과 무서운 불꽃은 남을 불태우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불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生長富貴叢中的嗜欲은 如猛火요 權勢는 似烈焰이니 若不帶些淸冷氣味하면 其火焰이 不至焚人이면 必將自燦矣리라.

부귀의 숲속에서 자라난 이의 즐겨하는 욕심은 맹렬한 불길과 같고 권세는 무서운 불꽃과 같다. 만약 조금이라도 맑고 찬 기미를 띠지 아니하면, 그 불꽃이 다른 사람을 불태우는 데 이르지 않으면 반드시 장차 스스로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101.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참되면 오월에 서리도 내리게 할 수 있고 성곽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금석도 꿰뚫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티끌만큼이라도 망령된 생각이나 기만성이 없고, 오직 한 가닥 眞心(진심) 그대로라면, 이 참 마음 하나로서 오뉴월에 서리도 내리게 할 수가 있고, 단단한 성곽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으며, 무쇠와 돌도 쉽게 꿰뚫을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더니, 참 마음이란 그대로 천지도 감동케 하고 귀신도 넉넉히 올리는가 보다.

옛날 중국 燕(연)나라의 충신이었던 雛衍(추연)이 참소를 만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중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하니 5월에 서리가 내렸다고 한다.

또, 옛날 杞梁(기량)의 아내가 남편 기량이 전사하므로 땅을 치며,
“위로는 부모가 없고, 가운데로는 남편이 없고, 아래로는 자식조차 없으니, 산 사람의 고통이 극에 이르렀구나!”

하며 통곡을 하니, 그 소리에 杞(기) 땅의 도성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리고 朱子의 글에,

“陽氣(양기)가 발하는 곳에 金石(금석)도 또한 뚫는다. 정신이 한 번 닿는 곳에 무슨 일인들이 이루지 못하리요.”

라고 하였다.

참 마음이란 닿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참으로 그 힘은 위대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참 마음은 어디로 가고 거짓되고 망령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어떠한가! 이런 사람은 겉모양은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다 갖추었다고는 하나, 정작 있어야 할 속 알맹이가 없으니 무엇에 쓰랴! 그 형체의 주인이 되는 참 마음이 없으니, 무엇으로 그 몸을 이끌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대하게 되면 인간의 탈을 쓴 것이 오히려 가증스러울 정도요, 홀로 고요히 앉아 있게 되면 심지어 그 몸에 그 그림자조차 부끄러워질 것이다.

人心一眞이면 便霜可飛하고 城可隕하며 金石可貫이요, 若僞妄之人은 形骸徒具
나 眞宰已亡이라 對人則面目可憎이요 獨居則形影自媿니라.

사람의 마음이 한 번 참되면 문득 서리도 내리게 할 수가 있고, 城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으며, 쇠와 돌도 꿰뚫을 수가 있다. 만일 거짓되고 망령된 사람이라면 사
람의 몸과 뼈를 한갓 갖추고는 있으나 眞宰(진재)는 이미 죽은 것이라, 사람을 대
하면 낮이 가증스럽고, 혼자 있으면 형체와 그림자가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 霜可飛(상가비): 燕(연)나라의 忠臣(충신) 雛衍(추연)의 故事(고사)로서 추연이 참소를 만나 억울하게 옥에
감히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을 하니, 하늘이 그 忠誠(충성)을 슬피 여겨 오월에 서리를 내렸다고 한다.《淮
南子(회남자)》

• 城可隕(성가운): 杞梁(기량)의 妻(처)의 故事(고사)로서

杞梁(기량)이 戰死(전사)하매 그 아내가 통곡하며,

“위로는 부모 없고 가운데로는 남편이 없고, 아래로는 자식 없으니 산 사람의 고통이 극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 울음소리에 杞(기) 땅의 城이 무너졌다고 한다. 《古今注(고금주)》

• 金石可貫(금석가관): 朱子(주자)의 글에,

“陽氣(양기)가 발하는 곳에 金石(금석)도 또한 뚫는다. 정신이 한 번 닿는 곳에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
리요.”

라고 하니, 金石可貫이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다.

• 眞宰(진재): 莊子(장자)의 말로서, 곧 마음의 본체를 가리킨다.

102. 훌륭한 문장은 기교를 부리지 않는 것이요, 성인은 남다른 언어를 쓰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처음 문장을 엮을 때는 자기의 있는 재주를 다하여 기교를 부리며 야단스럽게 말을 꾸미고 다듬어 되도록 그것이 다른 것과 크게 두드러진 점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점점 숙달할수록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그 기교로움은 들어가고, 차츰 널찍하고 판판한 경지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문장이 극치에 이르게 되면 기교로움은 이미 흔적이 없고, 오직 남은 것은 평범하여 알기 쉬운 그 가운데 문장마다 그 글체에 꼭 알맞아 어느 한 글자도 바꾸어 놓을 수 없도록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쉽게 얻을 수 없는 문장의 극치인 것이다.

사람이 도덕을 닦으며 자기의 인격을 도야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수양이 높은 사람은 남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보통 사람과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애써 남들과 달리 보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수양이 점점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은 차츰 사라지고, 다시금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양의 극치인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다르다든가 꾸밈이 없이 본래 타고난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성인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그대로 행동하여도 어느 한 가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성인의 언어와 행동은 자연한 가운데 그것이 곧 도덕이요, 법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 성인의 경계로서 보통 사람으로서 따르기 어려운 점이다.

文章做到極處하면 無有他奇라 只是恰好요 人品做到極處하면 無有他異라 只是本然이니라.

문장이 지극한 곳에까지 이르면 별다른 奇巧(기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

이 알맞게 좋을 따름이다. 사람의 품위가 지극한 곳에까지 이르게 되면 별달리 이상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것이 본래의 타고난 상태 그대로일 따름이다.

-
- 恰好(흡호): 문장의 치교(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 그 글체에 꼭 알맞게 되어 있어, 다만 한 글자라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경지를 말한다.

103. 이 몸은 잠시 빌려 받은 환상과 같은 몸, 부귀공명은 헛된 꿈, 만물은 평등무차별한 것, 이 이치를 알아야 천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다.

천지만물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현상계 위에 놓고 본다면, 모두가 한갓 덧없는 환상의 자취로서, 부귀와 공명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매달리는 이 팔다리와 몸뚱이까지 그 모두가 하늘로부터 빌려 받은 것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없어질 무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천지만물의 근원이요 절대 무차별한 본체의 위에서 본다면, 만물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부모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人·物 간에 다 나와 하나인 것이다.

여기서 사람은 만물은 덧없는 환상의 자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이 몸은 잠시 와서 머물렀다 가야 할 짧은 인생이요, 부귀라든가 공명 따위는 다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사람은 만물은 다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남의 부모 보기를 내 부모 보듯 하고, 남의 자식 보기를 내 자식 보듯 하며, 모든 사람을 널리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이치를 한 몸에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천하라고 하는 큰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거뜬히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요, 또 여기서 비로소 공명과 부귀 등,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간의 모든 쇠사슬에서 벗어나, 사방에 거리낄 것이 없는 대자유의 경지에서 노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以幻迹言하면 無論功名富貴요 卽肢體亦屬委形하고 以眞境言하면 無論父母兄弟요 卽萬物皆吾一體니 人能看得破認得眞하면 纔可任天下之負擔하며 亦可脫世間之羈鎖니라.

환상의 자취로써 말하기로 들면 功名(공명)과 부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팔다리와 몸도 또한 빌려 받은 형체에 속한다. 참의 경계로써 말한다면 부모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곧 만물 모두가 나와 한 몸이다.

사람이 능히 이것을 보아 깨뜨리고 분별하여 참 되게 한다면, 비로소 천하의 짐을 맡을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세간의 말고삐와 쇠사슬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 幻迹(환적): 幻相(환상)의 자취, 곧 변화가 많은 無常(무상)한 현상의 세계.

- 委形: 莊子(장자)에,

“내 몸은 天地의 委形(계형)이라.”는 말이 있다. 委形이란 하늘로부터 잠시 빌려 받은 몸이라는 뜻이다.

- 眞境(진경): 참의 경계란 現象界(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本體(본체) 또는 本質(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의 實相(실상)과 같은 말이다. 곧 生滅(생멸)의 無常(무상)의 相(상)을 떠난 사물의 참된 모습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천지만물의 根源(근원)이요, 絕對無差別(절대무차별)한 자리이다.

- 韁鎖(강쇄): 말고삐와 쇠사슬이니, 곧 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功名이나 부귀와 같은 허망한 이름에 얽매임을 뜻한다.

104. 입에 썩 좋은 음식은 위장을 해치는 독약이요, 마음에 썩 유쾌한 일은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그러나 반쯤에서 그치면 탈이 없다.

입에 넣어서 상쾌하고 맛이 썩 좋은 음식은 거의 위장을 해치고 참 정신을 상하게 하는 독약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을 욕심껏 먹지 말고 반쯤에서 그치게 되면 별 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 썩 기쁘고 유쾌한 일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욕심껏 따르지 말고 반쯤에서 그쳐두면 별로 후회될 일은 없을 것이다.

爽口之味는 皆爛腸腐骨之藥이로되 五分이면 便無殃이요 快心之事는 悉敗身喪德之媒로되 五分이면 便無悔니라.

입에 상쾌한 맛은 모두가 창자를 녹이고 뼈를 썩히는 약이 되지만, 반쯤이면 문득 해가 없다. 마음에 유쾌한 일은 다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媒介(매개)가 되지만, 반쯤이면 문득 후회될 것이 없다.

**105. 남의 사소한 잘못과 사사로운 비밀, 그리고 남의 지나간 악행에 관대해야 덕을
기를 수 있다.**

내 몸에 덕을 기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해침을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남의 사소한 잘못을 들어 꾸짖지 않는 것이요, 그 둘은 남이 사사로이 지닌 비밀을 애써 들추어내지 않는 것이요, 그 셋은 다른 사람의 지난 날에 있었던 악행을 두고두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不責人小過하며 不發人陰私하며 不念人舊惡이면 三者는 可以養德이요 亦可以 遠害니라.

남의 사소한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고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추어 내지 아니하며 남의 옛 惡行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 것은 덕을 기를 수 있을 것이요, 또한 그로써 해침을 멀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106. 몸가짐을 가벼이 하면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고, 마음을 무겁게 쓰면 활발한 기능을 잃는다.

학문과 덕행을 닦아나가는 사람은 몸가짐에 있어서는 너무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쓰는 데는 너무 무겁게 하여 한 가지 일에 거들 매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몸가짐을 경솔하게 갖게 되면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겪는 일 가운데 그대로 마음이 이끌리고 흔들려서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지고 만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갖게 되면 일마다 얽매이고 집착이 되어 청신하고 활발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士君子持身을 不可輕이니 輕則物能撓我하야 而無悠閑鎮定之趣요 用意는 不可重이니 重則我爲物泥하야 而無瀟洒活潑之機니라.

士君子로서 몸가짐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가벼이 하면 곧 사물이 능히 나를 흔들어서 한가롭고 안정된 맛이 없어진다. 뜻을 쓰는 데는 무겁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무겁게 하면 곧 내가 사물 때문에 걸려서 淸新(청신)하고 활발한 기능이 없어진다.

107. 이 몸은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몸, 죽는 날까지 즐겁게, 그리고 값있게 마쳐서 이 세상에 왔다 간 발자취를 굵직하게 남겨야 한다.

천지는 유구하여 만고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몸은 한 번 죽으면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귀한 몸이다.

또 우리네 인생은 길어야 백 년이요, 백 년이라 해도 세월은 화살 같이 빨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

다행히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뭐라 해도 人生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의 삶을 행여 헛되이 보내지나 아니할까 근심하는 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다시 얻지 못할 이 귀한 생명을 죽는 날까지 즐겁게 그리고 값있게 마쳐서 이 세상에 왔다 간 발자취를 굵직하게 남겨 두어야 하는 것이다.

天地는 有萬古로되 此身은 不再得이며 人生은 只百年으로 此日이 最易過라 幸生其間者는 不可不知有生之樂이요 亦不可不懷虛生之憂니라.

천지에는 만고 있으나 이 몸은 두 번 얻지 못하는 것이며, 인생은 오직 백년으로 이 날이 가장 지나가기 쉬운 것이다. 다행히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삶을 가진 즐거움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요, 또한 삶을 헛되이 할까 하는 근심을 품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08. 원망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다. 특별한 은혜를 심어 한편으로 원망을 사느니보다 은혜와 원망을 초월하여 다 같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사람으로서 남에게 은덕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은덕으로 말미암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니 이것이 문제다. 나의 은덕을 입어 나를 은혜롭게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에게 불만을 품어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남에게 특별한 은덕을 베풀어서 은덕과 원망을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보편적인 혜택을 주어 은혜다 원망이다 하는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은혜니 원망이니 하는 상대적이요 차별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원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은혜의 씨를 심어 따로 원수를 낳게 해서 안 된다. 남다른 은혜를 심어 한편으로는 나에게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원수로 여기게 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초월해서 다 같이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怨因德彰하나니 故로 使人德我론 不若德怨之兩忘이요 仇因恩立하나니 故로 使人知恩론 不若恩仇之俱泯이니라.

원망은 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덕으로 여기게 하기보다는 덕과 원망을 둘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만 못하다. 원수는 은혜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는 은혜와 원수를 다 같이 없애게 하는 것만 못하다.

109. 늙어서 오는 질병은 젊었을 때 스스로 지은 것이요, 쇠한 뒤에 겹친 불행은 한창 왕성할 때 지어 놓은 것이다.

늙어서 오는 질병은 거의 젊었을 때 스스로 지은 것이다. 젊었을 때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젊은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맡겨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린 탓이다.

또 집안 운수가 쇠한 뒤에 재앙이 드는 것은 거의 한창 왕성할 때에 스스로 지어 놓은 것을 오늘에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양이 높은 군자는 늙음이 오기 전에, 운수가 다하기 전에, 아니 혈기 왕성한 젊은 시기에 그리고 부귀를 아울러 누려서 만족한 그 때에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서 그와 같은 슬픈 결과를 짓지를 않는 것이다.

老來疾病은 都是壯時招의이요 衰後罪孽은 都是盛時作的이라 故로 持盈履滿을 君子尤兢兢焉하나니라.

늙어서 오는 질병은 모두가 이 젊은 때에 부른 것이요 쇠약해진 뒤의 재앙은 모두가 이 한창 때에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盈滿(영만)한 때를 가지고 만족한 경우에 있을 때를 군자는 더욱 조심한다.

110.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보다 옛 벗과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 훨씬 정이 깊다.

사사로이 은혜를 베풀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힘쓰기보다는 공정한 의론을 도와 대의에 정신을 모으는 편이 훨씬 오래고 떳떳하다.

새로이 벗을 사귀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보다 예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의 우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 훨씬 정이 깊고 절실하다.

헛된 이름에 이끌려 남이 보는 앞에서 온갖 위선을 다하며 영광스러운 명예를 세우려 애쓰는 것보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숨은 덕을 심으며 말없이 실천해 나가 는 편이 훨씬 아름답고 의의 깊다.

뛰어난 절의를 높이 내세워 남에 없는 이상한 언어를 쓰고, 남에 없는 이상한 행위를 하려 애쓰는 것보다 평소의 자기 행실을 삼가고 조심하여 끝내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진실되고 보람된 일이다.

市私恩은 不如扶公議요 結新知는 不如敦舊好요 立榮名은 不如種隱德이요 尙奇節은 不如謹庸行이니라.

사사로운 은혜를 파는 것은 公正한 의론을 돕는 것만 못하고, 새로운 知面(지면)을 맺는 것은 예부터 좋아하는 사이를 도탑게 하는 것만 못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우는 것은 숨은 덕을 심는 것만 못하고, 유별난 절의를 높이는 것은 평소의 행실을 삼가는 것만 못하다.

111. 공평한 정론에 반대의 손을 들면 만세토록 부끄러움을 남기게 된다.

세상에는 公平하고 정당한 의론에 반대의 손을 드는 것만큼 큰 수치가 없다. 더구나 公평무사한 정당한 의론임을 변연히 알면서 私情(사정)에 이끌려 고의로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일이다. 만일 한 번이라도 그토록 정당한 일에 반대의 손을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편벽된 사람으로 또는 도리에 어두운 사람으로 큰 부끄러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또 세상에는 권세 높은 가문이나 사리사욕만을 꾀하는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만일 한 번이라도 여기에 발을 들며 놓게 되면 지금까지의 결백하였던 마음은 사욕의 발동에 의하여 쫓겨 달아나고, 마침내는 죽어도 씻어버릴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公平正論은 不可犯手니 一犯則貽羞萬世요 權門私竇는 不可着脚이니 一着則點汚終身하나니라.

공평하고 바른 의론에는 손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 한 번 범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만세에까지 끼치게 된다. 권세 있는 가문과 私利를 꾀하는 집에는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한 번 붙이게 되면, 몸을 마치도록 더러움을 점찍게 된다.

• 犯手(범수): 손을 범한다는 말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私情(사정)으로써 고의로 반대의 손을 드는 것을 뜻한다.

• 私竇(사두): ‘竇(두)’는 구멍이니, 私利(사리)를 꾀하는 구멍, 곧 소굴이다.

112. 내 뜻을 굽히면서까지 남에게 환심을 사기보다는 내 몸을 곧고 바르게 하여 죄 없이 남에게 미움을 받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다.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환심을 산다든가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싫지 않은 일이다. 또 남이 나를 싫어하고 꺼려한다든가 남에게 비방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원치 않는 일이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굽히면서까지 남의 환심을 산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내 몸을 곧고 바르게 가짐으로써 남에게 꺼림을 받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지조 없이 남의 뜻을 맞추며 따르기보다, 차라리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며 자기의 주의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서 미움을 받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기도 하나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 한 가지도 해 놓은 것 없이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는 것만 못하다. 착한 일도 안했는데 칭찬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죄 없이 앉아 욕 먹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한 것이다.

曲意而使人喜는 不若直躬而使人忌요 無善而致人譽는 不若無惡而致人毀니라.

뜻을 굽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은 몸을 곧게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꺼리게 하는 것만 못하고, 착한 일이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잘못이 없으면서 남에게 나무람을 받는 것만 못하다.

113. 부모형제의 변을 당해서는 더욱 조용하고 침착해야 하고, 친구의 과실을 보았을 때는 적절한 충고를 주어야 한다.

세상에는 슬픈 일도 가지가지이나 부모형제와 같은 가까운 혈족이 사망하였을 때 처럼 슬픈 일은 다시 없다. 몸부림을 치며 통곡을 하여도 시원치 않은 일이지만, 사람은 이러한 큰일을 당한 때일수록 더욱 조용하고 침착해야 한다. 감정이 복받치는 대로 지나치게 격하여서,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오는 동안 그 친구에게 어떠한 과실이 나타났을 경우, 사람들은 대개 망설이다가 그냥 넘겨버리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 사이의 의리에 위배되는 일이다. 친구에게 허물이 드러났거든 주저할 것 없이 오로지 친구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아주 적절한 충고를 하여서 끝내 그 허물을 고치도록 하는 이것이 참 우정이고 친구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處父兄骨肉之變하면 宜從容하고 不宜激烈하며 遇朋友交遊之失하면 宜剴切하고 不宜優遊니라.

부모형제와 같은 가까운 혈족의 변을 당했을 때는 마땅히 조용해야 할 것이요 너무 격렬한 것은 옳지 못하다. 친구와의 교제에 허물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적절한 충고를 주어야 할 것이요 주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114. 진정한 영웅은 사소한 일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홀로 있을 때에 기만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망해가는 급박한 때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큰일에는 마음을 쓰되 사소한 일은 대수롭지 않다 하여 그냥 넘겨 버리는 예가 많다. 사실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사업을 성취할 영웅은 무엇보다도 사소한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다.

또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되면 온갖 못된 생각을 다 일으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며, 스스로의 악행을 숨기고 선을 가장하는 이가 있다. 인생의 큰 공업은 오로지 성실한 마음이 아니고는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웅이 될 사람은 권모와 술수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심 하나로써 일관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 일수록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조금이라도 기만하거나 숨기는 일이 없다.

또 사람은 경영하는 일이 한창 잘 되어 흥성할 때는 흥에 겨워 만사에 부지런하고 또 자기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그러나 그 좋은 한 때가 지나가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망할 즈음에 이르게 되면 그만 용기를 잃고 만사에 태만하다가 자포자기하고 만다. 큰 성공은 많은 실패를 맞본 뒤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웅이 될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때 마다 그 실패를 딛고서 다시금 일어나 꾸준히 분투노력하여 마지 않는다.

사소한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 홀로 있어도 속이고 숨기는 일을 아니하며 망해가는 급박한 때를 당하여도 태만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小處에 不滲漏하며 暗中에 不欺隱하며 末路에 不怠荒이면 纔是個眞正英雄이라.

작은 곳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하고 캄캄한 속에서 속이고 숨기지 아니하며 망해가는 때에 태만하거나 거칠거나 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이것이 하나의 진정한 영웅인 것이다.

-
- 小處(소처): 작은 곳이란 아주 사소한 일, 하찮은 일을 말한다. 여기에 滲漏(삼루)란 물기가 스며서 새어나온다는 뜻이다. 이 대문의 뜻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다.

115. 천금을 주고도 원망하는 마음을 살 수가 있고, 찬밥 한 그릇으로도 영원한 은혜를 심어 줄 수가 있다.

세상에는 천금을 주고도 한 때의 환심마저 살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겨우 밥 한 그릇을 주고도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은혜를 심어 줄 수가 있다.

대개 사람은 너무 아끼고 사랑 받게 되면 천금이란 막대한 은혜를 입고도 별로 고마운 줄을 모른다.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데서 그칠 뿐이 아니고 나중에는 그것으로도 마음에 차지 않아 은혜가 도리어 원수로 변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열 번 잘 하고 열 번 청을 들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청을 거절하게 되면 열 번 잘한 일이 허사로 돌아가는 예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런데 사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찬밥 한 그릇 정도의 지극히 미미한 것을 베풀고도 그 사람에게 평생을 두고 감사할 만큼 큰 기쁨을 줄 수가 있다.

어쨌건 크나 작으나 남에게 은혜를 베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 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때가 적절한 때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되 티끌만큼이라도 그를 이용할 목적이 있다든가 또는 갚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천금을 주어도 진정으로 고맙다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때마침 배고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오로지 측은히 여기는 仁心이 넘쳐 밥 한 그릇을 주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울 것인가!

사람은 모름지기 그 은혜로 하여금 원수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더욱 깊고 참되게 써야 할 것이다.

千金도 難結一時之歎이요 一飯도 竟致終身之感하나니 蓋愛重反爲仇요 薄極翻成喜也니라.

천금으로도 한 때의 기쁨을 맺기가 어렵고, 한 그릇 밥으로도 마침내 평생의 감사

를 이룰 수가 있다. 대개 사랑이 두터우면 도리어 원수가 될 수 있고, 박한 것이 심한데도 도리어 기쁨을 이룰 수가 있다.

**116. 자기의 뛰어난 재주와 덕과 지조를 안으로 감추어 충실하게 키우면서, 겉으로
어리석은 양 평범하게 걸어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한 처세법이다.**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재능을 되도록 크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고 자기의 결백한 지조를 되도록 남다르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널리 이해시키며 자기의 결백한 지조를 고이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아니 이것은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그 좋은 재주를 짓밟히고 헐뜯기는 등 온갖 환란을 불러올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보다 나은 재주를 시기하여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자기의 교묘한 재능을 자랑하며 뽐내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아깝게도 그 좋은 재주와 지혜와 덕을 채 키우지도 못한 채 짓밟히고 말 것이다.

또 마음이 흐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백한 사람을 몹시 증오한다. 여기서 만일 자기의 결백을 높이 세워 남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지조를 끝내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서 꺾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도덕이 있는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걸어가기에 편리하고, 도덕이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훌륭한 처세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훌륭한 처세법이 있다. 하나는 교묘한 재능을 안으로 감추어 충실하게 키워나가면서, 겉으로 못난 듯 서투른 듯 조용히 걸어가는 것이다. 그 둘은 자기의 밝은 지혜를 어두운 듯 안으로 감추는 것이다. 안에서 충실하면 닦여진 아름다운 덕이 자연히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자신이 아무리 청렴결백하다 하더라도 각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속으로 결백한 지조를 깊이 간직하고, 겉으로 그 몸을 흐린 대로 맡겨서 남의 눈에 별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그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못난 체 자신을 굽히는 이것이 사실은 훗날 자기의 뜻을 크게 펴고 넓힐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참말로 위에 말한 네 가지는,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건네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구조선과도 같은 것이요, 내 몸을 간직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인 것이다.

藏巧於拙하며 用晦而明하며 寓清于濁하며 以屈爲伸은 眞涉世之一壺요 藏身之三窟也니라.

교묘한 것을 서투른 데에 감추고, 어두운 것을 써서 밝은 것으로 하고, 맑은 것을 흐린 것에 부치고, 굽히는 것으로써 펴는 것을 삼는 것은 참말로 세상을 건네는 데 하나의 항아리와 같은 것이요, 몸을 감추는 데 세 가지 굴이 되는 것이다.

• 用晦而明(용회이명): 이 말은 《周易(주역)》 '明夷(명리)'라는 卦(괘)의 뜻에서 나온 말이다. 어두운 것을 써서 밝은 것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의 뛰어난 지혜와 덕과 재능을 안으로 감춤으로써 도리어 그것이 밖으로 환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그것을 굳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 一壺(일호): 《鶡冠子(갈관자)》라는 책에,

“물 한 가운데서 배를 잃으면 한 항아리가 천금이다.”

라는 말이 있다. 물 한 가운데서 배가 뒤집히게 되면 무엇이라도 붙들고 목숨을 건져야 한다. 이 때 하나의 항아리라도 물 위에 떠 있다면, 이것은 사람의 목숨을 건져줄 救助船(구조선)이라 千金(천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 三窟(삼굴): 이것은 戰國策(전국책)에 있는 狡兔三窟(교토삼굴)이라는 이야기에서 끌어 온 말로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간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굴로서는 배개를 높이하고 누울 수 없으니, 아무쪼록 그대를 위하여 두 개의 굴을 더 파도록 하라.”

는 내용이다.

117. 군자는 번영한 때에 앞으로의 환란을 미리 염려 하고, 영락한 때 백 번이라도 참고 견디며 기필코 이것을 성공으로 돌린다.

달이 차면 기울기 시작하고 다 기울었는가 하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하듯 인간 세상에서의 흥망성쇠의 반복 또한 그와 같아 끝이 없는 것이다. 어느 때는 가운이 트여 사업이 한창 잘 되는가 하면, 또 어느 때인가는 갑자기 쇠망하기 시작하여 쓸쓸하기 그지 없이 처참한 광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쇠망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난 날 만사가 번영하여 만족하던 그 속에 었드려 있다가 틈을 타고 서서히 찾아든 것이다. 그러면, 또 모든 일이 순조로워 날마다 발달하고 커가는 그 기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난 날 부귀영화가 우수수 낙엽 지듯 떨어져 나가고 형편이 아주 몰락했던 그 속에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보아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부귀영화에 한창 즐겁고 편안하게 지낼 때 마음을 더욱 가다듬어 앞으로 혹 들이 닥칠지도 모르는 환란을 미리 염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찌다 뜻 아닌 변을 당하여 심한 곤궁에 허덕일 때면 마음을 더욱 다부지게 먹고 백 번이라도 참고 견디며 뒷날의 성공에 온 힘을 다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 번 순조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안락을 누리는 것이 펍 오래 가고, 혹 역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곤궁한 때는 잠깐이요, 곧 일어나 그것을 기필코 성공으로 돌리고 마는 것이다.

衰飭의景象은 就在盛滿中하고 發生的機緘은 卽在零落內하나니 故로 君子는 居安하야는 宜操一心以慮憂하고 處變하야는 當堅百忍以圖成이니라.

쇠망하여 쓸쓸해진 광경은 곧 盛(성)하고 만족한 가운데에 있고, 발달하고 生長하는 기틀은 곧 영락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하게 살 때에 한 마음을 잡아서 근심될 일을 생각하고, 變(변)에 처했을 때에는 마땅히 백 번 참는 것을 굳게 하여서 성공을 도모한다.

118. 기이한 것에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원대한 식견이 없고, 높은 지조를 세워 혼자서 나아가는 사람은 항구성이 없다.

사람들은 대개 보통과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리하여 조금만 이상한 것을 보아도 놀라워한다. 그리고 세속에 역행하여 저만큼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시기하여 헐뜯기를 좋아한다.

기이한 것에 마음이 쏠려 쉽게 놀라고 쉽게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깊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원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절개를 묵숨처럼 지키며 세속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양, 자기의 결백한 지조를 높이 세워 도도하게 혼자서 걸어가는 사람은 오래 견디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지조는 恒久(항구)한 지조가 못 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아무리 높고 깨끗한 지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으로 감추어 굳게 지키면서, 겉으로는 그 몸을 세속의 흐름에 맡겨 둥글둥글 각이 없이 평범하게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결백한 지조를 영구히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다.

驚奇喜異者는 無遠大之識이요 苦節獨行者는 非恒久操니라.

기묘한 것에 놀라고 이상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멀고 큰 식견이 없는 것이요, 고통 속에서 절개를 지키며 혼자 나아가는 사람은 영구한 지조가 아니다.

119. 불같은 노여움, 물 같은 욕심이 끓어오를 때는 얼른 참 마음을 불러일으켜 생각을 한 바탕 굴리려면 모두가 참 마음과 하나가 된다.

마음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이글거린다고든, 물 같은 엄청난 욕심이 끓는 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때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지금 내가 겹잡을 수 없는 분노와 욕심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분명하게 억제하려 든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며 억제하는 것은 또 누구란 말인가! 안다고 하는 것도 바로 나요, 억제하는 것도 바로 나다. 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몸의 주인공인 참 마음인 것이다.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는 데 어찌 한때의 불같은 분노와 욕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때를 당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북받쳐 오를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나의 주인공인 참 마음을 다급하게 깨워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 마음으로 하여금

‘지금 물불을 모르고 날치는 분노와 욕심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것은 기필코 이 몸을 불사르고 말 위험한 경지에까지 몰고 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얼른 눈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

참말로, 여기서 자신을 돌이켜 생각을 한바탕 굴리고 보면, 분노라든가 지나친 욕심 따위, 인간의 진실을 좀 먹는 못된 마귀가 일시에 변하여 나의 주인공인 참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수양의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當怒火怒水正騰沸處하야 明明知得하며 又明明犯著하나니 知的是誰며 犯的又是誰요 此處能猛然轉念하면 邪魔便爲眞君矣나라.

불같은 성냄과 물 같은 욕심이 바로 끓어오르는 곳에 당하여서, 명명하게 알아내고 또 명명하게 억제한다.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이며 억제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누구인가! 이 곳에서 능히 힘차게 생각을 굴리면 사악한 마귀가 문득 참 군주가 되

는 것이다.

-
- 犯著(범착): 억제한다는 뜻이다.
 - 眞君(진군): 본서 제 101편에 나오는 '眞宰(진재)'와 같은 말로, 마음의 본체를 가리킨다.

120. 사물을 보는 눈은 공정해야 하고 일은 자기의 역량을 저울질한 뒤에 말고 남의 단점을 들추지 말며 나보다 나은 이를 시기하지 말라.

사물을 보는 눈은 항상 공정정대하여야 간소한 무리들이 가까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 말만을 편벽되게 믿어서 사리사욕에 여념이 없는 간소한 것들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이란 먼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역량을 냉정하게 저울질한 뒤에 그 일에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본래의 정기에 의하여 맡은 바 직분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야말로 하여서 못하는 일이 없거니’

하는 쓸데 없는 객기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감당도 못할 중대한 일을 덮어놓고 맡았다가, 결국 객기의 노예가 되어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뛰어난게 잘 하는 점도 있고 모자라는 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모자라는 점을 애써 들추어내는 웅색한 짓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람은 흔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여 깎아 내리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무능하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는 따위 부끄러운 마음을 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母偏信而爲奸所欺하며 母自任而爲氣所使하며 母以己之長而形人之短하며 母因己之拙而忌人之能하다.

한편만을 편벽되게 믿어서 간소한 것의 속이는 바가 되지 말며, 스스로 맡아서 氣의 부리는 바가 되지 말며, 자기의 장점으로써 남의 단점을 나타내지 말며, 자기의 서투른 것으로 인하여 남의 능한 것을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121. 남의 단점은 간곡히 타이르며 감싸주어야 한다. 만일 남의 단점을 드러내어 떠벌인다면, 이는 자기의 단점으로 남의 단점을 공격하는 셈이다.

다른 사람에게 단점이 있거든 간곡하게 타이르며 그것을 보충해주고 또 감싸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만한 아량을 지닌 그 점이 바로 장점으로서 이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야 비로소 남의 단점·결점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그런 웅색한 짓을 한다면, 웅색한 그 점이 또한 적지 않은 단점이니 이것은 결국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서 남의 단점을 공격하는 셈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완고한 점이 있거든 좋은 말로 잘 타이르서 깨우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리석은 고집을 깨뜨려 보다 새롭고 합리적인 인식을 갖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한두 번 타이르서 깨닫지 못한다고 성급하게 화를 내며 그를 미워한다면, 이것이 바로 그에 못지 않은 완고한 점이니 이렇게 되면 완고한 점을 가지고서 다른 완고한 점을 고치려드는 셈이다. 결국 두 완고한 것이 맞붙어 싸우는 격이니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人之短處는 要曲爲彌縫이니 如暴而揚之면 是는 以短攻短이요 人有頑的은 要善爲化誨니 如忿而疾之면 是는 以頑濟頑이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은 간곡하게 기워주고 덮어주어야 한다. 만일 폭로해서 이것을 들날리면, 이는 단점으로써 단점을 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완고함이 있는 것은 잘 깨우칠 수 있도록 함을 요한다. 만일 성내서 이것을 미워하면, 이는 완고한 것으로써 완고한 것을 건지려는 것이다.

122. 음흉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지 말고, 무엄한 사람에게는 말을 건네지 마라.

사람됨이 음흉하여 도무지 말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속을 알 수 없으니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웅색하여 성을 잘 내며 무엇이든 조심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없이 되는대로 지껄이고 저 혼자 저를 대견스레 여기는 따위 간사하고 방자한 사람 앞에서는 도무지 입을 봉하고 말을 건네지 말아야 한다.

遇沈沈不語之士엔 且莫輸心하고 見悻悻自好之人엔 應須防口니라.

음흉하여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든 또한 마음을 보내지 말고, 성 잘 내고 웅색하며 스스로 좋아하는 사람을 보거든 응당 모름지기 입을 막아야 한다.

-
- 悻悻(행행): 발끈 성을 잘 내며 마음이 웅색하고 무엄한 모양.

123. 마음이 혼미 속에 빠져들거든 마음을 깨워 일으켜야 하고, 마음이 긴장되어 굳어 있거든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아야 한다.

마음이 혼미해지고 산란하여 건잡을 수 없을 때에는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한 없이 빠져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도록 마음을 깨워 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또 마음이 긴장되어 몹시 억죄어 있을 때에는 도리어 안정을 잃고 일의 선후를 헛갈리게 된다. 그러므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만일 마음이 혼미 속에 빠져도 끌어 올릴 줄을 모르고, 마음이 몹시 긴장되어 굳어 있어도 풀어 놓을 줄을 모른다면, 혹 혼미한 속에 빠진 마음의 병을 고쳐 밝고 맑은 정신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초롱초롱한 그 가운데 또다시 공연히 마음 설레는 동요의 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이다.

念頭昏散處엔 要知提醒¹이요 念頭喫緊時엔 要知放下²니 不然이면 恐去昏昏之病 이면 又來³ 憧憧⁴之擾矣리라.

마음이 昏沈(혼침)하고 산란한 곳에서는 끌어다 깨울 줄 알기를 요하고, 마음이 짝 조여 있을 때에는 풀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두운 병을 보내고 나면 또 다시 마음 설레는 시끄러움이 올까 두렵다.

-
- 提醒(제성): 어둠 속에 잠겨드는 마음을 끌어 올려 깨어나게 하는 것.
 - 憧憧(동동): 정신은 초롱초롱하나 마음이 까닭 없이 動하여 不安定한 모양.

124. 하늘이 노하여 천둥 벼락 치다가도 한번 지나가버린 뒤엔 흔적이 없듯, 사람도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 담아 두어서는 안 된다.

푸른 하늘 맑게 개인 평온한 날씨도 갑자기 하늘이 찢어질 듯 천둥소리 요란하고 번갯불이 번쩍이는 험악한 날씨로 변하는 때가 있다. 반대로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소나기 쏟아지는 아주 험악한 날씨도 갑자기 씻은 듯 개어 명랑한 달이 떠오르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로 변하는 때가 있다.

천지의 작용이 어찌 항상 변함없이 평화롭기만 하랴! 항상 한결 같을 수 없는 것은 대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凝滯(응체)하는 기운 때문이다. 저 크고 너른 하늘이 어찌 항상 푸르기만 하랴! 그 또한 대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막힘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어찌 항상 즐거울 수만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 또한 여러 가지 사물에 느껴 일어나는 조그마한 막힘과 걸림 때문에 때 없이 웃고 울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하늘이 노하여 그토록 요란하게 천둥치며 모진 바람에 소나기 퍼붓다가도, 한 번 노여움이 지나가버린 뒤엔 씻은 듯 개어 뒤를 남겨두지 아니하듯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에 오래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霽日青天도 倏變爲迅雷震電하고 疾風怒雨도 倏變爲朗月晴空하나니 氣機何常가 一毫凝滯며 太虛何常가 一毫障塞이니 人心之體도 亦當如是니라.

개인 날 푸른 하늘도 갑자기 변하여 빠른 천둥 소리에 벼락이 치고 번갯불이 일며, 거센 바람에 사납게 내리던 비도 갑자기 변하여 명랑한 달빛에 맑게 개인 하늘이 된다. 천지의 작용이 어찌 항상 그대로이라! 하나의 티끌만한 어리어 뭉쳐진 것 때문이며, 하늘이라 어찌 항상 그대로이라! 하나의 티끌만한 막힘 때문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본체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
- 氣機(기기): 天地(천지)의 作用(작용).
 - 太虛(태허): 크고 너른 하늘, 곧 大空(대공)을 의미한다.

125. 지식이란 인욕의 마귀를 비쳐보는 밝은 구슬이요, 인내의 힘은 인욕의 마귀를 베어 버리는 지혜의 칼이다.

私情(사정)을 눌러 이기고 욕심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사정과 욕심을 억제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정이 어떤 것인지 욕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아는 것이 빠르지 않으면 그것들을 누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는 사정과 욕심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았다 하더라도 안다고 하는 것은 인내력만 못하다는 것으로, 인내력이 아니고는 그것들을 도저히 누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앞에 것은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요, 뒤에 것은 인내하는 힘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사욕을 억제 하는데 어느 한 가지도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참 마음을 해치는 인욕이라는 마귀를 환히 비쳐보는 한 알의 밝은 구슬과도 같은 것이요, 인내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의 마귀를 베어버리는 한 자루의 지혜의 칼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정이요 욕심이로구나! 하는 것을 비록 알았다 하더라도 지혜의 칼이 없으면 그것을 잘라 내지 못할 것이요, 또 설령 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이 사정이요 욕심인가를 비춰 볼 수 없다면 또한 칼을 써야 할 곳을 모를 것이니 잘라 내지 못하기는 한 가지다. 그러므로 지식과 힘,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없어서 안 될 것이요, 또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다.

勝私制欲之功은 有曰識不早면 力不易者요 有曰識得破라도 忍不過者니 蓋識은 是一顆照魔의明珠요 力은 是一把斬魔의慧劍이라 兩不可少也니라.

私情을 이기고 욕심을 억제하는 일에 있어서,

“아는 것이 빠르지 아니하면 힘이 쉽지 않다.”

고 하는 말이 있고,

또 말하기를

“알아서 깨뜨렸다 하더라도 참는 것에 지나지는 않는다.”

고 한다.

대개 안다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마귀를 비취보는 밝은 구슬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자루의 마귀를 베는 지혜의 칼이니, 두 가지 다 적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26. 속임을 당하여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태연할 수 있는 가운데 무궁한 뜻이 있고, 또 무궁한 활동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입을 열어 욕설을 하며 공격을 퍼붓는다. 또 누구에게가 업신여김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금방 얼굴빛이 달라지며 분노를 터뜨린다. 이것이 바로 수양이 부족한 보통 사람의 얕은 속이다.

그러나 도덕이 높은 군자의 마음속은 한없이 너르고 깊어, 남이 나를 속이는 줄을 변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탓하여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혹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낮빛 한 번 변하는 적이 없다.

사실로, 속임을 당하여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태연할 수 있는 이 가운데에 무궁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에 그 어디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자유자재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覺人之詐로되 不形於言하며 受人之侮로되 不動於色하면 此中에 有無窮意味하고 亦有無窮受用이니라.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을 깨달아도 말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을 받아도 얼굴빛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 무궁한 의미가 있고, 또 무궁한 受用이 있는 것이다.

127. 인생의 역경과 곤궁은 값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불가마와 쇠망치와 같은 것이다.

인간이 가는 길은 순풍에 돛을 단 듯 그렇게 순조롭고 평탄하지만은 않다. 자기 짠 엔 모두가 바른 길을 찾아 착실하게 걸어간다고 하나, 가다가 보면 여기에도 또한 뜻하지 않은 역경과 심한 곤궁이 도사리고 있어 피나는 고생을 겪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과 곤궁은 다만 인생을 크게 손해보이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더욱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의 역경과 곤궁은 하나의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하여 훌륭한 器物(기물)을 만들어 내듯, 사람을 단련시켜 어엿한 영웅호걸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불가마요 쇠망치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만일 역경과 곤궁이라는 이 불가마 속에서 충분히 단련을 받게 되면 몸과 마음이 잘 닦여져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요, 단련을 받지 못하면 그대로 볼품 없는 인간으로 처지고 마는 것이다.

橫逆困窮은 是煅煉豪傑의 一副鑪錘니 能受其煅煉則身心이 交益이요 不受其煅煉則身心이 交損이니라.

뜻하지 않은 역경과 곤궁은 이 호걸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화로와 쇠망치다. 능히 그 단련을 받으면 몸과 마음이 번갈아 이익이 될 것이요, 그 단련을 받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손해가 된다.

• 一副(일부): 一個(일개)와 같은 말이다.

128. 천지가 사시(四時)의 운행을 어김없이 하여 만물을 길러주듯, 사람도 희노애락의 정을 바르게 하여 만물의 생에 이바지함이 있어야 한다.

천지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의 생육을 위하여 밤낮은 물론, 봄 · 여름 · 가을 · 겨울 四時의 운행에 있어 한 번도 그 순서를 어긴 일이 없다. 와야 할 때에 어김없이 오고 가야 할 때에 또한 어김없이 가고 때 맞춰 오가는 이 가운데 만물이 제 각기 그에 알맞는 생을 얻어 알맞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지의 큰 덕인 것이다.

내 몸은 만물 가운데의 일원으로서 그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천지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으니 하나의 작은 천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인 천지의 그 어김없는 법칙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땅히 기뻐할 만한 때에 가서 기뻐하고, 또 마땅히 성낼 만한 때에 성내며, 좋아할 만한 것을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것을 싫어하여, 기뻐함과 성냄, 좋아함과 싫어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없이 그때그때에 다 반드시 알맞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 인간으로서 천지의 바른 도리에 協和(협화)하여 나가는 공부요, 이리하여 마침내는 천지의 큰 덕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다.

천지는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기르고 거두어주니 우리의 큰 부모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우리는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한 형제인 것이다. 하늘이 인간을 내어서는 골고루 사랑을 나누어 주며 생을 북돋아주고 발전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생육을 위주로 하는 하늘의 그 깊고 너른 뜻을 본받아서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의 생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며 널리 덕을 베풀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일거나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요, 사람뿐만 아니라, 人物(인물)간에 어느 것 하나 나로 인하여 근심되거나 병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또한 하늘의 뜻으로서 천지의 조화로운 기상이요, 인간의 후덕하고 화목한 기상인 것이다.

吾身은 一小天地也라 使喜怒不愆하고 好惡有則이면 便是變理의 功夫요 天地는 一大父母也라 使民無怨咨하고 物無氛疹하면 亦是敦睦의 氣象이니라.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라, 기뻐하고 성내는 것으로 하여금 어긋남이 없게 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규칙이 있게 하면 문득 이것이 도리어 協和하는 공부다. 하늘과 땅은 하나의 큰 부모라,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탄식함이 없게 하고, 만물로 하여금 근심되고 병됨이 없게 하면, 또한 이것이 두텁고 화목한 기상인 것이다.

-
- 小天地(소천지): 만물은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하나의 근원이란 곧 천지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 變理(섭리): 천지의 바른 도리에 協和(협화)하여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을 말한다.
 - 氛疹(분진): 氛은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니 근심이요, 疹은 질병이다.

129. 남을 해치는 마음은 있어서 안 되지만 해악을 예방할 만한 마음은 있어야 하고, 차라리 속을지언정 남의 마음을 지나치게 넘겨짚는 버릇은 좋지 못하다.

“사람으로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은 털끝만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어도 나를 해치고자 하는 옳지 못한 사람의 난폭한 행위를 예방할 만한 마음의 준비만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얇고 소홀하여, 자기 마음만 믿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보지 않다가 해를 입을 것을 두고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받을지언정, 속지 않으려고 남의 마음속을 요모조모 헤아려보며 그 속임수를 미리 지레짐작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따위,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은 사람됨이 너무 영리하고 세밀하여, 남의 마음을 지나치게 넘겨짚다가 본의 아니게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을 경계한 말이다.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해침을 미연에 방지하며, 남의 마음을 推察(추찰)하되 알맞게 하여서 추호라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말을 치우친 이 없이 똑바르게 실천해 보라! 생각은 아주 精細(정세)하고도 밝아 어느 일 한 가지 걸리거나 막힐 것이 없을 것이요, 德行(덕행)은 더없이 크고 두터워 원만한 인품을 이루게 될 것이다.

害人之心은 不可有로되 防人之心은 不可無는 此는 戒疎於慮也요 寧受人之欺언정 毋逆人之詐는 此는 警傷於察也니 二語並存이라야 精明而渾厚矣리라.

“사람을 해치는 마음은 있어서 안 되지만 사람을 막는 마음은 없을 수 없다.”

이것은 생각에 소홀한 것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의 속임을 받을지언정 남의 속임을 거슬러보지 말라.”

이것은 推察(추찰)이 지나침을 경계한 말이다.

두 가지 말을 아울러 지녀야만 精細(정세)하고 밝으며 크고 두터워질 것이다.

130.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되 공론을 무시하지 말며, 사사로운 은혜로 큰 덩치를 손상치 말며, 공론을 빌어 사정을 쾌하게 마라.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굽혀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들지라도 한 번 옳다고 굳게 믿는 이상, 여론에 상관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자기의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남의 탈을 덮어놓고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 비록 자기의 뜻에 반대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정당한 이론인 이상 마음을 크게 열어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한 개인의 입장을 높이기 위한 속셈으로 조그마한 은혜를 사사로이 베풀어서 국가와 같은 큰 덩치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감정을 공론이라 속여서, 평소 자기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함으로써 스스로 쾌재를 부르는 따위公私를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母因群疑而阻獨見하며 母任己意而廢人言하며 母私小惠而傷大體하며 母借公論以快私情이니라.

여럿의 의심으로 인하여 자기 혼자 의견의 막지 말며, 자기의 뜻에 맡겨 다른 사람의 말을 버리지 말며, 작은 은혜를 사사로이 하여서 큰 덩치를 해하지 말며, 공론을 빌어서 私情을 쾌하게 하지 말라.

131. 친하고 싶은 어진 이가 있거든 미리 그를 찬양하지 말고 버리고 싶은 악인이 있어도 미리 그 뜻을 말 내지 않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칭찬하는 말을 몹시 못마땅하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아닌 다른 사람과 친한 것을 차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이 있어 그와 더불어 가까이 사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사귀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하여 찬양하는 말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다. 미처 사귀기도 전에 혹 간사한 무리들이 없는 허물을 지어내어 헐뜯으며 그와 나와의 사이를 이간질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는 악한 사람을 멀리하는 만큼 조심스러운 일도 없다. 악한 사람이 있어 당장에 이를 물리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쉽게 물러갈 사람이 아닌 이상, 그 기회를 엿보며 때를 기다릴 뿐 한마디라도 그러한 뜻을 미리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무슨 죄를 지어내어 어떠한 재앙을 안겨다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善人을 未能急親이거든 不宜預揚이라 恐來讒譖之奸이요 惡人을 未能輕去어든 不宜先發이라 恐招媒孽之禍니라.

착한 사람을 빨리 친할 수 없거든 미리 찬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참소꾼, 간사한 것이 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을 가벼이 버릴 수 없거든 먼저 發說(발설)하는 것은 좋지 않다. 허물을 빚어내는 재앙을 부를까 두렵기 때문이다.

• 媒孽(매염): 媒는 술을 빙는다는 뜻이요, 孽은 누룩이다. 누룩으로 술을 빚어내듯, 없는 죄를 지어내어 남을 모함에 빠뜨리는 재앙을 말한다.

132. 날빛 같이 빛나는 큰 절의는 구석진 곳에서 길러져 나오고, 천지를 굴릴 만한 큰 경륜은 지극히 세심한 데에서 우러나온다.

날빛처럼 환히 빛나는 큰 절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오로지 성실하여 다만 한 생각이 라도 부끄러운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만 한 가지라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위를 아니 하며, 오랜 동안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 수련을 쌓아온 결과인 것이다. 또 천지를 마음대로 굴러 나갈 만한 큰 계획은 지극히 세심한 속에서 우러나온다. 그것은 깊은 연못에 다다른 듯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아가듯 하여 행여 깊은 물에 빠질세라 또 행여 얇은 얼음이 꺼질세라 매사에 마음 쓰기를 몹시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이 가운데에서 싹터 나오는 것이다.

青天白日的節義는 自暗室屋漏中培來하고 旋乾轉坤의經綸은 自臨深履薄處操出이니라.

청천백일과 같은 節義는 캄캄한 방이나 방안의 한 구석진 곳에서부터 길러져 나오고, 하늘을 돌리고 땅을 구울릴 만한 큰 계획은 깊은 물에 다다른 듯, 얇은 얼음을 밟듯 하는 데에서 지어져 나온다.

• 臨深履薄(임심이박): 《詩經(시경)》에,

“…如臨深淵如履薄氷(여임심연여이박빙)”

라는 글이 있다.

“깊은 연못에 이른 듯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아가듯 한다.”

는 말인데, 매우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매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133. 자애와 효도와 우애와 공경의 아름다운 덕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있다면 이것은 남남끼리 은혜를 팔고 사는 장터와 다를 것이 없다.

아버이는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자식은 또 아버지에게 효도를 극진하게 하며, 형은 아우에게 우애하는 마음을 다하고 아우는 형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극진하게 하는 이것은 모두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효도하고 우애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당연한 일이고, 또 자연한 인정으로서 하등 감격스럽게 여길 것이 못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은덕을 베풀어주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각기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틔끌 만치라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푼 덕을 생각하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의 정이 아니라 오다가다 만난 남남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요, 또 이렇게 되면 사랑하고 효도하고 우애하고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덕이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은혜를 팔고 사는 장터가 되고 말 것이다.

父慈子孝와 兄友弟恭은 縱做到極處나 俱是合當如此요 著不得一毫感激의念頭니 如施者任德하고 受者懷恩하면 便是路人이요 便成市道矣니라.

아버지는 慈愛(자애)하고 아들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는, 이것이 비록 지극한 곳에 이르렀다고 하나 모두가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한 티끌만큼도 감격하는 생각에 붙일 것이 아니다. 만일 베푼 사람이 덕을 팔고, 받은 사람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문득 이것은 길에서 만난 사람이고, 문득 장사를 위한 길을 이루는 것이 된다.

-
- 路人(노인): 길 가는 사람이니, 남남이라는 뜻이다.
 - 市道(시도): 이익을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134. 내가 유독 고운 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밟다 아니 할 것이다.

곱고 미운 것은 상대적인 것, 참된 가치는 대립을 초월한 무차별한 곳에 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陰(음)이 있으면 陽(양)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으며, 그밖에 생과 사, 화와 복, 선과 악, 현과 우, 고귀함과 하천함, 이익과 손해 등등 세상 만물은 다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고운 것과 미운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어 고운 것이 있으면 미운 것이 상대하게 되고 깨끗한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상대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유독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내세워 뽐내지 않는다면, 그 이상 어떠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추한 것 미운 것을 들고 나와 나에게 맞서며 나를 밟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유독 결백함을 내세워 이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더러운 것을 들고 나에게 맞서며 나를 더럽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답고 깨끗한 위에는 더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있고, 밟고 더러운 위에는 더 밟고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볼 때에는 미운 것이요, 그 미운 것은 그보다 더 미운 것으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어쨌든 참된 가치는 아름다운 쪽에 있는 것도, 미운 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 모든 것의 대립을 초월한 무차별한 곳에 있는 것이다.

有妍에 必有醜爲之對니 我不誇妍이면 誰能醜我요 有潔에 必有汚爲之仇니 我不好潔이면 誰能汚我리요.

고운 것에는 반드시 미운 것이 있어서 이것이 대가 되는 것이니, 내가 고운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나를 밟다 할 것인가! 깨끗한 것에는 반드시 더러운 것이 있어 이것이 대가 되는 것이니 내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누가 능히 나를 더럽다 하겠는가!

• 仇(구): 위의 '對(대)'와 한 가지로, 서로 相對(상대)되는 것을 말한다.

135. 변덕은 빈천한 사람보다 부귀한 사람이 더욱 심하고, 질투심은 모르는 사이보다 친한 사이에 더욱 심하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 곧 恒心(항심)이라고 하는 미덕은 부귀한 사람보다도 빈천한 사람에게 더욱 많은 것 같다. 부귀한 사람은 거의 자기네들의 이익이 있고 없는 데 따라 마음을 후하게 쓰기도 하고 박하게 쓰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따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냉정하기도 한 마음의 변화는 빈천한 사람보다도 부귀한 사람에게 더욱 심한 것이다.

또 남 잘 되는 것, 남이 나보다 뛰어난 데 대하여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보다도 형제간이나 친척 또는 그와 같이 서로 인연이 깊은 사람에 대하여 더욱 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귀를 누릴수록 또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더 냉철한 정신으로 대하여야 하며 타산적인 생각을 떠나 평온한 기운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무던히 억누르며 지내나가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변덕과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마음속엔 온통 인간 본래의 참 마음을 가로막는 번뇌·망상으로 가득하여 단 하루도 떠날 날이 없을 것이다.

炎涼之態는 富貴更甚於貧賤하고 妬忌之心은 骨肉尤狠於外人하나니 此處에 若不當以冷腸하고 御以平氣하면 鮮不日坐煩惱障中矣리라.

따뜻하고 차가운 상태는 부귀한 것이 빈천한 것보다 더욱 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골육이 바깥사람보다 더욱 심하다. 이곳에서 만약 냉철한 마음으로써 당하고 평온한 기운으로써 제어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번뇌의 장애물 속에 앉아 있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
- 炎涼(염량): 더위와 추위를 人情(인정)의 厚(후)하고 薄(박)한 것에 비유한 말.
 - 狠(한): 過度(과도)하다, 甚(심)하다는 뜻이다.

136. 공로와 과실은 조금이라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은인과 원수만은 너무 두드러지게 밝힐 것이 못 된다.

공로와 과실(功過)은 항상 명백하게 하여서 조금이라도 혼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지 아니하며, 또 평소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욕만을 채우던 사람이 뜻밖에 상을 받는 등, 공과 허물을 혼동하고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일할 의욕을 잃고 만사에 게으른 생각만을 품게 된다. 그러나 은혜와 원수만은 너무 밝힐 것이 못된다. 사람이 어찌 은혜와 원수를 혼동할 수 있을까만 은인과 원수를 너무 나타나게 차별하게 되면 오늘 친근하게 지내던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속으로 의심을 품고서 여차하면 돌아설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로와 과실은 명백하게 할수록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되고 은혜와 원수는 지나치게 밝힐수록 덕을 깎아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功過는 不容少混이니 混則人懷惰墮之心이요 恩仇는 不可大明이니 明則人起携貳之志니라.

공과 허물은 조금이라도 섞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섞인다면 사람들이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은혜와 원수는 너무 밝혀서는 안 된다. 너무 밝히면 사람들이 흠어지고 의심하는 뜻을 일으키게 된다.

-
- 携貳(휴이): ‘携’는 離散(이산)하는 것이요, ‘貳’는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을 품고서 떠나는 것이니, 두 마음을 가지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

137. 작위도 너무 높이 오르면 위태롭고, 행실도 너무 높게 가지면 험뜯긴다.

무슨 일이든 너무 盛(성)하여 극점에 이르게 되면 쇠퇴하는 것이 세상 일이다. 그러므로 작록과 직위는 너무 높이 오르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 역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렵거니와 많은 사람의 질투로 인하여 위태로운 경지에 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또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일이라고 있는 재주와 있는 힘을 온통 탕진해버리는 것은 좋지 못하다. 무슨 일이든 알맞은 정도에서 그쳐 항상 餘力(여력)을 남겨둠으로써 그 일을 영구히 새롭게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아주 衰盡(쇠진)하여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아무리 도리에 맞는 행위라 하더라도 너무 고상하게 갖는 것은 좋은 일이 못된다. 고상한 것도 알맞은 정도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되면 사방에서 비웃고 험뜯는 소리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로 인하여 해(害)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爵位는 不宜太盛이라 太盛則危요 能事는 不宜盡畢이라 盡畢則衰하고 行誼는 不宜過高라 過高則謗興而毀來니라.

작록과 직위는 너무 성한 것이 마땅치 않다. 너무 성하게 되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능한 일은 남김없이 다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남김없이 다하게 되면 쇠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행위는 너무 높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너무 높게 하면 비방이 일어나고 욕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 行誼(행의): 道理에 합하는 행위.

138. 악은 숨어 있기를 싫어하며, 선은 드러나기를 싫어한다. 따라서 숨은 악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 숨은 선만큼 큰 공덕도 없다.

세상에 악한 일치고 숨은 악 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겉으로는 선을 가장하고서 속으로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갖은 악행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르칠 수도 저지할 수도 없으니, 그 피해는 무서우리만큼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은 숨은 악을 가장 꺼려한다. 겉으로 드러난 악이야 가르치고 저지할 수가 있으니 미치는禍(화)가 적지만, 나타나지 않은 숨은 악은 그禍害(화해)가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선만큼 미치는 공덕이 큰 것도 드물다. 겉으로 선행을 하는 체 하기보다는 말없이 남몰래 쌓아나가는 선행이야말로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선)은 환히 드러나는 것을 가장 꺼려한다. 겉으로 드러난 선은 미치는 공덕이 그만큼 얇고, 나타나지 않은 숨은 선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치는 덕이 막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惡忌陰하고 善忌陽하나니 故로 惡之顯者는 禍淺하고 而 隱者는 禍深하며 善之顯者는 功少하고 而 隱者는 功大니라.

악은 숨은 것을 꺼려하고 선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므로 악이 나타난 것은禍가 얇고 숨은 것은禍가 깊으며, 선이 나타난 것은 功이 적고 숨은 것은 功이 크다.

139. 덕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는 덕의 노복이다.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으면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노복들만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심으로서 인간의 타고난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허다한 작용은 바로 이 덕의 부림에 의하여 움직임으로써 正道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邪道(사도)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덕은 재주의 주인과 같고, 재주는 덕의 奴僕(노복)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서 재주라고 하는 것은 오직 덕의 부림에 의하여 움직임으로써 비로소 바를 수가 있다. 그런데 만일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마치 주인 없는 집에 노복들만이 멋대로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머지않아서 그 집안은 도깨비 작란이 일듯 난장판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德者는 才之主요 才者는 德之奴니 有才無德이면 如家無主而奴用事矣라 幾何不魍魎而猖狂이리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의 주인이요 재주라고 하는 것은 덕의 奴僕(노복)이다.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으면 마치 집에 주인이 없고 노복이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얼마 안 가서 도깨비들이 어찌 미치광이질 치지 않겠는가!

140. 간악한 무리와 요행을 바라는 아침꾼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단 한 곳 도망할 길을 터놓고 몰아내어야 한다.

간악한 무리와 요행을 바라며 알랑거리는 아침꾼은 이 세상에서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 마치 호미로 잡초를 뽑아내듯, 그렇게 뿌리째 뽑아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악한 무리와 아침꾼을 몰아낸다고 도망할 길마저 막아버리면 안 된다. 단 한 군데 도망할 길만은 반드시 터놓고서 몰아내어야 야로를 부리지 못한다. 만일 사면을 물샧틈없이 꼭 막고서 그것들을 몰아댄다면, 이것은 마치 쥐구멍을 막는 사람이 달아날 구멍도 남겨 놓지 않고 다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쥐가 어찌 이 속에서 고이 죽어 주겠는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속에서 온갖 귀중한 물건을 있는 대로 마구 씹고 물어뜯어 버려놓을 것이 아닌가!

간악한 무리를 뿌리 뽑으려다 도리어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鋤奸杜倖엔 要放他一條去路니 若使之一無所容이면 譬如塞鼠穴者 一切去路를 都塞盡이면 則一切好物을 俱咬破矣리라.

간사한 것을 제거하고 아침하는 것들을 막으려면 다른 한 가닥 달아날 길을 터놓을 것을 요한다. 만약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도 용납될 바가 없게 한다면, 비유컨대 쥐구멍을 막는 사람이 모든 달아날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좋은 물건을 다 씹어 못 쓰게 만들 것이다.

-
- 倖(행): 倖幸(영행)의 무리로, 아침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며 요행을 바라는 무리.

141. 궂은 일은 내가 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양보한다.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노라면 때로 허물을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공훈을 세울 수도 있다. 또 어느 때는 역경에서 허덕이는가 하면, 어느 때는 부귀에 영화에 안락을 누리는 때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함께 지은 허물인데도 허물만은 남에게 돌리고자 하고, 함께 세운 공인데도 공훈만은 자기가 독차지하여 나누어 갖기를 꺼려한다. 또 역경에 허덕일 때는 두 손을 마주잡고 서로 위로하며 고난을 나누어 오다가도 일단 성공하여 안락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락을 나누어 갖기를 몹시 아깝게 여긴다. 아깝게 여기는 데서 그칠 뿐이 아니라 나중에는 같은 동지를 적대시하기까지에 이른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궂은 일은 내가 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양보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허물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공훈만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돌려서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 또 마찬가지로 근심되는 일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성공한 뒤의 안락만은 나누어 가질 생각을 말아야 한다.

當與人同過요 不當與人同功이니 同功則相忌하며 可與人共患難이요 不可與人共安樂이니 安樂則相仇니라.

마땅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허물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공을 같이 하면 서로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더불어 근심과 어려움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요, 사람들과 더불어 안락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안락을 함께 하면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142. 물질로 남을 돕는 것만이 돕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어리석음에서, 심한 곤궁에서 풀려나게 한다면 이 또한 무한한 공덕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정신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어느 것이나 다 훌륭한 공덕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기에 한 군자가 있어, 도덕 수양은 비록 높으나 집이 가난하여 물질로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좋은 말을 선사하여 사람을 어둠속에서 구해주었다고 하자. 곧 사람됨이 蒙昧(몽매)하여 사리를 분별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보았을 때, 선뜻 좋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 어둠 속에서 건져주고, 또 다급한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사람을 보고서 좋은 말을 생각해 내어 일의 앞뒤를 잘 가려주어서 그 사람을 그 어려움 속에서 풀려나게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한없이 큰 공덕이라 할 것이다. 어찌 물질적인 것만이 크다 하겠는가!

士君子 貧不能濟物者는 遇人癡迷處에 出一言提醒之하고 遇人急難處에 出一言解救之하면 亦是無量功德이니라.

사군자가 가난하여 물질로 건져줄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어리석어 서성거리는 것을 만나매 한마디 말을 내어 그를 이끌어 깨우쳐 주고, 사람의 급하고 어려운 것을 만나매 한마디 말을 내어 그를 풀어 구해 준다면, 또한 이것이 한량 없는 공덕인 것이다.

**143. 굶주려 춥고 배고프면 돈 많은 사람에게 붙고, 배불러 아쉬움이 없으면 떨어져
뒤도 안 돌아보는 것이 세정이다.**

人情(인정)은 무상한 것인가!

굶주려 춥고 배고프면 돈 많은 사람에게 붙어다니고, 배불러 아쉬움이 없으면 어깨가 우쭐하여 쉬파리 날리듯 남을 떨쳐버린다. 마찬가지로 돈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면 늦을세라 종중걸음 쳐 모여들고, 돈 떨어져 먹을 것이 없으면 언제 보았냐는 듯 돌아서 버리고 만다.

이것은 아마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인정의 공통된 병폐인가!

饑則附하고 飽則颺하며 燠則趨하고 塞則棄는 人情通患也니라.

굶주리면 붙고 배부르면 떨치며, 따뜻하면 모여들고 차면 버리는 것은 인정의 공통된 근심거리다.

-
- 附(부): 돈 많은 사람에게 붙는 것.
 - 颺(양): '揚(척)'과 같은 뜻으로 날려버린다, 또는 떨쳐버린다는 말이다.
 - 燠(옥): 따뜻하다는 것은 돈이 많아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을 가리킨 말이고, 그 밑에 '塞(한)'은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뜻한다.

144. 사물을 보는 눈은 냉정해야 하고, 사물에 처하는 마음은 철석같이 굳어야 한다.

사람마다 사물을 보는 눈은 항상 맑고 차가워야 한다. 더구나 군자는 도덕의 힘을 빌어 감정에 얽힌 핏발 선 눈을 깨끗이 씻고 이지적인 냉정한 눈으로 사물을 똑바로 내다 보아야 한다.

또 군자는 마음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철석같이 굳은 마음 확고한 신념을 오직 냉정한 눈으로 온전히 지켜 어떠한 사물에도 가벼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삼가고 조심하여야 하는 것이다.

君子宜淨拭冷眼이요 愼勿輕動剛腸이니라.

군자는 마땅히 냉정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할 것ियो, 삼가서 굳센 마음을 가벼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
- 冷眼(냉안): 냉정한 눈을 깨끗이 닦는다는 말은 감정에 흐르지 않고 오직 理智的인 冷靜(냉정)한 눈으로 세상일을 똑바로 通觀(통관)한다는 뜻이다.
 - 剛腸(강장): 굳센 마음, 곧 확고한 信念을 뜻한다.

145. 덕은 도량의 크기에 따라 쌓이고, 도량은 식견의 높이에 따라 넓어진다.

사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도량의 크기에 따라서 점점 나아가는 것이다. 또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식견의 높이에 따라서 더욱 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몸에 덕을 두텁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만물을 한 품에 안아들일만한 넓은 도량을 지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 도량을 넓히려면 만물의 근원을 알고 만물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는 높고도 큰 식견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德隨量進하고 量由識長하나니 故로 欲厚其德이면 不可不弘其量이요 欲弘其量이면 不可不大其識이니라.

덕은 도량에 따라 나아가고, 도량은 識見(식견)으로 말미암아 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덕을 두텁게 하고자 한다면 그 도량을 넓히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도량을 넓히고자 한다면 그 식견을 크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146. 모든 소리가 다 잠든 한밤과 이른 새벽,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몸은 온전히 물욕과 정욕에 수감 채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다 밤늦게 외로이 남은 등불이 희미하게 가물거리고 사방은 시끄러운 소리 다 끊어져 천지가 온통 죽은 듯 고요한 때, 이때는 우리네 인간도 하루의 피로를 잊고 만 생각을 잠재우며 고요한 잠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또 새벽꿈에서 막 깨어날 무렵, 만물이 아직 기동하지 않은 이른 새벽, 이 때는 천지가 아직 나뉘기 이전의 상태처럼 몽롱한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서서히 벗어날 때다.

모든 소리와 빛깔이 자취를 감추어버린 한밤, 그리고 좋고 나쁜 허다한 감정이 아직 발동하기 이전의 이른 새벽, 이때야말로 우리의 본성, 곧 참 마음이 갇가지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 한 줄기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아 비추이고 있을 때다.

우리는 모든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 한줄기 참 마음의 빛을 되찾게 되는 그 한 방과 이른 새벽을 타고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그리고 인간 본래의 참 마음의 빛으로 자기의 참 모습을 살펴보자.

아름다운 소리를 원하는 우리의 귀와 좋은 색을 원하는 우리의 눈과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우리의 입이며 향기로운 냄새를 원하는 우리의 코 등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 등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욕과 즐겨하고 좋아하는 마음(嗜好) 따위는 다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귀와 눈과 입과 코는 모두가 다 바깥 사물에 느끼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참 마음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얹어매는 차꼬와 수갑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嗜好(기호)는 안으로 쏙먹어 들어가 우리의 참 마음을 무너지도록 만들어 놓는 하나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푹푹히 알게 될 것이다.

一燈螢然에 萬籟無聲은 此吾人初入宴寂時也요 曉夢初醒에 群動未起는 此吾人初出混沌處也니 乘此而一念廻光하여 炯然返照하면 始知耳目口鼻皆桎梏而情欲嗜好悉機械矣니라.

한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며 만상의 울리는 소리가 없는 것은, 이는 우리들이 비로소 편안한 잠속에 들어갈 때다. 새벽꿈을 비로소 깨어나매 모든 운동이 아직 일지 않은 것은 이는 우리들이 비로소 혼돈에서 나오는 곳이다. 이것을 타고서 한 생각 빛을 돌려 환히 돌이켜 비추어보면, 비로소 알게 되리라! 귀와 눈과 입과 코는 다 차꼬와 수갑이요, 정욕과 즐기고 좋아하는 것은 다 기계라고 하는 것을!

-
- 萬籟(만뢰): 萬像(만상)의 울리는 소리.
 - 宴寂(연적): 宴은 편안하다는 뜻으로, 宴寂은 '편안한 죽음'을 뜻하나, 여기에서는 '편안한 잠'으로 풀이한다.
 - 混沌(혼돈): 天地(천지)가 아직 나뉘기 이전의 상태. 안개 속처럼 不分明한 상태를 말한다.
 - 廻光返照(회광반조): 바깥 사물에만 쏠리는 마음의 빛을 돌려 자기의 內面을 비추어 본다는 뜻으로, 이것은 禪文에 있는 말이다.
 - 桎梏(질곡): 차꼬와 수갑. 곧 행동을 부자유스럽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刑具(형구). 차꼬는 발에 채우는 형구요, 수갑은 손에 채우는 형구다.

147. 반성은 덕을 길러주는 보약이요, 원망은 덕을 깎아 내리는 칼이다.

자기를 반성한다고 하는 것은 덕을 닦고 기르는 데 좋은 보약이요, 남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덕을 깎고 해치는 무서운 창칼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용히 자기반성에 부치는 사람에게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의 덕을 빨리 나아가게 하는 좋은 약이요, 침이 되어 그 사람은 조화로움 속에서 날마다 흠으로 선으로 나아가 마침내는至善(지선), 성인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마다 남을 허물하고 남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의 덕을 깎아내리고 상하게 하는 무서운 창칼이 되어 그 사람은 증오와 원망 속에서 날마다惡으로 악으로 퇴보하여 나중에는 최악의 深淵(심연)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것으로 보면 자기를 반성하는 것은 곧 모든 善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은 곧 모든 악행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된다. 결국 반성이나 원망이나 하는 마음의 선택 하나로 善과 惡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反己者는 觸事皆成藥石이요 尤人者는 動念이 卽是戈矛라 一以闢衆善之路하고 一以濬諸惡之源이니 相去霄壤矣니라.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은 일에 부딪치는 것마다 다 약과 돌침이 되는 것이요, 남을 허물하는 사람은 생각을 움직이기만 하면 곧 이것이 창이 된다. 하나는 그것으로써 善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는 그것으로써 모든 惡의 근원을 열어 주니, 서로 떨어져감이 하늘과 땅인 것이다.

148.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따라 옮겨 가지만 사람의 기개(氣概)와 절조는 영원한 것으로 천 년이 하루같이 빛나는 것이다.

사업이나 문장과 같은 것은 겉으로 아무리 위대하고 교묘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일 뿐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따라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다만 영원히 후세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창한 사업, 교묘한 문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담긴 훌륭한 정신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과 문장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인생을 따라 있고 없고 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정신적인 것이란 영원한 것으로서 천년만년이 가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功名(공명)과 富貴(부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을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것이라,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氣概(기개)와 節操(절조)라고 하는 것은 비록 쓸쓸하기는 하나, 쓸쓸한 것은 그 한 때일 뿐이요, 이야말로 영구히 변함 없는 것으로서 천년이 하루같이 빛나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사업과 문장과 공명과 부귀! 그리고 영구한 가치를 지닌 정신과 기개와 절조! 군자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하여야 옳을 것인가! 뜻 있는 군자라면 이것으로서 저것을 다시 말하면 영구적인 정신을 내어놓고 일시적인 허무한 공명·부귀와 바꾸는 따위 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결코 아니할 것이다.

事業文章은 隨身銷毀로되 而精神은 萬古如新하고 功名富貴는 逐世轉移로되 而氣節은 千載一日이니 君子信不當以彼易此也니라.

사업과 문장은 몸을 따라서 녹아 없어지지만 정신은 만년이 가도 여전히 새롭다. 공명과 부귀는 세상을 쫓아 옮겨가지만 기개와 절조는 천년이 하룻날이다. 군자는 진실로 저것으로써 이것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49. 천지자연의 무궁한 조화 속에서 작은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믿고서 잔꾀를 부린 단 말인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 놓았는데, 이 속에 웬놈의 기러기가 걸려들었다. 세 상에는 이와 같은 생각 밖의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버마재비라는 벌레가 먹이를 탐내어 다른 작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있는 재주를 다하여 노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 와서 버마재비란 놈을 잡아먹겠다고 그 뒤를 또 잔뜩 노리고 있다. 버마재비란 놈 벌레에 팔려 저 잡아먹힐 줄을 알 턱이 없다. 참새라고 온전하라! 버마재비에 정신을 빼앗긴 참새, 뒤돌아볼 생각을 전혀 못 하거니!

세상일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造化(조화)의 교묘한 기계 속에 더욱 교묘한 기계가 감추어져 있고, 변화 밖에 또 다른 변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그 精巧(정교)로움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는 인간으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속에서 온갖 微物(미물)과 짐승들이 제각기 재주와 솜씨를 자랑하며 먹고 먹히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와 같은 작은 인간들이 한 치 밖에 내어다 볼 수 없는 고 작은 지혜를 쥐어짜며 교묘한 솜씨를 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익을 앞에 놓고 잔뜩 노려보며 갖은 지혜를 다 모으고 있다. 물고기를 잡으려다 기러기가 걸려들 듯, 생각 밖의 큰 이익이 내 앞에 굴러 떨어질런지, 아니면 버마재비처럼 눈 앞에 이익을 쫓다가 뜻밖에 뒤의 놈에게 송두리째 잡아먹힐런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은 인간의 지혜와 잔재주다. 그토록 정교하기 그지 없고 변화무궁한 세상에서 자기의 고 작은 지혜를 어떻게 믿고서 잔꾀를 부린단 말인가!

사람은 모름지기 모든 利慾(이익)에서 훌쩍 벗어나, 천지자연의 그 무궁하고도 걸림이 없는 큰 활동을 본 받아, 좀 더 먼 眼目(안목)과 크고 넓은 도량으로써 세상 일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으며, 그 밖에 어떠한 誤謬(오류)도 범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魚網之設에 鴻則罹其中하고 螳螂之貪에 雀又乘其後하나니 機裡藏機하고 變外生變이라 智巧를 何足恃哉리요.

물고기 그물을 쳐 놓았는데 기러기가 곧 그 속에 걸리고, 버마재비가 먹이를 탐하는데 새가 또 그 뒤를 엿본다. 機械(기계) 속에 기계가 감추어져 있고, 변화 밖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 지혜와 공교로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150. 인간에게는 진정과 원활한 활동의 맛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세상을 자유로이 건널 수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眞情(진정)이다. 이 진정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의 하는 말,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진정 그대로 남에게 전달되어 일마다 알찬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되어서 한 가닥 절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는 거짓말로 남에게 밥을 빌어먹는 걸인으로 밖에는 아무도 보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걸인의 말을 누가 곧이 들어주며, 걸인의 행동을 누가 참되게 보아 주랴! 참으로 사람에게 진정이 없고 보면, 평생에 하는 일이 일마다 그대로 허망한 것으로 돌아가고 만다.

또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자면 원만하고도 활발한 활동의 맛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험한 산도 거뜰히 뛰어 넘고, 깊은 물도 가볍게 건너뛰며, 가시밭길도 자유롭게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복잡한 세상을 헤쳐 나가는 데에 원만하고 활발한 활동의 맛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흡사 나무로 만든 사람이라, 이런 무능한 사람이 무슨 수로 세상을 자유로이 건널 수가 있겠는가! 가다가 이리 부딪치고 저리 밀리어, 가는 곳 마다 걸리고 막히는 일뿐일 것이다.

作人¹에 無點²眞懇念頭³면 便成個花子⁴라 事事皆虛⁵ 涉世⁶에 無段圓活機趣⁷면 便是個木人⁸이라 處處有碍⁹니라.

사람으로 되어서 한 점의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문득 한낱 걸인이 되는 것이라, 일마다 다 헛것이다. 세상을 건너는데 一段의 원만하고 활발한 활동이 없다면 문득 이것은 한낱 나무로 만든 사람이라, 곳곳마다 걸림이 있을 것이다.

• 點: 一點(일점).

• 花子: 乞人(걸인).

• 木人: 나무로 만든 사람의 형상. 아주 무능한 사람에 비유한 말이다.

151.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아 때와 먼지만 끼지 않으면 항상 맑고 밝다.

물은 본래 고요한 것이지만, 물결이 일게 되면 고요가 깨어진다. 그러므로 물은 물결이 일지 않음으로써 항상 고요할 수가 있다. 거울은 본래 밝은 것이지만, 여기에 먼지가 앉고 때가 끼게 되면,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거울은 먼지나 때와 같은 것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항상 본래의 밝은 상태 그대로 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는 누구나 다 진실하며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다.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물결로 인하여 흐리고 어두울 때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混濁(혼탁)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가 있을까! 마음이라고 특별히 맑고 깨끗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도 물이나 거울처럼 이것을 흐리게 하는 욕심의 물결을 제거해주기만 하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원하는 즐거움은 또 어떤가! 즐거움을 원한다고 애써 이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은 본래 평온하고 즐거운 것이다. 다만 술한 욕심의 물결로 하여 마음이 흔들리어 평온을 잃게 되고, 또 그 욕심에 시달리고 괴롭히어 잠시 즐거움을 잃게 된 것 뿐이다. 그러므로 즐거움을 원하거든 일부러 즐거움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방해하는 그 괴로움을 제거해 버리면 마음은 항상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水不波則自定이요 鑑不翳則自明이니 故로 心無可淸이라 去其混之者면 而淸自現이요 樂不必尋이라 去其苦之者면 而樂自存이니라.

물은 물결지지 않으면 저절로 고요하고, 거울은 가리지 않으면 저절로 밝다. 그러므로 마음은 맑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이것을 흐리게 하는 것을 제거하면 밝은 것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요, 즐거움은 반드시 찾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괴롭히는 것을 제거하면 즐거움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다.

152. 한 생각으로 인도(人道)를 등지게 되고, 한마디 말로 인화(人和)를 깨며, 한 가지 일로 자손에게 재앙을 물리게 되는 수가 있다.

다만 한 생각이라도 아차 한 번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뜻을 어기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영영 등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다만 한마디 말이라도 말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천지자연의 평화를 깨뜨려 인간 세상에 온통 불평과 불화의 씨를 퍼뜨리게 되는 수가 있다.

또 다만 한가지 일이라도 일 한번 잘못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자손에게 돌아갈 큰 재앙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상에 말한 것은 모두가 다만 한 생각, 한마디 말, 한가지 일로서 얼른 듣기에는 지극히 사소한 일 같이 들린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평생을 두고 경계해야 할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생각과 말과 사소한 일로서 이 세 가지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단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有一念而犯鬼神之禁하고 一言而傷天地之和하고 一事而釀子孫之禍者하나니 最宜切戒니라.

한 생각으로 귀신의 금지하는 것을 범하고, 한마디 말로 천지의 평화를 해치고,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어내는 수가 있으니, 가장 절실하게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153. 성급하게 하는 일은 남의 노여움을 사기 쉽고, 사람을 가르치되 심하게 다잡으면 도리어 빛나가기 쉽다.

우리들이 겪는 여러가지 사건 가운데에는 성급하게 다루어도 혹 그런대로 해결을 보는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급하게 다잡다가 도리어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급하게 해서 안 되는 일이 마음을 한결 늦추어 한동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급하게 해서 그 사건의 진상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거든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저절로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급하게 해서 안 되는 일을 두고, 무리하게 다잡고 들다가 조금이라도 남의 노여움과 원망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사람은 흔히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 붙잡으면 뿌리치고 놓아두면 달라붙는 수가 있다. 또 그대로 버려두면 스스로 할 일도 남이 하라고 하면 끝내 그만 두는 예도 없지가 않다. 그러므로 좋은 의견을 말해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더 이상 따르기를 강요하지 말고 저대로 내버려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마음이 돌아서 좋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때 너무 심하게 다잡게 되면 그럴수록 더욱더 완고한 고집만 더하게 될 뿐이니, 사람을 가르치려다가 도리어 완고한 고집만 드세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똑같은 완고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다.

事有急之不自白者하고 寬之或自明하나니 毋躁急以速其忿이요 人有操之不從者하고 縱之或自化하나니 毋操切以益其頑이니라.

일은 급하게 하면 명백하지 않는 것이 있고 너그럽게 하면 혹 자연히 밝아지는 수가 있으니 조금급하게 함으로써 그 분노를 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은 잡으면 따르지 않는 이가 있고 놓아두면 혹 저절로 돌아오는 수가 있으니 잡기를 끊을 듯이 함으로써 그 완고함을 더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4. 아무리 높은 절의(節義)요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덕으로써 닳여진 것이 아니면 한 점의 가치도 없다.

사람의 절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기에 하늘에 구름만큼이나 높은 벼슬아치들을 거만스레 저만큼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것일까!

또 문장의 뜻이 얼마나 높고 깊으면 고상하고 깨끗하기로 이름 높은 초나라 宋玉(송옥)의 白雪(백설)의 曲(곡)보다도 더 높다고 할까!

사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절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보다도 더 높고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높고 귀한 절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덕성으로서 같고 닳여 올바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절의가 아니라 일시적인 혈기의 부림에 의해 나타난 한낱 사사로운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 점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또 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아무리 고상하고 교묘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덕성으로써 같고 닳여 올바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결국 문장의 低俗(저속)한 재주부림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節義는 傲靑雲하고 文章은 高白雪하나 若不以德性陶鎔之면 終爲血氣之私와 技能之末이니라.

절개와 의리는 푸른 구름에 뿔내고 문장은 白雪(백설)보다 높으나 만약 德性(덕성)으로써 이것을 陶冶(도야)하고 단련하지 아니하면 마침내는 血氣(혈기)의 사사로운과 技能(기능)의 말단이 되고 마는 것이다.

• 靑雲: 푸른 구름이란 높은 벼슬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푸른 구름에 뿔낸다'고 하는 것은 곧 높은 벼슬아치들을 거만한 태도로 내려다 본다는 말이다.

• 白雪: 楚(초)나라 宋玉(송옥)의 對楚王問(대초왕문)에 나오는 曲(곡)의 이름으로, 아주 고상하고 幽遠(유원)한 詩趣(시취)를 지닌 것으로 이름이 높다.

155. 한창 인기 좋은 때 물러나고, 남보다 뒤만큼 몸을 둔다는 것은 인생에 다시 없는 처세술이다.

사람으로서 앓을 만한 지위에 앓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러날 만한 때에 그 자리를 물러나는 용기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한 번 지위를 얻어 앓게 되면, 물러날 만한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외면하며 그 자리에 끈질기게 매달려 있다가 끝내는 치욕으로 그 이름을 먹칠한 뒤에야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예가 많다.

그러면 물러설만한 가장 좋은 때란 어느 때인가! 애써 훌륭한 공을 세운 뒤, 인기가 절정에 이르고 부귀와 공명이 또한 한창 왕성한 때,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한바탕으로 자기를 우러러보며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 주기를 바랄 때, 바로 그때인 것이다. 그때야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좋은 것을 뒷사람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몸 둘 곳을 잘 가려 앉아야 한다. 사람으로서 몸 둘만한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모여서 제 각기 욕망을 겨루며 쉼을 가로막고 혈투는 그런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 곳은 반드시 모든 경쟁에서 뒤만큼 떨어진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 이곳이야말로 안전한 곳으로 자기의 뜻을 크게 키우기에 알맞은 곳이니, 여기에 몸을 두고 모든 사람에게 길을 비켜 먼저 보내어 주며, 자신은 꾸준히 덕을 닦으며 쉼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謝事엔 當謝於正盛之時하고 居身엔 宜居於獨後之地니라.

일을 사퇴하는 데는 마땅히 바로 한창 왕성한 때에 사퇴할 것이요, 몸을 두는 데는 홀로 뒤쳐진 곳에 두는 것이 좋다.

156. 덕은 사소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쌓이고, 은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 의의가 있다.

사람의 허물이란 거의 작은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큰일은 대개 크다고 해서 주의를 기울이나, 작은 일은 작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을 닦는 사람은 항상 눈에 띄이지 않는 지극히 미미한 일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사람으로서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이 만물을 길러주면서도 스스로의 공을 내세우지 아니하듯, 마음에 전혀 보답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써 진정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은혜를 베푼 때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 사람에게 베푼도록 힘쓰는 것이 좋다.

謹德엔 須謹於至微之事요 施恩엔 務施於不報之人이니라.

덕을 삼가는 데는 모름지기 지극히 미미한 일을 삼가도록 할 것이요, 은혜를 베푸는 데는 힘써 갚지 않는 사람에게 베푼도록 해야 한다.

157. 도시 사람보다 산중 늙은이를 사귀는 것이 좋고, 남의 험담을 늘어놓기보다 옛 사람의 아름다운 언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종일을 두고 이익을 따라 다니며 허덕이는 도시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자연을 노래하며 사는 욕심 없는 산중 노인을 벗하여 노는 것이 진정(眞情)을 느낄 수 있어 훨씬 재미롭다.

지체 높은 權勢家(권세가) 집 문을 굽실거리며 드나들기보다, 초라한 오막살이 집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인간미를 맛볼 수 있어 훨씬 좋다. 길거리 향간에 떠도는 실상 없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무하는 아이나 목동들의 천진한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 참 마음을 찾을 수 있어 훨씬 즐겁다. 아무개는 도덕이 없는 사람이니, 아무개는 행실이 나쁜 사람이니 하며, 모여서 남의 잘못을 들추어 쑥덕거리느니 보다 지금엔 가고 없는 옛사람의 훌륭한 말씀과 아름다운 행적을 더듬어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배울 점이 있어 마음 기쁘다.

交市人이 不如友山翁이요 謁朱門이 不如親白屋이요 聽街談巷語 不如聞樵歌牧詠이요 談今人失德過舉 不如述古人嘉言懿行이니라.

도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산 늙은이를 벗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권세가문에 가 뵈는 것이 초가집과 친하는 것만 못하다. 길거리의 이야기와 향간에 떠도는 말을 듣는 것이 나무하는 아이의 노래와 목동의 읊조리는 소리를 듣는 것만 못하고, 지금 사람의 덕을 잃은 일과 잘못된 거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옛 사람의 훌륭한 말과 아름다운 행실을 말하는 것만 못하다.

• 市人: 저자 사람, 곧 商人을 뜻하는 말이나 여기서는 아래의 '山翁(산옹)'에 대하여 도시 사람으로 풀이한다.

• 朱門: 붉은 칠을 한 화려한 문이니, 곧 지체 높은 권세가의 집을 말한다.

• 白屋(백옥): 락(白茅(백모))로 지붕을 엮은 집이니, 초라한 오막살이 집이다.

158. 모든 사업은 덕으로 기초공사를 닦은 위에 세우지 아니 하면 성공도 그 한 때 뿐이다.

德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기초가 된다. 집을 짓는 데 기초공사를 탄탄히 해야 수명이 오래 가듯,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것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공사는 물질적인 것으로 족하다. 사업할적의 기초공사는 반드시 정신적인 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덕으로써 기초를 충분히 닦은 뒤, 그 위에 세워 올린 사업이라야 훌륭한 사업이요 영구한 사업이 되는 것이다. 만일 덕의 기초 없이 이룩된 사업이라면, 성공도 그 한 때 뿐이니 결코 오래 갈 수는 없다. 무른 땅 위에 세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언제까지고 굳게 서 있는 예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있는 적이 없는 것이다.

德者は 事業之基니 未有基不固而棟宇堅久者니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 기초가 견고하지 않고서 집의 마룻대와 추녀 끝이 단단하게 오래간 적은 아직 없다.

159. 번영의 뿌리는 올바른 정신이니, 이것을 심지 않고 자손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자손의 오랜 번영을 기원하며 무엇인가 자손에게 남겨 두고자 평생을 허덕인다.

자손에게 남겨줄 유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음, 곧 정신적인 유산이요, 하나는 물질적인 유산이다. 여기서 자손에게 번영과 영광을 안겨줄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신으로서 도덕적인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따라 있고 없고 하는 것이므로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손의 영구한 번영을 꿈꾸거든 그 번영의 뿌리가 되는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를 심지 않고서 가지와 잎이 어떻게 무성하기를 바랄 수 있겠으며, 또 그런 예는 세상에 아직 한 번도 없는 것이다.

心者는 後裔之根이니 未有根不植而枝葉榮茂者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 뿌리를 심지 않고서 가지와 잎이 번영하고 무성한 적은 아직 있지를 앎다.

160. 진리의 터전은 자기에게 있으니 밖에서 구걸하지 말며, 자기에게 있는 재능만이 참이 아니니 자랑은 말라.

자기 집에 무진장하게 쌓여 있는 것을 버려두고 쪽박을 차고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며 걸식하는 거지 행세를 한다.

이 말은 명나라 儒學者(유학자)인 王陽明(왕양명)의 시에 나오는 말이다.

사람은 날 적부터 良知(양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양지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知能(지능)으로서 곧 마음의 본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는 良知를 찾아 스스로 진리를 구하기만 하면, 이것으로 하여 학문의 최고 경계인 성인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마치 자기 집에 수없이 많은 財寶(재보)를 쌓아두고도 그것을 버려두고 남에게 구걸을 하듯 자기에게 모든 진리의 터전인 양지가 엄연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다른 데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또, 옛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이가 있다.

“갑작스레 부자가 된 거지야! 돈 있는 자랑을 마라. 그것은 한갓 꿈과 같은 이야기로 전혀 헛된 것이다. 어느 집 치고 부엌에 불을 때어 연기 안 나는 집 있더냐!”

라고.

조그마한 재산과 재능쯤 사람마다 다 지니고 있다. 그런 것을 유독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양, 뽐내어 자랑할 것은 없는 것이다. 또 자기 것만이 참이라고 주장하며 남의 것을 무시하고 들 것도 없는 것이다. 재능이란 불을 때어 연기 안 나는 집이 없듯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먼저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진리의 터전인 양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다른 데에서 찾아 헤매는 어둡고 어리석은 점을 두고 경계한 말이요, 뒤에 것은 사람이 자기의 재능만을 참으로 알고 자랑하는 하나 밖에 모르는 편협한 소견을 두고 경계한 말이다.

참말로 이 두 가지 말은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절실한 훈계라 하겠다.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자기의 힘, 자기의 머리로 애써 이를 생각을 아

니 하고 남의 생각에 의지하여 주견 없이 끌려 다닌다든가 또는 자기의 생각만을 진리로 알고 남의 것은 모두 거짓으로 돌리는 따위 편협한 태도를 갖는다면 이는 평생을 학문하여도 단 한 걸음의 진전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참말로 경계해야 할 절실한 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前人이 云 拋却自家無盡藏하고 沿門持鉢效貧兒라 하며 又云 暴富貧兒는 休說夢하라 誰家寵裡火無烟하니 一은 箴自昧所有요 一은 箴自誇所有니 可爲學問切戒니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집의 한없이 쌓여 있는 것을 버려두고 문을 따라 쪽박을 들고 빌어먹는 가난한 아이를 본받는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갑작스레 부자가 된 가난한 아이는 꿈같은 이야기를 그만 두어라. 누구 집 부엌 속에 불 때어 연기가 없으리오.”라고 하였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에 어두움을 깨우쳐 준 것이요,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을 두고 깨우쳐 준 말이다.

• 拋却自家無盡藏(포각자가무진장): 이 글은 王陽明(왕양명)의 詩(시)의 한 구절이다. 陽明(양명)은 '致良知(치양지설)'을 주장한 明나라 儒學者다. '良知'는 곧 心의 本體로서 선천적인 知를 말한다.

여기에 '자기 집의 무진장한 것'이란 곧 이 良知를 뜻한다. 사람은 자기 집의 무진장한 財寶(재보)를 쌓아두고도 남에게 구걸을 하듯, 사람마다 다 良知라고 하는 진리의 터전을 갖추고 있어서, 스스로 眞理를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을 공연히 남에게서 찾아 헤맨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暴富(폭부): 갑작스런 부자. 이 글의 뜻은 어느 집이나 불을 때는데 연기 안 나는 집이 없듯, 조그마한 재산쯤은 누구 집에도 다 있는 것을, 이것을 남에게 자랑하여 말한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헛된 일이라고 하여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유독 자기에게 있는 것만을 眞理라고 주장하며 자랑하는 편협한 소견을 두고 경계한 말이다.

161. 도(道)란 공공물이니 사람마다 이 길을 밟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요, 학문이란 가정에서의 끼니라, 누구든 배워서 실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道(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道通(도통)이란 말을 연상하며, 이것은 아주 옛날 공자나 불타와 같은 특수한 사람이나 생각할 수 있는 아득히 먼 것으로 안다.

그러나 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도는 바로 글자 그대로 길이다. 무슨 길인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곧 人道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밟아야 할 바른 도리, 곧 三綱五倫(삼강오륜)과 같은 인간의 도덕 법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한 것인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현명한 사람, 우매한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이면 다 마땅히 이 길을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곧 도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동으로 걸어갈 수 있는 공공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밟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힘껏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곧 인간으로서의 떳떳한 도리요, 또한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또 학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열 일을 제쳐놓고 깊숙이 들어 앉아 한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인 줄로 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배움이란 老少가 따로 없고 때와 장소가 따로 없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저마다 하루 세 번 끼니를 찾아 먹듯 평생을 두고 배우고 실천하다가 죽은 뒤에야 마는 것이다.

학문이란 어느 특수한 때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배워서 안 것을 실생활에 알맞게 응용하여, 어느 곳에서나 어느 일 한가지 허물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몸소 실천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道는 是一重公衆物事이라 當隨人而接引이요 學은 是一個尋常家飯이라 當隨事而警惕이니라.

道는 일종의 公衆(공중)의 物(물)이요 일이라, 마땅히 사람을 따라 서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날마다 찾는 가정에서의 끼니라, 마땅히 일을 따라서 경계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
- 一重(일중): 一種(일종)과 같다.

162. 남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성실한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덮어놓고 남을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덮어놓고 남을 의심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 남을 믿기를 잘 하는 사람은 상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바르고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의 마음이 유독 성실하므로 남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거나 생각하여서다. 그러므로 남을 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남달리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처음부터 남을 의심하고 드는 사람은 상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반드시 사기꾼이라서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마음이 음흉하여 평소에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도 또한 그러려니 생각하여서다. 그러므로 남을 잘 의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남달리 검고 사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信人者는 人未必盡誠이로되 己則獨誠矣요 疑人者는 人未必皆詐로되 己則先詐矣니라.

남을 믿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다 성실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곧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남이 반드시 다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곧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

163. 후덕한 마음은 만물을 생생하게 길러주는 봄바람이요, 모진 마음은 만물을 얼려 죽이는 북풍 찬바람이다.

너그럽고 두터운 마음은 만물을 생생하게 길러주는 따뜻한 봄바람과도 같아, 다정한 마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입어 살 길을 찾게 된다.

시기심 많고 모진 마음은 만물을 얼어붙게 하는 북풍 찬 눈과도 같아, 혹독한 그 마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害毒(해독)을 입어 쓸쓸하게 죽어간다.

어찌 사람만이 그와 같이 죽고 살고 하랴! 너그럽고 후덕한 마음에는 만물이 다 같이 삶을 얻어 제각기 즐거움을 다하게 되는 것이요,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여 짓밟아버리는 모진 마음에는 殺氣(살기)가득한 가운데 만물이 다 생기를 잃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이다.

念頭寬厚의은 如春風煦育하야 萬物이 遭之而生하고 念頭忌刻의은 如朔雪陰凝하야 萬物이 遭之而死니라.

생각하는 것이 너그럽고 두터운 것은 마치 봄바람이 따뜻하게 길러주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이것을 만나 살아난다. 생각하는 것이 시기하고 혹독한 것은 마치 북쪽의 찬 눈이 쓸쓸하게 얼어붙게 하는 것과 같아서, 만물이 이것을 만나 죽게 된다.

164. 선악 간에 자기가 뿌린 씨는 모르는 사이에 어김없이 열매 맺는다.

사람은 خوبی든 惡이든 간에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였는데도 거기에 대한 갚음이 보이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는데도 또 한 그 악에 대한 갚음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자기가 뿌린 선 또는 악의 씨가 명백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서 덕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의 씨는 마치 풀 속에서 뻗어 나가는 동아 넝쿨과도 같아, 저절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자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또 악한 일을 하고서 당장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풀 앞에 봄 눈 녹듯, 그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라져 없어지고 나중에는 볼품없는 인간의 탈만 남게 되는 것이다.

爲善에 不見其益이라도 如草裡東瓜¹하야 自應暗長이요 爲惡에 不見其損이라도 如庭前春雪하야 當必潛消니라.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이익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치 풀 속에 동아 넝쿨과 같아서 저절로 응당 몰래 자라나는 것이다.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손해를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치 풀 앞에 봄눈과 같아서 마땅히 꼭 슬그머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 東瓜: 동과(冬瓜)또는 동아라고 하는 식물 이름으로 박과에 속하는 일년생의 만초(浸草). 타원형의 과실이 열리며 그 맛이 좋다고 한다.

165. 옛 벗에 대한 정은 더욱 새롭게 하고, 숨은 일일수록 명백하게 하며, 불쌍한 사람일수록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옛 친구를 만나거든 벗의 오늘의 처지야 어떻든 전보다 한층 더 새로운 마음으로 꾸밈없는 깨끗한 우정을 털어놓도록 하여야 한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숨은 일을 처리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시원하게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오로지 공정한 입장에서 마음을 더욱 환하게 드러내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지나간 날 그 한 때는 家運(가운)이 불 일듯 하여 한창 흥청거리다 싱싱한 젊음을 자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애닭개도 가운도 쇠하고 몸도 늙어, 이제는 아주 볼품없이 된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은혜와 예의를 전보다 훨씬 두텁게 하여, 조금이라도 그의 가슴에 슬픈 감회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遇故舊之交엔 意氣要愈新이요 處隱微之事엔 心迹이 宜愈顯이요 待衰朽之人엔 恩禮當愈隆 이니라.

옛 친구를 만났을 때는 意氣를 더욱 새롭게 할 것을 요하고,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는 일에 처하였을 때에는 마음의 자취가 더욱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쇠퇴하고 쓸모 없이 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은혜와 예의를 마땅히 더욱 융숭하게 하여야 한다.

166. 근면과 검소! 군자는 이것을 도덕을 실천하기 위한 표적으로 삼고, 소인은 이것을 사리사욕을 꾀하는 도구로 삼는다.

勤勉(근면)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있는 말이 아니다. 근면이란, 군자가 도덕과 의리를 더욱 부지런히 실천하기 위하여 지키는 마음의 표적이다. 그런 것을 세상에 소인들이 이것을 마치 가난을 물리치는 도구인양 여겨 돈을 모으는 데에만 부지런하다. 또 검소라고 하는 말은 군자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을 억제하고, 재화와 이익에 전혀 초연한 태도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표적이다. 그런 것을 세상에 많은 소인들이 이 검소라고 하는 말을 빌려다가 자기의 인색함을 변명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군자가 도덕과 의리를 지키고 욕망을 억제하기 위하여 평생을 그 몸에 간직하는 근면과 검소 두 글자의 거룩한 뜻을 소인들이 거꾸로 그네들의 사리사욕을 영위하는 도구로 삼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勤者는 敏於德義어늘 而世人이 借勤以濟其貧하고 儉者는 淡於貨利어늘 而世人이 假儉以飾其吝하나니 君子持身之符 反爲小人營私之具矣라 惜哉로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의리에 민첩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근면을 빌어서 그의 가난을 건진다. 검소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이익에 냉담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검소를 빌어서 그의 인색함을 꾸미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군자의 몸가지는 標的(표적)이 도리어 소인이 私利(사리)를 영위하는 도구로 삼으니 애석한 일이다.

• 濟其貧(제기빈): 가난을 건진다는 말은 貧困(빈곤)을 물리친다는 것이니 이 대문의 뜻은 근면으로써 財貨(재화)를 모으는 도구로 삼는다는 말이다.

• 飾其吝(식기린): 인색함을 꾸민다는 말은 인색함을 변명한다는 것이니, 곧 인색을 검소로 가장한다는 뜻이다.

167. 일을 착수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거둬서 전진하는 수레바퀴가 되어야 한다.

모든 일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깊이 생각하여,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서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만일 어느 때든 생각이 난다고 하여 생각나는 그대로 경솔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시작하는가 하면 곧 그만두고, 그만 두는가 하면 다시 시작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섰다, 평생을 노력하여도 제자리걸음일 뿐,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이리고서 어떻게 후퇴를 모르는 전진하는 수레바퀴가 될 수 있겠는가!

또 모든 사물의 이치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연구하여, 여기서 얻은 깨달음이 아니면 안 된다. 만일 깊은 연구의 끝에 얻은 지식이 아니고 상식에 불과한 얕은 지식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것은 참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을 알 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한 가운데에서 방황할 뿐, 끝내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밝은 지혜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憑意興作爲者는 隨作則隨止하나니 豈是不退之輪이며 從情識解悟者는 有悟則有迷하나니 終非常明之燈이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맡겨 일을 하는 사람은 따라서 일을 하면 곧 따라서 그만 두니, 어찌 이것이 물러가지 않는 수레바퀴가 될 수 있겠는가! 情(정)의 얕에 따라서 풀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이 있으면 곧 昏迷(혼미)한 것이 있으니, 마침내 항상 밝은 등불이 안 되는 것이다.

-
- 不退之輪(불퇴지륜): 후퇴를 모르는 전진만이 있는 수레바퀴.
 - 情識(정식): 깊은 연구를 거쳐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상식에 불과한 얕은 지식.
 - 常明之燈(상명지등): 항상 밝은 등불이란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는 밝은 지혜를 의미한다.

**168. 남의 허물은 관대하고 자기의 허물에는 엄격하며, 자기의 곤궁은 무던히 참아나
가되 다른 사람의 곤궁만은 차마 볼 수 없어야 한다.**

사람은 흔히 자기의 허물은 덮어두고 남의 허물만은 들추어 나무라기를 좋아한다. 또 사람은 자기가 곤궁을 겪고 욕을 당할 때는 잠시도 참지 못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도, 남이 심한 곤궁에 허덕이고 뜻 아니 욕을 당하는 딱한 광경을 보고서 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지나쳐 버린다.

인간은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려 나감으로써 무한한 발전이 있는 것이다. 또 인간은 남을 이해하고 남의 어려움을 차마 보지 못하는 측은하게 여기 는 마음이 있음으로써 진정 아름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남의 잘못은 관대하게 용서하도록 하고, 반면 자기의 잘못만은 엄격하게 다스려서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자기에게 닥친 곤궁과 치욕은 꾸준히 참고 견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 남이 곤궁에 허덕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사람으로서 차마 볼 수 없는 듯 의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힘껏 도와주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人之過誤는 宜恕로되 而在己則不可恕요 己之困辱은 當忍이로되 而在人則不可
忍이니라.

남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이로되, 자기에게 있다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곤궁과 치욕은 마땅히 참아야 하나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참아서는 안 된다.

169. 뛰어난 사람이란 현실에 참여하면서 현실의 온갖 이욕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奇人(기인)이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세속의 온갖 利慾(이욕)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기인을 높이 마치 자기가 기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기인을 좋아하여 기인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러 그와 같이 기인인양 행동한다면, 그것은 결국 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벗어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

또 청렴결백하다고 하는 것은 세속의 온갖 더러움 속에서도 한 가닥 깨끗한 절조를 지켜 끝내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세속의 모든 인연을 아주 끊어버리고서 청렴결백한 경지를 찾는 이가 있다. 그러나 일부러 그와 같이 세속의 일을 등진다고 해서 청렴결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청렴결백이 아니라 정상을 넘어서 과격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기인은 현실에 참여하면서 현실의 온갖 이욕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참으로 청렴결백한 사람은 현실에 살면서 현실의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절조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能脫俗 便是奇니 作意尙奇者는 不爲奇而爲異하고 不合汚 便是清이니 絕俗求清者는 不爲清而爲激이니라.

능히 속된 것을 벗어나는 것이 문득 기이한 것이니, 일부러 지어서 기이한 것을 높이는 것은 기이한 것이 되지 않고 이상한 것이 된다. 더러운 것에 합하지 않는 것이 문득 맑은 것이니, 세속을 끊고 맑은 것을 구하는 것은 맑은 것이 되지 않고 과격한 것이 된다.

170. 은혜는 열은 데서부터 차츰 두텁게 주고, 위엄은 엄격한 데서부터 차츰 관대하여야 한다.

크나 작으나 남에게 은혜를 베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 대하여 한결 같이 감사하여 그 은혜를 끝내 잊지 못해 함으로써 진정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처음에는 열게 하다가 차츰 후하게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후하게 하다가 뒤에 열게 하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섭섭하고 불만한 데로 기울어, 나중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며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또한 지극히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다.

위엄은 은혜를 베풀 때와는 달리 처음에는 엄격하게 하다가 차츰 누그러뜨려 관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관대하게 하다가 뒤에 엄격하게 하면 받는 사람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나중에는 나를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은은 宜自淡而濃이니 先濃後淡者는 人忘其惠하고 威는 宜自嚴而寬이니 先寬後嚴者는 人怨其酷이니라.

은혜는 마땅히 열은 데서부터 짙어가야 되는 것이니, 먼저는 짙고 뒤에 열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위엄은 마땅히 엄한 데에서부터 너그러워져야 되는 것이니, 먼저는 너그럽다가 뒤에 엄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 혹독함을 원망하게 된다.

171. 마음을 비워두면 지선(至善)의 본성이 나타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날적부터 참의 도덕성을 타고 난다. 이것이 인간의 本性(본성)이다. 이 性(성)은 人欲(인욕)의 때가 묻지 않은 진실 그대로로서,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자기에게 내재한 性, 곧 참의 빛을 통해서 도덕적인 수양의 최고 경계인 聖人(성인)의 자리에게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본성을 가려 빛을 잃게 하는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과 생각을 몰아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 본연의 性을 넓혀 충실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허다한 욕망과 망령된 생각으로 한시도 쉴 사이 없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그 참된 性(성)은 마치 어디론가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온갖 먼지와 때로 겹겹이 둘러 싸여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본연의 성은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것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인욕에 얽힌 망령된 생각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마음을 텅 비워두면 본성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만일 마음을 한시도 쉴 새 없이 괴롭히면서, 여기서 자기의 본성을 얻어 보려고 한다면, 본성이 나타나기는커녕 더욱 그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그것은 마치, 물 위에 달을 보고자 할 때 물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린 뒤에 달을 찾아보아야 할 것을 물결을 헤치면서 물을 보려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또 사람의 마음은 명경 속처럼 본래는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여 밝게 비추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흐리고 어두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때가 묻고 먼지가 낀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려면 먼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깨끗하면 마음은 저절로 맑아지는 것이다.

만일 생각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 마음이 밝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마치 명경이 밝게 비추어 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먼지를 더욱 많이 끼게 하는 것과 같아 평생을 걸쳐 마음을 닦아도 단 반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心虛則性現이어늘 不息心而求見性이면 如撥波覓月하고 意淨則心清이어늘 不了意而求明心이면 如索鏡增塵이니라.

마음이 비어 있으면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마음을 쉬지 않고 본성을 보기를 구한다면, 마치 물결을 헤치면서 달을 찾는 것과 같다. 생각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은 것을 생각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 마음이 밝기를 구한다면, 마치 거울을 찾으면서 티끌을 더하는 것과 같다.

172. 남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호화로운 겉모양이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초라한 겉모양이다.

내가 한창 귀하게 되어 높은 관에 넓은 띠를 두르고 고귀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내 앞에서 굽실거리며 나를 높이 받들어 준다. 그러나 이 때, 내가 잘나서 그런양, 내로라하는 자만심을 갖는다면 큰 잘못이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실거리며 존경하여 마지않는 듯한 그 모습은 나의 사람됨을 존경하여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앉아 있는 그 높은 지위와 그에 따른 거창한 衣冠(의관)을 존경하여서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벼슬이 떨어져 벼룩에 짚신을 신고 빈천한 처지에 앉아 있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나를 낮추어보고 업신여긴다. 그러나 이때 내가 못나서 그런양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나의 사람됨을 부덕함을 두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빈천한 처지와 벼룩과 짚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남이 나를 존경한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또 남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해서 노여워할 것도 없다. 남이 나를 존경하는 것은 원래 내가 아니라 나의 그 좋은 처지요,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 또한 내가 아니라 나의 그 불행한 처지인데, 존경을 받는다고 무엇을 기뻐하며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무엇을 노여워 할 게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수다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안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 수양을 말없이 착실하게 쌓아나갈 따름인 것이다.

我貴而人奉之는 奉此峨冠大帶也요 我賤而人侮之는 侮此布衣草履也니 然則原非奉我라 我胡爲喜며 原非侮我라 我胡爲怒리오.

내가 귀하여 남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넓은 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천하여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벼룩과 짚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원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찌 기뻐할 것이며, 원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찌 성낼 것인가!

-
- 峨冠大帶(아관대대): 높은 관과 넓은 띠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의 衣冠을 말한다.

173. 죽음을 가없이 여기고 삶을 즐거워 하는 인애(仁愛)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다.

“쥐가 굶어죽을 것을 염려하여 항상 밥을 남겨 놓고, 불나비가 타 죽을 것을 염려하여 등불을 켜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 어느 자애심이 많은 사람의 말이다.

하늘은 죽음을 꺼려하고 삶을 북돋아 준다.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과 만물을 낼 적에 生生의 덕을 부여하여, 끊임없이 힘차게 자라고 발전할 것을 요구한다. 인간으로서 만물의 생을 돕고, 또 생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인 동시에 人道에 합하는 것이다.

위에 말한 옛 사람의 그와 같은 자애심에 넘치는 생각은 이것이 곧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우리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생을 위한 활동의 중요한 기틀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이라면, 죽음을 가없이 여기고 삶을 즐거워하는 한 가닥 仁愛(인애)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진정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으로서 인애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허울만은 사람이요 인정이 전혀 통하지 않으니 흙덩이나 나무토막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는가!

爲鼠常留飯하고 憐蛾不點燈이라하는 古人此等念頭는 是吾人一點生生之機니 無此면, 便所謂土木形骸而已니라.

쥐를 위해서 항상 밥을 남겨놓고, 불나비를 가없이 여겨 등불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는 옛 사람의 이러한 생각은 우리네들의 생생한 활동의 기틀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문득 이른바 흙과 나무로 된 몸통이일 따름이다.

• 生生之機(생생지계): 만물의 生生發育(생생발육)과 끊임 없는 발전을 위한 기틀.

174. 사람이 인욕을 버리고 인의예지의 타고난 도덕성을 극진하게 하면 마침내 하늘의 큰 덕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性(성)을 타고난다. 이 성은 하늘이 稟賦(품부)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仁義禮智(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이 갖추어져 있다. 인간에게 내재한 天 곧 덕의 性(성)을 충실하게 닦아나가는 것을 人道(인도)라고 한다. 인간은 만물을 生成化育(생성화육)하는 것을 주로 하는 하늘의 큰 덕을 본받아서 人道를 극진하게 함으로서 하늘의 덕과 그 경계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는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서, 사람의 마음의 본체는 곧 하늘의 본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쁜 생각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별과 즐거이 떠다니는 구름과도 같은 것이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노여운 생각은 하늘의 벼락과 천둥과 사나운 비와도 같은 것이다. 또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慈愛(자애)하는 마음은 하늘의 온화한 바람과 달콤한 이슬과도 같은 것이요, 사람의 엄숙한 마음은 한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가을의 매서운 서리와도 같은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노여움과 자애심과 엄숙함,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없어도 될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일까? 생각하면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빼어놓을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것들이다. 다만 기뻐할만한 때에 가서 기뻐하고, 성낼만한 때에 성내고, 자애심을 일으킬만한 때에 자애심을 일으키고, 엄숙하게 할 만한 때에 엄숙하게 하여서, 마치 하늘이 노하여 천둥 벼락치고 사나운 비바람 몰아치다가도 갑자기 씻은 듯 맑게 개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뒤를 남겨 두지 아니하듯, 한 번 일어났던 일을 한 번 일어났던 情欲(정욕)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없이 너른 하늘이 텅 빈 채 흐리고 개는 것을 때에 따라 알맞게 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듯, 또 그렇게 함으로서 만물이 제각기 알맞게 生生發展(생생발전)해 나가듯, 우리 마음의 본체 또한 하늘을 본받아 사방을 막힘없이 툭 튀워 놓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성내는 온갖 생각들을 때에 따라 알맞게 나타내고 감추고 하여, 어느 한 가지도 인욕에 걸리

어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가없이 크고 너른 저 하늘의 영원한 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늘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인가! 내가 하늘로부터 품수 받은 인의예지의 性을 충실하게 닦아 人道를 극진히 하면 여기가 곧 天地境界(천지경계)인 것이요,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른바 天人合一(천인합일)의 그 자리인 것이다.

心體便是天體라 一念之喜는 景星慶雲이요 一念之怒는 震雷暴雨요 一念之慈는 和風甘露요 一念之嚴는 烈日秋霜이니 何者를 少得이리요 只要隨起隨滅하야 廓然無碍면 便與太虛同體니라.

마음의 본체는 문득 이 하늘의 본체다. 한 생각의 기쁨은 아름다운 별과 경사스런 구름이요, 한 생각의 노여움은 벼락과 천둥과 사나운 비요, 한 생각의 慈愛心(자애심)은 온화한 바람과 달콤한 이슬이요, 한 생각의 엄숙함은 뜨거운 햇빛과 가을 찬 서리와 같은 것이니, 어떤 것을 얻는 데 적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따라서 일어나고 따라서 없어져서, 사망이 텅 비어 거리끼는 것이 없기를 요할 따름이니, 문득 太虛(태허)와 더불어 한 몸이 될 것이다.

• 心體便是天體(심체변시천체): 마음의 본체가 곧 하늘의 본체라 함은 인간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仁義禮智의 德의 성품을 타고나기 때문이니, 곧 인간의 性 가운데 天이 內在한 것으로 본 것이다.

• 太虛(태허): 宇宙의 본체를 가리킨다.

이 대문의 太虛와 더불어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동양철학에서의 이른바 天人合一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덕의 성품을 충실하게 닦아 人道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곧 萬物(만물)의 生成化育(생성화육)을 위주로 하는 하늘의 영원한 덕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도덕의 最高의 경계인 것이다.

175. 한가한 때일수록 초롱초롱한 정신을 가져야하고, 바쁜 때일수록 마음에 고요를 찾아야 한다.

바쁜 시간이 다 지나가고 아무 일 없이 한가하게 있게 되면 마음이 있는 대로 느즈러져 흐리멍덩해지기 쉽다. 만일 이때 갑작스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른 대책이 서지 않아 꼼짝없이 곤궁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가한 때에는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안에 있는 초롱초롱한 밝은 정신을 끌어내어 바깥 사물을 사방 비추어보며 항상 만일의 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일이 생겨 눈 코 뜰 사이 없이 바쁠 때는 일의 앞뒤를 가리지 못한 채 마구 뛰고 달리기 쉽다. 만일 이 때 마음에 고요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 단게 되면, 몸만 수고로울 뿐 일은 일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달리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고요를 찾아, 차분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일에 대처해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無事時엔 心易昏冥이니 宜寂寂而照以惶惶이요 有事時엔 心易奔逸이니 宜惶惶而主以寂寂이니라.

일이 없을 때에는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우니, 마땅히 고요하면서 초롱초롱한 것으로써 비추어야 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뛰고 달리기 쉬우니, 마땅히 초롱초롱하면서 고요로써 주로 하여야 한다.

176. 이해에 대한 생각은 사전에 의논할 일이요, 일단 일을 착수한 이상은 아주 잊어버려야 한다.

무슨 일이든 利害(이해)를 전혀 떠나서 생각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생각할 일이요, 일단 일을 착수한 이상은 추호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利害得失(이해득실)에 대한 사정은 사전에 그 일을 두고 논의할 때, 자기가 아직 그 사건 속에 뛰어들지 않았을 때,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의론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단 자기가 그 일을 도맡아 시작하기로 들면 몸과 마음을 오로지 그 한 일에 바쳐 이익이든 손해든 돌아볼 것 없이 적극 추진하여 기어이 그 일을 완성시키고 말아야 한다. 만일 일하는 도중에 이해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런 얻음도 없이 일만 낭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議事者は 身在事外하야 宜悉利害之情이요 任事者は 身居事中하야 當忘利害之慮니라.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몸을 사건 밖에 두어서 마땅히 이해의 사정을 다할 것이요, 사건을 맡은 사람은 몸을 사건 가운데에 두어서 마땅히 이해의 분별을 잊어야 된다.

177. 군자는 몸가짐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며 마음가짐은 관대하게 하여 어떠한 소인에게도 욕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군자가 뜻을 얻어 권세 높은 가문과 한 나라의 중요한 지위에 처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곧고 바르게 가져서 소인들이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자기의 몸가짐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마음가짐은 보다 온화하고 너그럽게 가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가는대로 쫓아서, 밤낮을 이익만을 따라다니며 추문을 풍기는 비린내, 노린내 나는 소인의 무리들과 가까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또不正에 대하여 너무 과격하게 들이치다가 벌떼 같은 못된 소인들의 독침을 맞아 화를 입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士君子 處權門要路하면 操履要嚴明이요 心氣要和易니 毋少隨而近腥羶之黨하며 亦毋過激而犯蜂蠆之毒이니라.

士君子가 권세 높은 가문과 중요한 지위에 처하게 되면, 몸가짐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기를 요하고, 마음가짐은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기를 요한다. 조금이라도 따라서 비린내 노린내 나는 무리들과 가까이 하거나, 또는 너무 과격하여서 벌의 독을 쏘이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

-
- 隨(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르는 것.
 - 腥羶: 腥(성)은 비린 것, 羶(진)은 노린 것. 비린내, 노린내 나는 무리들이란 밤낮을 이익만을 따라다니며, 주거나 받거나 하여 醜聞(추문)을 풍기고 다니는 소인의 무리에 비유한 말이다.
 - 蜂蠆(봉채): 벌. 자기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사소한 일에도 발끈 성을 내며 독기를 부리는 소인을 벌의 독침에 비유한 말이다.

**178. 군자는 절의와 도덕과 학문을 다하되 온화한 기운으로 현실에 처하여 누구에게
도 비방이나 허물을 사는 일이 없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절개니 의리니 하여 유독 이것을 내걸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절개와 의리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또 유독 도덕이니 학문이니 하여 이것만을 제일로 내세우는 사람은 역시 도덕과 학문 때문에 허물을 불러오게 된다.

참말로 절개와 의리가 있는 사람은 또 진정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은 현실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理想(이상)으로 하는 것을 끝까지 잘 지키며 남몰래 즐거움을 다한다.

그러므로 도덕 수양이 높은 군자는 티끌만큼이라도 절개와 의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처럼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 도덕이 높은 사람이니 하는 이러한 착한 이름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각이 없이 둥글둥글 조화로운 기운으로 자기의 몸을 가지는 보배로 삼아 어디를 가나 어느 누구와도 부딪치거나 걸리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처신할 따름이다.

標節義者は 必以節義受榜하고 榜道學者는 常因道學招尤니라 故로 君子는 不近惡事하며 亦不立善名하나니 只渾然和氣라야 纔是居身之珍이니라.

절개와 의리를 표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개와 의리로써 비방을 받고, 도덕과 학문을 표방하는 사람은 항상 도덕과 학문으로 인하여 허물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나쁜 일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또한 착한 이름도 세우지 않는다. 다만 혼연한 화기라야 비로소 이것이 몸이 가지는 보배인 것이다.

179. 사람은 다 선적(善的)인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성으로 선도하면 어떠한 악인도 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본래는 다 한 가지, 진실하여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자기의 주어진 본성을 잘 닦아 人道를 극진히 한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요, 여기서 자기의 주어진 본성을 거슬러 갖가지 인욕의 더러움으로 본성의 참을 가려버린 사람은 사기꾼이니 도적이니 깡패니 하는 갖은 이름의 악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선과 악의 그토록 엄청난 차이는 바로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해서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다 악인이란 이름이 붙여지기는 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다 본래 타고난 性의 참의 빛은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人欲의 더러운 때와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아니할 뿐이다. 이 때 만일 뜻있는 군자가 있어 지성으로 그 때와 먼지를 씻어 주고 본성의 참의 빛을 끌어내어 준다면, 그 사람은 본래의 善을 되찾아 다시금 착한 사람으로 되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만났을 때는 지성스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 그로 하여금 참 마음을 되찾아 기어이 정직한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하여야 한다. 또 난폭하고 無道(무도)한 짓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和氣(화기)어린 낮빛으로 그 사람을 감화시켜, 그로 하여금 모질고 사나운 그 기질을 수그러지게 하여, 기어이 人道의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지성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한편으로 기울어지고 不正한 사람, 또는 사사로이 사악한 짓을 멋대로 자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모름지기 명분과 의리에 살아야 하며 기개와 절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성으로 그를 가르치고 격려하여, 그로 하여금 새로운 정신을 받아들여 새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참말로 이토록 지성을 다하고서, 나의 善導(선도)하는 말에 귀 기울여 감화를 입

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遇欺詐的人엔 以誠心感動之하고 遇暴戾的人엔 以和氣薰蒸之하고 遇傾邪私曲的人엔 以名義氣節激礪之니 天下에 無不入我陶冶中矣니라.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써 그를 감동시키고, 난폭하고 뒤틀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온화한 기운으로써 그를 감화시켜 수그러지게 하고, 기울어지고 부정하며 사악한 짓을 멋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名分과 義理며 氣概(기개)와 節操(절조)로써 그를 격려하도록 한다. 이리고서, 천하에 나의 陶冶(도야)속에 들지 않는 것이 없다.

180. 자비심은 천지간의 화평한 기운을 일으키고, 결백한 마음은 맑고 향기로운 이름을 남긴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며 남을 도와주려는 생각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 그것은 주고 받고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마저 감동케 하여 천지 사이의 화평한 기운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또 潔白(결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작은 마음이기에는 하나 참으로 맑고 향기 높은 영원한 덕의 이름이다. 살아서 간직하던 작은 마음이 죽어서 맑고 향기로운 이름이 되어 백대 뒤에까지도 역력하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一念慈祥은 可以醞釀兩間和氣요 寸心潔白은 可以昭垂百代清芬이니라.

한 생각의 자비심은 넉넉히 그것으로써 천지 사이의 화평한 기운을 빚어낼 수 있는 것이요, 작은 마음이나마 결백한 것은 넉넉히 그것으로써 백대의 맑은 향기를 밝게 드리울 수가 있을 것이다.

-
- 慈祥(자상): 慈는 慈悲(자비)요, 祥은 복된 것이니 善心(선심)과 같다.
 - 昭垂(소수): 昭(소)는 昭明(소명), 곧 밝다는 뜻이요, 垂(수)는 전한다는 뜻이다.
 - 清芬(청분): 높은 덕행에 비유한 말로서, 맑고 향기로운 이름이다.

181. 기괴한 행동은 재앙의 씨앗이요, 평범한 덕행은 화평(和平)의 근원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평범한 곳에 올려놓고, 여기서 한발 한발 착실하게 나아갈 생각들을 아니 하고, 상식을 넘어서는 남에 없는 어떤 괴상한 것에 흥미를 모으는 경향이 많다. 말하자면, 남몰래 꾸미는 음모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아릇한 습속, 그리고 보통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행동과 어느 누구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기괴한 재주 등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가 상식 밖의 일로서, 얼른 보기에는 진기한 사람처럼 보여져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나 사실은 이것이 도리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갖가지 재앙을 빚어 내는, 말하자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화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무난한 방법은 보편적인 것, 평범한 것이다.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위를 발판으로 하여 착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걸어감으로써 비로소 타고난 도덕성을 흠 없이 닦고 기를 수 있으며, 동시에 한 세상을 마음 기쁘고 평화롭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陰謀怪習과 異行奇能은 俱是涉世의 禍胎요 只一個庸德庸行이라야 便可以完混沌而召和平이니라.

비밀한 꾀와 괴상한 버릇과 이상한 행동과 기괴한 재주는 다 같이 이 세상을 건네는 데 재앙의 씨앗이 된다. 다만 하나의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위라야 문득 넉넉히 그것으로써 混沌(혼돈)을 완전하게 하고 和平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 混沌(혼돈): 여기에서는 타고난 本性(본성), 곧 仁義禮智(인의예지)의 道德性(도덕성)을 가리킨다.

182. 험악한 인정(人情)과 불우한 세상에서 인생의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참을 내(耐)’자 한 글자다.

예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산을 오르다가 가파른 길을 만나게 되면, 그 위험한 비탈길을 다 지나가도록 무던히 참고 견뎌 내어야 한다. 또 미끄러운 눈길을 걸어가다 외나무다리를 만나게 되면, 그 위태로운 다리를 다 건너가도록 잘 참아내어야 한다.”

참으로 단 한 글자이지만 ‘참을 내(耐)’자 여기에 담긴 뜻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멀다.

이 참을 내(耐)자가 어찌 험한 산을 오를 때나 눈 위의 외나무다리를 건너갈 때만 필요하라! 세상에 온 마음이 비뚤어지고 험악한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겪어나가는 데에도 참을 내(耐)자야 다시없는 보배요, 또 인생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으니 자기의 뜻을 펼 수 없는 불우한 세상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참을 내자는 없어서 아니 될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험악한 인정에 불우한 세상을 사람이 한 평생 부끄러움 없이 잘 마치자면 이 ‘참을 내’자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 한 글자로 헤쳐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 몸에 ‘참을 내(耐)’자를 간직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하고 많은 가시덤불과 깊은 구렁이에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語에 云 登山耐側路하고 踏雪耐危橋라 하니 一耐字極有意味라 如傾險之人情과 坎坷之世道에도 若不得一耐字撐持過去면 幾何不墮入榛莽坑塹哉리요.

옛 말에 이르기를,

“산에 올라서는 경사진 길을 참아내고, 눈을 밟아서는 위험한 다리를 참아내야 한다.”고 하니,

하나의 ‘참을 내’자는 지극히 의미 있는 것이다. 기울어지고 험한 인정과 不遇(불

우)한 세상길과 같은 데에도 만일 하나의 耐字를 얻어 지탱하여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덤불속과 깊은 구렁이에 떨어져 들어가지 않겠는가!

-
- 傾險之人情(경험지인정): 편벽되고 험악한 인정.
 - 坎坷之世道(감가지세도): 때를 얻지 못하여 허덕이는 不遇(불우)한 세상.
 - 撐持(탱지): 撐持는 지탱하다, 간직하여 가다는 말이다.
 - 榛莽坑塹(진망갱참): 榛莽은 어지러운 풀숲, 곧 가시덤불과 같은 것이요, 坑塹은 깊은 구렁이.

183.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욕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체를 잃지 않는 데 있다.

사람이 한 세상 났다가 공명과 사업을 크게 이루어 남의 앞에 자랑스럽게 나서고, 또 아주 희한한 문장을 지어내어 세상에 널리 빛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 해 볼 만한 일이지는 하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나’는 나의 본래의 참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한낱 공명과 사업과 문장이라는 오색 아름다운 옷을 잠시 빌려 입은 ‘나’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바깥에서 빌려온 그 자랑스러운 옷들을 남김없이 훨훨 다 벗어던져 보자! 나의 그 자랑할 만한 곳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참된 가치는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서 조용히 눈을 돌려 자기의 内面(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자. 거기에는 어김 없이 욕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체(心體)가 초롱초롱하게 앉아 있을 것이다.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의 본체를 뿌리로 하여, 공명이니 사업이니 문장이니 하는 가지와 잎을 훌륭하게 키움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영원한 자랑일 수 있는 것이요, 또 그 가치는 더욱 위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욕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본체! 이것만이 본래의 그대로 잃지 않고 잘 간직되어 있다면, 비록 한 치의 공적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단 한 자의 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인간으로서의 훌륭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誇逞功業하고 炫耀文章은 皆是靠外物做人이요 不知心體淸然하여 本來不失이면 卽無寸功隻字라도 亦自有堂堂正正做人處니라.

공명과 사업을 자랑하고 문장을 빛내는 것은 다 이 바깥 사물에 의지하여 사람을 꾸며낸 것이다. 마음의 본체가 욕처럼 맑아 본래의 것을 잃지 않는다면 곧 한 치의 공과 한 자의 글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스스로 정정당당하게 사람을 꾸며내는 데가 있는 것이다.

184. 바쁜 속에서 마음의 한가로움을 얻고, 시끄러운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있어야 사물에 걸릴 것이 없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바쁜 그 속에서 한 가닥 마음의 한가로움을 얻을 수 있어야 바쁜 속에 말려들지 않는다. 또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끄러운 그 속에서 한 가닥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있어야 시끄러운 속에 말려들지 않는다.

그러면 바쁜 속에서 마음의 한가로움을 얻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일없이 한가하게 있을 때, 어떠한 事變(사변)에도 움직이지 않을 확고한 마음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만 한다면, 바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때마다 마음의 한가로움을 쉽게 얻어, 여유 있는 가운데 일이 순서 있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고요한 곳에 있을 때에 안에 앉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한손에 들어 지배할 수 있는 主宰者(주재자). 곧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부동한 마음을 굳게 세워주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일 바쁜 속에서 마음의 한가로움을 얻지 못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찾지 못한다면, 마음은 항상 제자리를 잃은 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일에 따라 이리저리 쫓겨 다니기에 쉴 틈이 없을 것이다.

忙裡에 要偷閒이면 須先向閒時討個樞柄하고 鬧中에 要取靜이면 須先從靜處立個主宰이니 不然이면 未有不因境而遷하고 隨事而靡者니라.

바쁜 속에서 한가함을 훔쳐오기를 요하거든 모름지기 먼저 한가한 때를 향하여 한 개의 칼자루를 구해놓기를 요한다. 시끄러운 속에서 고요를 취하기를 요하거든 모름지기 먼저 고요한 곳을 좇아 한 개의 主宰(주재)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환경으로 인해서 옮기며, 일을 따라서 붙잡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
- 櫛柄(파병): 갈자루이니, 곧 마음을 둘만한 요긴한 자리에 비유한 말이다.
 - 主宰(주재): 만물의 주재자. 여기서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마음.

185. 자기의 본심을 어두워지지 않도록 닦으며, 남의 마음을 나를 위하여 다하게 하지 말며, 짐승을 부리되 가혹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의 本心, 곧 타고난 참 마음을 날마다 닦고 기르며 행여라도 인욕에 가려 어두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內省的(내성적)인 도덕수양의 極(극)을 다한다. 남의 마음을 오로지 나를 위하여 勞苦(노고)를 다 하도록 하는 잔인한 마음을 쓰지 않는다. 짐승을 부리되 가혹하게 하지 않고, 그 밖에 날마다의 생활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품을 쓰는 데 있어서도 항상 여유 있게 하여, 남김 없이 함부로 다 써 없애지 않는다.

사람이 평생을 두고 이 세 가지 것을 마음에 새겨 잘 지켜나간다면,
첫째, 자기의 마음을 천지에 세워 천지의 大道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둘째,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 삶을 안전하게 영위해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셋째,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무한한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不昧己心하고 不盡人情하고 不竭物力이면 三者는 可以爲天地立心이요 爲生民立命이요 爲子孫造福이니라.

자기의 本心을 어둡게 하지 아니하고, 남의 情을 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만물의 힘을 다 쓰지 않도록 한다. 이 세 가지는 넉넉히 그것으로써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울 수 있고, 生民(생민)을 위하여 목숨을 세울 수 있으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
- 不盡人情(부진인정):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오직 나를 위하여 勞苦(노고)를 다 하게 하지 않는 것.
 - 不竭物力(불갈물력): 여기에 '物'이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소와 말과 같은 짐승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物品을 통틀어 말한다. 이 대문의 뜻은 짐승을 부리되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고, 물품을 쓰되 함부로 써 없애지 말고, 항상 여유를 남겨두라는 말이다.
 - 爲天地立心(위천지립심):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을 천지에 세워 지극히

公平無私(공평무사)한 천지의 大道를 본받아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86. 공평과 청렴은 벼슬살이의 보배요, 관용과 검소는 살림살이의 보배다.

여기에 관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의 훌륭한 교훈이 있다.

“오직 공평하여 私情(사정)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일마다 명백하여 밝은 정치가 행하여지고, 오직 청렴하여 私利(사리)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기꺼이 복종시킬 만한 위엄이 생긴다.”

또 여기에 가정을 꾸리어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의 훌륭한 교훈이 있다.

“오직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도타운 사랑에 마음이 평온하여 원망하는 생각이 없고, 오직 검소하여 씹쓸이를 아껴 쓰면 집안에 財用(재용)이 항상 넉넉하여 떨어지는 일이 없다.”

居官에 有二語하니 曰惟公則生明하고 惟廉則生威하며 居家에 有二語하니 曰惟恕則情平하고 惟儉則用足이니라.

벼슬살이 하는 데에 두 가지 말이 있으니 말하기를

“오직 공평하면 밝음을 낳고, 오직 청렴하면 위엄을 낳는다.”

고 하였다.

살림살이하는 데에 두 가지 말이 있으니 말하기를

“오직 관용하면 情(정)이 平穩(평온)하고, 오직 儉素(검소)하면 財用(재용)이 넉넉하다.”

고 하였다.

187. 부귀한 때는 빈천한 처지의 아픔을 생각하고, 젊고 건강한 때는 늙고 병들 때의 쓰라림을 생각해야 한다.

부귀와 빈천은 물레바퀴 돌 듯 돌아가는 것, 젊음 또한 오직 그 한 때 뿐이니, 부귀하다고 그 부귀를 어떻게 믿고 우쭐대며, 젊다고 그 젊음이 얼마이기에 뽐낼 수 있으랴!

그저 사람은 다행히 부귀한 처지에 놓여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지낼 때에는 그 언젠가 돌아들지도 모를 빈천한 처지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고 또 젊고 기운이 한창 왕성한 때에는 멀지 않아서 늙고 병들 그 때의 쓰라림과 고달픔을 미리 생각하면서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늙고 병든 사람을 따뜻이 보살피 주며 항상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써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處富貴之地엔 要知貧賤의痛癢이요 當少壯之時엔 須念衰老의辛酸이니라.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가난하고 천한 경우의 아픔을 알기를 요하고, 젊고 기운이 한창 왕성한 때를 당해서는 모름지기 노쇠하였을 때의 쓰라림과 고달픔을 생각해야 한다.

188. 몸가짐은 너무 희고 깨끗하게 해서는 안 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선악을 너무 분명히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이 주어진 생명을 한 평생 탈 없이 잘 마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몸가짐과 대인관계에 있어 거의 원만한 경지에 이르지 않고는 기대할 수 없다.

첫째, 몸가짐에 있어서는 너무 두드러지게 희고 깨끗한 것을 세워서 안 된다. 안으로 더없이 희고 깨끗한 지조를 지키면서 겉으로 더럽고 욕되고 때 묻고 추한 그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한 몸에 받아들일만한 넓은 도량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선악 간에 너무 분명하게 따져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모두를 한품에 안아 들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을 관용할 만한 보다 큰 포용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몸을 보전하고 또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희고 깨끗한 지조를 끝까지 헐뜯기지 않고 고이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持身은 不可太皎潔이라 一切汚辱垢穢를 要茹納得이요 與人에 不可太分明이라 一切善惡賢愚를 要包容得이니라.

몸가짐은 너무 희고 깨끗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더러움과 욕됨과 때 묻고 추한 것을 다 받아들이기를 요한다. 사람들과 사귀는 데에는 너무 분명해서는 안 된다. 모든 좋고 나쁘고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다 포용해 얻기를 요한다.

• 茹納(여납): ‘茹(여)’는 먹는다, 또는 받는다는 말로, 들이마신다,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189. 소인과 맞서지 말고, 군자에게 아첨하지 마라.

소인을 상대로 하여 원수를 맺지 마라. 소인은 소인 저대로 상대할 무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공연히 군자의 체신만 사나워질 뿐이다.

도덕이 높은 군자를 대하여서 아첨하는 짓을 하지 마라. 군자의 마음은 본래 公平 無私(공평무사)하여서 누구에게도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일이 없다. 공연히 사람만 무료해질 뿐이다.

休與小人仇讐하라 小人은 自有對頭요 休向君子諂媚하라 君子는 原無私惠니라.

소인과 더불어 원수를 그만 두라, 소인은 저대로 상대가 있는 것이다. 군자를 향하여 아첨을 그만 두라. 군자는 원래 사사로운 은혜가 없는 것이다.

-
- 對頭(대두): 相對(상대), 또는 同類(동류).

190. 보통 사람의 욕심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이치를 고집하는 지식인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

사람에게는 병통도 가지가지가 있다. 그 중에는 좋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떠한 것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대개 욕심나는 대로 달리는 병, 곧 보통 사람이 갖는 욕심병은 잘 하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이치를 고집하는 지식인의 병은 좀체 고치기 어렵다. 이치를 고집하는 병이란, 사람이 자기가 한 번 옳다고 생각하는 주의 주장이 서게 되면, 거기에만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세상을 사노라면 사람을 괴롭히는 장애물도 가지가지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자기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거하기 곤란한 것이 있다.

대개 바깥 사물에서 오는 일반 장애물은 누구나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그런데 義理(의리)의 마음에서 생기는 장애물은 참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것은 뜻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여간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縱欲之病은 可醫로되 而執理之病은 難醫요 事物之障은 可除로되 而義理之障은 難除니라.

욕심나는 대로 달리는 병은 고칠 수 있으나, 이치를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다. 사물의 장애는 제거할 수 있으나 의리의 장애는 제거하기 어렵다.

191. 수양은 쇠붙이를 다루듯 단련에 단련을 거듭하고, 일은 무거운 화살을 놓듯 천만 번을 생각한 끝에 실행해야 한다.

도덕적인 자기 수양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갈고 닦기를 마치 쇠붙이를 다루고 또 다루어 훌륭한 기물을 만들어내듯,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꾸준히 단련에 단련을 거듭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양이 깊은 경지로 점점 나아가 마침내는 도덕적인 최고 경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수양을 한다는 사람이 그 술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저 안일한 가운데서 쉽게 그리고 빠른 날에 이루었다고 하면 그것은 겉으로 매끈하게 갈고 닦은 흔적이야 있겠지만, 어떠한 事變(사변)에도 동요됨이 없이 다 알맞게 대처해 나갈 만큼 깊은 수양이 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결행할 때는 반드시 그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뒤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수만 근이나 되는 아주 무거운 활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正鵠(정곡)을 쏘아 맞히듯, 그렇게 신중하게 거듭거듭 생각하여 확실한 것을 안 뒤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활을 쏘는 사람이 경솔하게 활을 놓아 번번이 실패로 끝내듯, 어떠한 사업도 큰 성공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磨礪는 當如百煉之金이니 急就者는 非遽養이요 施爲는 宜似千鈞之弩이니 輕發者는 無宏功이니라.

갈고 닦는 것은 마땅히 백번을 단련한 쇠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니, 급하게 나아가는 것은 깊은 수양이 아니다. 실행하는 것은 마땅히 千鈞(천균)의 활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니, 가벼이 놓는 사람은 큰 공이 없다.

• 鈞(균): 무게를 다는 단위로서, 서른 근을 한 鈞이라 한다.

192. 차라리 소인의 미움을 받을지언정 좋아하는 처지가 되지 말고, 군자의 심한 꾸지람을 받을지언정 관용 받는 처지가 되지 마라.

사람은 항상 소인을 멀리하고 도덕이 있는 군자를 가까이 따라야 자신을 항상 발전시킬 수가 있다. 소인을 가까이하면 자기의 품격이 그만큼 낮아지고, 군자를 가까이 하면 그만큼 품격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차라리 소인을 멀리 하다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비방을 듣는 경우를 당할 망정 소인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뜻을 맞추어줌으로써, 그들의 기뻐하고 아첨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차라리 도덕이 있는 군자를 가까이 따르면서 그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점을 修正(수정)받는 처지가 될지언정, 조금이라도 군자의 관심 밖의 인물이 되어 寬容(관용)을 받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자는 사람됨을 보아 그 그릇이 크면 그를 사랑하여 더욱 엄하게 다스리고, 사람이 시원찮으면 그대로 너그럽이 용서하고 덮어두기 때문이다.

寧爲小人所忌毀언정 毋爲小人所媚悅이요 寧爲君子所責修언정 毋爲君子所包容이니라.

차라리 소인의 꺼리고 헐뜯기는 바가 될지언정 소인의 아첨하고 기뻐하는 바가 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군자의 나무람과 修正을 받는 바가 될지언정 군자의 덮어두고 용서함을 받는 바가 되지 말아야 한다.

193. 도덕의 테두리 밖에서 자행하는 드러난 악행은 미치는 해독이 얇고, 도덕의 테두리 안에 숨어서 저지르는 악행은 미치는 해독이 깊다.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예 道義(도의)의 테두리를 박차고 나가서, 도덕이니 의리니 하는 것은 볼 것도 없고 오직 이익을 위하여 할 짓, 못할 짓 가리는 것이 없다. 그것은 또 어떤 사람의 눈도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가 저지르는 불의의 행위는 누구나 다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미치는 해독은 사실로 그리 크지는 못하다. 의롭지 못한 사람임을 알면서 누가 그에게 속겠는가! 그런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와 다르다. 그는 도의의 테두리 안에 애써 끼어들어 입으로 남달리 도덕이니 의리니 외면서 속으로 명예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겉으로는 도의를 내세우면서 속으로 갖은 邪惡(사악)한 짓을 다하니 그것이 비록 은밀한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사람의 눈에 잘 띄이지는 않으나, 숨은 악행이기에 남에게 미치는 해독은 더욱 깊은 것이다.

好利者是 逸出於道義之外하나니 其害顯而淺하고 好名者是 竄入於道義之中하나니 其害隱而深이니라.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은 道義의 밖에 빠져 나오니, 그 해가 나타나나 열고, 이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道義의 가운데에 뚫고 드니, 그 해가 숨어 있으나 깊다.

194. 은혜는 커도 갚지 않으면서 원한만은 미미한 것인데도 갚고야 말며, 남 헐뜯는 말엔 덮어놓고 동조하면서 남 칭찬하는 말엔 끝없이 냉정하다.

사람들은 흔히 남의 은혜를 받고서는, 그것이 여간 큰 것이 아닌데도 예사로 잊고 갚을 생각조차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인 일인가!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 원한이라면 아주 하찮은 것인데도 굳이 마음에 맺어두었다가 어느 기회엔가 기어이 그것을 갚고야 만다.

또 사람들은 보통 남을 헐뜯는 말에는 귀가 솔깃하여 그 진상을 자세히 알아볼 생각조차 아니 하고, 더구나 그러한 사실이 아직 확실히 드러난 것도 아닌데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 짓는데 단 한 번의 의심도 가져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어인 일인가! 남의 좋은 점,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아주 냉정해지니! 사람들 모두가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라 하고, 또 그 사람의 善行(선행)이 세상에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남달처럼 마음 흐뭇하게 칭찬을 해줄 수가 없으니! 아니 그보다 그토록 확실한 사실을 두고 도리어 의심을 하고 드니 말이다.

엄격히 말해서, 사람의 이런 心思(심사)야말로 혹독하고 잔인하기 그 극에 이른 것이요, 인정이 메마르기 이에서 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말로 이런 심사를 쓰지 않도록 사람마다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이 일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受人之恩엔 雖深不報하고 怨則淺亦報之하며 聞人之惡엔 雖隱不疑하고 善則顯亦疑之하나니 此는 刻之極이요 薄之尤也라 宜切戒之니라.

남의 은혜를 받는 데는 비록 깊으나 갚지 아니하고, 원한이라면 얇은 것이라도 또 한 이를 갚고 만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었을 때는 비록 숨은 것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라면 명백한 것인데도 또한 이것을 의심한다. 이것은 刻薄(각박)의 極(극)이요, 박정하기 아주 심한 것이다.

195. 참소하는 말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아 곧 걷히지만, 아침꾼의 달콤한 말은 사람의 덕을 헐어내는 무서운 적이다.

참소꾼 소인배들이 군자를 두고 헐뜯고 비방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못 된다. 그것은 마치 한 점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래지 않아 저절로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걱정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참소꾼이 아니라 아침꾼이다. 아침꾼이 내 앞에 와서 갖은 아양을 떨며 나의 환심을 사고자 알랑거리는 모양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대개 그다지 싫거나 미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싫지 않고 밉지 않는 그 가운데 자신의 품격은 아침꾼을 따라 점차 볼품 없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창틈에 새어드는 찬바람이 그리 싫은 줄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 벌써 살 속으로 파고들어 寒氣(한기)를 일으키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침꾼이야말로 속으로 사람의 좋은 덕을 좀먹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讒夫毀士는 如寸雲蔽日하야 不久自明이요 媚子阿人은 似隙風侵肌하야 不覺其損이니라.

참소꾼이 선비를 헐뜯는 것은 마치 한 점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저절로 밝아진다. 아침꾼이 남에게 알랑거리는 것은 마치 창틈의 바람이 살을 범하는 것과 같아서 그 손상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196. 산이 너무 높으면 나무가 없고, 사람이 너무 고상하면 외롭다.

산이 높고 험악하면 나무가 없고, 산골짜기 우묵한 곳에는 초목이 뻗뻗하게 자라난다. 또 물이 소용돌이치며 급하게 흐르는 곳에는 물고기가 없고, 깊은 연못 잔잔한 곳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떼 지어 산다.

사람이라고 어찌 이와 다르랴! 사람도 남달리 너무 고상하고 뛰어난 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너무 생각하는 것이 웅색하고 마음이 불같이 급하다든가 하면 사람이 없다. 외롭다.

그러므로 군자는 무엇보다도 이 점을 거듭 경계하여 마지않는 것이다.

山之高峻處는 無木이로되 而谿谷廻環則草木이 叢生하고 水之湍急處엔 無魚로되 而淵潭停蓄則魚鼈이 聚集하나니 此高絕之行과 褊急之衷은 君子重有戒焉이니라.

산이 높고 험한 곳에는 나무가 없지만 산골짜기가 우묵하면 초목이 무더기로 난다. 물이 소용돌이치며 급한 곳에는 물고기가 없지만 깊은 연못에 갇혀 고이면 물고기와 자라가 모여든다. 너무 높고 뛰어난 행위와 좁고 급한 마음은 군자의 거듭 경계함이 있어야 한다.

• 褊急之衷(편급지충) : 소견이 좁고 급격한 마음.

197. 사업에 거듭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바르고 원만한 사람이고,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은 고집불통한 사람이다.

세상에는 훌륭한 공적을 세우고 큰 사업을 이룩한 사람도 많고, 반대로 사업마다 실패하고 기회마다 놓쳐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공적을 세우고 사업을 이룩한 사람을 보면, 대개가 마음이 텅 비어 헛된 욕심이나 부정확한 생각이 없고 남의 좋은 말을 받아들일 줄을 알며 또 사람됨이 너그럽고 원만하여 어디에 가도 서로 부딪히거나 걸리는 일이 없다.

반대로 일마다 실패하고 기회마다 놓치는 사람을 보면, 고집불통인 사람으로 한번 고집을 내면 천금이 생긴대도 아랑곳없이 자기의 의견만 끝까지 뻗대어 용납할 줄을 모른다.

建功立業者는 多虛圓之士요 憤事失機者는 必執拗之人이니라.

공적을 세우고 사업을 이룩한 사람은 대개는 마음이 비고 둥근 선비다. 사업에 실패하고 기회를 잃는 사람은 반드시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
- 虛圓之士(허원지사): 虛는 虛心坦懷(허심탄회)한 것이요, 圓은 圓滿無礙(원만무애)한 것이다. 곧 마음에 헛된 욕심이 없어 집착하여 거리끼는 것이 없으며, 사람됨이 원만하여 막히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198.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속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세속과 동떨어진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사람이 세속에 몸담아 있으면서 그 몸을 마치도록 자기를 잘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다. 세속 사람들의 名聞(명문)과 利慾(이익)에 얽힌 온갖 속된 행위, 여기에 나도 한 몫 끼어 그들과 똑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여 자기 본래의 참 모습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기는 마치 별천지에서 온 사람인 양 세속 사람들을 저만큼 내려다보며,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이상한 몸가짐, 이상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명문과 이익의 물결 속에 몸담아 있으면서 여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평범한 가운데 안으로 자기의 결백한 지조를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여기에 인생의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이 세상에 났다가 무슨 사업이든 한 가지 보람 있는 사업을 이룩하기란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덮어놓고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며 뻔대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일이 안 된다. 그렇다고 남에게 환심을 사고자 남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만 급급하여, 남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주권 없는 태도 또한 지극히 곤란하다.

오직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널리 받아들이는 한편, 자기의 확실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힘차게 밀고 나간다면 여기서 남이 나를 두고 싫어할 까닭도 없고, 또 유독 私情(사정)을 두어 기뻐할 까닭도 없을 것이니, 소망의 보람 있는 위대한 사업은 바로 이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다.

處世에 不宜與俗同이로되 亦不宜與俗異요 作事に 不宜令人厭이로되 亦不宜令人喜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속과 더불어 똑같이 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또한 세속과 더불어 다르게 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싫증나게 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만 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199. 해가 서산에 기울 즈음이면 저녁노을로 아름답게 장식하듯, 군자는 만년에 더욱 분발하여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야 한다.

하루해가 다하여 해가 서산으로 기울 즈음이면 하루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려 함인가, 하늘은 온통 저녁연기와 저녁노을로 아름답기 그림 같다.

또한 해가 다하여 그 해가 저물어갈 즈음이면 그냥 가기 못내 아쉬운가, 아름다운 굴 냄새 꽃다운 향기를 듬뿍 풍겨준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어떠한가! 못 다한 일 많아도 늙었다 핑계 대고 자취 없이 그냥 쓰러져 가야 옳은가! 아니다. 군자는 늙바탕에 가서 오히려 정신을 백배나 새롭게 하여, 자연의 현상처럼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가야 하는 것이다.

日既暮而猶烟霞絢爛하고 歲將晚而更橙橘芳馨하나니 故로 末路晩年에 君子更宜精神百倍니라.

날이 이미 저물어서 오히려 연기와 저녁노을이 현란하고, 한 해가 장차 저물어서 다시 굴이 꽃다운 향기를 낸다. 그러므로 말로인 늙바탕에 군자는 다시 마땅히 정신을 백배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 좋은 재주를 안으로 감추며 병든 듯 어리석은 듯 함은, 때가 오면 크게 부리기 위함이다.

매가 나뭇가지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조는 것 같고,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면 무거운 발걸음이 마치 병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매가 졸고 있는 것도, 호랑이가 병들어 어기적거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제각기 저들의 먹이를 채뜨릴 그 때를 위해서 그런 둔한 몸가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매가 새를 차고, 호랑이가 사람을 후리치고 집어 삼키려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큰 뜻을 세운 군자라면 자기의 총명을 안으로 감추어 함부로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자기의 뛰어난 재주를 아무데서나 값 없이 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좋은 총명과 재주를 고이 기르며 기다렸다가 그 언젠가 때가 오면 매가 날렵하게 새를 채가듯, 호랑이가 나는 듯이 사람을 업어가듯 한바탕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 때를 위해서 오늘은 그저 조는 듯, 병든 듯, 어리석은 듯, 그렇게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어느 때가 크고 무거운 짐이 두 어깨에 지워지는 날 그것을 메고 거뜬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鷹立如睡하고 虎行似病은 正是他攫人噬人手段處라 故로 君子는 要聰明不露하고 才華不逞이라야 纔有肩鴻任鉅의力量이니라.

매가 서있는 것은 조는 것 같고, 호랑이가 걸어가는 것은 병이 든 것 같다. 바로 이것은 그가 사람을 후리치고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총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뛰어난 재주를 떨치지 않기를 요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비로소 큰일을 어깨에 메고 이끌어 갈만한 역량이 있는 것이다.

• 他(타): '저 피(彼)'와 같은 말.

• 肩鴻任鉅(견홍임거): 鴻과 鉅는 다 크다는 뜻. 곧 큰 일을 어깨에 짊어진다는 말.

201. 검소의 미덕이 지나치면 더러운 구두쇠가 되고, 겸양의 덕이 지나치면 간사한 행동이 된다.

검소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아름답고 훌륭한 덕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단 한 푼을 떨며 아끼는 구두쇠가 되고 또 아주 더러운 인색자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덕행이 도리어 인생의 正道를 깨뜨려 인간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또 謙讓(겸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아름답고 가룩한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나치고 보면 너무 공손한 것이 되고 또 너무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되어 이것이 도리어 禮(예)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귀한 眞情(진정)을 의심받게 된다. 너무 공손한 행동, 너무 삼가고 조심하는 모양은 대개 어떤 기회엔가 남을 이용하려는 속셈에서 나오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儉은 美德也로되 過則爲慳吝 爲鄙嗇하여 反傷雅道하고 讓은 懿行也로되 過則爲足恭爲曲謹하여 多出機心이니라.

검소는 아름다운 덕이기는 하나 지나치면 구두쇠가 되고 더러운 인색함이 되어 도리어 바른 道를 해친다. 겸양은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지나치면 너무 공손한 것이 되고 너무 삼가는 것이 되어 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많다.

-
- 雅道(아도): 雅는 바르다는 뜻이니, 곧 正道다.
 - 足恭(족공): 過恭(과공)과 한 가지로 너무 지나친 공손은 도리어 禮(예)가 아니다.
 - 曲謹(곡근): 曲은 委曲(위곡), 曲批(곡비)의 뜻이니 曲謹이란 너무 지나치게 삼가고 조심하는 모양을 말한다.
 - 機心(기심): 책략을 꾸미는 마음, 꿩꿍이 속.

202. 역경의 근심과 순경을 기뻐하지 말며, 오래 평안함을 믿지 말며, 처음 고생을 두려워 마라.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시름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을 것 없다. 그보다 근심하는 그 마음을 돌려 언젠가 때가 오는 날, 그 날을 위해서 조용히 힘을 기르며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고 해서 기쁨에 決裁(쾌재)를 부를 것 없다. 그보다 언젠가 불어 닥칠지도 모를 역경의 쓰라림에 대비해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아가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오랫동안 무사태평하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그러리라 믿어도 좋은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揚揚(양양)하지 마라! 재앙이란 본시 때를 알리지 않는 것, 어느 때 급한 불이 떨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初年(초년)고생은 꺾서라도 겪는다니....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첫 難關(난관)에서 주저앉지 마라. 고생 없이 되는 일이 있던가! 앞으로 앞으로 뚫고 나가 그 한 고비만 넘기면 성공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毋憂拂意하며 毋喜快心하며 毋恃久安하며 毋憚初難이니라.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근심하지 말며, 마음대로 되어 만족한 것을 기뻐하지 말며, 오랫동안 편안한 것을 믿지 말며 처음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203. 술잔치 잦은 집 치고 모범 가정이 없고, 이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높은 인사가 없고, 이름과 지위에 밝은 사람치고 모범 관리가 없다.

오늘도 술잔치, 내일도 술잔치, 연일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즐거움에만 흠뻑 취해 있는 집 치고 남의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가정이 없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참된 자기에게로 돌아와 안으로 성실을 기할 생각은 없고, 밤이나 낮이나 이름에 팔려 이름을 화려하게 꾸미며 겉치레 하는 데에 습관이 굳어버린 사람 치고 남의 앞에 설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다.

나라의 요직에 앉아 있으면서 맡은 일에는 전혀 뜻이 없고, 오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이름 높은 지위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성심을 다할 훌륭한 벼슬아치가 없다.

飮宴之樂이 多면 不是個好人家요 聲華之習이 勝이면 不是個好士子요 名位之念이 重이면 不是個好臣士니라.

술잔치의 즐거움이 많으면 하나의 좋은 사람의 가정이 아니요, 名聲(명성)을 화려하게 하는 습관이 이기면 하나의 좋은 선비가 아니며, 이름과 지위의 생각이 많으면 이 하나의 좋은 신하가 아니다.

• 聲華之習(성화지습): 명성을 화려하게 꾸미는 습관.

204. 보통 사람은 욕망의 충족을 즐거움으로 삼고, 통달한 사람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유감 없이 다하여 마음에 만족한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마음에 快足(쾌족)한 것, 곧 즐거움을 얻으려고 무한한 욕망을 따라가다 결국 즐거움을 얻지 못한 채 도리어 즐거움을 얻으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괴로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통달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여기는 욕망의 충족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자기 마음의 고삐를 잡고 멋대로 달리기 쉬운 욕망을 억제하여 분수에 맞게 조절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욕망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괴로움이 따르지만, 결국 그 괴로운 마음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바꾸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달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毅然(의연)히 높이 앉아 온갖 사물을 마음대로 부리며 영원한 참 즐거움을 편안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世人은 以心肯處爲樂하나니 却被樂心引在苦處 하고 達士는 以心拂處爲樂하나니 終爲苦心換得樂來니라.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좋아하는 것으로써 즐거움을 삼으니, 도리어 즐거움을 찾는 마음 때문에 끌려서 괴로운 곳에서 산다. 통달한 선비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으로써 즐거움을 삼으니, 마침내는 괴로운 마음 때문에 즐거움을 바꾸어 얻어 오게 된다.

-
- 心拂處(심불처) : 마음에 거슬리는 곳이란, 자기의 욕망과 감정을 가는데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스스로 억제하여 만족한 상태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5. 만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욕심을 삼가고,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고비에서의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부귀에 영화에 어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오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다시 더 큰 만족을 위하여 내달는 무한한 욕망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른다. 알고 보면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나 자기만족에 취해 있는 저들이 이 엄숙한 사실을 알 턱이 없다. 만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모양은 비유하자면 가득히 찬 물이 막 넘을 듯 말 듯 하는 그러한 장면과도 같은 것이다. 만일 이 위에 단 한 모금의 물이라도 더 보탠다면 기다린 듯 물은 그대로 넘어 달리고 말 것이니,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만족한 경지를 얻었으면 그것으로 그쳐야 그 만족한 상태를 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다가 보면,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아서 가득 찰대로 찬 부귀영화는 그만 넘쳐서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다. 참으로 만족한 경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실히 삼가야 할 것은 오늘의 만족에서 단 한 치라도 더 큰 만족을 바라는 그 욕심이다.

사람이 가장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함부로 자포자기하기 쉽다. 그 위험천만한 모양은 마치 나뭇가지가 거의 다 꺾어져 부러질 듯 말 듯 하는 그 아슬아슬한 광경과도 같은 것이다. 만일 여기에 단 한 번이라도 손을 대어 누른다든가 흔들기만 하면 그대로 툭 부러지고 말 것이니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부귀영화가 그 極(극)에 이르게 되면 다시 되돌아 내리막길로 접어들 듯 逆境(역경)이 극에 이르러 위급한 지경이 되면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다시금 되돌아 順境(순경)의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위급한 고비를 현명하게 넘김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만일 부러질 듯 말 듯 하는 나뭇가지를 누르듯 마지막 고비에서 아차 한 번 잘못 처리하면 그대로 끝장이 나고 만다.

참말로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절실히 삼가야 할 것은 마지막 고비에서의

경솔한 행동이다.

居盈滿者は 如水之將溢未溢하여 切忌再加一滴이요 處危急者は 如木之將折未折하여 切忌再加一擲이니라.

가득하게 찬 처지에 있는 사람은 마치 물이 장차 넘으려 하면서 아직 넘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다시 한 방울이라도 더하는 것을 몹시 꺼린다. 위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장차 꺾이려 하면서 아직 꺾이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다시 한 번의 흔들림도 더하는 것을 몹시 꺼리는 것이다.

206. 사람은 이지적인 차가운 눈이라야 시비선악에 대한 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시비선악과 진실과 허위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게 되는 까닭은, 바로 여러 가지 감정에 얽힌 충혈된 눈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지적인 차가운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고, 이지적인 차가운 귀로 남의 말을 들어야 하며 또 이지적인 차가운 감정으로 모든 사물의 느낌을 대 하여야 하고, 그리고 이지적인 차가운 마음으로 사물의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

冷眼觀人하며 冷耳聽語하며 冷情當感하며 冷心思理니라.

차가운 눈초리로 사람을 보며, 차가운 귀로 말을 들으며, 차가운 정으로 느낌에 당 하며, 차가운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

207. 마음이 넉넉하면 하는 일도 넉넉하게 풀리고, 마음이 웅색하면 하는 일도 웅색하게 죄어든다.

어질고 착한 사람은 그 마음자리가 너그럽고 넉넉하여, 나가나 들어오나 사람들에게 人和를 안겨 주고, 또 조금이라도 남에게 이익이 되고 덕이 될지언정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은 복이 남달리 두텁고 경사로운 일이 또 길이 끊이지 않아 하는 일마다 너그럽고 여유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품격이 낮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다르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웅색하기 벽창호라, 나가나 들어오나 사람들에게 불화의 씨를 심어 주고, 또 조금이라도 남에게 해악을 끼칠지언정 이익이 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지은 그만큼 복록도 박하고, 따라서 자손에게 미치는 혜택 또는 보잘 것이 없다. 그 뿐인가! 그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숨 막힐 듯 비좁은 마음을 닮았는데, 일일이 절박하고 웅색하게만 뒤틀리고 죄어들어 풀리는 일이 없다.

仁人은 心地寬舒라 便福厚而慶長하야 事事成個寬舒氣象이요 鄙夫는 念頭迫切이라 便祿薄而澤短하야 事事得個迫切規模니라.

어진 사람은 마음자리가 너그럽고 넉넉한지라, 문득 복이 두텁고 경사로운 일이 오래 가서 일마다 하나의 너그럽고 넉넉한 기상을 이룬다. 비루한 사나이는 생각하는 것이 절박하고 웅색한지라 문득 녹이 박하고 덕택이 짧아서 일마다 하나의 절박하고 웅색한 짜임새를 얻게 된다.

208. 남의 악한 소문에 얼른 동조하지 말며, 착한 소문에도 냉정하게 그 진실 여부를 살펴라.

몇몇 사람들이 아무개는 나쁜 사람이라고 험담을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들과 입을 모아 함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별의 별 참소꾼이 다 많으니 이 틈을 타고 혹 어느 못된 참소꾼이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풀기 위해서 공연한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 욕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이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을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성급하게 그와 친하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출세를 위해서 별 잔 꾀를 부리는 간사한 무리들이 많으니 그 가운데는 혹 이름에 출세에 눈이 어두운 간사한 소인이 속으로 갖은 못된 짓을 다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를 생각으로 겉으로 좋을 가장하고 나서는 가증스러운 사람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 아무개는 나쁜 사람이라더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지적인 냉정한 눈으로 그 사람의 선과 악을 살펴보며, 또 사람들이 아무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냉정한 눈으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진실 여부를 분명히 가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간악한 참소꾼에 의하여 죄 없이 원통한 누명을 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며 또 단 한 사람이라도 간사한 소인이 좋을 가장하고 출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聞惡에 不可就惡라 恐爲讒夫洩怒요 聞善에 不可急親이라 恐引奸人進身이니라.

악을 듣고서 곧 미워해서는 안 된다. 참소하는 사람의 분풀이가 될까 두려운 것이다. 선을 듣고서 급하게 친해서는 안 된다. 간사한 사람이 몸을 나아감을 꾀할까 두려운 것이다.

209. 성질이 조급하면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이 화평하면 일마다 순조롭다.

성질이 불같이 급하고 마음이 또한 거칠어 찬찬한 구석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노력하여도 어느 일 한 가지 성공되는 일이 없다.

마음이 화평하고 사람의 기상이 또한 평온한 사람은 만나는 것마다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주어 복은 사방에서 모여들고 하는 일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롭기만 하다.

性燥心粗者는 一事無成이요 心和氣平者는 百福自集이니라.

성질이 마르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이룰 수 없고, 마음이 화평하고 기운이 평온한 사람은 백 가지 복이 저절로 모여든다.

210. 사람을 모질게 부리면 좋은 일꾼까지 떠나가고, 벼를 함부로 사귀면 아침꾼까지 모여든다.

사람을 부리는 데는 너무 차고 모질게 해서는 안 된다. 모질게 부리게 되면 공을 세워 보리라 마음하였던 착실한 일꾼까지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벼를 사귀는 데는 된 사람, 안 된 사람 함부로 교제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교제하다 보면 아침꾼까지 모여 들어 나중에는 나도 한 몫 소인의 무리에 끼어 놀게 될 것이다.

用人에 不宜刻이라 刻則恩効者去하고 交友에 不宜濫이라 濫則貢諛者來니라.

사람을 쓰는 데에 각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각박하게 하면 공을 생각하는 사람까지 떠나버린다. 벼를 사귀는 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아침을 바치는 사람까지 오게 된다.

211. 아름다운 꽃을 만나거든 눈을 고상하게 뜨고, 위험한 곳을 만나거든 얼른 머리를 돌려라.

인생의 길은 즐겁고 평탄하지만은 않다. 가다가 보면 사람의 수양의 깊이를 시험해보기 위함인가 뜻하지 않은 심한 폭풍우를 만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무서운 벼랑에 부딪혀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으며 또 어쩌다 눈부실 듯 아름다운 모양에 한눈을 팔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깊은 함정에 빠져들 때도 있다.

참말로 사람이 한세상을 탈 없이 마치려면 항상 정신을 초롱초롱하게 하여 역경의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민첩하게 생각을 돌려 그때그때에 알맞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요, 또 그보다 어떠한 유혹에도 마음이 끌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다가 혹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다리에 힘을 주어 땅 위에 굳게 세워놓아야 바람에 날려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가다가 꽃이 한창 무르녹고 벼들가지 휘영청 늘어진 아름다운 정경을 만나게 되면 정욕에 흐려진 눈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눈을 떠서 그 정경을 바라보아야 유혹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태로운 길, 좁고 험한 길을 만나게 되면 얼른 머리를 돌려 되돌아오도록 하여야만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風斜雨急處엔 要立得脚定이요 花濃柳艷處엔 要着得眼高요 路危徑險處엔 要回得頭早니라.

바람이 옆으로 몰아치고 비가 급한 곳에서는 다리를 세워서 정할 것을 요하고, 꽃이 무르녹고 벼들이 아름다운 곳에서는 눈을 붙여서 높이기를 요하고, 길이 위태롭고 좁고 험한 곳에서는 머리를 돌려서 빨리 하기를 요한다.

212. 절의(節義)는 조화로써 분쟁의 길을 막고, 공명은 겸양의 덕으로써 질투의 문을 막아야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개와 의리만큼 귀한 것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화로운 마음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만일 절개와 의리는 있으나 조화를 전혀 모른다면 그 대쪽 같은 마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의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니 어찌 그 몸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절개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모름지기 조화로운 마음으로서 의리의 있고 없는 그 모든 사람을 너그럽이 포용할 줄 알아서 가는 곳마다 분쟁을 멀리하고 인화를 이루어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절개와 의리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명(功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우러러보는 진정 빛나는 이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공명에는 겸양의 덕이 갖추어 있음으로서 비로소 영원한 공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공명이 있고서 여기에 겸양의 덕이 없다면 사방에 질투의 문이 열려 그 공명은 이리 헐리고 저리 뜯기어 결국 공명으로서의 빛을 잃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명이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겸양의 덕을 그 몸에 갖추어서 모든 질투의 문을 막도록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節義之人은 濟以和衷이라야 纔不啓念爭之路하고 功名之士는 承以謙德이라야 方不開嫉妬之門이니라.

절개와 의리의 사람은 화한 마음으로써 건져야 비로소 분쟁의 길을 열지 않을 것이요, 공명이 있는 선비는 겸양의 덕으로써 이어나가야 바야흐로 질투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
- 濟(제): 스스로를 건진다는 말이다. 곧 자신을 분쟁의 길에서 건진다. 분쟁을 막는다는 말이다.
 - 承(승): 이어나가다. 곧 몸에 간직하여 항상 놓지 않는다는 말이다.

213. 관직에 있을 때는 마음속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고, 물러가 고향에 있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준다.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에는 자기의 노력을 전연 포기하고 오로지 요행을 바라 이리 붙고 저리 좇으며 기회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이와 같이 요행만을 바라며 놀고 먹는 소인들에게 그 요행을 얻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간사한 소인들이 가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항상 그 몸에 위엄을 잃지 않아야 하며 또 매사에는 지극히 세밀하여 다만 편지 한 장이라도 절도 있게 하여서 어느 누구도 쉽게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헛된 꿈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있을 때는 이와 다르다. 지난 날의 그 높은 자세, 위엄 있는 태도는 흰 싹처럼 벗어버리고 오로지 담박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고향 마을에 돌아와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누구든 이해하고 가까이 따르도록 하며 더욱이 옛 친지들과의 정은 보다 두터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士大夫居官에 不可竿牘無節이라 要使人難見하야 以杜倖端이요 居鄉에 不可崖岸太高라 要使人易見라야 以敦舊好니라.

士大夫(사대부)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에는 한 장의 편지라도 절도가 없을 수 없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보기 어렵게 하여서 요행의 실마리를 막기를 요한다. 고향에 돌아와 있을 때는 위엄을 세워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보기 쉽게 하여서 예부터 친하던 사이를 두텁게 하기를 요한다.

• 竿牘(간독): 편지.

• 倖端(행단): 소인들의 요행을 얻는 실마리.

• 崖岸(애안): 물가의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여기에서는 위엄 있는 높은 자세.

214. 덕망이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방자한 마음이 안생기고, 서민을 두려워하면 횡포한 마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덕망이 높은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 방자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또 덕망이 높은 사람을 두려워하듯 일반 서민도 그와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들을 만만히 보아 함부로 권세를 부리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자연 횡포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된다.

大人은 不可不畏니 畏大人則無放逸之心이요 小民도 亦不可不畏니 畏小民則無豪橫之名이니라.

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큰 사람을 두려워하면 방자한 마음이 없어진다. 庶民(서민)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庶民을 두려워하면 횡포하다는 이름이 없어진다.

• 小民: 庶民(서민).

215. 역경에 허덕일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고 마음이 태만해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한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조금만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뒤틀려도 쉽사리 실의에 빠진 채 하늘을 원망하고 또 남을 탓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불만으로 생각을 웅색하게만 몰고 갈 것이 아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서 저 아래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도 훨씬 절박한 환경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내가 역경에 허덕일 때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던 마음은 저절로 사라져 없어지고 어느새 마음속은 평온한 기운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태만해져서 만사에 소극적인 경향으로 흐를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이런 때는 위로 나보다 나은 사람들, 萬人(만인)의 生을 위하여 값진 업적을 쌓아올리는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에 올려야 한다.

마음이 태만해질 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태만한 생각은 어디로 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정신이 들고 용기백배하여 앞으로 앞으로 더욱 힘차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事稍拂逆엔 便思不如我的人이면 則怨尤自消하고 心稍怠荒엔 便思勝似我的人이면 則精神自奮이니라.

일이 다소 어긋나고 거슬릴 때에는 문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곧 원망과 탓함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다소 태만하여 거칠어진 때는 문득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 곧 정신이 저절로 떨쳐질 것이다.

216. 마음이 기쁘다고 기쁜 바람에 가벼이 일을 떠벌이지 말고 마음에 권태증이 난다고 하던 일을 중도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마음이 기쁘다고 기쁨에 겨워 감당도 못할 일을 경솔하게 응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셨다고 술 취한 김에 생트집을 잡아 성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유쾌하다고 유쾌한 기분을 타고서 끝맺지도 못할 일을 이것저것 많이 떠벌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권태증이 난다고 하던 일을 끝맺기도 전에 중도에서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不可乘喜而輕諾이요 不可因醉而生嗔이요 不可乘快而多事요 不可因倦而鮮終이니라.

기쁨을 타고서 가벼이 응낙해서는 안 되며, 술 취하므로 인하여 성을 내서는 안 되며, 유쾌함을 타고서 일을 많이 해서는 안 되며, 게으름으로 인하여 끝마침을 적게 해서는 안 된다.

217. 독서에는 문자를 읽지 말고 사상을 읽어야 하며, 사물을 관찰하는 데는 형상에 매이지 말고 실상(實相)을 파고들어야 한다.

책을 잘 읽는다는 것과 사물을 잘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얼른 생각하기에 누구나 쉬운 일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르러서야 책을 잘 읽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문자를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 안에 담긴 사상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자 하나하나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그 책의 사상 내용에 침착하여 그야말로 讀書三昧(독서삼매)에 들어가서 드디어는 道를 얻은 즐거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손과 발이 우쭐우쭐 춤을 추는 듯한 심오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참으로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깊이 경계해야 할 점은 행여 문자 풀이에만 얽매어 그 안에 담긴 옛 성현의 참 뜻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할까 하는 것이다.

또 사물을 관찰하는 것도 그렇다. 독서를 하는데 문자에 얽매이듯 사물을 관찰하는데 사물의 겉모양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물을 잘 관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사물을 보는 사람은 사물의 겉모양을 떠나서 사물과 내가 온통 渾然一體(혼연일체)가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여기서 사물의 이치를 잘 보아 알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하여 그 내면의 실상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善讀書者是 要讀到手舞足蹈處라야 方不落筌蹄요 善觀物者是 要觀到心融神洽時라야 方不泥迹象이니라.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손이 춤을 추고 발짓을 하는 데에까지 읽어 들어가도록 하여야 바야흐로 筌蹄(전제)의 도구로 떨어지지 않는다. 사물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마음이 융합하고 정신이 흡족할 때까지 보아 들어가도록 하여야 바야흐로 겉모양

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 筌蹄: '筌(전)'은 물고기를 잡는 통발이요, '蹄(제)'는 토끼를 잡는 덫이다. 筌蹄는 옛 성현의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 곧 文字(문자)를 의미한다. '진제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독서를 하는데 文字의 풀이에만 얽매어 정작 알아야 할 그 글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 迹象(적상): 사물의 겉모양. 形象(형상).

218. 현능한 사람이 되어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기는 커녕 놀러 보며, 부귀한 사람이 되어 곤궁한 사람을 구제하기는 커녕 업신여긴다면, 이는 처벌을 받을 인생이다.

세상에는 별로 뛰어난 지혜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또 남에 없이 큰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서 잔재주를 부리며 뽐내라고 주어진 지혜가 아니요, 또 그 부귀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입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주라고 주어진 부귀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늘이 賢能(현능)한 사람을 낼 적에는 그를 세워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요, 하늘이 부귀한 사람을 낼 적에는 그를 세워 곤궁에 허덕이는 불행한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한 것이다.

참으로 모든 현능한 사람, 그리고 모든 부귀한 사람들은 자기의 그 현능함이 자기의 그 부귀영화가 다름 아닌 세상 사람을 구제하라는 하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임을 자각하고 천명을 좇아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땠가! 오늘의 현능한 사람은 하늘의 그 깊고 먼 뜻을 어기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기는커녕, 자기의 뛰어난 장점으로 다른 사람의 어리석은 점, 모자라는 점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욕을 보이고 있다. 또 오늘의 부귀한 사람 또한 하늘의 그 거룩한 뜻을 어기고 곤궁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는 커녕 자기에게 쌓인 그 엄청난 財貨(재화)로 배고픈 사람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눈을 한 되게 하고 있다. 이것들이야 말로 참말로 천벌을 받을 죄 많은 백성이 아니고 무엇이랴!

天賢一人은 以誨衆人之愚어늘 而世反逞所長하야 以形人之短하고 天富一人은 以濟衆人之困이어늘 而世反挾所有하야 以凌人之貧하니 眞天之戮民哉인저.

하늘이 한 사람을 어질게 하는 것은 그로써 못사람의 어리석음을 가르치게 하는 것인데 세상은 도리어 뛰어난 바를 제 멋대로 하여 남의 단점을 드러낸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귀케 하는 것은 그로써 못사람의 곤궁을 건지게 하는 것인데 세상은

도리어 소유한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가난을 업신여기니 참말로 하늘의 죽임을 받을 백성인 것이다.

**219.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이 자연에서 노는 사람이라야 함께 학문도 논할 수 있고
공업(功業)도 세울 수 있다.**

도덕이 극치에 이른 사람(至人)은 마음 가운데 이미 욕심이란 없으니 다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조심하랴! 마음이 항상 텅 비어 있어 아무런 생각도 근심도 없는 것이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기에 마음 가운데 아무런 욕심이 없고, 욕심이 없기에 분별도 모르고 아는 것도 또한 없다.

여기에 至人(지인)이란 최고의 지식을 거쳐 성인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이미 자연인이 되어 無我境(무아경)에서 노는 사람이다. 또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이란 지식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원시적 무지의 상태 그대로를 말한다. 물론 賢愚(현우)의 差(차)는 하늘과 땅이지만 욕심 없는 경계, 분별을 잊고 자아를 잊은 자연의 상태에 이른 점에서는 한가지라 하겠다.

참말로 함께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고 功業(공업)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욕심 경계를 초월하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거치적거릴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인 것이다.

성인도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재주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 마음 가운데 뭉쳐져 있는 욕심 때문에 생각도 많고 근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분별도 많아 일을 당하면 그때마다 억측도 잘 하고 남의 속을 요리 조리 재어보기도 잘 하며 또 별 시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다. 이런 욕심에 천만가지 잔재주를 움직이는 사람과 어떻게 학문을 논하고 일을 함께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과는 무슨 일이든 함께 손잡고 일하기란 지극히 곤란한 것이다.

至人은 何思何慮며 愚人은 不識不知라 可與論學이며 亦可與建功이로되 唯中才의 人은 多一番思慮知識에 便多一番億度猜疑하야 事事難與下手니라.

도덕이 극치에 이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근심하랴!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더불어 학문을 논할 수도 있고, 또 함께 功業(공업)을 세울 수도 있다. 오직 중간 재주에 속한 사람은 생각과 근심과 아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 제일 많은데다가, 문득 억측하고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도 제일 많아서, 일마다 함께 손을 내리기가 어렵다.

220. 입은 마음의 문이요 의지는 마음의 발이다. 문 단속 발 단속을 엄밀히 함으로써 속마음을 지키며 그릇된 길을 비껴갈 수 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문인 입을 엄밀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자기의 속마음이 있는 대로 다 빠져나오고 만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길 곧 마음의 발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발인 의지의 움직임을 엄하게 단속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서 가서는 아니 될 못된 사악의 길로 마구 달려가고 말 것이다.

口乃心之門이니 守口不密이면 洩盡眞機요 意乃心之足이니 防意不嚴이면 走盡邪蹊니라.

입은 곧 마음의 문이니 입을 지키기를 엄밀하게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기밀을 다 흘려보내게 된다. 의지는 곧 마음의 발이니 의지를 막기를 엄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릇된 길로 아주 달려가고 만다.

221. 남의 허물을 꾸짖을 때는 앞으로 허물 없기를 일깨워 주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항상 허물이 있는가를 돌아본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두고 꾸짖을 때는 이미 지은 허물을 두고 되풀이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보다 이미 저지른 허물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고 앞으로 다시금 허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간곡하고도 부드럽게 말을 이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마음에 逆情(역정)의 물결이 일지 않고 마음 평온한 가운데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 지금엔 비록 허물이 없으나 허물이 없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허물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행여 허물이 있지 않을까 날마다 돌아보며 한시도 반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덕이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責人者는 原無過於有過之中則情平이요 責己者는 求有過於無過之內則德進이니라.

남을 꾸짖는 사람은 허물이 있는 속에서 허물이 없을 것을 찾으면 마음이 평온할 것이다. 자기를 꾸짖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속에서 허물이 있는가를 찾으면 덕이 나아갈 것이다.

222. 오늘의 자제들은 내일의 어른이요, 오늘의 수재들은 내일의 일꾼이다. 충분히 단련하지 않으면 큰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오늘의 어린 子弟(자제)들은 어른의 처음이니 곧 장래의 어른이 될 사람이요, 오늘의 어린 秀才(수재)들은 士大夫(사대부)의 처음이니 곧 장래 국가를 짊어지고 나갈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사람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어른들은 이 어린 자제와 수재들을 놓고 진정 책임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 때에 서투른 鑄匠(주장)이 쇠붙이를 다루는데 불기운을 모자라게 하고 또 굽고 본을 뜨는 데 있어서도 서툴러 잡것이 섞여서 결국 쓸모없는 기물을 만들어내듯 단련에 단련을 거듭하고 수양에 수양을 거듭 쌓아 거의 완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뒷날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 국가의 요직에 앉는다 하더라도 결국 주어진 명칭에 부합하는 큰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子弟者는 大人之胚胎요 秀才者는 士夫之胚胎니 此時에 若火力不到하고 陶鑄不純하면 他日涉世立朝에 終難成個令器니라.

子弟란 어른의 처음이요, 秀才란 사대부의 처음이다. 이때에 만약 불의 힘이 못미치고 굽고 본을 뜨는 것이 純全(순전)하지 못하면 다른 날 세상을 살아가고 조정에 설 때, 마침내 하나의 훌륭한 그릇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
- 令器(영기): 훌륭한 그릇. 곧 뛰어난 인물에 비유한 말이다.

223. 군자가 근심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라 즐거운 처지요,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높고 귀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 없는 외로운 사람이다.

군자는 어떠한 患難(환난)에 처해도 소인들처럼 失意(실의)에 빠진다는가 근심하는 일이 없다. 오직 더욱 분발하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나갈 따름이다. 그런데 군자는 잔칫상 벌여놓은 즐거운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는 소인들처럼 즐거움에 마음 부푸는 것이 아니라 몹시 조심하고 걱정하여 마지 않는다. 또 군자는 어떠한 權門(권문)·富豪(부호)를 만나도 그 높은 지위와 권세에 놀려 소인들처럼 굽실거리는 일이 없다. 마음에 전혀 부끄러운 일이 없거나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런데 군자는 의지가 지 없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고개를 떨군다. 어인 일인가! 측은한 마음이 북받쳐 오를 때문이다.

君子는 處患難而不憂하며 當宴遊而惕慮하며 遇權豪而不撓하며 對惇獨而驚心
이나라.

군자는 患難에 처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며, 잔치하고 노는 때를 당해서는 조심하고 근심한다. 權門·富豪를 만나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을 대하여서는 마음에 놀라워한다.

224. 곱고 쉬 지는 것이 담박하면서 오래 가는 것만 못하고, 일찍 열매 맺는 것이 늦게 성취되는 것만 못하다.

복숭아꽃 오얏꽃이 아무리 곱고 아름답다 한들, 사철을 두고 한결 같이 푸르고 싱싱한 소나무 잣나무의 그 굳은 정절에 어이 비할 수 있겠는가!

배와 살구가 아무리 달고 맛이 좋다 한들, 황금빛 유자와 푸른빛 굴에서 풍기는 드높은 그 향기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는가!

이제야 참말로 알만하구나! 곱고 쉬 지는 것이 담박하면서 오래 가는 것만 못하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찍 열매를 맺는 것이 늦게 성취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桃李雖艷이나 何如松蒼栢翠之堅貞이여 梨杏이 雖甘이나 何如橙黃橘綠之馨冽
가 信乎濃夭不及淡久하고 早秀不如晚成也니라.

복숭아와 오얏이 비록 곱기는 하나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고 굳은 정절과 어떻게 같으며 배와 살구가 비록 달기는 하나 유자의 황금빛과 굴의 푸르고 향내 높은 것에 어떻게 같겠는가! 진실로 그렇다! 곱고 쉬 지는 것은 담박하여 오래 가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일찍 뛰어나는 것은 늦게 이루는 것만 못한 것이다.

하권

225. 사람은 때로 마음을 고요한 곳에 두고, 인생의 참된 경계와 마음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

바람이 잠자고 물결이 고요한 때, 내 마음이 바깥 경계에 끌려 나갈 것도 없고 바깥의 욕심 경계가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올 것도 없이 마음이 고요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참말로 인생의 참된 경계가 무엇인가를 환히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맛에 맞들이며 사람의 마음을 물결 지을 허다한 소리가 끊어진 정적인 곳에 앉아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것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오직 진실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風恬浪靜中에 見人生之眞境하고 味淡聲希處에 識心體之本然이니라.

바람이 자고 물결이 고요한 가운데에 인생의 참 경계를 보고, 맛이 담박하고 소리가 드문 곳에 心體(심체)의 本然(본연)을 알 수 있다.

226. 명리(名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명리에 대한 생각을 다 잊지는 못한 사람이다.

참말로 즐거운 줄을 아는 사람은 즐겁다 말을 하지 않는다.

또 참말로 싫은 줄을 아는 사람은 싫다 말을 하지 않는다.

이미 즐거움과 슬픔, 싫음과 좋음을 초월하여 무차별의 경지에 들어간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無我(무아)의 경계에서 노니는 자유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벼슬을 버리고 山林(산림) 속에 묻혀 한가로이 책이나 읽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최대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참말로 산림의 취미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명예니 이익이니 하는 말을 듣기조차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아직도 명예와 이익에 대한 생각을 다 잊지는 못한 사람이다.

談山林之樂者是 未必眞得山林之趣요 厭名利之談者是 未必盡忘名利之情이니라.

산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직 반드시 참으로 산림의 취미를 얻은 것이 아니요,名利(명리)의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반드시 다 명리의 생각을 잊은 것이 아니다.

227. 많은 재주를 지닌 것보다는 무능한 상태 그대로 주어진 참 마음을 온전하게 간직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다.

낙시질을 하는 것은 한가로운 취미로서 세간의 모든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어 좋다.

잔잔한 물 위에 낙시줄을 드리우고 앉아 명상에 잠겨 있노라면, 자신이 흡사 속세의 모든 利慾(이욕)에서 벗어나 신선의 경계에나 들어온 듯하다. 그러다 가만히 그 마음 속을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살리고 죽이고 주고 빼앗는 무서운 권리를 쥐고 있고, 또 그 내면에는 좋은 물고기를 얻고자 하는 강한 욕심이 깃들어 있다. 또 바둑이나 장기를 둔다고 하는 일은 놀이 가운데에서도 아주 맑고 깨끗한 놀이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또한 남을 이겨야겠다는 경쟁의식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신선한 듯한 낙시질도 그 속에는 물고기를 놓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무서운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얻어야겠다는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으니, 결국 이것도 세간의 모든 이욕을 떠난 신선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또 맑고 깨끗한 놀이인 듯한 바둑과 장기도 남을 이겨야겠다는 강한 경쟁의식을 버리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수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놀이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남을 살리고 죽이는 권리를 행사하고, 무한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따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이다. 인간 본성의 참 취미는 진실하여 아무런 욕심의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도덕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낙시질을 한다거나 바둑 장기를 두는 일을 즐기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행동하여 자기의 진실된 본성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낙시질이나 장기, 바둑,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재주를 지닌 것보다는 그러한 일에 무능한 상태 그대로 자기의 주어진 참 마음을 잘 닦아 온전하게 간직하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인 것이다.

釣水는 逸事也로되 尙持生殺之柄하고 突棋는 清戲也로되 且動戰爭之心하나니
可見喜事不如省事之爲適이요 多能이 不若無能之全眞이니라.

물에서 낚시질을 하는 것은 한가로운 일이기는 하나, 오히려 살리고 죽이는 자루
를 잡고 있다. 바둑과 장기는 맑은 놀이이기는 하나 또한 싸우는 마음을 일으킨다.
일을 기뻐하는 것이 일을 덜어 맞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재주가 많은 것이 재
주 없이 참을 온전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28. 오색 아름다운 분단장은 덧없는 거짓 모습이요, 발가벗은 가을의 쓸쓸한 풍경이 바로 천지와 인생의 변함없는 참 모습이다.

피꼬리 사방에서 노래 부르고, 꽃은 한창 만발하여 산마다 계곡마다 오색찬란한 빛으로 봄 단장을 하고 나선 그 아름다운 경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온통 환희에 부풀게 하는 참말 아름다운 풍경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한갓 거짓으로 꾸며진 환영의 세계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네 인생이 즐겨 원하는 부귀영화처럼 덧없고 헛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면 천지의 그 거짓 없고 변화 없는 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물 마르고 나뭇잎 떨어지고 바위며 언덕이 다 야위고 시들어, 마치 이름도 지위도 비단 옷도 다 벗어버린 사람처럼, 발가벗은 가을의 쓸쓸한 그 풍경! 보기만 하여도 마음 차분히 가라앉아, 이제는 다소곳이 참다운 자기를 찾아 되돌아갈 수 있는 그 토록 엄숙한 풍경! 바로 여기에서 천지의 그 영원히 변함없는 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鶯花茂而山濃谷艷은 總是乾坤之幻境요, 水木落而石瘦崖枯는 纔是天地之眞吾니라.

피꼬리와 꽃이 한창 성하여 산이 무르익고 골짜기 아름다운 것은 다 이 하늘과 땅의 幻形(환형)의 경계다. 물 마르고 나뭇잎 떨어져 돌이 수척하고 언덕이 시드는 것에서 비로소 천지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
- 水木落而石瘦崖枯 纔是天地之眞吾(수목락이석수애고 재견천지진오): 여기에 두 구절은, 朱子(주자)의 '木落水盡千峯枯, 迴然我亦見眞吾(목락수진천애고 유연아역견진오)'의 시에서 나온 것이다.
 - 眞吾(진오): 참 모습, 참 정신.

229. 세월은 본래 한없이 긴 것을 이욕에 쫓기는 사람들이 저 혼자 짧다 하고, 세상은 본래 끝없이 너른 것을 이익을 쪼개는 사람들이 저 혼자 좁다 한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길고 오래여서 가도 가도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바쁜 인생이 바쁜 가운데 마음의 고요를 찾지 못하고 공연히 저 혼자 바빠 돌며 세월을 두고 짧다고 조바심이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끝없이 크고 너그러워 만물을 한 품에 안아 네오 내오 차별이 없다. 그런 것을 마음 웅색한 인생이 네 것 내 것 자질구레하게 구별을 지으며, 그 너른 천지를 저 스스로 좁게 갈라 놓고서 좁다고 아우성이다.

시원한 바람과 아름다운 꽃과 백옥 같은 눈이며 밝은 달은 본래 悠閑(유한)한 것으로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자유로이 이것을 구경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름에 돈에 지위에 팔린 악착스런 인생이 저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찾지 못하고 그 유한한 광경을 놓고서 번거롭다 푸념이다.

歲月은 本長이어늘 而忙者自促하고 天地는 本寬이어늘 而鄙者自隘하고 風花雪月은 本閒이로되 而勞攘者自冗이니라.

세월은 본래 長久(장구)한데 바쁜 사람이 저 스스로 짧게 여기고, 천지는 본래 너그러운데 웅색한 사람이 저 스스로 좁게 여기고, 바람과 꽃과 눈과 달은 본래 한가로운 것인데 악착스러운 사람이 저 스스로 번거롭게 여긴다.

• 勞攘(노양): 잘다란 욕망에 사로잡혀 악착을 부리는 것.

230. 아름다운 풍취는 주먹 돌 사이에서도 얻을 수 있고, 훌륭한 경치는 가난한 집 대나무 지붕 밑에서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風趣(풍취)란 반드시 아기자기 많은 것을 꾸며 놓은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이 만한 작은 연못과 주먹 만한 돌맹이 사이에도 고요한 山水의 멋진 풍경을 넉넉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마음에 드는 훌륭한 경치란 반드시 멀리 가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다북쪽으로 엮어 만든 창문, 대나무로 이은 초라한 지붕 밑에도 淸風(청풍)과 明月(명월)은 오락가락 한가로운 경치를 이루고 있으니 이것이 또한 구경할만한 자연의 뜻깊은 경치인 것이다.

得趣不在多라 盆池拳石間에 煙霞具足이요 會景不在遠이라 蓬窓竹屋下에 風月이 自賒니라.

취미를 얻는 것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이만한 연못과 주먹 만한 돌 사이에도 산수의 경치는 다 갖추어 있다. 마음에 드는 경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북쪽 창과 대나무 지붕 밑에도 청풍과 명월이 스스로 한가롭다.

-
- 煙霞(연하): 고요한 山水의 경치.
 - 會景(회경): 마음에 드는 경치.
 - 賒(사): 한가로운 모양.

231. 인생은 꿈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꿈 가운데의 꿈이다. 고요한 밤 종소리를 들으면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 인생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은 꿈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웃고 울고 하는 것은 바로 꿈 가운데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천지 만물이 고요 속에 잠든 깊은 밤, 멀리서 은은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한 가닥 맑은 생각을 일으키노라면, 문득 자신이 지금 有限(유한)한 생명에 매달려 꿈 가운데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 맑은 연못에 떨어진 둥근 달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여기 연못에 비친 달은 저 하늘에 뜬 영원한 달의 참 모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여기 이 몸은 나와 그 根源(근원)을 함께 한 천지로부터 잠시 빌려 받은 하나의 假相(가상)의 몸이요, 이 몸 밖에는 천지와 함께 평등 무차별한 영원한 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나의 진정한 本身(본신)이요, 참 생명인 것이다.

聽靜夜之鍾聲하면 喚醒夢中夢이요 觀澄潭之月影하면 窺見身外之身이니라.

고요한 밤의 종소리를 들으면 꿈 속의 꿈을 불러 깨우게 되고, 맑은 연못의 달 그림자를 보면, 몸 밖의 몸을 엿볼 수 있다.

• 夢中夢(몽중몽): 인생을 꿈으로 보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기쁘고 슬픈 세상의 모든 일을 꿈 가운데 꿈으로 본 것이다.

• 身外之身: 위의 몸은 유한하고 차별적인 몸으로, 언젠가는 없어질 오늘날 잠시 빌려 받은 가상의 몸이요, 아래의 몸은 천지의 주 등 무차별한 참 모습으로서, 이것이 곧 인간의 진정한 본신이라는 말이다.

232. 새소리, 벌레소리는 다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요, 꽃잎 풀빛은 다 진리를 읽는 훌륭한 문장이다.

진리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여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마침내 온전한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無上(무상)의 진리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마음으로 전하여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다.

진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온갖 사물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온갖 물건의 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다. 하늘과 땅, 산과 들이며, 꽃잎마다 풀포기 하나하나, 그리고 새소리, 벌레소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도 진리의 마음을 전하고 진리를 읽을 수 있는 훌륭한 문장이 없는 곳이 없다.

말하자면 새소리, 벌레소리는 다 진리의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요, 꽃 이파리 풀빛 따위는 모두가 진리를 읽을 수 있는 훌륭한 문장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든 천지만물과 더불어 마음을 주고 받을 줄 알고, 또 여기에 담긴 훌륭한 문장을 읽을 줄 알아야 비로소 만물의 根源者(근원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따라서 천지자연의 大道(대도),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물과 더불어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담긴 진리의 문장을 읽을 수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인간 본연의 마음의 활동을 맑고 밝고 확실하게 하며, 가슴 속을 오로지 진실 그대로 티 한 점 없이 깨끗하게 하여 옥같이 영롱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서 스스로 듣고 보고 겪는 일마다 하나 하나를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진리를 깨달아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의 눈을 열고 지혜의 문을 여는 다시 없는 요결인 것이다.

鳥語蟲聲도 總是傳心之訣이요 花英草色도 無非見道之文이니 學者 要天機清澈하고 胸次玲瓏이면 觸物에 皆有會心處니라.

새소리 벌레소리도 다 이 마음을 전하는 비결이요, 꽃잎 풀빛도 도를 보는 글이 아닌 것이 없다. 공부하는 사람은 타고난 기능을 맑고 투철하게 하고 가슴을 영롱하게 하면 사물을 접하는 데에 다 마음에 깨닫는 곳이 있을 것이다.

-
- 傳心之訣(전심지결): 禪宗(선종)에서 나온 말로서, 無上(무상)의 진리는 언어와 문자를 떠나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으로, 오로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 받고 또, 전해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見道之文(견도지문): 역시 佛家(불가)의 말로서, 불가에서는 사물마다 곳곳마다 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하여,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가 진리를 알아보는 문장이라고 주장한다.
 - 天機(천기): 본연의 心機(심기), 곧 본연의 마음의 활동.
 - 胸次(흉차): 胸中(흉중)과 같다.

233. 책을 읽되 천지만물의 글자 없는 책을 읽고, 거문고를 타되 천지자연의 줄 없는 거문고를 탈 줄 알아야 참 진리를 체득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글자 있는 책은 읽을 줄 알면서 글자 없는 책은 읽을 줄을 모른다. 글자 없는 책이란 무엇인가! 하늘과 땅으로부터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과 들에 온갖 초목들,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현상이 다 글자 없는 책에 속한다. 이 무수한 현상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그대로 우주의 실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속에는 한없는 진리가 적혀 있는 것이다. 글자 있는 책은 눈으로 읽을 수 있으나, 글자 없는 책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그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아야만 비로소 그 깊은 진리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대개 줄 있는 거문고는 탈 줄 알면서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줄을 모른다.

줄 없는 거문고란 무엇인가! 바람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등등 천지 간에서 나는 온갖 미묘한 소리, 이것이 곧 천지자연의 줄 없는 거문고인 것이다.

이 줄 없는 거문고는 우리 인간에게 천지자연의 妙理(묘리)를 끝없이 들려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리는 정신의 소리는 오직 청정한 마음의 귀라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글자 있는 책은 읽으면서 글자 없는 책은 읽을 수가 없고, 또 줄 있는 거문고는 타면서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수가 없으니 그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책을 읽고 거문고를 타되 눈에 보이는 문자와 줄에만 얽매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읽고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물의 형체에만 매달려 이것만을 운용할 줄을 알고, 사물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인 면을 들어 운용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책을 읽되 천지만물의 정신을 읽을 수 없고, 거문고를 타되 천지자연의 줄 없는 거문고를 탈 줄 모른다면 진리는 영영 체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고서 어떻게 거문고를 타고 책을 읽는 참 취미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人이 解讀有字書로되 不解讀無字書요 知彈有絃琴이로되 不知彈無絃琴하나니
以跡用이요 不以神用이라 何以得琴書之趣리요.

사람들이 글자 있는 책은 읽을 줄 알아도 글자 없는 책은 읽을 줄을 모르고, 줄 있
는 거문고는 탈 줄 알아도 줄 없는 거문고는 탈 줄 모른다. 자취로써 쓰고 정신으
로써 쓰지 아니하니, 무엇으로써 거문고와 책의 취미를 얻겠는가!

-
- 無字書(무자서): 우주의 삼라만상을 통틀어 진리를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책으로 본 것이다. 역시 삼
라만상 가운데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不立文字(불립문자)를 주장하는 佛家(불가)
에서 나온 말이다.
 - 無絃琴(무현금): 바람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등 천지간에서 나는 온갖 미묘한 소리를 두
고 천지자연의 줄 없는 거문고라 한 것이다.

234. 욕심 없는 마음은 가을 하늘과 맑게 개인 바다요, 내 옆에 거문고와 책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다.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맑고 깨끗하기가 저 높푸른 가을 하늘과 맑게 갠 날 아득히 푸르른 바다와도 같다.

내 옆에 거문고와 책만 있으면, 몸은 비록 티끌 세상에 묻혀 있으나 마음은 그곳이 아득히 먼 신선이 사는 곳, 신선이 노는 곳, 石室(석실)과 丹丘(단구)인 것이다.

心無物欲이면 卽是秋空霽海요 坐有琴書면 便成石室丹丘니라.

마음에 물욕이 없으면 곧 이것이 가을 하늘과 갠 바다요, 앉은 자리에 거문고와 책이 있으면 문득 석실과 단구를 이룬다.

-
- 石室丹丘: 石室(석실)과 丹丘(단구)는 다 신선이 사는 곳이다.

235. 술에 든 부귀영화는 한번 크게 취했다가 깨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와 슬픔뿐이다.

귀한 손님들과 마음의 벗들이 사방에서 모여서들 권커니 잡거니 밤 가는 줄을 모르고 술을 마시며 즐긴다고 하는 것은 참말로 유쾌한 일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밤이 깊어 물시계의 물방울 소리도 끊어지고, 켄 촛불도 꺼질 듯 가물거리고, 향로의 연기도 언제 벌써 사라지고 펄펄 끓던 차(차)도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사람들은 모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나만 혼자 어렵듯이 깨어 간밤의 일을 생각하니, 자꾸만 목이 메고 흐느껴지니 어인 까닭인가! 그토록 기쁘고 즐겁고 흥겹던 마음이 이제는 또 이토록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싱거우니 어인 일인가! 기쁨이 즐거움이 극에 이르면 도로 슬퍼지는 것인가! 술에든 부귀영화든 한 번 취했다가 깨고 나면 다 이런 것인가!

세상만사는 다 이런 것이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그 무엇에든 취하지를 말아야 한다. 혹 취했다 하더라도 더 취하기 전에 얼른 머리를 돌려 참된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사람은 거짓에 허무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본래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 참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賓朋이 雲集하면 劇飲淋漓樂矣호되 俄而요 漏盡燭殘하고 香銷茗冷하면 不覺反成嘔咽하야 令人索然無味하나니 天下事率類此라 人이 奈何不早回頭也리요.

손님과 벗이 구름같이 모여들면 심하게 술을 마시며 끊임없이 즐거워하되, 어느새 물방울이 다하고 촛불이 쇠잔하고 향로의 연기도 사라지고 차도 식어지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도리어 흐느낌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외롭고 쓸쓸하고 흥미가 가시게 한다. 천하의 일이 대개 이와 비슷한데 사람이 어찌하여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겠는가!

• 劇飲淋漓(극음임리): 劇飲은 술을 몹시 심하게 마시는 것이요, 淋漓(離離)는 긴 모양이니, 끊임없이 오

래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 漏(루): 옛날의 물시계(漏水器)로, 위쪽 그릇에 담긴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재어 아
는 것이다.
- 茗(명): 茶(차).
- 區咽(구열): 목이 메어 흐느끼는 모양.
- 索然(삭연): 적막하고 허무한 모양.
- 率(솔): 대개, 그 아래 '類(류)'는 類似(유사).

236. 사물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면 앉아서 천하와 명승을 구경할 수 있고, 흥망성쇠의 이치를 간파하면 천고의 영웅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

사람이 보고 듣고 겪는 일 가운데 사물 마다 그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저 이름 높은 五湖(오호)의 털 아름다운 풍경도 남김없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니, 시인·문장가가 따로 있는가! 마침내 앉아서 그것을 구경하며 如實(여실)하게 그려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만물을 끊임없이 흥하고 망하고 盛(성)하고 衰(쇠)하게 하는 하늘의 그 무궁하고도 미묘한 작용을 속속들이 파헤쳐 알 수만 있다면, 천년 옛 영웅들이 다 내 손아귀로 돌아올 것이니 영웅이 다 무엇인가! 어떠한 영웅호걸도 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會得個中趣면 五湖之煙月도 盡入寸裡요 破得眼前機하면 千古之英雄도 盡歸掌握이니라.

하나하나와 속에 있는 취미를 깨달아 알면 五湖의 풍경도 다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요, 눈 앞에 작용을 깨뜨려 얻으면 천년 옛 영웅도 다 손아귀로 돌아온다.

• 五湖之煙月(오호지연월): 五湖(오호)란 中國(중국)에 있는 五大湖水(오대호수)로서, 饒州(요주)의 鄱陽湖(파양호), 岳州(악주)의 青草湖(청초호), 潤州(운주)의 丹陽湖(단양호), 鄂州(악주)의 洞庭湖(동정호), 蘇州(소주)의 太湖(태호) 등을 가리킨다. 煙月(연월)은 연기 어린 은은한 달빛, 곧 아름다운 풍경을 뜻한다.

• 寸裡(촌리): 마음 속.

• 眼前機(안전기): 눈 앞에 있는 작용, 곧 만물을 興(흥)하고 亡(망)하고 盛(성)하고 衰(쇠)하게 하는 천지의 작용을 말한다.

237. 산하와 대지는 하나의 작은 티끌이요 인생은 티끌 속의 티끌이며 이 몸은 하나의 물거품과 그림자요 부귀 공명은 그림자 밖의 그림자다.

우주 만물은 본래 空(공)한 것. 공한 속에서 지극히 작은 티끌이 쌓이고 쌓이어 하나의 형체를 이루었다가 언젠가는 다시 티끌로 化(화)하여 공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저 줄기차게 이어진 山河(산하)와 大地(대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여서, 그 역시 生滅(생멸)의 변화를 따라 마지막에는 작은 티끌로 화하고 만다.

산하며 대지와 같은 굉장한 물건도 다 이미 작은 티끌에 속하여 있고 없고 하는데, 하물며 티끌 속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 우리네 작은 인생이야 더구나 말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피와 살과 이 몸뚱이는 우리가 그토록 애착하여 매달리지만, 그도 한낱 물거품이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더없이 귀중한 몸뚱이도 결국에는 물거품으로 그림자로 돌아가고 마는데, 하물며 그림자 밖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부귀공명 따위야 말은 해서 무엇 하겠는가!

참말로 우주 萬象(만상)은 본래 空한 것이라는 이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세상에 무얼 그다지 못 잊어 할 것이 있겠는가! 진정 살았다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죽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으며, 부귀요 공명이라고 마음에 惑(혹)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뜻을 어리석은 인생이 어찌 알겠는가! 오직 최고의 智者가 아니고는 모든 법의 참 實相(실상)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끝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山河大地도 已屬微塵커든 而況塵中之塵이며 血肉身軀도 且歸泡影커든 而況影外之影이요 非上上智면 無了了心이니라.

산과 내와 대지도 이미 작은 티끌에 속하거든, 하물며 티끌 속에 티끌이라! 피와 살과 몸뚱이도 또한 물거품과 그림자로 돌아가거든, 하물며 그림자 밖의 그림자이랴! 최상의 지혜가 아니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238. 사람의 일생은 눈 깜짝할 사이의 부싯돌 불빛이요, 사람이 명리를 다투는 것은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 싸움을 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 수 있는가! 부싯돌에서 나는 번쩍하는 불빛, 눈 깜짝할 사이에 비쳤다 사라지는 지극히 짧은 순간!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일생인 것이다. 참말로 유구한 천지에 비하면 우리의 일생은 그토록 짧은 것이다.

그런 것을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이 자기를 좀 더 높이 세우려고 남보다 잘 살고 잘 되어 보겠다고 있는 힘, 갖은 재주를 다하며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에 경쟁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인생은 본래 눈 깜짝할 사이의 부싯돌 불빛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토록 싸워서 내가 설령 남보다 높고 귀하고 잘 산다 한들, 그것이 또 얼마나 간다는 말인가!

그 뿐인가!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좁기가 마치 달팽이 뿔 위와도 같다. 천지의 그 가없이 큰 데 비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토록 좁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내 땅 네 땅, 내 것 네 것을 두고 밤낮 없이 싸우고 논란을 벌이니, 그것은 마치 달팽이 뿔 위에서 영토를 노려 싸움질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 좁은 땅 위에서 설령 싸움에 이겨 몽땅 내 것이 되기로하니, 그것이 얼마나 되랴! 어느 정도 크기의 세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石火光中¹에 爭長競短은 幾何光陰이며 蝸牛角上²에 較雌論雄은 許大世界니라.

부싯돌 불빛 속에서 긴 것을 다투고 짧은 것을 겨루니 이것이 얼마나 되는 세월이겠으며, 달팽이 뿔 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비교하고 논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세계일 것인가!

• 石火光中(석화광중): 부싯돌에서 나는 번쩍하는 불빛이니, 유구한 천지에 비하여 눈 깜짝할 사이의 지극히 짧은 인생에 비유한 말이다.

- 蝸牛角上: 이것은 《莊子(장자)》에서 나온 말로서, 내용을 보면

“달팽이의 왼쪽 뿔에는 觸(촉)이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蠻(만)이라는 나라가 있어, 두 나라가 서로 땅을 두고 다투니 이 싸움에 시체가 수만에 이르렀다.”

고 하는 이야기다.

곧, 우주의 가없이 큰 데 비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좁기가 달팽이 뿔 위와 같다는 말이고, 또 이토록 좁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하찮은 名利(명리)를 두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는 것은 마치 달팽이 뿔 위에서 觸, 蠻 두 나라가 다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 許大: 許(허)는 幾何(기하)의 뜻이니, 곧 얼마나 큰, 또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뜻을 지닌다.

239. 탐욕과 번뇌를 끊고 공(空)한 자리로 돌아가되, 제도중생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 공이어야 한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불꽃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등이라고 할 수 있고, 갓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갓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싸늘한 등에 불꽃마저 없고, 다 떨어진 갓옷에 온기마저 없다고 하면, 아무리 소박하고 검소한 것도 좋지만 이것은 너무 적막한 광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주 만물은 다 흐란 것, 모든 탐욕을 버리고 번뇌를 끊고 공한 자리로 돌아가라 하지만 그 자리가 마치 몸은 마른 나무처럼 전혀 생기가 없고, 마음은 싸늘하게 식은 재처럼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공은 공이로되 참 공이 아니요, 아주 소극적인 죽은 공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된다.

有(유)는 유로되 그 속에는 無(무)가 잠들어 있고, 무는 무로되 그 속에는 유가 잠자고 있어 유는 무를 낳고 무는 또 유를 낳아 유와 무가 끊임없이 돌고 돌아 그 극에 이르게 되면 유무가 다 공한 것 같지만 공하지 않듯, 공은 공이로되 마른 나무나 싸늘하게 식은 재와 같은 공이 아니요, 그 속에는 다시금 만물을 성립시키는 미묘한 작용이 있는 공이라 참 공인 것이다.

사람은 여기 이 참 공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모든 탐욕과 번뇌를 끊음과 동시에 이른바 濟度衆生(제도중생)의 聖業(성업)에 몸 바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頑空(완공)이라고 하여 마른 나무와 식은 재와 같은 소극적인 공으로 떨어진다면, 이 또한 탐욕을 버리고 번뇌를 끊어 空寂(공적)한 경계에 들기는 한 가지이나, 生氣(생기)도 溫氣(온기)도 없는 공이라 제도 중생에 이바지할 수 없으니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寒燈無焰하고 敝裘無溫은 總是播弄光景이요, 身如槁木하고 心似死灰면 不免墮在頑空이니라.

찬 등잔에 불꽃이 없고 떨어진 갓옷에 따뜻한 기운이 없는 것은 다 이 광경을 헤쳐
희롱하는 것이요,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마음은 죽은 재와 같다면 죽은空에 떨어
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禪空(완공): 몸도 마음도 다같이 空寂(공적)에 드는 것. 이것은 소승불교의 학자들이 구하는 해설의
경계다.

이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空은 眞空(진공)이 아니라 禪空이다. 완공이란 몸과 마음이 완전히 空寂(공적)
에 들어, 마치 죽은 나무와 싸늘하게 식은 재처럼 되는 것이다. 眞空이란 空은 空이로되 그 속에는 有無
相生의 미묘한 작용이 있는 산 공을 뜻한다.

240. 은퇴하고 싶을 때 그 즉시 은퇴하면 은퇴 할 수 있지만, 세속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끝내 은퇴하지 못하고 만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한 번 마음 먹었던 일은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당장에 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생각하기를 ‘이제는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산 속으로 들어가 글이나 읽으며 편안히 쉬어보리라’ 하였다면,

생각한 그 즉시 결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은퇴하고 싶은 때 은퇴하지를 못하고, 이 때나 저 때나 하며 속세에서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은퇴할 만한 때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아들 딸을 다 키워 시집 장가 다 보낸 뒤에까지도, 아니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은퇴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속세에 미련을 끊지 못하는 한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 끊임 없이 끊기 때문이다. 만일 참말로 속세에 미련을 끊지 못한다면 설령 중이나 도사가 되기를 원하여 중이 되고 도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끝내 마음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한 말이 있다.

“지금은 곧 쉬면 될 수 있지만, 일이 끝날 때를 기다리며 될 때를 찾는다면 끝내 쉬게 될 때가 없다.”

라고. 참말로 뜻깊은 생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人肯當下休면 便當下了니 若要尋個歇處면 則婚嫁雖完이나 事亦不少요 僧道雖好나 心亦不了라 前人이 云如今休去면 便休去요 若覓了時면 無了時라 하니 見之卓矣니라.

사람이 즐겨 그 당장에 쉬려면 문득 그 당장에 쉬게 된다. 만약 하나의 설만한 곳을 찾기를 요한다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일을 비록 마쳤다 하더라도, 일은 또한 적지가 않을 것이다. 중과 도사가 비록 좋다고 하나 마음이 또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금방이라도 쉬려면 문득 쉴 것이요, 만약 쉴만한 때를 찾는다면 쉴 때가 없다.”고 하니, 보는 것이 뛰어나다 하겠다.

-
- 當下(당하): 당장, 또는 그 즉시의 뜻.

241. 사람은 냉정한 상태로 되돌아 온 뒤에야 한창 열을 내어 뛰어다니던 지나간 일이 부질 없는 일이었음을 뉘우치게 된다.

사람은 대개 무슨 일에도 정열을 쏟아 한창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는 그것이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한다. 그 정열이 한 고비를 넘어서 차츰 冷靜(냉정)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지나간 날 자신이 그토록 물불을 모르고 뛰어 다니던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일이었던가를 뉘우치게 된다.

사람은 또 복잡하고 어수선했던 환경에 휩싸여 있을 때는 한가한 환경의 즐거움을 미처 생각지 못한다. 그 복잡하고 어수선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한가로운 경지에 들어왔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한가한 때의 재미가 얼마나 깊고 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從冷視熱然後에 知熱處之奔走無益이요 從冗入閑然後에 覺閑中之滋味最長이니라.

냉정한 데에서 뜨거운 것을 본 뒤에라야 뜨거운 곳에서의 분주하게 돌아다닌 것이 쓸 데 없음을 알게 된다. 번잡한 데에서 한가한 데 들어간 뒤에라야 한가한 속에서의 재미가 가장 오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242. 부귀를 뜯 구름 보듯 하되 세속을 등져서는 안 되고, 산수(山水)를 아무리 좋아 하되 산수병에 걸릴 만큼 극단을 달려서는 안 된다.

부귀영화를 마치 저 하늘에 떠도는 뜯 구름 보듯이 한다면, 이야말로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 고상한 취미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귀를 한 조각 뜯 구름인양 여긴다고 여기에 치우쳐 세상일을 다 버리고 깊은 산중 암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 것까지는 없는 것이다. 티끌 세상에 몸담아 있으면서 그 몸에 티끌을 묻히지 아니하고, 욕심 세계에 앉아 있으면서 끝내 욕심 없는 마음, 고상한 취미를 잃지 않는, 여기에 보다 높고 귀한 인품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수의 그 맑고 깨끗한 경치를 남달리 좋아하는 하되 거기에 혹하지 아니하고, 산수를 저 만큼 멀리 두고 항상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즐겨 읊조릴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이 귀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좋은 싫든 간에 항상 그 극단을 달리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유감 없이 다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아주 멀리하는 마음의 커다란 자유를 길러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有浮雲富貴之風이로되 而不必嚴棲穴處요 無膏肓泉石之癖이로되 而常自醉酒耽詩니라.

부귀를 뜯 구름처럼 여기는 기풍이 있으되 반드시 깊은 산중 암굴 속에서 살지 않는다. 산수의 경치에 병들만큼 좋아하는 버릇은 없으나 항상 스스로 술에 취하고 시를 즐긴다.

• 浮雲富貴之風(부운부귀지풍): 부귀를 뜯 구름인양 한다는 말은 부귀를 뜯 구름같이 본다는 말로서, 이것은 《논어》에 나온 말이다.

《논어》〈述而(술이)〉에,

‘불의(不義)로 얻은 부(富)와 귀(貴)는 나에게서는 뜯 구름과 같다.’는 구절이 있다.

- 膏肓泉石之癖(고황천석지벽): 膏肓(고황)은 명치 끝으로, 난치의 병을 가리쳐 膏肓之病(고황지병)이라고 한다. 泉石(천석)은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 곧 산수병이 가슴에 들어 癘疾(고질)이 될 만큼 산수의 경치를 좋아하는 버릇을 뜻한다.

243. 세상 사람들이 부귀공명에 다 취해 있어도 나만은 혼자 깨어 대자유의 경계에서 놀리라.

세상은 온통 부귀공명에 마음이 취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싸우며 쫓고 쫓기고 야단이다.

부귀공명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이익을 두고 다투고 공명을 추구하여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그 번거로운 일은 사람들 저들이 하는 그대로 맡겨 두고, 나만은 한 걸음 물러가 앉으리라.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한다 해도 미워하거나 원망은 하지 않는다. 오직 나만은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내 몸에 맞도록, 내 마음에 快足(쾌족)하도록 부귀공명에 취하지 않고 혼자 깨어 있으리라. 그렇다고 남들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혼자 깨어 있는 것을 세상에 자랑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석가모니의 이른바, 어떠한 사물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애써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空한 자리로 돌아가고자 空寂(공적)에 얽매이지도 아니하여, 세상 어디에 처하든 몸과 마음이 다 같아 자유자재롭다고 하는 그러한 경지인 것이다.

競逐聽人而不嫌盡醉하며 恬淡適己而不誇獨醒이면 此釋氏所謂不爲法纏하며 不爲空纏이요 身心兩自在者니라.

경쟁하고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맡겨, 다들 취해도 싫어하지 아니하며 편안하고 깨끗하게 자기에게 맞도록 하여 혼자 깨어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석가모니의 이른바, 법에 얽매는 것이 되지 아니하며 공적(空寂)에 얽매는 것이 적지 아니하여서 몸과 마음이 다 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244. 마음이 한가로운 사람은 하루가 천 년이요 생각하는 것이 너르고 큰 사람은 말[斗]만한 방이 저 하늘만큼이나 너르다.

세월이 길고 짧은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세월을 길다고 생각할 것이니 긴 것이요, 마음이 항상 利慾(이욕)에 쫓겨 허덕이는 사람은 세월을 짧다고 생각할 것이니 짧은 것이다.

또 세상이 너르고 좁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 매인 것이다. 마음이 활짝 트인 사람은 세상을 한 없이 너르다고 생각할 것이니 너른 것이요, 마음이 꼭 막혀 웅색한 사람은 세상을 더없이 좁다고 생각할 것이니 좁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한가로운 사람은 하루가 천 년보다도 아득하게 여겨지고, 생각하는 것이 너르고 큰 사람은 말[斗]만한 작은 방이라도 그것이 자그마치 하늘과 땅만큼이나 너르게 여겨지는 것이다.

延促은 由於一念하고 寬窄은 係之寸心하나니 故로 機閒者는 一日遙於千古하고 意廣者는 斗室아 寬若兩間이니라.

느리고 빠른 것은 한 생각에 말미암은 것이요, 너르고 좁은 것은 작은 마음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心機(심기)가 한가한 사람은 하루가 千古보다 아득하고, 뜻이 넓은 사람은 말[斗]만한 방도 너르기가 천지 사이와도 같다.

-
- 延促(연축): 느리고 빠른 것, 곧 시간의 길고 짧음을 뜻한다.
 - 機(기): 心機(심기), 곧 마음의 활동.
 - 兩間(양간): 天地間.

245. 날마다 사욕을 덜고 덜면 자연의 대도(大道)에 합하게 되고, 날마다 물욕을 잊고 잊으면 무아경(無我境)에 이르게 된다.

날마다 道를 닦아 私心私欲(사심사욕)을 덜고 덜며, 날마다 자연과 더불어 꽃이나 가꾸고 대나무를 심는다. 이대로 끊임없이 가면 無慾(무욕)의 경계를 넘고 또 넘어, 마침내는 그대로 만물의 근원인 虛無自然(허무자연)의 大道(대도), 아니 허무선생이라고 할까, 허무선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좋고 나쁜 만가지 일을 다 잊으며, 잊는다는 생각마저 잊으며, 날마다 향이나 사르며 차를 달인다. 이대로 하염없이 가다 보니, 내가 어디로 갔는가! 그대로 무아경에 들었거니 술은 다 무엇에 쓰랴! 엇그제 술 가져오던 흰 옷 입은 사나이, 이제야 무슨 일로 기다리랴!

損之又損하야 栽花種竹이면 儘交還烏有先生이요 忘無可忘하야 焚香煮茗하면 總不問白衣童子니라.

덜고 또 덜어서 꽃을 가꾸고 대나무를 심으면 그대로 다 오유 선생에게 돌아갈 것이요, 잊어야 할 것이 없는 것까지도 잊어 사향을 사르고 차를 다리면 다 흰 옷 입은 동자에게 묻지 않는다.

• 損之又損(손지우손): 이것은 《道德經(도덕경)》에서 나온 말이다.

《도덕경》 48장에,

“道學(도학)을 하면 私心(사심) 私欲(사욕) 이 날마다 멀어지는지라, 덜고 또 덜어서 萬有(만유)의 근원인 虛無自然(허무자연)의 大道에 이른다.”

라는 구절이 있다.

- 烏有先生(오유선생): 이것은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한 말로서 하나의 가상적인 인물이다. 烏有(오유)란 ‘어찌 있겠는가’라는 뜻이니, 곧 아무 것도 없다는 말, 無를 의미한다.
- 忘無可忘(망무가망): 만사를 다 잊고서, 잊는다는 생각마저 잊어버린다는 말이다. 곧 무아경을 일컫

는다.

- 白衣童子(백의동자): 陶淵明(도연명)에게 술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한다. 도연명이 9월 9일에 술이 떨어져 국화를 따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술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다. 童子(동자)란 별 뜻이 없이 위의 先生(선생)에 대하여 쓰인 말이다. 여기에 白衣童子(백의동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말은 향을 사르고 차를 다리고 있으면 술이 필요 없으니, 술 가져올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246. 현실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는 곳 마다 신선의 경계요, 항상 부족에 걸근거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범속의 세계다.

세상에는 神仙(신선)의 경계가 따로 없고, 凡俗(범속)의 경계가 따로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처한 환경이야 어떻든, 자기의 눈앞에 닥쳐오는 그 모든 일을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은 그가 곧 신선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고, 일마다 불평불만만이고 전혀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가 곧 범속의 경계에 있는 사람이다.

현실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욕심이 없으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현실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헛된 욕심으로 가득하며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욕심이 없고 분수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한가로우니 가는 곳마다 신선의 세계요, 욕심이 많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차지 못하여 걸근거리니 가는 곳마다 범속의 세계인 것이다.

또 세상에 뛰어날 수 있는 모든 원인은 바로 자기의 눈 앞에 닥친 일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데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산 작용이 되어 만물을 이익되게 할 것이요, 혹 잘못 활용하면 죽은 작용이 되어 만물에 해가 되는 것이다.

都來眼前事는 知足者는 仙境이요 不知足者는 凡境이며 總出世上因은 善用者는 生機요 不善用者는 殺機니라.

도무지 눈 앞에 오는 일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신선의 경계요,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凡俗(범속)의 경계다. 세상에 뛰어날 모든 원인은 잘 쓰는 사람은 산 작용이 되고, 잘못 쓰는 사람은 죽은 작용이 된다.

247. 권세가에 붙어 살다 겪는 재앙은 더 없이 비참하고도 빠르며, 욕심 없는 경계의 한가로운 취미는 더없이 맑고도 오래 간다.

부귀영화에 勢道(세도)가 당당한 권세가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며 아부하는 사람은, 그 한때야 아쉬울 것이 있을까만 세상만사는 한창 왕성하면 쇠퇴하는 법, 우수수 낙엽 지듯 권세가 한꺼번에 땅에 떨어지는 날, 그때 겪는 재앙이란 참말로 비참하고도 또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몸을 오로지 욕심 없는 편안한 경계에서 노닐며, 한 평생 한가로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권세에 붙잡히는 경우처럼 화사한 맛이야 있을까만 그날 그날에 맛보는 그 한가로운 취미야 참말로 맑고 깨끗하면서 또한 그렇게도 즐거움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趨炎附勢之禍는 甚慘亦甚速하고 淒括守逸之味는 最淡亦最長이니라.

불꽃 성한 데로 달려가고 권세에 붙는 재앙은 몹시 비참하고 또한 몹시 빠르다. 욕심 없는 데에 살고 한가로움을 지키는 맛은 가장 맑고 또 가장 긴 것이다.

248. 소나무 시냇가를 거닐며, 대나무 창 아래 책을 베고 높이 누웠다.

소나무 우거진 시냇물가를
지팡이 이끌고 혼자 거닐다.
여기가 아니 신선이 사는 곳인가!
가다가 문득 서면
그 때마다 흰 구름
떨어진 옷자락에 뭉개 피어 오른다.
대나무 뾰뾰한 창 아래 책을 베개하고 높이 누웠다.
여기가 아니 별천지런가!
자다가 문득 깨어보면
달이 말도 없이
싸늘한 담요 속에 파고 든다.

松澗邊에 携杖獨行하면 立處에 雲生破衲하고 竹窓下에 枕書高臥하면 覺時에
月侵寒氈이니라.

소나무 시냇가에 지팡이를 끌고 혼자 거닐면, 서 있는 곳에 구름이 헤진 옷에서 인
다. 대나무 창 아래 책을 베고 높이 누워 있으면, 잠 깼 때에 달이 찬 담요에 파고
든다.

249. 질병을 생각하면 불같은 정욕이 싸늘한 재로 변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명리에 대한 욕망이 일시에 가신다.

사람의 혈기가 한창 왕성할 때는 색욕이 또한 불같이 뜨겁게 타오른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믿고 젊음을 과시하며 무한한 욕정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자기의 소중한 젊음을 그렇게 무참하게 소비하다가, 젊음이 가고 건강도 가버린 뒤, 늙바탕에 어떤 병에 걸려 어떠한 모양으로 누워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갑자기 섬뜩해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불같이 타오르는 뜨거운 욕정을 식히려면 생각을 질병으로 돌려, 언젠가 병상에 누워 슬픔을 삼키고 있을 그때의 처참한 자신을 그려보는 것이다. 자신이 병들어 신음할 때의 생각,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흥취를 한꺼번에 가시게 하고, 그렇게도 불타오르던 뜨거운 정을 싸늘하게 식은 재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또 사람치고 명예와 이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명예에 취하고 이익에 취하여 앞뒤를 돌아다 볼 수가 없다. 그런데 名利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명예와 이익이 꿀같이 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보면 그토록 애착하여 마지 않던 그 꿀같은 맛이 어느새 변하여 마치 초를 맛보는 것 같은 역겨운 맛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죽음에 대하여 근심하고 병을 걱정하며, 앞을 내어다 보고 뒤를 돌아다 보며, 다시금 헛된 욕망으로 인한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색이니 이름이니 이익이니 하는 따위 꿈같은 환상으로부터 깨어나 길이 진실에 사는 참 마음을 길러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色慾이 火熾하나 而一念及病時하면 便興似寒灰하고 名利飴甘하나 而一想到死地하면 便味如嚼蠟하나니 故로 人常憂死慮病이면 亦可消幻業而長道心이니라.

색욕이 불 같이 뜨겁게 일어나나 한 생각이 병들 때에 미치면 문득 흥이 싸늘한 재와 같이 된다. 명리가 옛처럼 다나, 한 생각이 죽는 마당에 이르게 되면 문득 맛이 초를 씹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죽음을 걱정하고 병을 염려하면 또한 환상과 같은 일을 사르고 도의 마음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다.

250. 앞을 다투면 길은 자연 좁아지고, 한 걸음을 사양하면 길은 그 만큼 너르고 평탄해진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앞을 다투며 길을 가려면 그 길은 자연 좁기 마련이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남 먼저 보내고 간다면, 물러선 그만큼 길은 너르고 평탄할 것을 사람들은 그 한 걸음을 물러서지 못하고 서로 밀고 밀리며 아우성인 것이다.

부귀공명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어디 부귀공명을 마다할 사람이 있던가!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것,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양하며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공명을 얻는 길 또한 너르고 평탄할 것을 사람들은 서로 짓밟으며 앞을 다투니, 부귀공명시 어찌 인간의 그 무한한 욕구를 따를 수가 있겠는가!

부귀공명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그 화려하고 사치스런 취미는 사실 일시적인 것으로서 지극히 짧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입에 착 달라붙는 달고 진한 음식이 쉬 물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참으로 영원한 우리의 참 취미는 오직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물이나 밥과 같은 맑고 싱거운 음식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 때에 지나지 않는 부귀공명에 대한 생각을 욕심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려 영원한 인생의 참 취미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爭先의徑路는 窄하나니 退後一步면 自寬乎一步요 濃艷의滋味短은 清淡一分이면 自悠長一分이니라.

앞을 다투는 길은 좁으니, 뒤로 한 걸음을 물러나면 스스로 한 걸음을 너르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 된다. 화려하고 진진한 滋味(자미)는 짧으니, 一分만 담박하게 하면, 스스로 一分을 길게 하는 것이 된다.

251. 한가할 때 마음을 잘 닦아 두어야 바쁜 때 마음의 동요가 없고, 살았을 때 생사의 이치를 터득해 놓아야 고요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할 수 있다.

사람은 흔히 갑자기 바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보통 때 같으면 능히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일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덕이는 수가 있다. 이것은 평소에 자기의 마음으로 바깥 사물을 비추어 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을 바깥 사물의 장단에 맞추어 온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평소 한가한 때에 자기의 정신을 잘 길러서 어떠한 일에도 다시금 흐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닦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또 사람은 흔히 죽을 때를 당하게 되면 마음이 온통 동요되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삶에 대한 애착에 공연한 몸부림을 친다. 삶만 알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아니한 탓인가!

누구든 죽을 때를 당하여 마음의 동요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하려면, 살았을 때에 생사의 이치를 깊이 파헤쳐야 한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어 삶과 죽음은 하나요 또 이것은 한낱 꿈 같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궁극에 가서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다.

忙處에 不亂性이면 須閒處에 心神兩得淸이요 死時에 不動心이면 須生時에 事物看得破니라.

바쁜 곳에서 본성을 어지럽게 하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한가한 곳에서 정신을 기울여 맑게 하여야 한다. 죽을 때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거든 모름지기 살아 있을 때에 사물을 보아서 파헤쳐야 한다.

252. 은사(隱士)의 마음에 영예와 치욕이 따로 없고, 인의도덕에 인정의 덩고 찬 것이 없다.

은사가 사는 산 속에는 영예와 치욕이 따로 없다. 이미 세속의 온갖 이욕에서 벗어났거니 하필 산 속에 있지 않은들, 그 마음에 어찌 헛된 영예와 치욕이 남아 있겠는가!

도덕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이야 마음이 어디서 어제 오늘 다르랴! 먹을 것이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배 앓고 돌아서는 것은 오직 변덕 많은 세간의 인정이요, 도덕과 의리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眞情(진정) 하나로 꿰뚫어,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인정의 무상함이 없는 것이다.

隱逸林中에 無榮辱이요 道義路上에 無炎涼니라.

숨어 사는 숲 속에는 영예와 치욕이 없고 도덕과 의리의 길 위에는 덩고 찬 것이 없다.

253. 가난이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가난에 대한 근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면 마음은 항상 안락한 속에 머물게 된다.

한 여름의 더위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요, 또 구태여 피해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다. 덥다 덥다 하며 마음을 온통 더위에 버둥대면 더욱 더운 것이요,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만히 앉혀 두면 또 그런대로 더위를 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덥다고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곳을 찾아 다닐 것이 아니라 더워하는 마음, 더위를 못 견디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면 더위는 곧 가시게 되는 것이다. 덥고 시원한 것은 오직 이 마음 하나에 달린 것, 더워하는 그 마음만 제거하면 그 몸은 항상 맑고 시원한 곳에서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가난을 마치 현신짝 버리듯 내다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이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오직 사람의 마음에 매인 것. ‘가난을 어찌하나’하며 애를 태우면 더욱 슬프고 괴로운 것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니’하고 생각하면,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다. 또 아무리 부자라도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을 버릴 생각을 말고, 가난을 두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빼어버린다면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熱不必除라 而除此熱惱면 身常在清涼臺上이요 窮不可遣이라 而遣此窮愁면 心常居安樂窩中이니라.

더위는 반드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니 더워하는 괴로운 마음을 제거하면 몸은 항상 맑고 시원한 돈대[台(태)] 위에 있을 것이다. 가난은 보낼 수 없는 것이니, 이 가난에 대한 근심을 보내 버리면 마음은 항상 안락한 집 속에 있을 것이다.

-
- 熱惱(열뇌): 더위를 괴로워하는 마음.
 - 窮(궁): 가난.
 - 窮愁(궁수): 가난을 근심하는 마음.

254. 앞으로 나아갈 때는 뒤로 물러설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고, 일을 착수할 때는 손을 떼야 할 때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한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알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미 물러설만한 때에 물러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나아가는데 뒤로 물러설 것을 생각해 두지 않는다면, 마치 羊(양)이 곧장 앞으로만 나가다가 울타리에 뿔을 받고 더 이상 나갈 수도 들어 갈 수도 없는 경우와 같은, 불행한 일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사람은 일을 시작할줄만 알고 손을 떼야 될 때에 가서 손을 뗄 줄을 모르면 안 된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만일의 경우 늦기 전에 손을 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일 일을 시작하는데 그만 두어야 할 때를 미리 생각해 두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事勢(사세)가 기울기 시작할 경우 손을 떼야 할 알맞은 때를 놓치고, 나중에는 일이 이미 틀린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끝장을 보게 되는 수가 많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의 등에 업힌 사람이 잡아먹힐 것이 두려워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위험한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업혀 가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進歩處에 便思退步면 庶免觸藩之禍요 著手時에 先圖放手면 纔脫騎虎之危니라.

걸음이 나아가는 곳에 문득 걸음을 물러설 것을 생각하면, 거의 울타리를 받을 화를 면할 것이다. 손을 뗄 때 먼저 손을 놓을 것을 생각해 둔다면 비로소 범을 타는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 觸藩(촉번): 이 말은 《周易(주역)》〈大壯(대장)〉의 ‘羝羊觸藩(지양촉번)’에서 나온 말이다. 곧 양이 앞만 보고 곧장 나가다가 울타리에 뿔을 받고 떼지 못하여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255. 탐욕이 많은 사람은 권문세가요 부호라도 항상 부족에 걸근거리며 구걸하기를 좋아하니, 이는 곧 돈 많은 걸인이요 가난뱅이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는 것인가! 그만하면 만족하여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을 공연히 남의 것을 얻지 못하여 걸근거리는 사람은 금을 듬뿍 떼어 준대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그 위에 보석을 얻지 못한 것을 두고 한을 한다. 또 귀족 중에서도 가장 귀한 公爵(공작)의 작위에 봉해 주어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영토를 많이 봉해 받는 諸侯(제후)가 되지 못하여 불평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權門勢家(권문세가)요 富豪(부호)이면서 구차하게도 거지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권세 좋고 부호면 무엇 하는가! 마음은 항상 무엇한 가지 더 얻을 것이 없나 하며 부족에 걸근거리니 이것이 권세 좋은 거지요, 돈 많은 거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은 명아주나 물국을 알기를 살찐 고기와 쌀밥만큼이나 달게 여기고, 굶은 벼룩을 여우 가죽, 담비 가죽 옷만큼이나 따뜻하게 여기며 어디를 가나 항상 감사하여 부족이라고는 모르니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 그러므로 몸은 비록 보잘것없는 신분이라 아무도 알아주는 이는 없어도 걱정 없는 마음, 편안하고 즐거운 그 마음이야 더없이 귀하신 王公(왕공)이라고 어디 이만 할까! 왕공에게도 사양할 수 없는 것이다.

貪得者是 分金에도 恨不得玉하고 封公에도 怨不受侯하나니 權豪도 自甘乞丐요 知足者は 藜羹이 旨於膏粱하고 布袍煖於狐貉하나니 編民도 不讓王公이니라.

얻기를 탐하는 사람은 금을 나누어 주어도 옥을 얻지 못한 것을 한하고, 公(공)을 봉해 주어도 侯(후)를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나니 권세 있고 부호인데도 스스로 빌어먹는 것을 달게 여긴다.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은 명아주국이 살찐 고기와 쌀밥보다 맛있고, 벼룩이 여우와 담비 가죽 옷보다도 따뜻한 것이니 서민으로도 王公(왕공)에게 사양치 않는다.

-
- 黎羹(여갱): 黎(려)는 명아주요, 羹(갱)은 국이니, 곧 명아주국이다.
 - 膏粱(고량): 살찐 고기와 흰 쌀밥.
 - 布袍(포포): 서민이 걸치는 굵은 베옷.
 - 狐貉(호학): 여우와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
 - 編民(편민): 戶籍(호적)에 엮여진 백성, 곧 일반 서민을 말한다.

256. 보잘것없는 이름을 자랑하며 뽐내는 것처럼 보기 딱한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이름인데도 드러내기를 부끄러이 여기는 만큼 흐뭇한 일도 없다.

세상에 보기 딱한 것은 자랑할 만한 이름이 못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남의 앞에 자랑하며 큰 체하는 것이다.

또 참말로 보기에 흐뭇한 것은 크게 자랑할 만한 이름인데도 그 좋은 이름을 안으로 감추어 스스로 드러내기를 부끄러이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려 애쓰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안으로 거두며 되도록 그 이름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만 못한 것이다. 진실로 훌륭한 이름은 감추려 하면 할수록 더욱 멀리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일에 다 익숙해서 된 일, 안 된 일 가릴 것 없이 마구 떠맡아 해치우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일을 하되,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엄격히 가려 긴하지 않은 일은 다 털어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는 점이 훨씬 한가롭고 효과적이어서 좋은 것이다.

矜名은 不逃名趣요 練事는 何如省事閒이리요.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이름에서 도피하는 취미만 같지 못하고, 일에 익은 것이 일을 털어서 한가함만 어떻게 같겠는가!

257. 천지만물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무차별계(無差別界)에서 노는 사람에게는 고요와 시끄러움이 따로 없고 번영과 쇠퇴가 따로 없다.

고요를 좋아하는 사람은 깊은 산 속의 흰 구름과 그윽한 돌을 보고서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저 혼자 즐거워한다.

마음이 허영에 들떠 영화에만 달리는 사람은 변화한 곳 아름다운 노래와 묘한 춤을 보고서 권태로움을 잇는다.

그러나 고요한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화에도 또한 마음 빼앗기지 않는 오직 천지만물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무차별계에서 노는 사람은 그 두 끝을 다 초월하여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따로 없고 번영과 쇠퇴가 따로 없다. 그리하여 변화로운 곳이든 고요한 산속이든 이 하늘 아래 어디를 가나 다 자기가 설 땅이요, 자기가 즐거이 노닐 곳이어서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릴 것이 없는 것이다.

嗜寂者는 觀白雲幽石而通玄하고 趨榮者는 見清歌妙舞而忘倦하나니 唯自得之士야 無喧寂하며 無榮枯하여 無往非自適之天이니라.

고요를 즐기는 사람은 흰 구름과 그윽한 돌을 보고서 玄妙(현묘)한 것에 통하고, 영화로 달리는 사람은 맑은 노래와 묘한 춤을 보고서 권태를 잇는다. 오직 스스로 터득한 선비야 시끄러움도 고요함도 없으며, 번영함도 쇠퇴함도 없어서, 가서 스스로 멋대로 즐길 수 있는 천지 아닌 것이 없다.

• 通玄(통현): 玄妙(현묘)한 진리. 곧 만물의 근원인 道에 통달함.

258. 하늘에 구름은 가나 오나 걸릴 것이 없고, 하늘에 달은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세상을 차별 없이 비취 준다.

한 조각 외로운 구름이 산 굴에서 뭉개 피어올라 가나 오나 머무르나 하나같이 걸릴 것이 없다.

하늘에 동실 밝은 달은 고요한 세상이라고 더 비추어줄까, 시끄러운 세상이라고 덜 비추어줄까, 고요하던 시끄럽든 아랑곳 없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골고루 비추어 준다.

오직 철없는 인생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멀고 가까운 온갖 부질없는 생각에 얽매어 스스로를 속박하고 스스로 차별을 지으며 자기의 인생을 끊임없이 웃고 울고 하는 것이다.

孤雲이 出岫에 去留를 一無所係하고 朗鏡이 懸空에 靜躁를 兩不相干이니라.

외로운 구름이 산굴에서 나오매 가고 머무름을 한 가지로 걸리는 바가 없고, 밝은 달이 하늘에 걸리매 고요하고 시끄러움을 둘 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
- 岫(수): 바위구멍으로 산이 움푹 파인 곳, 산굴을 말한다.
 - 朗鏡(낭경): 밝은 거울, 곧 明月.

259. 인생의 진정한 맛은 부귀영화와 진하고 맛 좋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렴결백한 속에서의 콩죽 먹고 찬물 마시는 가운데 있다.

인생의 그윽하고 편안한 맛은 부귀영화 속에서의 입에 착 달라붙는 그 진하고 맛 좋은 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청렴결백한 속에서 콩죽 먹고 찬물 마시는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슬픈 情懷(정회)란 메마르고 쓸쓸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하나마 맑고 깨끗한 속에서 피리 불고 거문고 뜯는 여기서 솟아나는 것이다. 참말로, 짙고 화려한 맛은 언제나 그 한때뿐이요, 거문고와 피리와 같은 담박한 맛, 이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맛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悠長之趣는 不得於醞釀이라 而得於啜菽飲水하고 惆悵之懷는 不生於枯寂이라 而生於品竹調絲하나니 固知濃處에 味常短이요 淡中에 趣獨眞也니라.

깊고 그윽한 취미는 진하고 맛 좋은 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콩을 씹고 물을 마시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슬픈 생각은 메마르고 적막한 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피리를 불고 거문고를 고르는 데에서 생긴다. 진실로 짙은 곳에서의 맛은 항상 짧고, 맑은 가운데의 취미만이 홀로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겠다.

-
- 醞釀(농염): 텅텅한 술이니, 곧 진하고 맛이 씩 좋은 술을 의미한다.
 - 品竹調絲(품죽조사): 品(품)은 評(평)한다는 뜻이요, 竹(죽)은 피리와 통소 따위 대로 만든 악기요, 調(조)는 고르다는 뜻이요, 絲(사)는 거문고 따위 모든 현악기를 말한다. 곧 피리를 불고 거문고를 탄다는 말이다.

260.도(道)라고 하는 것은 배 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가운데 있다.

언어와 문자를 떠나 참선을 위주로 하는 불교의 선종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배 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

라고.

그리고 詩(시)의 뜻을 설명하기를,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이 그대로 시요, 입에서 흘러 나오는 말이 그대로 다 시가 된다.”고 하였다.

經典(경전)도 없이 참선을 통하여 천지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도 배 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듯 평범하고도 자연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득히 먼 것을 그려보고 특수한 말을 엮는데 시의 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입에서 흘러 나오는 말 그대로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여기에 시의 참 뜻이 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지극히 높고 지극히 어려운 것, 곧 만물의 근원이 되는 道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쉬운 우리의 생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러 애써 꾸미고 기교를 부리면 도리어 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요, 자연의 가운데 마음을 놓아 애써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 일부러 힘쓰는 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와 無心한 경지라야 참으로 도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禪宗曰 饑來喫飯 倦來眠이라 하고 詩旨에 曰, 眼前景致頭語라 하니 蓋極高는 寓於極平하고 至難은 出於至易하나니 有意者는 反遠이요 無心者는 自近也니라.

禪宗(선종)에 이르기를

“주림이 오면 밥 먹고 졸음이 오면 잠 잔다.”고 하고

詩(시)의 뜻에 이르기를

“눈 앞의 경치요 입으로 하는 말이다.”고 하였다.

대개 지극히 높은 것은 지극히 편편한 곳에 있고, 지극히 어려운 것은 지극히 쉬운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이 있는 것은 도리어 멀고, 마음이 없는 것은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이다.

-
- 禪宗(선종): 언어와 문자를 떠나 참선을 위주로 하는 불교의 한 종파.

261. 인생은 유심(有心)한 경계를 벗어나 산처럼 구름처럼 대자유의 무심한 경계로 들어가야 한다.

큰 강물 흐르는 곳. 그 물가에서 바라보면 물은 사철을 두고 흐르는데 그 어디에도
고요한 채 소리가 없다. 여기에 우리네 철없는 인생은 시끄러운 세상에 몸담고 있
으면서 그 시끄러움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보는 참 취미
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산이 저렇게 높이 솟아 있어도 구름이 오가는 데 조금도 거치적거릴 것이 없다. 산
도 무심하고 구름도 무심하여 다같이 자유자재로운 경계에서 놀거니, 티끌만큼인
들 어찌 서로 방해됨이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네 有心(유심)한 인생은 욕심 경계에 마음을 두는 그 유심한 경계에서
벗어나 산처럼 구름처럼 大自由(대자유)의 무심한 경계로 들어가는 기회를 깨달
아 알 수 있는 것이다.

水流而境無聲하나니 得處喧見寂之趣하고 山高而雲不碍하나니 悟出有入無之機
니라.

물은 흐르나 경지에 소리가 없으니 시끄러운 곳에 처하여 고요를 보는 취미를 얻
는다. 산은 높아도 구름이 걸리지 아니하니, 有에서 나와서 無로 들어가는 기회를
깨달을 수 있다.

**262. 마음에 애착을 버리면 티끌 세상도 신선의 세계요, 마음에 애착을 끊지 못하면
즐거운 세상도 괴로운 바다다.**

산 좋고 물 맑은 山林 속은 티끌 세상과 멀리 떨어진 참말로 좋은 곳이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곳도 사람들이 한 번 여기에 맛들여 지나치게 동경한 나머지, 산림 속에 별장을 짓고 큰 길을 낸다고 하면 이곳도 또한 티끌 세상으로 변하여 번잡한 市街(시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참말로 고상하고 신선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탐욕하여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 서로 좋은 것을 얻어 가지려다가 결국엔 골동품 장사치처럼 되어 버린다.

세상에는 티끌 세상이 따로 없고 신선의 세계가 따로 없으며, 즐거운 세상 괴로운 세상이 따로 없다. 사람의 마음에 물들리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 비록 욕심 세계에 몸담아 있으나 이 곳이 곧 욕심 없는 신선이 사는 마을이요, 또 마음에 유독 걸리는 것이 많고 못 견디게 동경하는 것이 있으면 비록 즐거운 세상에 몸담아 있으나 그곳이 다름 아닌 괴로운 세상인 것이다.

山林은 是勝地로되 一營戀이면 便成市朝요 書畵는 是雅事로되 一貪癡면 便成商賈하나니 蓋心無染著이면 欲界도 是仙都요 心有係戀이면 樂境이 成苦海矣니라.

산과 숲은 좋은 곳이지만 한 번 연모하여 지으면 문득 市街(시가)와 朝廷(조정)을 이루게 된다. 글씨와 그림은 고상한 일로되 한 번 탐욕하여 빠져버리면 문득 장사치가 된다.

대개 마음이 물들여지고 집착하는 것이 없으면 욕심 세계도 이 신선의 고을이요, 마음에 걸리고 연모하는 것이 있으면 즐거운 경계가 괴로운 세상을 이루게 된다.

263. 사람은 항상 안으로 고요를 지켜 바깥 경계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함으로써 또렷한 기억력과 밝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 안으로 고요를 지키지 못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한 바깥 사물에 끌려다니게 되면, 보통 때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일도 아득한 옛 일인 듯 다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마음이 바깥 사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이미 잊어버린지 오랜 먼 옛 일도 어제의 일인 듯 눈 앞에 훤히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은 바깥 경계가 고요하냐 시끄러우냐에 따라 잊었던 일을 기억해낼 만큼 밝아지기도 하고, 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일마저 아득히 잊어버릴 정도로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時當喧雜하면 則平日所記憶者도 皆漫然忘去하고 境在清寧하면 則夙昔所遺忘者도 又恍爾現前하나니 可見靜躁稍分에 昏明頓異也니라.

때로 시끄럽고 번잡한 일을 당하게 되면 곧 평일에 기억했던 것도 다 아득히 잊어버린다. 맑고 편안한 경지에 있으면 곧 지나간 옛날에 잊어버린 것도 또한 훤히 눈앞에 나타난다. 고요하고 시끄러운 것이 조금 나뉘는데 어둡고 밝은 것이 별안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恍爾(황어): 눈에 보이는 듯 환한 모양.

264. 갈대 이불 아래 구름에 잠잘지라도 순결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고, 덧잎 잔에 달을 희롱하면 티끌을 벗어날 수 있다.

갈대솜털 이불을 덮고 눈 위에 누우며 구름 속에 잠잘지라도, 내가 사는 가난한 움집 속에서도 한 점 망령된 생각이 없는 오직 순결한 마음, 인간의 그 소중한 참 마음을 오롯하게 간직할 수가 있다. 덧잎 술잔을 기울이며 맑은 바람을 읊조리고 밝은 달을 더불어 놀면 이 몸은 훌쩍, 만발이나 뻗쳐오르는 티끌 속을 벗어나, 길이 욕심 없는 경계에서 한가로움을 누릴 수가 있다.

蘆花被下에 臥雪眠雲이라는 保全得一窩夜氣요 竹葉杯中에 吟風弄月이라도 躲離了萬丈紅塵이니라.

갈대꽃 이불 아래 눈에 눕고 구름에 잠잘지라도 한 움집의 마음기운을 보전해 덮을 수 있다. 덧잎 술잔 속에 바람을 읊고 달을 희롱할지라도 만발이나 뻗쳐오르는 먼지를 피하여 떠나버릴 수 있다.

-
- 蘆花被(노화피): 갈대의 솜털을 넣어서 만든 이불. 곧, 貧寒(빈한)한 집 이불.
 - 夜氣(야기): 맹자가 말한 수양하는 방법 가운데 '存夜氣(재야기)'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낮에는 여러 가지 보고 듣고 겪는 일 가운데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 자기의 참 마음인 본성을 잃어버리기 쉬우나,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면 본래의 순결한 마음으로 돌아가 망령된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을 夜氣(야기)라고 한다.
 - 竹葉杯(죽엽배): 竹葉(죽엽)이란 술 이름으로 덧잎을 삶은 물에 빻은 술을 말한다. 竹葉杯란 덧잎 모양을 한 술잔이다.
 - 躲離(타리): 躲(타)는 피한다는 뜻으로 훌쩍 몸을 피하여 티끌 세상을 떠나버린다는 말이다.
 - 萬丈紅塵(만장홍진): 만발이나 뻗쳐 오르는 먼지. 곧 티끌 세상, 속된 세상을 가리킨 말.

265. 짙고 화려한 맛은 맑고 깨끗한 맛을 따를 수 없다.

화려한 예복 차림의 높은 벼슬아치들이 지나가는 행렬 가운데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명아주대 지팡이를 짚은 욕심 모르는 山사람이 끼어 있다고 하면, 그 행렬은 한결 높은 품취를 더하게 될 것이다. 고기잡이며 나무꾼들이 오가는 깨끗한 길 위에 화려한 예복을 입은 한 높은 벼슬아치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 길은 온갖 속된 냄새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참말로 짙고 화려한 것은 맑고 깨끗함만 못하고, 속된 것은 고상함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衰冕行中에 著一藜杖의 山人이면 便增一段高風이요 漁樵路上에 著一衰衣의 朝士면 轉添許多俗氣니 固知濃不勝淡하고 俗不如雅也라.

곤룡포 · 면류관의 행렬 가운데 하나의 명아주대의 지팡이를 짚은 산 사람이 끼어 있으면 문득 한층 높은 품취를 더할 것이다. 고기잡이와 나무꾼들이 오가는 길 위에 하나의 곤룡포 입은 조정의 벼슬아치가 끼어 있으면 문득 허다한 속된 기운을 더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짙고 화려한 것은 담박한 것을 이기지 못하고, 속된 것은 고상한 것만 같지 못하다.

• 衰冕(곤면): 곤룡포 · 면류관이라 하면 임금의 정복(正服)이나, 여기에서는 고관(高官)의 예복 예관을 뜻한다.

266. 티끌 세상에 있으면서 티끌에서 벗어나고,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자기 본연의 심성을 깨닫는 여기에 수양의 참 뜻이 있다.

티끌 많은 세상, 속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속세를 아주 떠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이다. 속세에 몸담아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아니 하고 홀로 淸淨(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이것이 참으로 티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본연의 심성을 깨닫는 공부는 반드시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고 마음을 마치 식은 재처럼 싸늘하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도 남들처럼 세상 일에 마음을 극진히 쓰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 일에 마음을 쏟는 가운데 끊임없이 몸을 닦고 망령된 생각을 물리치며 내성적인 자기 수양을 거듭하여 마침내는 한 송이 마음의 참의 꽃을 꽃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일에 마음을 쏟으면서도 그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本性(본성)을 잃지 아니하고 본성의 참을 충실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참으로 자기의 심성을 깨닫는 것이다.

出世之道는 卽在涉世中이라 不必絶人以逃世요 了心之功은 卽在盡心內라 不必絶欲以灰心이니라.

世間(세간)을 벗어나는 길은 곧 세간을 건너가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반드시 사람과 인연을 끊어서 세간을 도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깨닫는 공부는 곧 마음을 극진하게 하는 속에 있는 것이라, 반드시 욕심을 끊어서 마음을 식은 재처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 出世之道(출세지도): 여기에서 出世(출세)라 함은 出世間의 뜻으로, 티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 了心之功(요심지공): 了心(요심)이란 자기의 心性(심성)을 환히 깨닫는다는 뜻이니, 곧 모든 망령된 생각을 버리고 본연의 심성을 깨닫는 것이다.

267. 몸과 마음을 항상 고요 속에 앉혀 두면 영예와 치욕, 시비와 이해, 그 무엇으로도 나를 그릇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없다.

내 몸을 항상 한가로운 곳에 두고서 세상의 어떠한 욕심 물결에도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앉아 있게 한다면, 영예와 치욕이며 利得(이득)과 손실 따위 뜬 구름 같은 것이 나를 어찌하랴! 이 세상에 누가 그런 허망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 내 몸을 그릇되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을 항상 고요 속에 편안하게 앉혀 두고서, 바깥 욕심 경계가 안으로 들어 오지도 못하고, 안의 참 마음이 밖으로 끌려 나가지도 않는다면 그 번거로운 是非(시비)와 利害(이해) 따위가 나와 그 무슨 상관이라! 이 세상에 그 누가 그런 허망한 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겠는가!

此身을 常放在閒處면 榮辱得失을 誰能差遣我며 此心을 常安在靜中이면 是非利害를 誰能瞞昧我리오.

이 몸을 항상 한가한 곳에 놓아두면 명예와 치욕과 얻음과 잃음을 두고 누가 능히 나를 어겨지게 할 수 있으며, 이 마음을 항상 고요한 가운데에 편안히 두면 옳음과 그름과 이익과 손해를 두고 누가 능히 나를 속이고 어둡게 하겠는가!

268. 산 속에서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구름 속 별천지요, 글방에서 매미 소리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고요 속 별천지다.

산 좋고 물 맑은 곳, 대나무 울타리 밑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를 듣노라면 황홀하게도 이 몸은 그대로 신선이 되어 구름 속 별천지에 나온 듯 세속의 온갖 먼지를 깨끗이 떨어버린다.

글방 속에서 시원한 매미 소리, 까마귀 지저귀는 소리를 듣노라면 비로소 이 마음 별천지에 들었는가, 마음은 그대로 천지의 고요 속에서 소요한다.

竹籬⁵下에 忽聞⁶犬吠鷄鳴하면 恍似⁷雲中世界요 芸窓⁸中에 雅聽⁹蟬吟鴉噪하면 方知¹⁰靜裡乾坤이니라.

대나무 울타리 밑에 홀연히 개 짖고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황홀하게도 구름 속의 세계와 같다. 글방 속에서 閒雅(한아)하게 매미 울고 까마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바야흐로 고요 속의 천지를 알 수 있다.

• 芸窓(운창): 글 읽는 방의 창, 곧 글방.

• 乾坤(건곤): 天地(천지).

269. 영달을 바라지 않거니, 이록(利祿)의 미끼가 나와 무슨 상관이라 !

세상에서 뜻 아니 자기 몸을 망치고 영원히 씻지 못할 욕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은 다 부귀영화에 마음이 혹한 나머지 큰 이익과 祿俸(녹봉)이라는 미끼에 쉽사리 걸려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영달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면야 아무리 크고 많은 이익과 녹봉의 그 향기로운 미끼라도 내가 걱정할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 뿐인가!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앞을 다투지 않는다면 벼슬살이 하는 동안윗사람에게 애써 아부할 것도 없거니와, 또 행여 그 자리에서 밀려 나는 일 따위 두려워 할 것이 뭐 있겠는가!

我不希榮이면 何憂乎利祿之香餌며 我不競進이면 何畏乎仕官之危機리요.

내가 영화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록의 향기로운 미끼를 어찌 걱정할 것이며, 내가 진급을 다투지 않는다면 관리로서의 위기를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270. 군자가 때때로 산 속을 소요하고, 시와 책과 그림을 더불어 노는 뜻은 그것들을 빌려서 中正(중정)한 마음을 기르기 위함이다.

깊은 산 우거진 숲속, 샘물 사철 솟아오르고 돌들은 쭈뼛쭈뼛 서 있는데 그 사이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닐어 보면 세상을 사느라 물들여진 티끌 마음이 점점 씻기어 깨끗이 없어진다.

詩(시)와 책 속에 마음을 묻고 황홀한 그림 속에 나를 두고 놀아 보면, 세상에서 얻은 속된 기운이 언제 벌써 사라졌는가 자취가 없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며 고상한 취미인가! 그렇지만 군자의 마음이야 아무리 좋아해도 거기에 마음을 빠뜨리지 않는다. 군자가 때때로 산과 숲과 샘물과 돌들을 즐겨 함께 놀며, 시와 책과 그림 속에 마음을 담는 것은 거기에 혹해서가 아니다. 그 맑고 깨끗한 것들을 빌려서 티끌 마음 속된 기운을 씻으며, 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마음을 골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티끌 세상에 있으면서 티끌을 묻히지 아니하고, 속된 세상에 살면서도 속된 것에 물들지 않는 수양의 최고 경계를 얻기 위한 것이다.

徜徉於山林泉石之間하면 而塵心이 漸息하고 夷猶於詩書圖畫之內하면 而俗氣漸消하니 故로 君子雖不玩物喪志나 亦常借境調心이니라.

산과 숲과 샘물과 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티끌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시와 책과 그림 속에 머뭇거리면 속된 기운이 감추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비록 사물을 좋아하여 놀되 뜻을 잃지 아니하며, 또한 항상 환경을 빌려서 마음을 고른다.

• 徜徉(상양): 逍遙(소요)와 같다.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노니는 모양.

• 夷猶(이유): 머뭇머뭇하는 모양.

**271. 사람의 정신을 나른하게 하는 화려한 봄날보다 사람의 정신을 속속들이 맑게 틈
워 주는 사색의 가을이 훨씬 즐겁다.**

꽃 피고 새 우는 따뜻한 봄날은 그 기상이 한창 화려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려
놓고 나른하게 취하게 한다.

낙엽이 지는 쓸쓸한 가을날은 흰 구름 하늘에 높이 떠다니고 바람은 고요한데, 꽃
다운 난초에 예수나무 꽃 향기롭고, 물인지 하늘인지 오직 한 빛깔 푸르름 속에 하
늘과 땅이 온통 밝게 트여, 사람의 정신은 물론이요 뼈 속까지 한없이 맑고 시원하
게 틈워 준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몽롱하게 취하게 하는 봄날보다야 사
람들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고 정신을 맑고 초롱초롱하게 해주는 가을에 비
할 바이라!

春日은 氣象繁華하야 令人心神胎蕩하나 不若秋日의 雲白風淸하고 蘭芳桂馥하
며 水天一色에 上下空明하야 使人神骨俱淸也니라.

봄날은 기상이 한창 화려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심신을 나른하게 하나, 가을 날의
구름은 희고 바람은 사라지고 난초는 꽃답고 예수는 향기로우며, 물과 하늘은 한
빛인데 위 아래가 툭 트여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과 뺨속을 다 함께 맑게 해주는 것
만 같지 못하다.

272. 시에는 문자보다 시적 정취(情趣)가 있어야 하고, 선(禪)에는 언어와 문자를 떠나 마음으로 주고 받는 선의 참 취미가 있어야 한다.

글을 안다고 사람마다 다 詩(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적인 정취가 풍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 한 자를 모른다 해도 시적인 정취만 있다면야 이야말로 시인으로서 참 취미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靜寂(정적)의 무아경을 얻기 위한 禪(선) 공부는, 반드시 선에 대한 글귀를 연구한다고 선의 妙境(묘경)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언어와 문자를 떠나 오로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고 받는 妙法(묘법)으로 禪(선)에 들어 가는 선의 참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禪宗(선종)의 그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미묘한 작용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一字不識而有詩意者是 得詩家眞趣하고 一偈不參而有禪味者是 悟禪教玄機니라.

한 글자도 알지 못하면서 시의 뜻을 가진 이는 시인의 참 취미를 얻은 것이다. 한 글귀도 연구한 것이 없으면서 참선의 맛을 가진 이는 禪教(선교)의 玄妙(현묘)한 활동을 깨달은 것이다.

-
- 偈(게): 偈句(게구)로서 佛陀(불타)의 공덕을 찬미한 노래. 보통 4句(구)를 一偈(일게)로 하여 다섯 자에서 일곱 자를 一句(일구)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禪(선)의 本旨(본지)를 나타낸 글귀로 풀이한다.
 - 玄機(현기): 玄妙(현묘)한 작용을 말한다.

273. 마음이 동요되어 있으면 보이는 것이 다 나를 해칠 무서운 것들이요, 마음이 깨닫고 보면 모두가 나의 벗이요 흥겨운 음악소리다.

사람의 마음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엇엔가 동요되어 어수선했을 때는 잔 속에 비친 벽 위의 활(弓) 그림자가 엉뚱하게도 뱀처럼 보여 놀라서 병을 얻게 되고, 숲 속에 누워 있는 돌을 보고 자기를 해치려고 엮으려 있는 호랑이로 착각을 하고 활을 쏘게 되는 수가 있다. 말하자면 마음이 동요되어 있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자기를 해치려는 무서운 물건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여 동요됨이 없으면, 石虎(석호)라는 무서운 권력자도 바다 갈매기처럼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귀가 아프도록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도 흥겨운 음악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음이 고요하여 바깥 사물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모두가 제각기 본래 지니고 있는 참된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心性(심성)을 통하여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다.

機動的엔 弓影이 疑爲蛇蝎하고 寢石이 視爲伏虎하나니 此中은 渾是殺氣요 念息의은 石虎도 可作海鷗요 蛙聲도 可當鼓吹하나니 觸處에 俱見眞機니라.

心機(심기)가 동요할 적엔 활 그림자도 의심하여 뱀이라 하고, 누워 있는 돌도 보기를 엮던 호랑이라고 하니 이 속은 모두가 죽이는 기운이다. 생각이 설 적엔 石虎(석호)도 바다의 갈매기로 만들 수 있고 개구리 소리도 넉넉히 음악을 당할 수 있으니, 접촉하는 곳마다 한 가지로 참된 기틀을 보게 되는 것이다.

- 機動(기동): 心機(심기)의 동요를 말한다.
- 弓影疑爲蛇蝎(궁영의위사갈): 《晉書(진서)》의 《樂廣傳(악광전)》에서 나온 말이다. 내용은 벽 위에 걸 어둔 角弓(각궁: 뿔로 꾸민 활)이 술잔 속에 비친 것을 뱀으로 잘못 보고 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 寢石視爲伏虎(침석시위복호): 이 말은 《漢書(한서)》〈李廣傳(이광전)〉에서 나온 말이다. 곧, 숲 속에 누워 있는 돌을 호랑이가 엮으려 있는 것으로 잘못 보고 활을 쏘았다는 이야기다.
 - 石虎可作海鷗(석호가작해구): 《晉書(진서)》의 〈佛圖澄傳(불도징전)〉에 있는 말이다. '石虎(석호)를 바다 갈매기로 만들었다'는 말은 석호가 佛圖澄(불도징)을 섬기는 것을 보고 支道林(지도림)이 평한 말이다. 석호란 사람 이름으로 무서운 권력자다. 그토록 사나운 사람도 불도징의 높은 德(덕) 앞에서는 온순한 바다갈매기가 된다는 이야기다.
 - 蛙聲可當鼓吹(와성가당고취): 이것은 《南史(남사)》〈孔珪傳(공규전)〉에 있는 말이다. 孔珪(공규)가 자연을 즐겨 山水(산수)에 집을 짓고 뜰에 잡초가 우거진 그대로 버려두니, 풀 속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 이때 늘상 음악을 들려주던 王琬(왕안)이란 사람이 孔珪(공규)에게 “귀가 아프지 않느냐?”고 물었다.
- 공규는 대답하기를,
- “그대가 들려 주는 음악이 저 개구리 소리만 못하다.”
- 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274. 이 몸은 매인 곳 없는 배, 이 마음은 생기 없는 고목. 이래서 한 세상을 시비 떠나 살 수 있다.

망망한 바다 위에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배, 바람에 맡겨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가다가 바람이 자면 바람 자는 대로 멈춘다.

이 한 몸 매인 데 없는 배처럼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맡겨 오나 가나 是非(시비) 떠나 살면 근심 될 일 없을런가!

이제는 다 말라 죽은 나무, 칼질을 하니 슬퍼할까 향을 발라주니 기쁜 줄을 알까, 도무지 마음이 없다.

이 마음 죽은 나무처럼 좋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웃음과 울음을 떠나 마음 비워 두고 살면 걸릴 것이 없을런가!

身如不繫之舟라 一任流行坎止요 心似既灰之木이라 何妨刀割香塗리요.

몸은 마치 매이지 않은 배와 같은지라 오로지 흘러가고 멈추는 대로 맡길 따름이요, 마음은 흡사 이미 죽은 나무와도 같은지라 칼로 베거나 향을 바르거나 어찌 방해하겠는가!

275. 모두가 천부한 재주를 다 하는 것이어니, 꾀꼬리 소리라고 즐거울 것이 없고, 개구리 소리라고 듣기 싫을 것이 없다.

사람의 감정이란 그렇게도 알팍한 것일까! 꾀꼬리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귀엽다며 즐거워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시끄럽다며 싫어한다.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면 잘 가꾸어 보리라 마음 다짐하고, 잡초 우거진 것을 보면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든다. 꾀꼬리 소리는 무엇이기에 그다지 즐거워하며, 개구리 소리는 또 무엇이기에 그다지 싫어하는 것일까! 그리고 꽃은 뭐고 잡초는 무엇이기에 하나는 북돋아 주고 싶고 하나는 뽑아버리고 싶은 것일까!

이것은 철 없는 인생이 사물을 보기를 다만 그 겉모양과 기질만을 보고서 좋다, 나쁘다, 곱다, 밍다 등 차별을 지은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알고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의 성과 발전할 수 있는 힘을 타고난 우리네 인간이 하늘의 뜻에 따라 자기의 타고난 본성의 참을 극진하게 하며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듯 꾀꼬리 지저귀는 소리도 개구리 울어대는 소리도 다 천부의 재주를 다하는 하늘의 노래 소리요, 꽃이나 풀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을 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좋고, 싫고, 밍고, 곱고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人情이 聽鶯啼則喜하고 聞蛙鳴則厭하며 見花則思培之하고 遇草則欲去之하니 但是以形氣用事라 若以性天視之면 何者非自鳴其天機며 非自暢其生意也리요.

사람의 정이 꾀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 기쁘고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싫으며, 꽃을 보면 이것을 북돋아줄 생각이 나고 풀을 만나면 이것을 제거하고 싶다. 다만 이것은 모양과 기질로써 일을 하는 것이라 만약 천성으로써 이것을 본다면 어떤 것이 스스로 그 타고난 재주를 울리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그 생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니겠는가!

• 性天: 천성(天性), 곧 본연(本然)의 성(性)

276. 이 몸은 잠시와 머물렀다 가야 할 환영과 같은 거짓 몸이나, 이 속에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성(眞性)의 절대한 진리가 있다.

이 몸은 잠시와 머물렀다 시들어 없어질 幻影(환영)과 같은 거짓 몸이나, 이내 心性(심성)은 본연의 眞心(진심)으로서 허공과 같아 나는(生)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인생이 무상하다고 무상을 울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라! 그 젊고 풍만하던 몸이 갈수록 변하여 검은 머리털이 백발이 되어 빠져 엉성하고, 그 희고 곱던 이가 누렇게 되어 성겨져서 입술이 보기 싫게 우르러진다. 그러나 어찌하랴! 환영과 같은 거짓 형체는 모두가 그렇게 변하여 있고 없고 하는 것, 이내 몸 또한 임시로 빌려 받은 거짓 몸이니 어찌 항상 그대로 있기를 바라랴. 그저 이 몸일랑 거짓 형체의 나날이 시들어 변해가는 그대로 버려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 허망한 거짓 형체에 매달려 웃고 울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영원히 변함없는 만물의 본연의 性(성)으로 돌아가 보자.

새가 노래하고 꽃이 활짝 웃음 짓는 것, 이것은 분명 자연의 참의 소리를 노래하는 것이요, 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 모두가 주어진 본연의 性의 발현인 것을 여기에 무슨 거짓이 있을 수 있으며, 나고 없어지는 것이 있겠는가! 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덧없고 헛된 거짓 모양이요, 그 안에는 전혀 헛되지 아니한 본래의 眞性(진성)의 절대한 진리가 들어 있는 것이다.

髮落齒疎는 任幻形之彫謝요 鳥吟花笑는 識自性之眞如니라.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가 성기어지는 것은 거짓 형체가 시들어 변하는 대로 맡겨둘 것이요,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는 것은 자기 본래의 眞性(진성)의 眞如(진여)임을 알게 된다.

-
- 幻形之彫謝(환형지조사): 幻形(환형)이란 幻影(환영)과 같은 형체, 곧 임시로 빌려 받은 몸. 假相(가상)을 뜻한다. 彫謝(조사)란 사람의 형체가 늙어서 시들어 변하는 것을 말한다.
 - 自性之眞如(자성지진여): 이것은 佛家(불가)에서 쓰는 말로서, 自性(자성)이란 본래부터 갖추어 있는 성(성) 곧 眞性(진성)으로 이것을 佛性(불성)이라고 한다. 眞如(진여)란 眞實如常(진실여상)이란 뜻으로 生(생)함도 滅(멸)함도 없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眞相(진상). 곧 우주 萬有(만유)의 실현으로 平等 無差別(평등무차별)한 절대적 진리를 말한다.

277.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모진 더위 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듯, 시끄러운 장바닥에서도 시끄러운 줄을 모른다.

마음 속이 헛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마치 차가운 연못에서 물결이 끓어 오르듯 마음이 항상 어수선하여 한적한 깊은 산림 속에 그 몸을 갖다 놓아도 고요를 전혀 맛볼 수가 없다.

마음에 욕심이 없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마치 모진 더위 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일듯, 사람이 구름 모이듯 모인 시끄러운 속에서도 마음은 항상 고요 속에 잠겨 시끄러운 줄을 모른다.

욕심 없는 사람은 이제 무심한 경계에 들었거니, 한적한 산 속이든 시끄러운 장바닥이든 그 무엇이 다르랴! 오직 마음의 고요가 있을 뿐이다.

欲其中者是 波沸寒潭하야 山林도 不見其寂하고 處其中者是 冷生酷暑하야 朝市도 不知其喧이니라.

그 중심을 탐욕하게 하는 사람은 찬 못에 물결이 끓어 올라서 산림에서도 그 고요를 보지 못한다. 그 중심을 텅 비워두는 사람은 모진 더위에서도 서늘함이 생겨서 장터에서도 그 시끄러운 줄을 모른다.

• 朝市(조시): 조정과 시장. 곧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뜻한다.

278. 부귀하고 근심 많은 것이 빈천하고 근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재물을 많이 저장해 둔 사람은 그만큼 근심도 많고 또 망하기도 크게 망한다. 여기서 우리는 돈 많고 근심 많은 것이 가난하고 근심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명예와 이익을 좇아 끊임 없이 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높은 양반은 그만큼 빨리 떨어지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고귀한 양반이 벼슬 없고 편안함만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多藏者是 厚亡하나니 故로 知富不如貧之無慮하고 高步者是 疾顛하나니 故로 知貴不如賤之常安이니라.

많이 저장하는 사람은 많이 망한다. 그러므로 부자가 가난하고 근심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아야 한다. 높이 걷는 사람은 빨리 떨어진다. 그러므로 고귀한 것이 비천의 항상 편안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79. 새벽 창 아래서 주역(周易)을 읽고, 한낮엔 벼들과 불경을 이야기하며, 대숲 사이 맑은 바람 뚫고 오는 경쇠 소리에 마음을 씻는다.

만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무렵, 그 거룩한 새벽 창 아래서 천지변화의 심오한 이치를 담은 周易(주역) 책을 읽는다. 벼루 들고 소나무 사이 이슬 받아 붉은 먹을 갈아서 구두점을 찍으며 注(주)를 단다.

한낮이 되면 책상 위에 佛經(불경)을 펼쳐 놓고 벼들과 둘러 앉아 우주의 實相(실상)을 이야기 한다. 어느 절간에선가 대나무 사이 맑은 바람 뚫고 오는 경쇠 소리! 온갖 먼지를 쫓는다. 마음을 씻어낸다.

讀易曉窓에 丹砂를 研松間之露하고 談經午案에 寶磬이 宣竹下之風이나라.

새벽 창에 주역을 읽는데 붉은 먹을 소나무 사이 이슬로 갈고, 한낮 책상 위에 불경을 이야기하는데 경쇠 소리가 대나무 밑 바람을 치고 온다.

-
- 易(역): 易經(역경) 또는 周易(주역), 五經(오경)의 하나. 周(주)나라 때 文王(문왕)과 周公孔子(주공공자)에 의하여 大成(대성)된 책으로, 천지변화의 심오한 이치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 丹砂(단사): 朱墨(주묵), 곧 붉은 먹. 책을 정독할 때 구두점이나 註(주)를 다는 데 소용이 된다.
 - 經(경): 여기에서는 佛經(불경)을 의미한다.
 - 寶磬(보경): 절에서 울리는 경쇠. 옥이나 돌로 만든 악기의 한 가지로 절에서 사용하는 것.

280. 새들이 아무리 즐겁게 노래하여도 장 속에 갇혀 타고난 본성을 묶이게 되면 천연의 멋은 점차 사라진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자연의 본 고향을 벗어나 분 속에 옮겨지면, 마지막엔 생생한 기운을 잃고 시들어버린다.

새들이 아무리 즐겁게 노래 하여도 마찬가지로 본 고향을 벗어나 조롱 속에 갇혀 타고난 本性(본성)을 묶이게 되면, 天然(천연)의 그 미묘한 멋은 점점 사라져 마침내는 찾아 볼 수가 없게 된다.

그것들의 진정한 취미는 자연과 그리고 자유! 山間(산간)에서 온갖 꽃이요, 새들이 한데 얹히고 설켜어 울긋불긋 아름다운 文彩(문채)를 이루는 것만 그 어디가 갈 수 있으며 훨훨 제 멋대로 날며 타고난 본성의 참을 마음껏 노래하는 즐거움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花居盆內에 終乏生機하고 鳥入籠中에 便滅天趣하나니 不若山間花鳥의 錯集成文하며 翱翔自若하야 自是悠悠會心이니라.

꽃이 분 안에 있으면 마침내 生氣(생기)가 모자라게 되고, 새가 조롱 안에 드매 문득 天然(천연)의 妙趣(묘취)를 감한다. 산간의 새 한데 얹히고 뭉쳐 문채를 이루며 훨훨 자유로이 날아서 스스로 한가로이 즐기는 것만은 못한 것이다.

281. 우주만물은 본래 무차별한 것을 사람이 공연히 ‘나’라는 거짓 형체에 집착하여 스스로 차별을 짓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라고 하는 것을 참된 것으로 잘못 알고, ‘나’라는 한 글자에 매달려 나와 남의 구별을 지으며 지나치게 애착하여 잠시도 떠날 줄을 모른다. 여기서 사람들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온갖 차별적인 세상을 스스로 지어서 이에 뒤따르는 온갖 시달림과 괴로움을 스스로 받으며 웃고 울고 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항상 그대로 있는 참의 모습이 아니요, 나서는 늙고 늙어서는 병들고 병들어서는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덧없고 헛된 거짓 형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토록 허망한 나인 것을 무얼 믿고 그다지 매달려 허둥댄단 말인가! 더구나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만물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거나 네오 내오 다를 것이 무엇 있으며, 내 것이 어디 있고 남의 것이 또 어디 따로 있던 말인가! 그러기에 옛 사람이 이른 말이 있다.

“다시금 나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미 욕심을 떠났거나, 만물 가운데 귀한 것이 어디 있고 천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귀천의 차별이 근거할 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 몸은 참 내가 아니요, 언젠가 없어져야 할 거짓 형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욕심으로 인한 갖은 시달림과 괴로움이 또 다시 어떻게 내 마음을 침범하려 들겠는가!”하였다.

이 두 가지 말은 참말로 이치에 꼭 들어맞는 훌륭한 말임에 틀림이 없다.

世人이 只緣認得我字太眞이라 故로 多種嗜好와 種種煩惱하니 前人云 不復知有我면 何知物爲貴며 又云 知身不是我면 煩惱更何侵하니 眞破의之言也니라.

세상 사람이 다만 ‘我(아)’라는 글자를 알기를 아주 참된 것으로 알고 의지한다. 그

러므로 갖가지의 즐기고 좋아하는 것과 갖가지의 시달림과 괴로움이 많은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다시금 내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물건이 귀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하였고, 또 말하기를,
“몸이 내가 아닌 것을 안다면 번뇌가 다시 어떻게 침범하겠는가!”
하니, 참말로 과녁을 꿰뚫은 말이다.

282. 늙었다 생각하고 젊은 때의 나를 돌아보고 영락하였다 생각하고 번영하던 때의 나를 바라보면 불타던 욕망도 사치스런 생각들도 일시에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사람은 무한한 욕망을 따라 하루도 마음 고요할 날이 없이 허다한 날을 뛰고 달리며 경쟁에 여념이 없다. 그리하여 그 불같은 욕망은 늙어서도 버리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아주 노쇠하여 활동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을 무렵에야 비로소 마지못하여 물러난다.

自信(자신)과 기대에 가득 찬 젊었을 그때야 그것이 그토록 부질없는 일임을 알 턱이 없다. 그러나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늙은이의 입장에서 욕망에 불타는 한창 때의 나를 한 번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 功名(공명)에 쫓겨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겠다고 악착을 부리던 그 끈질긴 경쟁심이 슬며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다.

또 사람은 한창 잘 되어 부귀며 영화를 한꺼번에 누리게 되면 마음이 온통 화려한 것에만 치달아 사치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부귀영화란 덧없고 헛된 것, 또 繁榮(번영)의 뒤에는 반드시 零落(영락)이 뒤따르는 법, 아차 한 번 떨어지는 날이면 사치가 다 무언가! 괴롭고 쓸쓸한 마음 비길 데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영락하였다고 생각하고 곤궁에 허덕이는 쓸쓸한 입장에서 한창 좋은 때 온갖 사치를 다하던 그때의 나를 바라보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라!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을 즐겨 찾던 그 사치스러운 생각들이 한꺼번에 꺼져버리고 말 것이다.

自老視少면 可以消奔馳角逐之心이요 自瘁視榮이면 可以絕紛華靡麗之念이니라.

老境(노경)에서 젊은 시절을 바라보면 그것으로써 분주하게 달리며 서로 앞서려고 경쟁하는 마음을 녹여 없앨 수가 있다. 쇠망한 처지에서 번영한 때를 바라보면, 그로써 변화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생각을 끊을 수가 있다.

283. 옛날에 내 것이라고 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바뀌어 저 사람의 것이 되니, 알 수 없구나! 오늘의 내 것이 또 뒤에 올 그 누구의 것이 될지!

人情(인정)과 세태, 아니 세상만사는 잠깐 동안도 천만 가지로 변화하여 어느 한 가지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잠시도 쉬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그 덧없고 허망한 것들을 참된 것으로 지나치게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옛날 堯夫邵康節(요부소강절) 선생의 말이 있다.

옛날에 내 것이라고 하던 것이 오늘날에는 바뀌어 저 사람의 것이 되니, 알 수 없구나! 오늘의 내 것이 또 뒤에 올 그 누구의 것에 속할는지! 참말로, 사람이 항상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여 네 것, 내 것에 대한 생각을 툭 띄어버린다면, 그 동안 마음 가운데 자리잡고 있던 걸리고 얽매이는 것들이 시원하게 풀려 아무 거리낌이 없이 홀가분하게 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人情世態는 倏忽萬端이라 不宜認得太眞이니 堯夫云 昔日所云我에 而今却是伊요 不知今日我라 又屬後來誰오하니 人當作是觀이면 便可解却胸中胃矣니라.

인정과 세상의 형편은 잠깐 동안에 만 가지의 실마리라. 너무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堯夫(요부)가 말하기를,

“옛날에 내 것이라고 말하던 것이 오늘엔 도리어 이것이 저의 것이요, 오늘의 내 것이 알 수 없구나. 또 뒤에 올 누구의 것에 속할 것인지!”라고 하였다.

사람이 항상 이런 생각을 짓는다면 문득 가슴 속의 얽매인 것을 풀고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 堯夫(요부): 宋代(송대)의 유학자 邵康節(소강절)의 字(자).

• 伊(이): 彼(피)와 같다.

• 胃(견): 얽어 매인다, 걸린다는 뜻이다.

284. 시끄러운 속에서는 냉정한 눈을 부쳐 생각을 간추리고, 심한 곤궁 속에서는 한 마음 뜨거운 열을 올려 맹렬하게 떨치고 일어난다.

사람은 흔히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上氣(상기)가 된 채 일의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가 많다.

또 사람이 한 번 零落(영락)하여 심한 곤궁에 빠지게 되면, 손발이 얼어붙은 듯 꼼짝 못하고 그대로 앉아 끝장을 보고 마는 수가 많다.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복잡한 일인들 어찌 한두 번이겠으며, 가슴 쓰라린 일 또한 그 몇 번이겠는가!

복잡하고 몹시 시끄러운 속에 처하게 되거든 시끄러운 그 속에서나마 한마음 고요를 찾아서 냉정한 눈으로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차근차근 간추려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 동안 헤어날 수 없었던 그 많은 괴로운 생각들을 반 넘어 떨어 버릴 수가 있을 것이요, 따라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손쉽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또 뜻 아니 영락하여 심한 곤궁에 빠지게 되거든 한 마음 뜨거운 열을 올려 맹렬하게 한바탕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再起(재기)의 길이 환히 눈에 보여 앞으로 나아갈수록 인생의 허다한 참 취미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熱鬧中에 著一冷眼하면 便省許多苦心思요 冷落處에 存一熱心이면 便得許多眞趣味니라.

몹시 시끄러운 가운데서 한 번 냉정한 눈으로 보면 문득 허다한 괴로운 생각을 덜 것이요, 零落(영락)하여 쓸쓸한 처지에서 한 번 뜨거운 마음을 두면 문득 허다한 참 취미를 얻게 될 것이다.

285. 즐거움이 있으면 즐겁지 않은 것이 있으니, 차라리 즐거울 것도 즐겁지 않을 것도 없는 평범한 경지가 가장 안락한 집이다.

세상에는 즐거운 경계가 있으면 즐겁지 않은 경계가 있고, 좋은 광경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광경이 있다.

그리하여 즐거운 일에는 반드시 즐겁지 않은 일이 덩달아 일어나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아울러 생겨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즐겁지 않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은 고스란히 돌려보내고 즐거운 것, 좋은 것만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언제나 즐거움이 있으면 즐겁지 않은 것이 맞아서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이 맞아서 그 좋은 것을 깎아 내린다. 시원치 않은 그 즐거움에 매달려 마음에 속박을 받느니 보다는 그저 항상 있는 평범한 음식을 들며 지위도 없고 벼슬도 없는 그대로의 상태가 어떻겠는가!

여기에는 즐거움이 따로 없을 것이니 근심될 일이 없을 것이요, 좋은 것이 따로 없으니 좋지 않을 것이 또한 있을 리 만무하다.

즐거울 것도 없고 즐겁지 않을 것도 없는 차라리 이러한 경지라야 참말로 내가 살 마음 편하고 즐거운 집이 아니겠는가!

有一樂境界면 就有一不樂的相對等요 有一好光景이면 就有一不好的相乘除하
나니 只是尋常家飯과 素位風光이라며 纔是個安樂的窩巢니라.

하나의 즐거운 경계가 있으면 곧 하나의 즐겁지 아니한 상대를 기다리는 것이 있고 하나의 좋은 광경이 있으면 곧 하나의 좋지 않은 서로 곱한 것을 까버리는 것이 있다. 다만 이 대수롭지 않은 음식과 지위 없는 그대로라야 겨우 이것이 하나의 안락한 집이다.

**286. 천지자연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며 고요히 그 의미를 읽어나가면 나를 잇는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발(簾)을 높이 걷어 올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저만큼 녹수청산을 바라본다. 청산은 구름을 삼키고 녹수는 연기를 토한다. 청산과 녹수며 구름과 연기, 한데 얹려 자연을 뿔내며 커다란 자유를 일러 준다. 이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자유자재로운 활동이란 것인가!

대나무 뻥뻥하고 소나무, 잣나무 우거진 곳에 붙이면 제비 쌍쌍이 날아와 집 지어 새끼 치고 가을이면 비둘기 떼 지어 울고 간다. 봄·여름·가을·겨울 사시사철을 철새들이 철 따라 오가며 보내고 맞는 대로 그대로 맡겨 두면 내가 나를 잇는다. 物(물)도 잇는다. 나와 物을 한꺼번에 잇는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일까!

簾櫳高敞에 看靑山綠水の 吞吐雲煙하면 識乾坤之自在요 竹樹扶疎에 任乳燕鳴鳩의 送迎時序하면 知物我之兩忘이니라.

발과 창을 높이 열어젖히고 푸른 산과 푸른 물이 구름과 연기를 삼키고 토하는 것을 보면, 하늘과 땅의 자유자재로움을 알게 된다. 대나무와 수목이 우거진 곳에 새끼 제비와 우는 비둘기들이 四時(사시)를 차례로 보내고 맞는 대로 맡기면 物(물)과 我(아) 두 가지를 다 잇은 것을 알게 된다.

• 簾櫳高敞(염롱고창): ‘簾(렴)’은 珠簾(주렴), 곧 발이요, ‘窓(룽)’은 창문이다. 발을 높이 걷어 올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는 말이다.

• 扶疎(부소): 무성한 모양.

• 乳燕(유연): 새끼 천 제비.

**287.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정도(正道)를 따라 힘
껏 노력하고 천명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따름이다.**

성공의 뒤에는 실패가 숨어 있고, 삶의 뒤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성공은 영원한 성공일 수 없고, 우리의 삶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세상만사는 돌고 도는 것,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던 것이 다시 생기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여 어느 것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이 천지자연의 理法(이법)인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면 성공이니 삶이니 하는 것은 다 덧없고 허망한 것, 구태여 여기에만 매달려 역척을 부릴 것은 없는 것이다. 성공이라고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너무 굳게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요, 삶이라고 단순히 삶을 위하여 너무 지나치게 몸부림 치며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인생의 正道(정도)를 따라 인간의 힘으로 노력할 수 있는 데 까지 노력하며, 天命(천명)을 따라 주어진 생명을 다하되 끝내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이 곧 참 성공이요 영원한 삶인 것이다.

知成之必敗면 則求成之心이 不必太堅이요 知生之必死면 則保生之道不必過榮니라.

성공이 반드시 실패함을 알면, 곧 성공을 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너무 굳지 않을 것이다. 삶이 반드시 죽는 것임을 알면 곧 삶을 보전하는 길에 반드시 너무 노고하지 않을 것이다.

**288. 달 그림자 연못을 뚫고 들어도 연못에는 사람이 어찌 그림자 같은 부귀공명에
매달려 제 갈 길을 잇는가!**

“대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려 뜰 앞 섬돌을 쓸어도, 섬돌에는 먼지 한줌 일지 않는다. 달(月) 바위가 연못을 뚫고 들어가도 물에는 어디에도 뚫고 든 흔적이 없다.”

“물이 아무리 급이치며 급하게 흘러도 그 언저리는 항상 고요할 뿐이다. 꽃이 그다지 쉬 저도 사람의 마음은 저대로 언제나 한가롭기만 하다.”

앞의 말은 옛 어느 덕 높은 승려의 말이요, 뒤의 것은 우리네 유학자의 말이다.

대나무 그림자가 뜰 앞 섬돌을 쓴들 그것이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섬돌이 어찌 그림자에 흔들려 먼지를 일으키겠는가!

달의 바위가 연못을 뚫고 물 밑으로 떨어진들 그것이 또한 달 그림자가 분명한데, 연못 물이 어찌 그림자에 흔들려 둥그런 구멍을 내겠는가! 대나무도 그림자요 달 바위도 그림자라, 섬돌이요 연못은 그것들을 그저 오는 대로 그림자로만 받아 들여서 아무리 흔들고 파고 들어도 그대로 받아넘겨 조금도 흔적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또 물이 아무리 급하게 흐른들 물은 물이요, 물가는 물가인 것을 무슨 상관이 있어 물 흐르는 소리에 그 언저리까지 고요를 깨뜨리겠는가!

꽃이 또 천만 번을 피고 진들 우리네 인간이 무슨 할 일이 없어 지는 꽃 보고 마음 어수선하여 한가로움을 안기겠는가!

우리는 항상 옛 사람의 이러한 뜻을 가슴에 새겨, 부귀니 공명이니 하는 따위 그림자와도 같은 허망한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사물, 어떠한 환경에도 마음의 고요를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써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또 겪어 나간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어떤 세상에 처하든 몸과 마음이 한 가지로 자유자재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古德云 竹影掃階塵不動이요 月輪穿沼水無痕이라하고 吾儒云 水流任急境常靜
이요, 花落雖頻意自閒이라하니 人常持此意하야 以應事接物하면 身心이 何等
自在니라.

옛날의 덕 높은 중이 말하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티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달의 바퀴가 연못을 뚫
어도 물의 흔적이 없다.”

고 하였다.

우리 유교에서는 말하기를,

“물의 흐름은 급한 대로 맡겨도 경지에는 항상 고요하고 꽃이 떨어지기를 비록 자
주 하나 뜻은 스스로 한가롭다.”

고 하였다.

항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것으로써 일에 응하고 물건에 接(접)하면 몸과 마음이
아무래도 자유자재한 것이다.

• 古德(고덕): 옛날의 덕 높은 중, 곧 高僧(고승)을 古德이라고 한다.

289. 솔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는 천지자연의 음악이요, 풀 속의 안개 빛, 물 속의 구름 그림자는 천지자연의 최상의 문장이다.

숲 사이에서 들려오는 시원한 솔바람 소리, 돌 위를 흐르는 시냇물 맑은 소리를 마음을 고요히, 고요 속에서 들어보면 이것이 분명 천지자연의 위대한 음악이었다. 풀 끝에 어리는 뿌연 안개 빛, 물 속에 오가는 흰 구름 그림자를, 마음을 한가로이, 한가로운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것이 분명 천지자연의 최고의 문장! 천지의 그 멋진 문장을 나 혼자 읽어간다.

林間松韻과 石上泉聲을 靜裡聽來하면 識天地自然鳴佩요 草際烟光과 水心雲影을 閒中觀去하면 見乾坤最上文章이니라.

숲 사이 소나무 울림과 돌과의 샘 소리를 고요 속에 들어 오면 천지자연의 佩玉(패옥)을 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풀 끝의 안개 빛과 물 속의 구름 그림자를 한가한 가운데 보아가면 천지의 최고의 문장을 볼 수가 있다.

-
- 鳴佩(명패): 佩玉(패옥)을 울리는 소리. 여기에서는 天然의 음악을 뜻한다.

290. 사나운 짐승은 복종시킬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행복 받기 어렵고, 깊은 골짜기는 가득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다 채우기 어렵다.

옛날 중국의 西晉(서진)이란 나라, 언젠가 낙양 도읍을 오랑캐들에 짓밟혀 쑥대밭이 되었던 그때, 서진의 그 가시밭 속을 눈으로 역력히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뉘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창칼을 높이 들고서 자기 힘을 뽐내며 자신만만한 기세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렇게도 분수에 어둡고 고집스러운 것일까!

몸은 속절없이 저 북망산 무덤 산짐승의 밥에 지나지 않을 것을 그래도 황금을 못 잊어 죽을 때까지 발발거린다.

사람의 욕심이란 참말로 끝간 데가 없는 것일까! 옛 말에도 이런 말이 있다.

“아무리 성질이 사나운 짐승이라도 산 짐승은 쉽게 길들여 쫓아 앓힐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복종시키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또 산골짜기는 아무리 깊어도 가득 채울 수가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다 채우기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참말로 사람의 肺腑(폐부)를 찌른 어김 없는 말이라 하겠다.

眼看西晉之荊榛호되 猶矜白刃하고 身屬北邙之狐兔호되 尙惜黃金하나니 語云 猛獸는 易伏이로되 人心은 難降하고 谿壑은 易滿이로되 人心은 難滿하니 信哉로다.

눈으로 西晉(서진)의 굴짜리와 개암나무를 보되 오히려 칼날을 자랑하고, 몸은 북망의 여우와 토끼에 속하되 오히려 황금을 아낀다.

옛 말에 이르기를,

“사나운 짐승은 행복받기 쉬우나 사람의 마음은 행복시키기가 어렵고, 깊은 산골짜기는 가득 채우기 쉬우나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 어렵다.”

고 하니 참말로 그렇구나!

-
- 西晉之荊榛(서진지형진): 옛날 洛陽(낙양)을 도읍으로 한 晉(진)나라가, 宮門(궁문)에 銅(동)으로 만든 駱駝(낙타)를 꾸며 세우고 한창 의기양양하였다. 이 때 素靖(소정)이라는 사람이 이 낙타를 보고 말하기를,

“반드시 네가 荊棘(형극)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과연 얼마 안 되어 사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晉(진)은 荊棘(형극) 속에 파괴된 낙타를 그대로 둔 채 도읍을 江南(강남)으로 옮겼다. 이러한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 보면서도 또 다시 총칼을 휘두르며 남을 정복하려 한다는 故事(고사)다. 荊棘(형극)이란 난리로 쑥대밭이 된 것을 뜻한다.

- 北邙之狐兔(북망지호토): ‘北邙(북망)’은 북쪽에 있는 墓地(묘지)다. ‘狐兔(호토)’는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산 짐승을 가리킨다.

291. 마음자리가 고요하면 가는 곳마다 녹수청산이요,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나 道(도)를 즐길 수 있다.

마음자리에 바람 없고 파도 없어 안으로 고요하여 흔들림이 없으면 어디를 가나 가는 곳마다 그대로 綠水(녹수)요, 청산에 노니는 것이다.

하늘은 오로지 公平正大(공평정대)하여 만물을 똑같이 사랑하여 끊임 없이 낳고 길러 준다. 사람이 타고난 본성 가운데 만물을 사랑하고 길러 주는 하늘의 그 거룩한 참 뜻을 지니고만 있다면 마치 하늘에서는 솔개가 평화로이 날고, 연못에서는 물고기가 자유로이 뛰어놀듯 천지간 어디에서나 道(도)를 즐기며 大自由(대자유)를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다.

心地上에 無風濤하면 隨在에 皆青山綠水요 性天中에 有化育하면 觸處見魚躍鳶飛니라.

마음자리 위에 바람과 파도가 없으면 가는 곳 마다 다 푸른 산 푸른 물이요, 天性(천성) 가운데에 化育(화육)하는 것이 있으면 닿는 곳 마다 물고기 뛰놀고 솔개가 나는 것을 볼 것이다.

-
- 隨在(수재): 到處(도처), '곳곳마다'의 뜻이다.
 - 觸處(촉처): 닿는 곳마다, 到處(도처)와 같다.

292. 고관대작과 부호도 때로는 자연의 그 한적한 생활을 부러워하면서 여전히 부귀 공명을 두고 무리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높은 관에 큰 띠를 두른 고관대작도 어쩌다 가벼운 도롱이에 작은 삿갓을 쓴 그야말로 아무 곳에도 매향이 없는 마음 편안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인생의 고달픔이 엄습해 옴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부귀공명이 다 무엇인가 하는 회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하여 속으로 긴 한숨을 지으며,

‘다 벗어버리고 나도 저와 같이 자유롭고 마음 편안한 생활을 할까나’

하는 생각에 가슴 설레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긴 제 자리에 넓은 돛자리를 깔고 비단 방석 위에 앉아 거들먹거리는 큰 富豪(부호)도 어쩌다 거친 발(簾)을 드리우고 조촐한 책상 앞에서 한가로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갑자기 황금에 싫증을 느끼며,

‘황금이 다 무엇인가! 다 그만 두고 나도 저와 같이 한가롭고 조촐한 생활을 해 보았으면!’

하고 동경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은 왜 자기 본성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 조촐하고 한가로운 마음을 가꾸며 본성의 참을 마음껏 즐길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허다한 날을 잔인한 兵法(병법)으로 남의 城(성)을 떨어뜨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의 그 먼 땅까지 범하러 뛰며 달는 것일까!

사람들은 어째서 자기의 본성을 굳이 어기고, 그 허망한 부귀며 공명에 매달려 자기의 본성을 속박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고달픔에서 허덕이게 하는 것일까!

峨冠大帶之士도 一旦에 睹輕箕小笠의 飄飄然逸也면 未必不動其咨嗟요 長筵廣席之豪도 一旦遇疏簾淨几의 悠悠焉靜也면 未必不增其縈戀하나 人이 奈何驅以火牛하고 誘以風馬하야 而不思自適其性哉아.

높은 관에 큰 띠를 한 선비도 하루 아침에 가벼운 도롱이에 작은 삿갓을 쓰고 매향

데가 없는 듯 편안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 탄식을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다. 긴 대 자리와 넓은 돛자리를 깐 부호도 하루 아침에 성긴 발(簾)과 깨끗한 책상에서 한가로운 듯 고요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 동경하는 마음을 더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 어찌 해서 불붙인 소로써 몰며 암내 내는 말(風馬)로써 피어서 그 본성이 가는 대로 즐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 火牛(화우): 火牛計(화우계). 병법의 한 가지다. 齊(제)나라의 田單(전단)이 燕軍(연군)의 공격을 받고 천여 마리의 소를 모아, 쇠뿔에 칼을 동여매고 쇠꼬리에 기름을 뿌린 갈대 다발을 묶어 불을 붙인 다음 燕軍(연군)을 향하여 내몰아 크게 이겼다고 하는 故事(고사)다.

• 風馬(풍마): 左傳(좌전)에 風馬牛不相及(풍마우불상급)이란 말이 있다. 곧

齊桓公(제환공)이 楚國(초국)을 치며, 楚(초)에서 使者(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는 北海(북해)에 있고 나는 南海(남해)에 있는데 風馬牛(풍마우)도 미치지 못할 것을 그대가 내 땅을 침입하다니 생각 밖의 일이다.”

라고 한 故事(고사)다.

風馬牛(풍마우)란 암내 난 말 또는 소를 말한다. 암내 난 말이나 소도 각기 짝을 얻고자 하나 너무나 멀어서 서로 미치지 못하는데, 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먼 곳을 쳐들어오려 하느냐 하는 뜻이다.

293. 물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는 물이 있는 줄을 잊기에 더욱 자유롭고, 바람 타고 나는 새는 바람 있는 줄을 모르기에 더욱 자유롭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항상 즐겁다. 언제나 자유로이 물속을 헤엄치며, 그러면서도 물이 있는 줄을 잊는다. 그 몸이 물속에 있는 줄도 잊는다.

새는 하늘에서 항상 즐겁다. 언제나 자유로이 바람 타고 날며, 그러면서도 바람이 있는 줄을 모른다. 그 몸이 바람 속에 있는 줄도 모른다.

사람도 티끌 세상에 놀면서 티끌 세상을 아주 잊을 수는 없을까! 티끌 속에 있으면서 티끌에 물들지 않을 수는 없을까!

좋고 나쁜 것, 곱고 미운 것, 죽고 살고, 옳고 그른 것, 다 잊고 살면 자연에 노는 새처럼 물고기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노닐 수가 있으리라!

魚得水逝로되 而相忘乎水하고 鳥乘風飛호되 而不知有風하나니 識此면 可以超物累요 可以樂天機시라.

물고기는 물을 얻어서 놀되 물을 잊어버리고, 새는 바람을 타고 나르되 바람 있는 줄을 모른다. 이것을 알면 그것으로써 물건에의 얽매임을 초월할 수가 있을 것이요, 하늘의 활동을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

294. 흥망성쇠의 덧없음을 생각하면, 그렇게도 불타던 부귀공명에 대한 생각이 식은 재처럼 느껴진다.

술한 비바람에 씻기고 파여 지금엔 다 헐어 무너져 버린 섬돌, 여기서 여우가 곤히 잠들고, 이제는 다 쓰러져 가는 황폐한 집을 토끼가 신나게 달린다. 하지만 이 무너진 섬돌과 황폐한 집은 모두가 그 옛날 어여쁜 미녀들이 노래하고 춤추던 곳, 오색찬란한 궁전과 대궐 안 섬돌이었다.

찬 이슬 국화꽃에 얼어 맺고, 연기는 말라 죽은 잡초 위에 어른거리는 쓸쓸한 들판, 하지만 이곳은 그 옛날 영웅호걸들이 승부를 겨루던 싸움터, 싱싱한 들판이었다.

보라! 盛(성)하고 쇠하는 것이 어찌 항상 그대로 있으며, 강자가 어디 있고 약자가 어디 있던가! 어제 번성하던 곳이 오늘엔 쇠망하여 없어지니 오늘날 번성한 것이 내일에 또 어찌 될 줄 누가 알겠으며, 어제의 강자가 오늘엔 약자가 되니 오늘의 강자가 또 내일에 어찌 될 줄 누가 알랴!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들어가면, 그렇게도 사람의 마음을 홀리던 부귀와 공명이 이제는 싸늘하게 식은 재처럼 느껴 오는 것을 어찌랴!

狐眠敗砌하고 兔走荒臺는 盡是當年歌舞之地요 露冷黃花하고 煙迷衰草는 悉屬舊時爭戰之場하니 盛衰何常이며 強弱安在요 念此에 令人心灰니라.

여우는 무너진 섬돌에서 잠자고, 토끼는 황폐된 집에서 달린다. 이것은 다 당년의 노래하고 춤추던 곳이다. 이슬은 국화꽃에 싸늘하고, 연기는 시든 풀에 어른거린다. 모두가 옛적에 싸움하던 마당이다. 盛(성)하고 衰(쇠)하는 것이 어찌 항상 하며, 강하고 약한 것이 어디 있는고. 이것을 생각 하매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재가 되게 한다.

295. 이 세상에 불나비 아닌 사람 몇이나 되며, 올빼미 아닌 사람 그 몇이라!

영예와 치욕,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렇기에 영예든 치욕이든 놀라지 않는다. 다만
뜰 앞에 말 없이 저대로 피고 지는 꽃, 한가로이 꽃을 바라볼 뿐이다.

가고 머무름에 나아가고 물러감에 내게는 뜻이 없다. 다만 아득히 하늘 밖에 떠도
는 구름, 두르르 말았다간 질펀하게 펴는 너른 하늘 어디에도 매인 데가 없는 구
름, 구름을 따를 뿐이다.

맑게 갠 하늘, 사방에 가득한 명랑한 달빛, 달은 어디나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저 너른 하늘을 저만 하고자 하면 훨훨 어디든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을.
왜 가슴 시원하게 날지 못하고서, 불나비는 하필 밤 촛불에 몸을 던져 목숨을 태우
는가! 맑은 샘물 철철 넘치고 사방에 가득한 푸른 풀 써도 써도 마르지도 없어지지
도 않는다.

저 많은 것들을 저만 원한다면, 무엇이든 실컷 쪼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왜 그
신선한 것들을 버려 두고서 올빼미는 하필 썩은 쥐만 즐겨 먹는가!

아! 이 세상에 불나비와 올빼미가 되지 않는 사람, 그 몇 사람이나 되는가!

寵辱不驚하야, 閒看庭前花開花落이요 去留無意하야 漫隨天外雲卷雲舒라 晴空
朗月에 何天을 不可翱翔하여서 而飛蛾는 獨投夜燭이며 清泉綠芹에 何物을 不
可飲啄하여서 而鴟鴞는 偏嗜腐鼠요 噫라 世之不爲飛蛾鴟鴞者가 幾何人哉오.

영예와 치욕에 놀라지 아니하여 한가로이 뜰 앞의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것을 바라
보고, 가고 머무름에 뜻이 없어 아득히 하늘 밖의 구름이 말고 구름이 펴는 것을
따른다. 갠 하늘 맑은 달에 어느 하늘을 훨훨 나르지 못해서 불나비는 혼자서 밤
촛불에 뛰어들며, 맑은 샘물 푸른 풀에 어떤 것을 마시고 쪼지 못해 올빼미는 유독
썩은 쥐만 즐기르고, 아! 세상에 불나비와 올빼미가 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리
요!

296. 배는 물을 건네기 위한 도구요, 불경이란 불도를 얻기 위한 배다. 일단 불도를 얻었으면 불경은 곧 놓아야 한다.

배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네기 위한 도구요,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佛道(불도)를 얻기 위한 배와 같다.

일단 배를 빌어 저 건너 목적지에까지 도달하고 나면, 이미 배는 필요 없는 것,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미 불도를 깨달은 뒤에도 언제까지고 불경을 놓지 못하고 문자 풀이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이인은 아직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풀려난 해탈의 경지를 얻지 못한 것이다.

불도를 깨달아 얻었으면 곧 불경에서 벗어나 편안한 심경에 드는 이것이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道人인 것이다.

또 사람들은 부처를 구하겠다고 자기 아닌 먼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맨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본성 가운데 佛性(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부처를 두고서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는 것은 마치 당나귀를 타고 앉아서 당나귀를 찾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자기의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몸은 비록 중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끝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중이 되고 마는 것이다.

纔就筏에 便思舍筏이면 方是無事道人이요 若騎驢오도 又復覓驢면 終爲不了禪師나라.

겨우 떼배로 나아가 문득 떼배를 버릴 것을 생각하면 바야흐로 일 없는 道人(도인)이다. 만약 당나귀를 타고도 또 다시 당나귀를 찾는다면 마침내 깨달아 알지 못한 法事(법사)가 될 것이다.

-
- 騎驢又復覓驢(기려우복먹려): ‘당나귀를 타고서 당나귀를 찾는다’함은 사람은 저마다 다 佛性(불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부처를 구하려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구하면 될 것을 마음 안에 부처를 두고서 마음 밖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佛書(불서) 《傳燈錄(전등록)》에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당나귀를 타고서 당나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297. 욕심 없는 마음, 냉정한 마음으로 만사에 당하면 부귀공명도 시비도 다 끓는 물에 눈 녹듯 한다.

권세 좋고 지위 높은 귀한 양반들은 龍(용)이 하늘 높이 솟구치듯 맹렬하게 위세를 떨치고, 영웅호걸들은 이익을 앞에 놓고 범처럼 어기차게 싸운다.

이제 부귀요 공명이요 다 벗어 던지고, 저 만큼 떨어져 냉정한 눈으로 이 광장을 바라보면, 어찌면 개미 떼가 비린내를 따라 까맣게 모여들고 파리 떼가 피를 빨러 앞을 다투는 것 같아 참말로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옳거니 그르거니 시비가 벌떼처럼 탈이 나고 이익이나 손해나 이해득실을 놓고 고슴도치 바늘처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시비와 이해를 멀리 떠나 욕심 없는 편만한 마음 냉정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시비가 어디 있고 이해가 또 어디 있단가! 풀무에 쇠를 녹이듯, 끓는 물이 눈을 녹이듯 시비도 이해도 다 없어지고 마음은 그 무엇에도 걸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

權貴龍驤하고 英雄虎戰이나 以冷眼視之하면 如蟻聚羶하고 如蠅競血이요 是非蜂起하고 得失蝟興이나 以冷情當之하면 如冶化金하고 如湯消雲이니라.

權貴(권귀)한 이는 용처럼 뛰고, 영웅들은 범처럼 싸우지만 냉정한 눈으로써 이것을 보면 마치 개미가 비린내 나는 데에 모여들고, 파리가 피를 다투는 것과 같다. 말다툼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얻고 잃음이 고슴도치처럼 일어나지만, 냉정한 마음으로써 여기에 당하면 마치 풀무가 쇠를 녹이는 것과 같고, 끓는 물이 눈을 녹이는 것과 같다.

298. 사람은 마땅히 슬퍼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마땅히 즐거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한다.

사람이 한 번 物慾(물욕)에 얽매어 자기의 본심을 잃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되면, 문득 자기의 인생이 그지없이 가없고 슬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욕심 경계에도 마음 흔들리지 아니 하고, 오로지 자유로운 경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성의 참을 마음껏 즐기며 참에 산다면 문득 자기의 인생이 한없이 즐겁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이면 누구나 슬퍼할 줄도 알고 즐거워할 줄도 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마땅히 슬퍼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사람이기에 마땅히 즐거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마땅히 슬퍼할 만한 것을 슬퍼하고, 또 마땅히 즐거워할 만한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다.

참말로 슬퍼할 만한 것을 슬퍼할 줄 안다면, 모든 망령된 생각, 흑심한 마음은 그 자리에서 깨어져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 참말로 즐거워할 만한 것을 즐거워할 줄 안다면, 모르는 사이 언제 벌써 그 몸은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霸銷於物欲하면 覺吾生之可哀요 夷猶於性眞하면 覺吾生之可樂이니 知其可哀면 則塵情을 立破하고 知其可樂이면 則聖境을 自臻이니라.

물욕에 얽매이면 내 삶의 슬퍼할 만한 것임을 깨닫고, 본성의 참에서 자유로이 노닐면 내 삶의 즐거워할 만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 슬퍼할 만한 것임을 알면 곧 티끌 마음을 선 채 깨뜨리고, 그 즐거워할 만한 것을 알면 곧 성인의 경계에 스스로 이를 것이다.

299. 한 조각 달빛을 받은 맑은 물처럼, 내 마음만 밝고 깨끗하다면 그 어느 것도 내게 방해될 것이 없다.

마음 가운데 티끌만큼이라도 물욕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야, 세상에 어느 누구와 다툴 일이 있겠는가!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화롯불에 눈 녹듯, 햇빛에 얼음 풀리듯 다 사라 없어지고, 오직 남은 것은 근심 없는 평온한 심경일 뿐이리라.

한 조각 달빛을 받은 맑은 물처럼 사람의 마음속이 그토록 밝고 깨끗하다면 세상에 어떤 사물 치고 내 몸에 받아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푸른 하늘에 걸린 달, 물결에 그림자를 던져 산산 조각이 나도, 저 하늘에 달, 그 어디에 구겨진 곳 한 군데라도 볼 수가 있던가! 참말로 내 마음만 밝고 깨끗하다면야 세상 어디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다.

胸中에 既無半點物欲하면 已如雪消爐焰冰消日이요 眼前에 自有一段空明하면 時見月在青天影在波니라.

가슴 속에 이미 반 점의 물욕도 없다면, 벌써 눈이 화롯불에 녹고 얼음이 햇볕에 녹은 것과 같을 것이다. 눈앞에 스스로 한 조각의 달빛을 받은 맑은 물이 있으면, 때로 달이 푸른 하늘에 있고 그림자가 물결에 있는 것을 볼 것이다.

300.시상(詩想)과 소박한 멋은 자연의 풍경에서 우러난다.

시상이란 변화한 곳보다 눈바람 몰아치는 瀾陵(파릉)의 다리 위, 나귀 등에 몸을 싣고 한가로이 지나갈 때 일어나는 것, 자연의 쓸쓸한 풍경 속에서 나직이 한 구절 읊어 보면, 산 수풀 우묵한 골짜기가 툭 트여 끝없이 넓고 시원하다.

소박하고 깨끗한 멋은 잔잔한 鏡湖(경호)의 호숫가! 나 혼자 한가로이 거닐어 보면, 산천(山川)이 서로 비추며 티끌 없는 천리, 멋진 중경을 펼쳐 든다.

詩思는 在瀾陵橋上이라 微吟就에 林岫便已浩然하고 野興은 在鏡湖曲邊이라 獨往時에 山川自相映發이니라.

詩想(시상)은 파릉의 다리 위에 있는 것이라, 가만히 읊조려 나가매 숲과 골짜기가 문득 이에 끝없이 넓어진다. 소박한 멋은 鏡湖(경호)의 물가에 있는 것이라, 혼자 가서 갈 때 山川(산천)이 스스로 서로 비추고 멋을 낸다.

• 瀾陵橋上(파릉교상): 唐(당)나라 鄭夔(정계)라는 사람의 말이다. 이 대문의 뜻은 詩想(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적막한 山村(산촌), 곧 자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全唐詩話(전당시화)》에,

鄭夔(정계)는 詩(시)를 잘 하였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요즘 새로 지은 시가 있습니까?”하니, 대답하기를,

“詩思(시사)는 瀾陵風雪(파교풍설) 속 나귀의 등 위에 있소, 이런 곳에서 무슨 좋은 시를 얻겠소.”라고 하였다는 故事(고사)가 있다.

• 鏡湖曲邊(경호곡변): 唐(당)나라 知賀章(지하장)이 道士(도사)가 되어 시골로 돌아갈 때 임금에게 선물로 받은 곳이라고 한다.

이 말은 소박한 멋은 역시 자연의 풍경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301. 오래 었드렸던 새는 반드시 높이 날고, 일찍 핀 꽃은 빨리 시든다.

오래 었드렸던 새는 한 번 날기만 하면 반드시 높이 오른다.

먼저 핀 꽃은 지기도 또한 다른 꽃보다 빨리 진다.

오래 었드려서 덕을 쌓고 힘을 기른 사람은 세상에 날기를 그만큼 높이 날고, 일찍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 일찍 시들어버린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걱정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요, 또 조급한 마음을 없애고 깊고 먼 생각을 얻게 될 것이다.

伏久者は 飛必高하고 開先者は 謝獨早하나니 知此면 可以免蹉跎之憂요 可以消躁急之念이니라.

었드리기를 오래한 것은 날기를 반드시 높이 하고 피기를 먼저 한 것은 지기를 홀로 일찍 한다. 이것을 알면 그것으로써 길을 잃을 근심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요, 조급한 생각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이다.

• 蹉跎(충등): 길을 잃은 모양. 여기에서는 失敗(실패)를 의미한다.

302. 인생의 마지막 관 뚜껑을 닫을 무렵에야 사는 동안 붙들고 목숨을 떨던 것들이 다 쓸 데 없음을 알게 된다.

가지와 잎이 무성하고 꽃이 한창 만발할 적에는 모른다.

쓸쓸한 가을, 꽃이 지고 가지와 잎이 시들어 그 모두가 뿌리로 돌아가 뿌리만 남은 뒤라야 꽃도 꽃받침도 가지도 잎도 다 허망한 그 한 때의 영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 아들딸을 낳아 소중히 키우며 보석이니 비단을 목숨처럼 아끼며 괴로움과 즐거움에 웃고 울고 할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관 뚜껑을 닫을 무렵 그제야 비로소 그 동안 붙들고 목숨을 떨던 것들, 아들도 딸도 보석도 비단도 다 죽음에는 쓸 데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樹木이 至歸根而後에 知花萼枝葉之徒榮하고 人事至蓋棺而後에 知子女玉帛之無益이니라.

나무가 뿌리로 돌아감에 이른 뒤에야 꽃과 꽃받침과 가지와 잎의 한갓된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의 일은 관 뚜껑을 덮음에 이른 뒤에야, 아들과 딸과 寶玉(보옥)과 비단의 쓸 데 없음을 알게 된다.

303.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간과 출세간(出世間)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공부에 있다.

만고에 변함없는 참 진리는 ‘有’도 아니요, ‘無’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 ‘무’에서 달과 별, 산천초목 미물인 벌레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모양의 物(물)이 생기니 공은 공이로되 공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유를 내포한 空(공), 곧 眞空(진공)은 공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도 참이 아니요, 현상을 버리고 공에만 집착하는 것도 또한, 참이 아니다.

釋迦世尊(석가세존)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世間에 있으면서 세간을 초월하여 세간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세간에 초월적이면서 세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곧 세간적이면서 出世間(출세간)적이에요, 출세간적이면서 세간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세간에 얽아 욕심 가는 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세간에 초월하여 욕심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도 또한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욕심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욕심을 끊는다고 하는 것도 괴로움이니, 우리들은 스스로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中道의 공부를 닦아 나가도록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眞空은 不空이라 執相非眞이요 破相亦非眞이니 問世尊이 如何發付며 在世出世에 徇欲是苦요 絶欲亦是苦니 聽吾儕善自修持니라.

眞空(진공)은 空(공)이 아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것은 참이 아니요, 현상을 破(파)하는 것도 또한 참이 아니다. 문나니, 世尊(세존)이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世間(세간)에 있으면서 世間(세간)을 벗어나매, 욕심을 따르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욕심을 끊는 것도 괴로움이니 우리들이 잘 스스로 닦고 지킬 것을 들어라!

• 眞空(진공): 공한 것 같으면서 공하지 아니하고 공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공한 것. 다시 말하면, 空無(공무)인 듯하면서 여기서 산천초목, 금수 등 온갖 有를 낳을 수 있는 空(공)을 말한다.

- 執相(집상): 형상, 곧 현상에 집착하여 이것을 實相(실상)으로 보는 것.
- 破相(파상): 현상을 무시하고 일체의 것을 空으로 보는 것.
- 發付(발부): 의견을 발표하는 것.
- 棼棼(오제): 棼棼(오등)과 같다.

304. 임금이 나라와 부강을 위하여 마음을 수고롭게 하나 거지가 밥을 빌기 위하여 목소리를 수고롭게 하나 수고롭기는 한 가지다.

節義(절의)를 지키는 사람은 나라를 주어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닌 이상 사양하여 받지 않는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단 한 푼을 가지고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움질이다. 이 두 사람은 그 품격이야 물론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명예를 좋아하고 하나는 이익을 좋아하니 명예를 좋아하나 이익을 좋아하나 그 좋아하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또 임금은 국가를 경영하고 거지는 아침밥 저녁밥을 부르짖는다. 임금은 국가의 富強(부강)을 위하여 밤낮으로 속을 태우고, 거지는 밥을 얻기 위하여 목놓아 외치며 종일을 두고 소리를 수고롭게 한다.

임금과 거지! 지위와 신분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지만, 하나는 마음을 태우고 또 하나는 소리를 태우니, 마음을 태우나 소리를 태우나 결국 그 목숨을 수고롭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어디 명예와 이익을 떠난 근심 없는 편안한 심경을 얻을 길은 없을런가!

烈士는 讓千乘하고 貪夫는 爭一文하나니 人品이 星淵으로도 而好名이 不殊好利하고 天子는 營國家하고 乞人은 號饕飮하나니 位分이 霄壤으로도 而焦思何異焦聲이리오.

節義(절의)를 지키는 사람은 千乘(천승)의 나라를 양보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한 푼을 두고 다투니 인품이 별과 연못이로되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이익을 좋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天子는 국가를 경영하고 거지는 아침밥과 저녁밥을 부르짖으니 지위와 신분이 하늘과 땅이로되 생각을 태우는 것이 소리를 태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千乘(천승): 천 대의 兵車(병차)를 낼 수 있는 나라, 곧 諸候國(제후국).

• 星淵(성연): 하늘의 별과 땅의 연못. 하늘과 땅의 엄청난 차이를 뜻한다.

305. 세상 인정을 골고루 맛보고 안 사람은 남이야 나를 소 같다고 해도 끄덕, 말 같다고 해도 끄덕, 도무지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세상에서 쓴 맛, 단 맛을 골고루 맛보고 세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환히 들여다 보고 아는 사람은 남이야 내게 얹어지긴 제쳐지긴 아랑곳 없다. 얹어지면 얹어지는 그대로, 제쳐지면 제쳐지는 그대로 저들 하는 대로 맡겨 둘 뿐, 도무지 그 변덕스런 모양들을 눈을 뜨고 보기조차 귀찮게 여긴다.

또 세상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골고루 겪어 보고 세상 인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은 남이야 나를 소 같다고 하건 말 같다고 하건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 소 같다고 해도 끄덕, 말 같다고 해도 끄덕,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그러한 자잘한 일에 마음을 쓰려 들지 않는 것이다.

飽諳世味하면 一任覆雨翻雲하야 總慵開眼이요 會盡人情하면 隨教呼牛喚馬라도 只是點頭니라.

세상 맛을 실컷 맛보면 얹쳐진 비와 뒤쳐진 구름에 아주 맡겨서 모두 눈을 열어 보기를 게을리 한다. 人情(인정)을 다 알면 이르는 데 따라서 소라고 부르고 말이라고 부르더라도 다만 머리를 끄덕일 뿐이다.

306. 무념(無念)의 경지를 얻는 방법: 과거와 미래의 일에 생각을 매어두지 말고, 오직 오늘을 중심으로 그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낸다.

지금 사람들은 덮어 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無我無念(무아무념)의 경지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그 뜻이 끝내 이루어질 리가 없다.

사람들은 한 번 있었던 생각을 언제까지고 마음에 담아 두고, 또 앞으로 있을 일까지 이것저것 잡스럽게 생각하여 잠시도 마음을 비워두지 않으니, 어떻게 無念(무념)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한 번 있었던 일을 마음에 매어두지 아니하고, 또 뒤에 올 일을 생각에 떠올리지 아니하며 오로지 오늘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에 일어난 일들을 그때그때 알맞게 처리해 나가며,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낸다면, 이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무아무념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今人は專求無念하나 而終不可無니 只是前念不滯하며 後念不迎하고 但將現在の隨緣하여 打發得去면 自然漸漸入無니라.

지금 사람들은 오로지 생각이 없기를 구하나 마침내 없앨 수 없다. 다만 이 앞의 생각에 막히지 아니하며 뒤의 생각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다만 현재의 인연 따르는 것을 가지고서 처리하여 얻어 가면 저절로 점점 無에로 들게 될 것이다.

• 打發(타발): 處理(처리)와 같다.

307. 마음은 우연히 맞는 것이라야 더욱 아름답고, 바람은 절로 부는 바람이라야 더욱 맑고 시원하다.

무엇이든 人爲(인위)를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에서 나온 것이라야 진정한 활동을 볼 수 있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써 그렇게 되도록 꾸며서가 아니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마음에 들어맞는 것이라야 참으로 아름다운 경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여기에 손을 대어 일부러 조절하여 고쳐 놓는다면 본래의 멋은 차츰 짝이고 마는 것이다.

당나라 시인 백낙천(唐白樂天)씨도 일찍이 그의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없이 한가로이 있을 때라야 바깥 사물에 흔들림이 없어 자유로이 노닐 수가 있는 것이요, 바람은 人工(인공)을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라야 더욱 맑고 시원하다.”

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라 하겠다.

意所偶會에 便成佳境이요 物出天然에 纔見眞機니 若加一分調停布置면 趣味便減矣라 白氏云, 意隨無事適이요 風逐自然清이라하니 有味哉라 其言之也여.

뜻이 우연히 만나는 바에 문득 아름다운 경계를 이루는 것이요, 物(물)은 天然(천연)에서 나오매 비로소 참된 활동을 보게 된다.

만일 조금이라도 중간에서 조절하여 알맞게 나누어 벌려 놓기를 더한다면 취미는 문득 떨어진다.

白氏(백씨)가 말하기를,

“뜻은 일 없음을 따라서 쾌적하고 바람은 자연을 좇아 맑다.”

고 하니, 의미가 있도다. 그 말이야 말로!

• 白氏云(백씨운): 白樂天(백낙천)의 詩(시).

308. 자기 본래의 심성(心性)이 맑지 못하면 참선(參禪)도 불경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본래의 심성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것이다.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이러한 심성을 그대로 잘 닦아 속속들이 맑게 트이게 한다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일상 있는 일로도 넉넉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마음 바탕이 흐리고 어둡게 되면 그 깊은 참선의 도리를 말하고 불경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가 자기의 정신을 희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결국 수양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性天이 澄澈하면 卽饑飧渴飲이 無非康濟身心이요 心地沈迷하면 縱談禪演偈라도 總是播弄精魂이니라.

심성이 속속들이 맑으면, 곧 주리면 밥 먹고 목 마르면 물 마시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아니함이 없다. 마음 바탕이 어두우면 비록 참선을 이야기하고 불경을 말해도 모두가 이 정신과 혼을 흔들고 희롱할 뿐이다.

309. 모든 생각을 잊고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본래의 참된 경계에서 소요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참된 경계(眞境)이 있다. 그 경계는 거짓도 없고 번뇌도 속박도 없으며 근심도 없는 편안한 경계이다. 사람이 한 번 이러한 경계에 이르게 되면 거문고를 타고 피리를 불어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은 항상 저대로 편안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소요한다. 또 한 번 이러한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향을 피우는 것도 향긋한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 몸은 항상 맑고 향기로운 마음 속에 젖어 유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참된 경계를 맞볼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텅 비우고 한 가지 일에 생각을 오래 매어 두지 아니 하며, 모든 근심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몸마저 잊어 오로지 자유롭고 편안한 심경에 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참된 경계에서 소요하며 자기 본래의 참을 유감 없이 즐길 수가 있는 것이다.

人心에 有個眞境이니 非絲非竹而自恬愉요 不煙不茗而自清芬이라 須念淨境空하고 慮忘形釋이라야 纔得以游衍其中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참 경계가 있으니, 거문고도 아니요 대피리도 아닌데 스스로 편안하고 즐겁고, 香煙(향연)도 아니요 茶(차)도 아닌데 스스로 맑고 향기롭다. 모름지기 생각을 淸淨(청정)하게 하고 환경을 空虛(공허)하게 하고 思慮(사려)를 잊고 형체를 풀어야 겨우 그로써 그 가운데 멋대로 노닐 수 있는 것이다.

-
- 非絲非竹(비사비죽): ‘絲(사)’는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 ‘竹(죽)’은 피리를 말한다.
 - 不煙不茗(불연불명): ‘煙(연)’은 香煙(향연)이요, ‘茗(명)’은 차(茶).
 - 游衍(유연): 멋대로 노니는 것.

310. 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나오며 진리는 덧 없는 환상 속에 들어 있다.

금은 광석에서 나오고 옥은 돌에서 나온다. 금과 옥으로 말하면 사람마다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주 귀중한 것이지만, 그토록 귀한 것도 알고 보면 별난 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절대적 진리라고 우리의 생활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겪는 것처럼 나면 죽고 없어지면 다시 생기고 끊임 없이 변화하는 덧없고 헛된 幻相(환상),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또 세상 사람들은 道를 어디 세속에서 멀리 떨어진 산림 속에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하여 산림 속에 들어가 권커니 잡거니 술잔을 기울이며 淸淡(청담)을 늘어놓으며 그 술잔 속에서 도를 얻고자 한다. 또 사람들은 신선이 살았다고 하는 武陵桃源(무릉도원)이란 땅, 꽃향기 그윽한 속에서 신선을 만났다고들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 운치 서린 멋있는 말이기는 하나, 세속을 떠난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들이 애써 산림을 찾고 신선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세속의 일에 미련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金自鑛出하고 玉從石生하나니 非幻이면 無以求眞이요 道得酒中하고 仙遇花裡면 雖雅나 不能離俗이니라.

금은 鑛石(광석)에서 나오고 玉은 돌에서 나오는 것이니, 幻(환)이 아니면 그로써 참을 구할 수 없다. 道를 술 속에서 얻고 신선을 꽃 속에서 만나면 비록 운치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속된 것을 떠날 수는 없다.

311. 속된 눈으로 보면 만물은 모두가 각각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없으나, 도의 눈으로 보면 만물은 본래 평등무차별한 것이요, 영원히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천지 가운데 펼쳐져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천초목 금수 등 만물과, 人倫(인륜) 가운데 흐르는 좋고 나쁜 온갖 감정이며, 끊임없이 돌아가는 영예와 치욕, 성공과 실패 등 세상만사!

이것들을 다만 그 덧없는 形相(형상)에만 집착하여 웃고 우는 속된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한 가지 그대로 있는 것이 없고 또 어느 한 가지 같은 것이 없어 제각기 다른 모양이라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것들을 道를 관찰하는 눈으로 바라 본다면, 만물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니 본래는 평등무차별한 것이요, 영원히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을 무엇을 그다지 번거롭게 이것저것 가릴 것이 있으며,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이 있겠는가!

天地中萬物과 人倫中萬情과 世界中萬事를 以俗眼觀이면 紛紛各異로되 以道眼觀이면 種種是常이니 何煩分別이며 何用取捨리요.

천지 가운데의 모든 물건과 인륜 가운데의 모든 감정과 세계 가운데의 만 가지 일을 속된 눈으로 본다면 어수선하여 각각 다르지만, 도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 하나가 떼땀한 것이니 무엇을 번거롭게 분별하며 무엇을 취하고 버리겠는가!

312. 천지의 조화로운 기운은 움집 속에서도 기를 수 있고, 인생의 참맛은 명아주국에서도 맛볼 수 있다.

사람의 정신이 바깥 사물로 인하여 그늘지지 아니하고 항상 맑고 상쾌하다면, 베 이불 덮고 움집 속에서 잠잔다 하더라도 천지의 조화된 맑고 바르고 큰 기운을 얻어서 마음은 언제나 근심 없는 편안한 경계에서 노닐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인생의 보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고 만족할 줄을 안다면, 그 험한 명아주국 한 그릇으로도 인생의 맑고 깨끗한 참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神酣하면 布被窩中에 得天地沖和之氣요 味足하면 藜羹飯後에 識人生澹泊之眞 이니라.

정신이 맑고 상쾌하면 베 이불 움집 속에서도 천지의 조화된 기운을 얻고, 입맛이 넉넉하면 명아주국을 먹은 뒤에도 인생의 담박한 참맛을 알 수 있다.

-
- 神酣(신감): 정신이 맑고 상쾌한 것.
 - 布被窩中(포피와중): '布被'는 베 이불이요, '窩中'은 움집 속이다.
 - 沖和之氣(충화지기): 천지의 조화된 맑고 바른 기운.
 - 藜羹(여갱): '藜(려)'는 명아주요, '羹(갱)'은 국이니 명아주엿으로 끓인 국.

313. 본래의 참 마음을 깨달으면 티끌 경계가 참된 경계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신선한 중의 집도 속된 집이다.

자기 한 몸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것도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서 노니는 것도 다 남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남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의 마음 하나에 매인 것이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자기 본래의 심성, 망령된 생각이 전혀 없는 진실 그대로의 참 마음을 완전히 깨닫는다면 그 몸이 설령 푸줏간이나 술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푸줏간 그 술집이 그대로 근심 없는 안락한 세계, 극락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자기 본래의 참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비록 거문고 줄을 희롱하고 鶴(학)과 더불어 놀며 꽃과 초목을 가꾸어 즐긴다 하더라도 그 취미만은 넉넉히 깨끗하다고 할 만하나, 참 마음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악마와 장애물은 끝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옛 말에 이르기를,

“자기의 심성을 깨달아 모든 망령된 생각들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티끌 경계가 참된 경계가 되고, 자기 심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선한 중의 집도 속된 집과 한가지다. 참말로 마음에 한 번 깨달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纏脫이 只在自心이니 心了則屠肆店 居然淨土요 不然이면 縱一琴一鶴과 一花一卉라도 嗜好雖清이나 魔障終在라 語云能休하면 塵境爲眞境하고 未了하면 僧家是俗家하니 信夫인저.

엇매이고 벗어나는 것은 다만 스스로의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깨달으면 고깃간이나 술집도 그곳이 그대로 깨끗한 세계다.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거문고와 학과 꽃과 풀이라도 즐기는 것은 비록 깨끗하나

악마와 장해물은 끝내 남아 있는 것이다.
옛 말에 이르기를,
“쉬게 할 수만 있으면 티끌 경계도 참된 경계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의 집도 속된 집이라.”
고 하니, 참말이로다.

314. 온갖 근심 · 생각 다 끊어 버리면, 오두막집 골방 속이 그대로 고대광실 높고 화려한 집이다.

오두막집 조그마한 골방 속에서도 만 가지 생각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참된 마음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야, 아름답게 채색한 기둥에 구름이 날고 珠簾(주렴) 밖 축축이 내리는 비를 바라볼 수 있는 고대광실 높고 화려한 집이 나와 그 무슨 상관이며 또 말은 해서 무엇 하랴!

한 잔, 한 잔, 또 한 잔, 석 잔 술에 인생의 참된 취미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오직 밝은 달을 바라 거문고를 타고, 맑은 바람에 젖대를 부는 가운데 인생의 무한한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斗室中에 萬慮都捐이면 說甚畫棟飛雲珠簾捲雨며 三杯後에 一眞自得이면 唯知素琴橫月短笛吟風이니라.

말(斗) 만한 집 속에서도 만 가지 생각을 다 버리면, 무엇 채색한 기둥에 구름이 날고 珠簾(주렴)을 비에 말아 올리는 것을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석잔 뒤에 하나의 참을 스스로 얻으면 오직 장식 없는 거문고를 달을 향해 타고 젖대를 바람에 읊음을 알 뿐이다.

- 甚(심): '何(하)'의 뜻과 같다.
- 畫棟飛雲珠簾捲雨(화동비운주렴권우): 唐(당)나라 王勃(왕발)이 지은 《滕王閣序(등왕각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일으킨 말이다. 곧,

“아침에는 아름답게 채색된 기둥에 南浦(남포)의 구름이 날고, 저녁에는 珠簾(주렴) 밖에 西山(서산)의 비가 축축이 내린다.(畫棟朝飛南浦雲, 朱簾暮捲西山雨)”

라고 되어 있다.

315. 인간의 본성은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고 활동적인 정신은 사물에 부딪칠적마다 어김없이 나타난다.

사방에 온갖 소리 다 끊어져 천지가 온통 고요한데, 어디선가 외로이 노래하는 새 소리에 귀 기울이면, 문득 말할 수 없는 그윽한 취미를 불러일으킨다.

쓸쓸한 가을, 온갖 초목이 다 시들어 모두가 푸른 옷을 벗어버렸는데, 어떻게 혼자 살아 남았는가! 한 줄기 싱싱하게 쪽 뻗은 꽃가지! 문득 즐기치게 뻗어 나가는 生(생)에의 무한한 힘을 가슴 벅차게 느낀다.

여기서 비로소 볼 수 있구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영원히 메마르거나 닳는 일이 없고, 활동하는 정신은 사물에 따라 그때마다 부딪혀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萬籟寂寥中에 忽聞一鳥弄聲하면 便喚起許多幽趣하고 萬卉摧剝後에 忽見一枝擢秀하면 便觸動無限生機하나니 可見性天이 未常枯槁요 機神이 最宜觸發이니라.

온갖 소리 적적하고 고요한 가운데 갑자기 한 마리 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문득 허다한 그윽한 취미를 불러 일으킨다. 온갖 초목이 꺾이고 벗겨진 뒤에 어찌다 한 줄기 나뭇가지가 성성한 것을 보면 문득 무한한 생기를 불러 일으킨다. 天性(천성)은 항상 마르지 아니하고 활동적인 정신은 가장 마땅하게 부딪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316.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연스러운 가운데 마음의 고삐를 풀어 놓기도 하고 거두어 잡기도 한다.

백낙천(唐白樂天)씨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다 풀어놓고서 천지 자연의 조화에 맡겨, 되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만 다 못하다.”고 한다.

또 조보지(宋晁補之)씨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거두어 잡아서 寂靜(적정)의 괴로움 없는 편안한 경지로 돌아가는 것만 다 못하다.”고 한다.

이제 백씨의 말과 같이 몸과 마음을 아주 풀어놓아 되어가는 대로 버려 둔다면, 제멋대로 흘러서 나중에는 흡사 미치광이처럼 되어버릴 것이니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조씨의 말과 같이 몸과 마음을 거두어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서, 그대로 적정의 경지에 들게 한다면 고요의 경지는 고요의 경지로되 결국 생기 없고 활동을 모르는 전혀 메마른 고요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이 또한 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오직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삐를 그 손에 꼭 쥐고서 풀어 놓을 때 가서 풀어놓고 거머쥔 때 가서 거머쥐어 놓거나 잡거나 한가지로 자연스러울 따름이다.

白氏云 不如放身心하야 冥然任天造라하고 晁氏云 不如收身心하야 凝然歸寂定이라하니 放者는 流爲猖狂하고 收者는 入於枯寂하나니 唯善操身心의는 櫛柄在手하야 收放自如니라.

백락천씨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풀어놓아서 깊숙이 천지조화에 맡겨두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

晁補之(조보지)씨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거두어 잡아서 굳은 듯 寂定(적정)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고 한다.

풀어놓으면 흘러서 미친 것 같이 되고, 거두어 잡으면 메마른 고요에 들어가게 된다. 오직 몸과 마음을 잘 조종하는 이는 칼자루가 손에 있어서 거두어 잡고 풀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이다.

-
- 白氏(백씨): 唐(당)나라의 白樂天(백낙천).
 - 晁氏(조씨): 宋(송)나라의 晁補之(조보지).
 - 寂定(적정): 世間(세간)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편안한 경지에 이르는 것. 곧, 불교에서 말하는 禪定(선정), 또는 三昧境(삼매경)을 뜻한다.
 - 櫛柄(파병): 生殺與奪權(생살여탈권). 곧 칼자루를 의미한다.

317. 천지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 여기에는 거리가 없고 사이가 없다.

눈 내리는 밤, 티 없이 희고 깨끗한 대지 위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밝은 달이 환히 마주 비추고 있다. 나 여기 서서 은빛 천지를 바라 보노라면, 내 마음 천지를 닮아가는가 속속들이 맑고 환하게 되어온다.

따스한 봄바람 화평한 기운을 만나면, 내 마음 봄바람을 닮아 가는가 저절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진다.

천지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어떤 관계이기에 그토록 감응이 빠른 것일까! 만물은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 천지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 여기에는 거리가 없고 사이가 없는 것이다.

當雪夜月天이면 心境이 便爾澄澈하고 遇春風和氣면 意界亦自冲融하나니 造化人心이 混合無間이니라.

눈 오는 밤, 달 밝은 하늘을 당하게 되면 심경이 문득 그렇게 속속들이 맑아오고, 봄바람 환한 기운을 만나게 되면 정신도 또한 저절로 환하고 부드러워진다. 造化(조화)와 人心이 한데 합하여 사이가 없는 것이다.

318. 문장과 도덕은 기교보다는拙(拙)한 듯 수수한 데에서 더욱 나아가고, 멋은 공교로움보다 순박하고 자연한 멋이 으뜸이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것보다는拙(졸)한 듯 수수한 데에서 더욱 나아가는 것이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잔재주며 얇은 지각에 의지하는 것보다는拙한 듯 충실하게 나아가는 여기에 도덕적인 완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拙자 한 글자에는 무한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복숭아꽃 만발한 桃源(도원) 땅 별천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뽕나무 밭 틈에서 닭 울음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순박하고도 자연한 멋이 풍기는가!

차가운 연못 속에 둥근 달이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시들은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가 깃을 접고 있는 모양은 그대로 또 격에 맞는 공교로운 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공교로운 그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상이 감돌아 저 桃源에서의 자연 그대로의 순박한 멋을 능가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文以拙進하고 道以拙成하나니 一拙字有無限意味라 如桃源犬吠와 桑間鷄鳴은 何等淳龐이며 至於寒潭之月과 古木之鴉하야는 工巧中에 便覺有衰颯氣象矣니라.

글은拙(졸)로써 나아가고, 道(도)는拙(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의拙字(졸자)에 무한한 의미가 들어 있다. 桃源(도원)에 개 짖는 소리와 뽕나무 사이에 닭 우는 소리와 같은 것은 얼마나 순박하며, 찬 연못 속의 달과 古木(고목)의 까마귀에 이르러서는 공교로운 가운데에 문득 쓸쓸한 기상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 桃源(도원): 桃源은 신선이 살았다는 武陵桃源(무릉도원)이란 땅으로, 陶淵明(도연명)이 지은《桃花源記(도화원기)》에서 나온 말이다.

**319. 바깥 사물을 마음대로 굴러 나가는 사람은 천지가 그대로 자기의 소요할 땅이니
좋은 일 곳은 일이 따로 없다.**

자기의 본심이 항상 초롱초롱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바깥의 모든 사물을 마음대로 굴린다.

자기의 본심이 物慾(물욕)에 이끌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바깥 사물에 걸려 使役(사역)을 당한다.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자유로이 굴러나가는 사람은 혹 좋은 일이 있어 이익을 얻고 이름을 얻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혹 좋은 일이 있어 이익을 잃고 이름을 잃는 일이 있어도 또한 근심하지 않는다. 크고 너른 이 땅이 모두가 자유로이 소요할 수 있는 나의 즐거운 땅이니, 좋은 일이라 마음 걸리고 곳은 일이라 구애될 것이 뭐 따로 있겠는가!

반대로 사물에 의하여 스스로를 사역 당하는 사람은 혹 일이 뜻대로 안 되어 역경에 부닥치게 되면, 그 역경에 휘말려 하늘을 원망하고 장을 탓하며 한없는 증오심에 불타고, 혹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부귀를 누리게 되면, 또 여가에 애착하여 행여 잃을세라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자기의 본심을 망각하고 바깥 사물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좋고 나쁘고 간에 털끝만한 일에도 마음이 얽매어 끝내 괴로움과 속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以我轉物者是 得固不喜요 失亦不憂니 大地盡屬逍遙하고 以物役我者是 逆固生憎이요 順亦生愛니 一毛便生纏縛이니라.

나로써 물을 굴리는 사람은 얻어도 진실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잃어도 또한 근심하지 않으니 大地(대지)가 다 노니는 곳에 속한다.

物(물)로써 나를 부리는 사람은 못되면 진실로 증오심을 내고 잘 되면 또한 애착심을 내나니 한 털끝만한 것에도 문득 얽히어 걸린다.

320. 현상과 본체는 형체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우주의 현상은 상대적이요 차별적인 것이지만 본래는 절대적이요 평등 무차별한 오직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에 무차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적이면서 무차별적이요, 무차별적이면서 차별적인 것으로, 현상과 본체는 형체에 그림자와도 같은 관계로서 결코 따로 떼서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체가 고요하면 현상도 고요한 것, 여기서 만일 현상을 외면하고 본체에만 집착한다면 이것은 흡사 그림자는 버리고 형체만을 잡아두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마음이 전혀 物慾(물욕)을 떠나 空虛(공허)하여 있으면 환경도 따라서 공허한 것이다. 마음이 한 번 공허하여 어떠한 바깥 사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몸이 비록 不淨(부정)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그 환경은 마찬가지로 공허한 것이다. 그러나 몸이 아무라 淸閑(청한)한 환경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온통 不淨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이것은 마치 비린내 나는 더러운 것들을 잔뜩 쌓아두고서 쉬파리를 쫓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수양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직 수고만 있을 뿐이다.

理寂則事寂하나니 遺事執理者는 似去影留形하고 心空則境空하나니 去境存心者는 如聚蠶却蚬니라.

道理(도리)가 고요하면 事相(사상)도 고요한 것이라, 事相(사상)을 버리고 도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흡사 그림자를 버리고 형체를 머물게 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空(공)하면 환경에도 공한 것이라 환경을 버리고 마음을 두는 사람은 마치 비린 것을 모아놓고 모기를 쫓는 것과 같다.

-
- 理(리), 事(사): 理는 우주의 본체이며, 事는 우주의 현상을 뜻한다.
 - 蠶(전): 비린내 나는 것.
 - 蚬(예): 모기.

321. 산 속에 숨어사는 사람의 최상의 즐거움은 대자유를 누리며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데 있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그윽한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사는 사람의 맑고 깨끗한 興致(흥치)는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아니 하고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대로 자유로이 마실 수 있는 것을 가장 마음 기쁘게 생각하고,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한가롭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두어 도무지 다투지 않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여긴다.

또 피리는 구멍이 없고 거문고는 줄 없는 거문고를 가장 알맞고 고상한 것으로 여겨 피리를 불고 거문고를 타되 소리와 곡조를 초월하여 오로지 자유로이 마음 속의 참의 소리를 울리는 것으로 으뜸으로 여긴다. 또 사람들과 서로 만나는 일은 어느 날 어느 시간이나 서로 기약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을 자연 그대로의 참되고 솔직한 것으로 알며, 손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온다고 마중 나가고, 간다고 배웅 나가는 수선스런 절차를 떠나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자연에 맡겨두는 것을 가장 마음 편하고 즐거운 것으로 여긴다.

만일 한 번이라도 걸치레에 얽매이고 형식에 빠지는 날이면, 티끌 세상 번거로운 세상의 온갖 괴로움 속에 떨어져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다.

幽人淸事는 纔在自適이라 故로 酒以不勸爲歡하고 棋以不爭爲勝하고 笛以無腔爲適하고 琴以無絃爲高하고 會以不期約爲眞率하고 客以不迎送爲坦夷하나니 若一牽文泥迹이면 便落塵世苦海矣리라.

그윽한 곳에 사는 사람의 맑은 興致(흥치)는 모두가 자유자재로 즐기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는 것으로써 기쁨을 삼고 바둑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써 승리로 삼고 피리는 구멍이 없는 것으로써 알맞은 것으로 삼고 거문고는 줄 없

는 것으로써 높은 것으로 삼고, 만나는 것은 기약하지 않는 것으로써 진실하고 솔직한 것으로 하고 손님은 맞이하고 보내지 않는 것으로써 편안하고 즐거운 것으로 삼는다. 만일 한 번 걸치레에 이끌리고 형식에 빠지게 되면 문득 티끌 세상 괴로운 바다에 떨어질 것이다.

-
- 幽人(유인): 속세를 떠나 그윽한 산 속에 숨어 사는 사람. 곧 隱者(은자).
 - 無腔(무강): 구멍이 없는 피리.
 - 無絃(무현): 줄이 없는 거문고.

위의 ‘無腔’과 ‘無絃’의 뜻은, 음악은 소리와 곡조의 좋고 나쁜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떠나 오로지 마음속의 참의 소리를 자유로이 울림으로써 으뜸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 牽文泥迹(견문이적): ‘文’은 문체이니 걸치레요, ‘迹’은 자취, 곧 형식적인 것을 의미한다. “文에 이끌리고 형식에 빠진다”는 말은 번거로운 禮文(예문)에 이끌리고 형식에 얽매인다는 말이다.

322. 나 나기 이전의 내 꼴을 생각하고 나 죽은 뒤의 내 모양을 생각해 보면 천만 가지 망령된 생각들이 일시에 싸늘한 재가 된다.

이제 시험 삼아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꼴을 하고 있었으며, 내가 앞으로 죽은 뒤에는 또 어떤 모양으로 될까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나 나기 이전의 내 꼴과 나 죽은 뒤의 내 모양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부귀공명이 다 무언가, 천만 가지 망령된 생각들이 일시에 사라지고, 마음은 언제 벌써 싸늘하여 식은 재처럼 되어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오직 한 마음, 本然(본연)의 性(성), 참 마음만이 홀로 고요히 生死도 없고 有無도 없는 평등무차별한 절대적 경에 소요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試思未生之前에 有何象貌며 又思既死之後에 作何景色하면 則萬念灰冷하고 一性寂然하여 自可超物外遊象先이니라.

시험 삼아 아직 태어나기 전에 어떤 꼴로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며, 또 이미 죽은 뒤에는 어떤 모양을 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곧 만 가지 생각이 재와 같이 싸늘해지고 한 본연의 性이 고요해져서 저절로 물건 밖에 뛰어나 만물이 있기 이전에 노닐 수가 있을 것이다.

-
- 象先(상선): 만물이 아직 생기기 이전의 상태, 絕對無差別境(절대무차별경).

323. 병이 든 뒤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알고, 난리가 난 뒤에야 평화로운 때의 행복됨을 생각하는 것은 일찍 안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몸에 일단 병이 든 뒤에야 비로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며, 지난날 건강했을 그때 몸을 함부로 굴렸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

또 사람은 난리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며, 지난날 평화로운 그때 만일의 일에 대비하지 않았던 일을 크게 뉘우치게 된다. 병이 든 뒤에야 건강이 보배임을 알고, 난리가 난 뒤에야 평화로운 그때가 행복하였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뒤늦은 생각으로 결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밝은 지혜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다가 도리어 불행한 경우를 만나 곤궁에 허덕이고, 삶에 애착하여 버둥대다가 도리어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예가 많다. 행복의 뒤에는禍(화)란 놈이 엮디어 있고, 삶의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을 희구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불행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삼가고, 또 삶을 탐내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天命(천명)에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뛰어난 생각이라 할 것이다.

遇病而後에 思強之爲寶하고 處亂而後에 思平之爲福은 非蚤智也요 倖福而先知其爲禍之本하고 貪生而先知其爲死之因이면 其卓見乎인저.

병을 만난 뒤에 건강이 보배가 됨을 생각하고, 난에 처한 뒤에 평화의 복됨을 생각하는 것은 일찍 안 것이 아니다.

행복을 바라면서 그것이禍의 근본이 되는 것을 알고 삶을 탐하면서 먼저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안다고 하면 그것이 뛰어난 견해일 것이다.

324. 곱고 미운 것, 이기고 지는 것은 꿈 같은 인생의 꿈 속의 작란이다.

무대에 출연하는 배우가 분 바르고 연지 찍으며, 혹은 미인으로 분장하고, 혹은 醜女(추녀)로 분장하여, 곱고 미운 것을 오직 붓끝으로 그려내지만 조금 있다가 노랫소리 끊어지고 막이 내려 연지 분 다 지우고 나면, 모두가 하나의 배우일 뿐, 곱고 미운 것이 어찌 따로 섰던가!

바둑 두는 사람이 바둑판을 가운데 놓고 서로 先手, 後手를 다투며 판에 놓인 바둑 돌로 勝敗(승패)를 가리지만 이미 한 판이 끝나서 바둑돌을 다 걷어치우고 보면, 거기에 무슨 이기고 지는 것이 따로 있던가!

優人¹이 傳粉調味²하야 效妍醜³於豪端하나 俄而요 歌殘場罷하면 妍醜何存이며 奕者爭先競後하야 較雌雄⁴於著子하나 俄而요 局盡子收하면 雌雄이 安在오.

배우가 분을 바르고 연지를 고루어서 곱고 미운 것을 붓 끝으로 그리지만, 조금 있다가 노랫소리가 끊어지고 장면이 파하면 곱고 미운 것이 어디 있는가! 바둑 두는 사람이 先手를 다투고 後手를 겨루어서 승부를 바둑돌에 건주었지만, 조금 있다가 판이 다하고 돌을 거두면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 있는가!

-
- 優人(우인): 배우.
 - 調味(조주): 연지를 찍는 일.
 - 著子(착자): 바둑돌.

325.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주인이 따로 없다. 오직 마음 고요하고 한가로운 사람만이 그 주인이요, 가지고 놀 권리가 있다.

시원한 가을바람, 봄철의 청아한 꽃들, 그리고 겨울의 그 희고 깨끗한 눈, 가을의 찬 달, 여기에는 만고에 주인이 따로 없다. 누구든 구경하고 싶으면 실컷 구경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명리에 쫓기지 않는 마음 고요한 사람만이 그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하늘을 삼킬 듯 넘실거리고 때로는 차분히 가라앉아 나직이 흐르는 푸른 강물, 어느 때는 가지와 잎과 꽃으로 한창 화려하게 장식하고, 어느 때는 다 벗어 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어 서 있는 나무들, 그리고 한창 줄기차게 뻗어 오르다가 시들어 영성해진 대나무, 물결에 수없이 부딪치며 숨었다 드러났다 하는 하얀 돌들, 이것들은 어느 특정한 인물의 것이 아니다.

누구든 가지고 놀고 싶으면 싫도록 더불어 놀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망령된 생각에 쫓기지 않는 마음, 한가로운 사람만이 그것을 가지고 놀 권리가 있는 것이다.

風花之瀟洒와 雪月之空清은 唯靜者爲之 주요 水木之榮枯와 竹石之消長은 獨閒者操其權이니라.

바람과 꽃의 산뜻하고 깨끗함과, 눈과 달의 희고 맑은 것은 오직 고요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 물과 나무의 성하고 쇠하는 것과, 대나무와 돌의 사라지고 자라나는 것은 홀로 한가로운 사람만이 그 권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326. 타고난 본성의 순박함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면, 이야말로 인생 제일의 경계다.

시골 농부나 시골 늙은이더러 누런 닭고기와 텃밭한 막걸리 이야기를 하면 군침을 삼키며 기뻐들 한다. 그러나 고관대작들이 먹는 고급 요리를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

또 시골 사람들에게 숨 두루마기나 짧은 베 잠방이 이야기를 하면 신이 나는 듯 좋아들 한다. 그러나 고관대작들이 입는 번쩍거리는 예복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들 입을 붙인다. 그네들은 田園(전원)에서 소박하고 깨끗한 자기 本性의 참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지닌 욕심 또한 더 없이 깨끗하고 소박한 것이다. 자기 본성의 참을 끝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지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계야말로 인생의 제일가는 경계라 할 것이다.

田父野叟는 語以黃鷄白酒則欣然喜하고 問以鼎食則不知하며 語以縑袍短褐則油然樂하고 問以袞服則不識하나니 其天全故로 其欲淡이라 此是人生第一個境界니라.

시골 농부가 시골 늙은이더러 누런 닭고기와 막걸리로써 이야기하면 곧 반가운 듯 기뻐하고, 고급 음식으로써 물어보면 모른다. 숨 두루마기나 짧은 베 잠방이로써 이야기하면 신이 나는 듯 즐거워하고, 고관의 예복으로써 물어보면 모른다. 그 천성이 순진하기 때문에 그 욕심도 맑은 것이라, 이것이 이 인생의 제일가는 경계인 것이다.

-
- 田父野叟(전부야수): 田父는 田夫(전부) 곧 농부요, 野叟는 野翁(야옹) 곧 시골 늙은이다.
 - 鼎食: 貴人(귀인)이 먹는 고급 음식.
 - 袞服(곤복): 高官의 禮服.

327. 사람의 본성은 본래 망령된 생각이 없으니 마음이 있는 줄 조차 잊어야 하며, 만물은 본래 하나이니 하나요 둘이요 생각을 말아야 한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티없이 깨끗하고 진실한 것으로서 조금도 망령된 생각이 없는 것이다. 바로 사람의 타고난 본성 그 자리가 그대로 도덕 수양의 최고의 경계인 것을, 구태여 안으로 자기의 본성을 관찰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석가모니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관심이라고 하여, 항상 안으로 자기의 본성을 관찰하여 밝게 할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본래 진실 그대로이며, 따라서 어느 한 구석 어두운 곳이 없는 것을 여기에 다시 무슨 망령된 생각을 제거할 것이 있으며 또 무얼 밝게 할 것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석가모니의 觀心說(관심설)은 도리어 새로운 망령된 생각을 자아내어 진리를 깨달아 얻는 데 더욱 많은 障害(장해)가 될 뿐이다.

또 만물은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래 평등 무차별한 것이요 同一體(동일체)인 것이다. 그런 것을 구태여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莊子(장자)는 齊物論(제물론)을 내세워 이 세상의 선악 · 시비 · 利害(이해) · 귀천 등의 대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 절대 무차별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물은 본래 무차별이요 둘이 아닌데, 여기서 세삼 하나로 돌아갈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를 쪼개어서 둘 · 셋의 차별을 낳는 결과 밖에는 되지 않는다. 본래 하나이니 그 하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그 자리가 곧 절대 자리요, 평등 무차별의 세계인 것을 공연히 하나로 돌아갈 것을 외쳐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에서 또 다른 차별을 낳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心無其心이어늘 何有於觀이리오 釋氏曰觀心者是 重增其障이요 物本一物이어늘 何待於齊이리오 莊生曰齊物者是 自剖其同이니라.

마음에 그 마음이 없는데 무슨 관찰할 것이 있겠는가! 釋(석)씨의 마음을 관찰한다

고 말하는 것은 거듭 그 障害(장해)를 더할 뿐이다. 만물은 본래 하나의 物(물)인데 어찌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겠는가! 莊子(장자)의 物을 하나로 한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그 同一한 것을 쪼개는 것이다.

-
- 心無其心(심무기심): 사람이 타고난 본래의 心性(심성)은 티 없이 깨끗하고 진실한 것으로 조금도 망령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 觀心(관심): 釋氏(석씨) 곧 佛陀(불타)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觀心(관심)할 것을 말한다. 觀心(관심)이란 안으로 자기의 본성을 관찰하여 밝게 하는 것이니, 곧 內省的(내성적)인 자기관찰을 의미한다.
 - 物本一物(물본일물): 만물은 본래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물은 본래 평등 무차별한 것이요, 同一體(동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齊物(제물): 萬物一元論(만물일원론)을 주창한 莊子(장자)의 齊物論(제물론). 齊物이란, 是非(시비) · 善惡(선악) · 利害(이해) · 貴賤(귀천) 등 대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 절대 무차별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328. 아무리 즐거워도 알맞게 마시고 알맞게 즐기며 그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서둘러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생황소리, 노랫소리 흥겹게 울려 퍼지고 모두들 취흥에 젖어 즐거움이 한창 무르익는데 그 가운데 점잖게 앉아 알맞게 마시고 알맞게 즐기며 취흥이 다하기 전에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미련 없이 옷을 떨치고 일어나 휘적휘적 제 집으로 서둘러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어쩌면 그것은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 낭떠러지 위험한 곳을 팔을 저으며 자유로이 걸어가는 것과도 같아 부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야 어디 그렇던가!

좌석은 이미 흐트러져 볼품 없이 되고, 방은 깊어 물시계의 물방울도 달랑달랑, 몸은 취하여 가누지를 못 하면서도 이미 가버린 즐거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밤새껏 왔다 갔다 실 줄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에 저속한 인사들이 제 몸을 제 스스로 괴로운 바다 속에 던져두고 한없이 허우적거리는 것과도 같아 생각하면 참말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笙歌正濃處에 便自拂衣長往은 羨達人撒手懸崖요 更漏已殘時에 猶然夜行不休는 咲俗士沈身苦海니라.

생황소리와 노랫소리가 바로 한창 무르녹는 곳에서 문득 스스로 옷을 떨치고서 휘적휘적 돌아가는 것은 달관한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손을 휘젓는 듯하여 부러운 것이다.

밤은 깊어 물시계의 물이 이미 달랑달랑하는 때에 오히려 밤 걸음을 쉬지 않는 것은 속된 선비가 몸을 괴로운 바다에 잠그는 듯하여 우스운 것이다.

329. 마음이 확고하게 잡히지 않았거든 산 속에 들어가 마음을 닦고, 마음이 확고하게 잡혔거든 풍진 세상에 나와 원만한 활동력을 길러야 한다.

자기 본래의 참 마음을 아직 확고하게 잡지 못하여 보고 듣고 겪는 대로 마음이 온통 바깥 사물에 이끌리게 되거든, 먼저 그 몸을 티끌 세상 시끄러운 곳에서 멀리 떼어 조용한 산림 속에 묻어 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온갖 하고 싶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꾸준히 마음을 닦아나가면, 마침내 속속들이 맑게 트인 자기 마음의 고요한 본체를 환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무엇에도 흔들리거나 어지러워지지 않을 마음의 고요, 참 마음을 확고하게 잡게 되거든 그 몸을 다시 풍진 세상으로 내보내어 마음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다 보고 듣도록 한다. 그리하여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거나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모나지 않고 거리낌이 없는 너그럽고 원만한 활동력을 길러내는 것이다.

把握未定이면 宜絶迹塵囂하야 使此心으로 不見可欲而不亂하야 以澄吾靜體요
操持既堅이면 又當混跡風塵하야 使此心으로 見可欲而亦不亂하야 以養吾圓氣
니라.

잡는 것이 아직 정하지 못했으면 마땅히 자취를 티끌 세상 시끄러운 데에서 끊어서 이 마음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보지 않고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여 그것으로써 나의 고요한 본체를 맑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잡는 것이 이미 단단하면 또 마땅히 자취를 풍진에 섞어서 이 마음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을 보게 하고 또한 어지럽게 하지 아니하여, 그것으로써 나의 원만한 기능을 길러야 할 것이다.

330. 고요함과 시끄러움,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동정(動靜)이 하나인 자유로운 활동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들을 피하여 깊은 산 속으로 고요를 찾아 들어간다. 생각이 사람이 없는 곳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자아에 집착하는 차별적인 마음이 있는 까닭이요, 또 마음이 靜寂(정적)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동요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고서 어떻게 남과 나를 하나로 보는 평등 무차별한 경계에 들 수가 있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이 하나인 자유로운 활동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겠는가!

喜寂厭喧者는 往往避人以求靜하나니 不知意在無人에 便成我相하고 心着於靜에 便是動根이라 如何到得人我一視의 動靜兩忘의境界리요.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흔히 사람을 피하여 그것으로써 고요를 구한다. 뜻이 사람이 없는 곳에 있으며 문득 내로라 하는 생각을 이루고, 마음이 고요에 집착하며 문득 이것이 동요의 근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남과 나를 하나로 보는 움직임과 고요함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는 경계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 我相(아상): 自我(자아)에 집착하는 마음.

331. 산에서 살아 가슴속이 맑고 시원하면 보는 것마다 아름다운 생각이요, 풍진에 몸담아 티끌에 굴리면 쓸모 없는 물건으로 떨어진다.

산에서 살아 가슴 속이 속속들이 맑고 시원하면 보는 것마다 모두가 아름다운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 뿐이다. 한 조각 외로이 뜬 구름, 들판에서 즐거운 두루미를 보고서는 웬지 세상을 아주 초월한 생각을 일으키고, 산골짜기 돌 많은 시냇물, 흘러가는 맑은 샘물을 만나서는 티끌 마음 때 묻은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릴 생각을 일으킨다. 또 늙은 전나무와 찬 서리 속에 핀 매화를 어루만지고는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을 굳은 절개가 곳곳이 서고, 바닷가에 노는 갈매기며 들판에서 평화로운 고라니와 사슴들을 벗하고는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들을 나도 몰래 잊어간다. 그러나 만일 다시 한 번 티끌 세상에 뛰어드는 날이면, 나와 상관이야 있고 없고 간에 마음은 온통 바깥 사물에 흔들려, 나중에는 내 몸까지도 티끌 투성이가 되어 전혀 쓸모 없는 물건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山居에 胸次淸洒하면 觸物에 皆有佳思라 見孤雲野鶴에 而起超絶之想하고 遇石澗流泉에 而動澡雪之思하고 撫老檜寒梅에 而勁節挺立하고 侶沙鷗麋鹿에 而機心頓忘하나니 若一走入塵寰이면 無論物不相關이라 卽此身亦 亦屬贅旒矣니라.

산에서 살아 가슴속이 맑고 시원하면 사물에 부딪침에 있어 모두가 아름다운 생각이 있다. 외로운 구름과 들 학을 보매 초월한 생각을 일으키고, 돌 시내와 흐르는 샘물을 만나매 깨끗하게 씻을 생각을 움직이고, 늙은 전나무와 찬 매화를 어루만지매 굳은 절개가 곳곳이 서고 바닷가 갈매기와 고라니와 사슴을 짝하며 꿈틀거리는 마음을 별안간 잊어버린다. 만일 한 번 달려 티끌 세상에 들어오면, 外物(외물)과 서로 관계치 않는 것을 논할 것 없이 곧 이 몸 또한 쓸데없는 것에 속하게 된다.

• 贅旒(贅류):贅는 사마귀요,旒는 冠(관) 앞 뒤에 드리워진 술이니, 贅旒란 곧 쓸데없는 물건이란 뜻이다.

332. 내 마음을 무심하여 자연과 하나일 때, 들새도 흰 구름도 내게 와 멈춘다.

때에 따라 일어나는 흥취를 누를 길 없어 들판 향긋한 풀 속을 한가로이 어슬렁 거닐다 보면, 들새가 마음 없이 내 곁에 와 동무해 준다. 내가 저게 아무런 마음이 없거니, 전들 내게 무슨 두려운 마음이 있겠는가! 경치가 참말로 좋아, 지는 꽃 아래 옷깃을 헤치고 혼자서 우뚝이 앉아 있노라면, 무심한 흰 구름 말 없이 질펀히 내게 와 머문다.

興逐時來하야 芳草中에 撒履間行하면 野鳥忘機時作伴이요 景與心會하야 落花下에 披襟兀坐하면 白雲無語漫相留니라.

흥이 때를 좇아 와서 꽃다운 풀 속에 신발을 저어 한가로이 거닐면 들 새도 마음을 잊고 때에 짝을 짓는다. 경치가 마음으로 더불어 맞아서 지는 꽃 아래, 옷깃을 헤치고 혼자 우뚝이 앉아 있으면 흰 구름도 말 없이 漫然(만연)히 서로 머문다.

333.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으로 지어 내는 것, 한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뜨거운 불꽃 속도 서늘한 연못이다.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자면 괴로움도 가지가지요 즐거움도 가지가지다.

그러나 이 괴로움과 즐거움은 처음부터 엄연히 그 경계를 갈라 정해 놓은 것도 아니요, 동시에 이것은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지어내는 것이다.

그러기에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하였다.

“利欲(이익)에 대한 생각이 불 같이 타 오르는 것. 이것이 곧 불구덩이 속 지옥이란 곳이요, 탐내고 아끼는 생각에 빠지면 그것이 곧 괴로운 바다가 되는 것이다. 한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이글거리는 뜨거운 불꽃 속도 서늘한 연못 속과 같은 것이요, 한 생각이 昏迷(혼미) 속에서 깨어나면 배는 生死의 괴로운 경계에서 괴로움 없는 지혜의 저 언덕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참말로, 다만 한 생각의 차이로 괴로움과 즐거움, 행복과 불행이라는 엄청나게 다른 경우를 맛보게 되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마음 갖기를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人生的 福境禍區는 皆念想造成이라 故로 釋氏云 利欲熾然이 卽是火坑이요 貪愛沈溺이 便爲苦海니 一念淸淨이면 烈焰成池요 一念警覺이면 船登彼岸이라 하니 念頭稍異에 境界頓殊라 可不愼哉아.

인생의 행복한 경지와 災禍(재화)의 구역은 모두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釋氏(석씨)가 말하기를,

“利欲(이익)이 불타오르듯 하는 것이 곧 이 불구덩이요, 貪愛(탐애)에 빠지는 것이

문득 괴로운 바다가 된다. 한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뜨거운 불꽃이 연못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한 생각이 경계하고 깨닫게 되면 배가 저 언덕에 오르게 된다.”

고 하였다.

생각이 조금 다른 데에 경계가 별안간 달라지는 것이라, 삼가지 아니 할 수 있겠는가!

334. 물방울이 돌을 뚫어내듯 그렇게 공부하고, 외가 익을 대로 익어 저절로 꼭지가 빠지듯 그렇게 노력하며 때를 기다린다.

뱃줄로 톱을 삼아 나무를 썰고 또 썰면 결국에는 나무가 끊어지고 만다.

물방울이 똑똑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 단단한 돌도 뚫어지고 만다.

도덕을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뱃줄이 나무를 끊고 물방울이 돌을 뚫어내듯, 작은 힘이 나마 꾸준히 노력하여 닦고 또 닦아나가면 마침내는 도덕의 극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다.

물이 모이고 또 모이면 개울이 되고 외가 익을 대로 익으면 꼭지가 저절로 떨어진 다.

도덕의 최고 경계를 얻으려는 사람은 물이 모여 개울이 이루어지고 외가 익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듯 그렇게 자연에 맡겨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繩鋸木斷하고 水滴石穿하나니 學道者는 須加力索이요 水到渠成하고 瓜熟蒂落 하나니 得道者는 一任天機니라.

뱃줄 톱으로 나무를 끊고 물방울로 돌을 뚫을 수 있는 것이니 道를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찾기를 더할 것이다.

물도 모이면 개울을 이루고 외도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는 것이니 道를 얻은 사람은 하나같이 자연의 활동에 맡길 따름이다.

• 繩鋸木斷(승거목단): 새끼로 톱을 삼아 오래도록 썰면 나무도 끊어진다는 말이다. 꾸준한 노력, 오랜 각고 끝에 성공함을 비유한 말이다.

• 蒂(체): 과일의 꼭지.

335. 마음만 맑고 고요하다면 괴롭고 즐거운 곳이 따로 없고 시끄럽고 조용한 것이 따로 없다.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든 꾀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여 실새 없이 부스대고 있으면 이것이 곧 괴로운 바다요 시끄러운 세상이다. 마음에 아무런 꾀하는 생각이 없어 고요하며 흔들림이 없으면 괴롭고 시끄러운 세상이 어디 따로 있는가! 마음은 항상 맑은 하늘에 밝은 달빛처럼 환하고 시원한 바람처럼 상쾌한 것이다.

마음이 저만큼 멀고 높은 곳에 있다면, 굳이 세속을 떠나 山水를 찾아야만 할 것이 뭐 있겠는가!

마음만 맑고 고요하다면 산수병이 다 무언가 수레소리, 말발굽소리 시끄러운 속에서도 수레바퀴의 먼지 한 점 없고 말발굽소리 자취조차 없는 것이다.

機息時엔 便有月到風來니 不必苦海人世요 心遠處엔 自無車塵馬迹이니 何須痼疾丘山이리요.

꾀하는 마음이 쉴 때에는 문득 달이 이르고 바람이 오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괴로운 바다의 사람 세상이 아니다. 마음이 먼 곳에는 스스로 수레바퀴의 티끌과 말발굽의 자취가 없는 것이니 어찌 모름지기 丘山(구산)에 병들기를 기다리겠는가!

• 機(기): 機心(기심), 劃策(획책)하는 마음.

336. 천지의 진정한 뜻은 만물을 오로지 끊임없이 생생발전하게 하는 데 있다.

쓸쓸한 가을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는가 하면 그 추운 겨울에도 뿌리 밑바닥에서는 돌아오는 봄을 위하여 새싹이 움트고 있다.

봄, 여름, 가을이 다 가고 겨울의 차례가 되면 만물을 쫄쫄 얼어붙게 하는 그 무서운 추위 속에서도 다시금 돌아올 봄 기운이 몰래 움직이고 있다.

만물을 말려 죽게 하는 그 살벌한 계절 속에서도 오직 한 가닥 끊임없이 힘차게 자라나게 하는 영원한 그 뜻! 여기서 참으로 천지자연의 生生發展(생생발전)을 위주로 하는 그 거룩한 뜻을 분명히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草木이 纔零落에 便露萌穎於根底하고 時序雖凝寒이나 終回陽氣於飛灰하나니 肅殺之中에 生生之意常爲之主라 卽是에 可以見天地之心이니라.

초목이 겨우 시들어 떨어지매 문득 뿌리 밑에서 싹을 드러내고, 四時(사시)의 차례가 비록 어리고 추우나 마침내 나는 재에서 陽氣(양기)를 돌린다. 쌀쌀하여 말려 죽이는 가운데 生生(생생)하는 뜻이 항상 主(주)가 되는지라, 곧 여기에 그로써 천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 回陽氣於飛灰(회양기어비회): 一陽來復(일양래복), 곧 겨울이 끝나고 봄이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옛날 중국에서는 대나무 통에 재를 넣어두고, 동지(冬至)가 되면 저절로 재가 날아 나오도록 하여 이것으로 음양을 알아냈다고 한다.

337. 비 갠 뒤의 산 경치는 더욱 새롭고, 고요한 밤 종소리는 더욱 맑고 드높다.

비 갠 뒤 산 경치를 바라보면, 티끌 먼지 깨끗이 씻어 내린 산천 초목들, 모두가 산뜻하고 고운 새로운 모습들이다. 온갖 소리 생각들 다 잠든 고요한 밤, 멀리서 울려오는 종소리 들으면 그 소리 한결 맑고도 드높다.

雨餘觀山色하면 景象이 便覺新妍이요 夜靜聽鐘聲하면 音響이 尤爲清越이니라.

비 끝에 산 빛을 보면 경치가 문득 새롭고 고운 것을 깨닫게 되고, 밤이 고요한데 종소리를 들으면 음향이 더욱 맑고 높다.

338. 산은 사람의 마음을 넓혀 주고, 강물은 사람의 뜻을 깊고 멀게 한다.

높은 산에 오르면 막혔던 마음 툭 터져 그지없이 넓어지고,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 보면, 살고도 얕은 사람의 뜻이 아득히 멀어지고,
눈 비 오는 밤을 고요히 책을 읽고 있으면 희미하던 정신이 일시에 맑게 개이고,
언덕 마루에 올라 한가락 길게 휘파람 불어보면 사람의 흥취가 더 없이 고상해진
다.

登高에 使人心曠하고 臨流에 使人意遠하여 讀書於雨雪之夜하면 使人神清하고
舒嘯於丘阜之嶺하면 使人興邁니라.

높은 산에 오르매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넓게 하고, 흐르는 물에 다다르매 사람
으로 하여금 뜻을 멀게 한다. 눈 비 오는 밤에 책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을 맑게 하고, 언덕 마루에서 휘파람을 불면 사람으로 하여금 흥취가 높게 한다.

339. 마음이 넓으면 막대한 녹봉도 값 싼 오지그릇이요, 마음이 좁으면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큰 이익으로 보인다.

마음이 넓어 사방에 벽이 없이 툭 트이고 보면 몇 만 섬이나 되는 막대한 祿俸(녹봉)도 한낱 값 싼 오지 그릇 만큼이나 여기게 된다.

마음이 비좁고 잘아 사방이 벽이요, 네 것 내 것 경계를 갈라 긋기로 들면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수레바퀴만큼이나 엄청난 이익으로 보여 이것을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이다.

心曠則萬鍾이 如瓦缶하고 心隘則一髮이 似車輪이니라.

마음이 넓으면 萬(만)의 鍾(종)이 오지장군과 같고, 마음이 좁으면 한 터럭이 수레바퀴와 같다.

• 萬鍾: 鍾(종)은 量(양)의 한 단위로서, 한 鍾(종)은 六石(육석) 四斗(사두)라 한다. 萬(만)의 鍾(종)이란 엄청나게 많은 祿俸(녹봉)을 뜻한다.

• 瓦缶(와부): 흙으로 만든 장군(술 또는 간장 그릇)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임을 뜻한다.

340. 내가 물욕에 사역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을 마음대로 부린다면, 인간의 정욕과 기호(嗜好)도 다 본성의 작용으로 진리인 것이다.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 온갖 아름다운 꽃이며 늘어진 버드나무! 만일 이 세상에 자연의 이러한 풍물이 없었더라면 천지자연의 조화의 솜씨도 아마 별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천지는 본래 고요하여 만고에 말이 없으나, 고요하여 말이 없는 그 가운데 바람과 달과 꽃 등 한정도 없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니 이래서 조화의 솜씨야말로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요 또 이것을 가리켜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만일 정욕이라든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쓸데 없게 식은 재(灰), 목석과 같이 되어 인간으로서의 마음의 모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정욕이라든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여기서 비로소 인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성인과 같은 훌륭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공평무사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바깥 사물을 마음대로 궁글려 나가지만 보통 사람은 中正한 마음을 잃어 이것저것 바깥 사물에 휘말려 자기를 使役(사역) 당하는 것이다.

만일 성인과 같이 공평무사한 자기로써 바깥 사물을 자유로이 부려 나간다면, 아무리 인간의 정욕이요 인간의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진실된 본성의 작용에 서 나온 것인 만큼 천지자연의 미묘한 작용과 다를 것이 없으며, 비록 티끌 묻은 情(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아를 떠난 이상, 바른 도리의 이상적인 경지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無風月花柳면 不成造化요 無情欲嗜好면 不成心體하나니 只以我轉物하고 不以物役我면 則嗜慾이 莫非天機요 塵情이 卽是理境矣니라.

바람과 달과 꽃과 버들이 없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情欲(정욕)과 즐기고 좋아

하는 것이 없으면 心體(심체)를 이루지 못한다. 다만 나로써 物(물)을 궁글리고 物(물)로써 나를 부리게 하지 않는다면, 곧 嗜好(기호)와 정욕이 천지의 작용 아닌 것이 없는 것이, 티끌 情(정)이 곧 진리의 境地(경지)인 것이다.

341. 자기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만물을 그대로 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각기 주어진 천연의 성(性)을 다하게 한다.

내 몸은 만물 가운데 하나요, 만물은 오직 하나와 근원에서 나왔으니, 나와 만물은 본래 둘이 아니요, 본래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이 본성을 완전히 깨달아 얻은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도 아니 하거니와 만물의 본성 또한 다치려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의 주어진 본성의 참을 극진히 하면서 만물을 있는 그대로 놓고 그로 하여금 天然(천연)의 性(성)을 마음껏 펴게 하여 만물 하나하나가 다 각각 제자리를 얻어 알맞게 자라며 천연의 아름다움을 남김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천하는 나 하나의 천하가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천하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천하야말로 모든 사람의 천하로서 사람마다 불편 없이 자기 본성의 참을 마음껏 누려야 할 천하인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가 자기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안다면, 누구든 천하를 다스리되, 천하를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돌려 꿈에라도 자기만의 천하를 만들려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혹 창칼을 들고 네 땅 내 땅 경계를 그으려 난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오로지 모든 사람의 뜻에 따라 그들이 다같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따름이다. 천하를 모든 사람에게 돌려 모든 사람이 다같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천하! 이 곳이 곧 태평천하요 괴로움 없는 영원한 낙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말로 이러한 경지야말로 세간적이면서 세간을 초월한 경지, 다시 말하면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경지로서, 오나 가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현실과 이상이 하나인 경지인 것이다.

就一身了一身者是 方能以萬物付萬物이요 還天下於天下者是 方能出世間於世間이니라.

한 몸에 나아가 한 몸을 깨달은 사람은 바야흐로 능히 만물로써 만물에 붙일 수 있고, 천하를 천하에 돌리는 사람은 바야흐로 능히 세간에서 세간을 나올 수 있다.

342. 한가한 때에는 망령된 생각을 근심하고 바쁜 때에는 참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근심한다.

사람은 너무 한가해도 병이요, 또 너무 바빠도 탈이다. 사람이 너무 한가하게 되면 별의 별 망령된 생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되고, 너무 바쁘다 보면 인간 본래의 참된 眞性(본성)이 나타날 겨를이 없다.

그러므로 도덕 수양에 뜻을 둔 사람은 가슴 속에 항상 자기의 몸과 마음가짐에 대한 근심을 품지 아니 할 수 없고 또 바쁨 속에서도 때때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여유 있는 취미를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한가해도 마음으로 부터 망령된 생각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고, 또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자기의 참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人生이 太閒則別念이 竊生하고 太忙則眞性이 不現하나니 故로 士君子는 不可不抱身心之憂요 亦不可不耽風月之趣니라.

사람이 너무 한가하면 딴 생각이 가만히 생기고 너무 바쁘면 참된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士君子(사군자)는 몸과 마음의 근심을 품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풍월의 취미를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

343. 마음이 맑고 고요하다면 가는 곳마다 참된 경계요, 보고 듣는 것마다 참된 활동이다.

사람이란 여러 가지 생각에 이리저리 마음을 쓰는 데에서 자기 본래의 참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만일 마음 가운데, 다만 한 생각이라도 망령된 생각이 없이 속속들이 맑고 환한 그대로 마음이 제 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다면, 가는 곳마다 환상이 아닌 진리의 참된 경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마다 다 진리의 참된 활동이다.

마음이 항상 제 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구름이 되어 유유히 함께 떠가고,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도 비처럼 싸늘하게 맑아지고 즐거운 새 소리를 들으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은 기쁨이 샘 솟고, 꽃잎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가슴 속 시원히 무언가 깨달아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내 마음 고요하여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참된 본성만이 환히 빛을 드러내고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곳 치고 참된 경계 아닌 곳이 없으며, 듣고 보고 겪는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참된 활동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人心이 多從動處失真하나니 若一念不生하고 澄然靜坐하면 雲興而悠然共逝하고 雨滴而冷然俱清하고 鳥啼而欣然有會하고 花落而瀟然自得이니 何地非眞境이며 何物이 非眞機리요.

사람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참됨을 잃어버린다. 만일 한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맑게 고요히 앉아 있으면, 구름이 일어 유유히 함께 가고, 비가 떨어져 싸늘하게 함께 맑고, 새가 울어 기꺼운 듯 마음에 맞는 것이 있고 꽃이 떨어져 시원스레 스스로 얻음이 있는 것이니 어느 땅이 참된 경계가 아니며, 어느 물건이 참된 작용이 아니겠는가!

344. 근심 없는 기쁨이 없고 기쁨 없는 근심이 없다. 그러므로 통달한 사람은 기쁨과 근심을 하나로 보고 둘 다 잇는다.

세상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 아기를 낳는 어머니에게는 죽음의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할 큰 근심이 따른다.

또 돈 꾸러미가 점점 쌓여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대견한 일이다. 그러나 돈꾸러미가 많이 쌓이는 그 기쁨 속에는 행여 도적이 넘겨다 보지는 않을까 하는 잠 못 이루는 근심이 따른다.

세상에는 내가 원치 않는 근심일랑 아주 떼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기쁨만을 오롯이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다. 기쁨 뒤에는 반드시 근심이 따르고, 근심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뒤따라 어느 일 치고 근심 없는 기쁨은 없는 것이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근심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가난을 근심할 필요는 없다. 내 집이 가난하면 가난한 데 따라 비용을 더욱 절약하고 검소한 정신을 기르며,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그 가난이 곧 부자의 기쁨이 될 것이니, 그때야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

또 내 몸에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분명 근심스럽고 슬픈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병이 들었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슬퍼만 할 일이 아니다. 마음을 더욱 건전하게 가지고 건강 회복에 온갖 힘을 기울인다면, 오늘에 병 약한 것이 곧 내일의 건강의 기쁨이 될 것이니 건강을 되찾게 되는 날 그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러고 보면 세상에 어느 근심 치고 기쁨이 따르지 않는 근심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順境(순경)과 역경을 오직 하나를 보고, 순경에 당한다고 기뻐하지도 앓거니와, 역경에 처해도 또한 슬퍼하지 아니하며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슬픔을 다 같이 잇고서 그 어디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둥그런 마음을 길러나가는 것이다.

子生而母危하고 鑊積而盜窺하나니 何喜非憂也며 貧可以節用이요 病可以保身이니 何憂非喜也리요 故로 達人은 當順逆一視而欣戚兩忘이니라.

자식이 나와서 어머니가 위태하고, 돈 꾸러미가 쌓여서 도적이 엿보니, 어느 기쁨치고 근심이 아니겠는가! 가난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병이 들으로써 몸을 보전할 수 있으니, 어느 근심치고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통달한 사람은 마땅히 순경과 역경을 하나로 보고, 기쁨과 슬픔을 두 가지 다 잊어버린다.

345. 받는 마음은 연못 물이 달빛을 받듯 집착이 없고, 주는 마음은 달이 연못에 빛을 던져 주듯 무심해야 무아경에 노닐 수 있다.

깊은 골짜기에 폭풍이 몰아치면 거센 바람소리가 골짜기를 맴돈다. 그러나 폭풍이 일단 지나가버리면 골짜기는 다시금 고요하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까지 골짜기는 바람소리를 머물러두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귀는 바깥 세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폭풍이 지나가 버리면 바람 소리마저 떠나 보내 다시금 고요를 되찾는 골짜기처럼 밖에서 들려오는 웅고 그르고 좋고 나쁜 말을 듣는 그대로 흘러보내며,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귓속에 오래도록 담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비와 선악의 굴레에서 아주 벗어나 마음은 항상 고요한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늘에 밝은 달은 연못에 빛을 던지고, 연못 물은 고요히 달빛을 안고 춤추지만, 달빛은 달빛대로 무심한 가운데 놀고, 연못 물은 연못 물대로 무심한 가운데 놀아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의 심경도 연못에 던져진 달빛처럼 달빛을 받은 연못처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아니하고 텅 빈 공간에서 노닌다면 바깥 사물도 나도 다 함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耳根은 似颺谷投響하야 過而不留則是非俱謝하고 心境은 如月池浸色하야 空而不著則物我兩忘이니라.

귀는 흡사 빠른 바람이 골짜기에 소리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지나쳐 머물게 하지 아니하면 웅고 그른 것이 함께 사라지고 마음은 마치 달이 연못에 빛을 잠근 것과 같아서 텅 비어 집착하지 아니하면 물건과 나를 둘 다 잊어버린다.

• 耳根(이근): 佛敎(불교)에서는 眼·耳·鼻·舌·身·意 등 여섯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힘을 六根(육근)이라 하여, 眼根(안근)·耳根(이근)·鼻根(비근)·舌根(설근)·身根(신근)·意根(의근)이라 한다.

346. 이 세상은 티끌 세상도 아니요 괴로운 바다도 아니다. 사람들이 공연히 제 마음으로 티끌을 짓고 괴로워하는 것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영화와名利(명리)에 마음이 얽매어 공연히 저 혼자 조바심을 내며 목숨을 허덕인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멸절한 세상을 가지고 티끌 세상이라느니, 괴로운 바다니 하며 탄식들이다.

보이지 않는가! 하늘엔 흰 구름 오가고 산은 푸르고, 강물은 유유히 흘러 가고, 돌들은 깎아 세운 듯 서 있고 꽃들은 곱게 피어 사람을 기다리고 새들은 즐겁게 노래 부르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아리 쳐 대답하고 나무꾼은 흥겨운 노래 그칠 줄을 모르고…, 여기 그 어느 구석에 티끌이 있으며, 또 어디에 괴로움이 서려 있다는 말인가!

이 세상은 분명 티끌 세상이 아니요, 바다 또한 괴로운 바다가 아닌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영화와 명리에 매달려 저 스스로 티끌을 짓고 공연히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世人이 爲榮利纏縛하야 動曰塵世苦海라 하나니 不知雲白山靑하고 川行石立하며 花迎鳥笑하고 谷答樵謳라 世亦不塵이요 海亦不苦이를 彼自塵苦其心爾니라.

세상 사람들이 영화와名利(명리)에 얽매임이 되어 걸핏하면 티끌 세상이니 괴로운 바다니 한다. 구름은 희고 산은 푸르고, 냇물은 흘러가고 돌은 서 있으며, 꽃을 맞이하고 새는 웃고, 골짜기는 대답하고 나무꾼은 노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도 또한 티끌이 아니요, 바다 또한 괴로움이 아닌데도 저이가 스스로 그 마음을 티끌로 하고 괴로움으로 할 뿐인 것이다.

347. 달도 차면 기우느니 꽃은 반쯤 핀 것이 아름답고, 술은 거나할 만큼 마시는 것이 기분이 좋다.

꽃은 반쯤 핀 것이 아름답고, 술은 거나할 정도로 마시는 것이 멋이 있다. 반쯤 벌어진 꽃을 보고 거나할 정도로 취하는 이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멋이 서려 있는 것이다.

만일 꽃이 활짝 피어 어지러울 만큼 화려하고, 술이 곤드레만드레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한다면 흥취가 다 무엇인가! 이내 곧 험악한 경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날 부귀에 영화에 한창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花看半開하고 酒飲微醺하면 此中에 大有佳趣요 若至爛漫酩酊면 便成惡境矣리니 履盈滿者는 宜思之니라.

꽃은 반쯤 핀 것을 보고 술은 거나하게 취할 만큼 마시면 이 가운데에 크게 아름다운 취미가 있는 것이다. 만일 꽃이 활짝 피어 화려하고 술이 곤드레만드레하게 취하는데 이르게 되면, 문득 적의 경계를 이루게 될 것이니, 한창 좋은 지위를 밟는 사람은 마땅히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48. 산에서 나는 식물, 들에서 자라는 날짐승들은 세간의 양육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맛이 더욱 향기롭고 독특하다.

고사리, 더덕, 두릅, 버섯, 산초, 머루 따위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물은 세간 사람들이 물을 대어 주거나 풀을 매어 주지 않아도 절로 잘 자란다.

그리고 산과 들에서 사는 온갖 날짐승들은 세간 사람들이 보살펴 길러 주지 않아도 저대로 힘차게 자란다.

이것들은 사람의 손을 전혀 빌지 않고도 싱싱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맛도 또한 모두가 각각 향기롭고 독특한 맛을 지니어 참으로 별미롭다.

우리네 사람들도 우리가 타고난 진실하고도 소박한 본성을 그대로 잘 가꾸어 세간에서의 여러 가지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속 사람들이 즐겨 따르는 명문(名聞)과 이욕에 물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풍기는 냄새와 맛이 훨씬 높고 멀어 범속(凡俗)을 벗어난 그 어떤 별다른 인물이 안 되겠는가!

山肴는 不受世間灌溉하고 野禽은 不受世間參養로되 其味皆香而且冽하나니 吾人이 能不爲世法の 所點染이면 其臭味不迥然別乎아.

산에서 나는 식물은 세간에서 물 대어주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들에서 사는 날짐승은 세간의 양육을 받지 않으나, 그 맛은 다 향기롭고 또한 독특하다. 우리네들이 능히 세속의 법에 물들여지는 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냄새와 맛이 아득히 별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
- 山肴(산肴): 산에서 나는 식물, 곧 고사리, 더덕, 두릅, 버섯, 산초, 머루 따위.
 - 參養(환양): 기른다는 뜻이다.
 - 世法(세법): 세속에서 즐겨 좇는 名聞(명문)과 利欲(이욕) 따위를 의미한다.
 - 迥然(형연): 멀고 높다는 뜻으로, 곧 凡俗(범속)을 초월한 모양이다.

349. 좋은 광장을 앞에 놓고 한갓 구경하고 노는 데에만 그쳐 마음에 조금도 깨달아 얻는 것이 없다면 이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

꽃을 가꾼다, 대나무를 심는다, 학을 더불고 논다, 호숫가에서 물고기 뛰노는 것을 바라본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질 만한 다시 없는 좋은 취미다.

그러나 꽃을 가꾸고 대나무를 심고 학을 더불고 놀고 물고기를 바라보는 데에도 진리를 찾는 눈은 항상 깨어 있어 마음에 무엇인가 스스로 깨달아 얻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만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광경에 취하여 한갓 이것들을 구경하고 노는 데에만 그쳐 조금도 깨달아 얻는 것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겉으로 고상한 취미를 지닌 체 한들 거기에 무슨 참다운 의미가 있겠는가!

참말로 그 좋은 광경을 앞에 놓고 한갓 구경하고 노는 데에만 그친다면 이야말로 우리 儒家에서 말하는 ‘口耳(구이)’의 학문이요, 불교 小乘(소승)학자가 주장하는 ‘頑空(완공)’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학문이라야 겨우 귀로 들어갔다가 곧 바로 입으로 흘러나와 깨닫는 것도 전혀 없고 실천도 전혀 모르는 그냥 말하고 듣기만 하는 학문이니 이것이 ‘口耳(구이)’의 學(학)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아무리 一切萬象(일체만상)은 空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空은 반드시 有를 내포한 공이라야 참 공이요, 산 공인 것을, 공이 공에만 치우쳐 공하기만 하고 전혀 妙用(묘용)을 모르니 이것이 죽은 공, 쓸모 없는 공 ‘頑空(완공)’이 아니고 무엇인가! 구이의 학이니 완공과 같은 것에 무슨 참 맛이 있겠는가!

栽花種竹과 玩鶴觀魚에도 又要有一段自得處니 若徒留連光景하고 玩弄物華하면 亦吾儒之口耳요 釋氏之頑空而已라 有何佳趣리오.

꽃을 가꾸고 대나무를 심는 것과 학을 더불고 놀고 물고기를 바라보는 데에도 또 한 한층 스스로 깨달아 얻는 곳이 있기를 요한다. 만일 한갓 光景(광경)에 매이고

물건의 빛을 희롱만 한다면 역시 우리 유가에서의 口耳(구이)의 學(학)이요, 불교의 頑空(완공)일 따름이라 무슨 참 맛이 있겠는가!

• 物華(물화): 물건의 빛. 곧 겉으로 나타난 光景(광경)을 뜻한다.

• 口耳(구이): 口耳의 學. 戰國時代(전국시대)의 유학자인 揚子(양자)의 말에,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의 거리가 불과 네 치니 그것으로 어떻게 七尺(칠척)이나 되는 몸뚱이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口耳의 學’이란 한갓 말하고 듣기만 하는 공부로서,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아는 것도 없거니와 실천을 모르는 공부를 말한다.

350. 이욕의 구렁에 빠지느니보다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안은 채 죽음의 구렁에 빠지는 편이 마음 편하다.

산림 속에 숨어 사는 선비는 청백하여 가난하지만 세속을 초월한 높은 취미가 길
으로 넘치고,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촌스럽고 단순하기는 하나 타고난 진실 그대
로를 온전히 갖추고 있다.

만일 이 몸이 한 번 시장 바닥에서 물건 매매에 흥정을 붙여주고 돈 풀이나 얻어먹
는 거간꾼의 마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대로 구렁에 굴러 떨어져 죽어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名聞(명문) 이욕의 구렁에 빠져 목숨을 허덕이느니 보다 차라리 깨끗한 마음 진실
한 마음을 오롯이 안고서 죽음의 구렁에 빠지는 편이 마음이 편한 것이다.

山林之士는 淸苦而逸趣自饒하고 農野之夫는 鄙略而天真渾具하나니 若一失身
市井駟儈면 不若轉死溝壑에 神骨猶淸이니라.

山林에 사는 선비는 맑고 가난하면서 뛰어난 취미가 스스로 넉넉하고 들에 사는
농부는 촌스럽고 간략하면서 타고난 참됨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만일 한 번 몸을
시장의 거간꾼으로 잃는다면, 굴러서 구렁에 죽어서 정신과 뼈가 오히려 맑은 것
만 못할 것이다.

• 駟儈(장래): 거간꾼, 곧 물품매매를 중개하는 장사치.

351. 분수 밖의 복과 이유 없는 이득은 조물주와 낚시미끼가 아니면 인간 세상이 파 놓은 함정이다.

분수 밖의 복이라든가 이유 없는 이득이란 조물주가 나를 시험해 보기 위한 낚시미끼가 아니면 사람들이 파 놓은 인간 세상의 함정인 것이다. 세상에 분수 밖의 복이 어디 있고 이유 없는 이득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 때를 당하여 눈을 저만큼 높이 두어, 이러한 이치를 좀 더 깊고 멀리 생각하여 위험한 미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사람의 눈이 앞에 보이는 달콤한 미끼와 자잘한 이익에서 떠나지 못한다면 결국 저들의 계략 속에 빠져들지 말 것이다.

非分之福과 無故之獲은 非造物之釣餌면 卽人世之機阱이니 此處에 著眼不高하면 鮮不墮彼術中矣니라.

분수 아닌 복과 연고 없는 얻음은 조물주의 낚시미끼가 아니면 곧 사람 세상의 틀과 함정이다. 이 곳에서 눈을 부치는 것이 높지 않으면 저의 꾀 속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드문 것이다.

352. 인생은 꼭두각시 놀음터! 그러나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운전해 나갈 마음의 고삐를 굳게 잡아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이란 어쩌면 꼭두각시 놀음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이 뒤에서 실(緣)로 조종하여 팔다리를 놀리게 하고 고개짓을 하게 하고 눈알을 굴리게 하고 또 춤을 추게 하는 꼭두각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나갈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음의 고삐를 손아귀에 굳게 잡고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굽히거나 펴거나 온전히 내 자유일 것ियो, 가고 오는 것 또한 내 마음에 달려 있어 그 무엇에도 구애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털끝만치라도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꼭두각시 놀음터 속에서 훌쩍 벗어나 저 멀리 자유의 경계에서 노닐 수가 있는 것이다.

人生은 原是一傀儡라 只要根蒂在手하야 一絲不亂이니 卷舒自由하고 行止在我하야 一毫를 不受他人提掇이면 便超出此場中矣니라.

인생은 원래 하나의 꼭두각시다. 다만 뿌리와 꼭지가 손아귀에 있도록 하여서 한 가닥도 어지럽지 않기를 요한다. 감거나 펴거나 자유롭고, 가고 그치는 것이 내게 있어서 한 티끌을 다른 사람의 끌고 잡는 것을 받지 아니하면 문득 이 마당 가운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 傀儡(괴뢰): 꼭두각시.
 - 根蒂(근체):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곧 마음의 고삐를 뜻한다.
 - 場中(장중): 꼭두각시 놀음터 속.

353. 한 가지 일에는 반드시 한 가지 손해 될 일이 뒤따른다. 다만 의로운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한 가지 손해 될 일이 덩달아 생겨난다. 세상 만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익만을 온전하게 가지고 손해만을 떼어 버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가 따르고 손해가 있는 곳에 이익이 따르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萬人の 공익을 위한 일인가에 따라 손해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일 공익이 아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큰 일을 일으킨다면 물론 얼마간의 이익이야 따르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이익의 몇 갑절이나 되는 큰 손해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세상은 항상 無事(무사)한 것으로써 행복을 삼는 것이 좋다.

옛 시를 읽어나가는데 이런 구절이 있다.

“그대에게 부탁하노니, 功名(공명)을 세워 諸侯(제후)에 封(봉)하게 되는 일만은 말도 하지 마라.

한 장수가 싸움에 공명을 세워 제후가 되기까지에는 만 백성의 뼈가 전쟁터에서 말라 뒹구는 피눈물이 서려 있다.”라고.

또 말하기를,

“천하가 항상 만사에 불평 없이 태평하기만 하다면, 긴 칼이 칼집 속에서 천년을 누워 썩은들 아까울 게 무엇인가!”라고 하였다.

참말로 누구든 이 글을 읽고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뛰어난 영웅심도, 또 아무리 사나운 용맹한 기운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닌 이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얼음 녹듯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다.

一事起則一害生이라 故로 天下常以無事爲福하나니 讀前人詩에 云 勸君莫話封侯事하라. 一將功成萬骨枯라 하고 又云天下常令萬事平이면 匱中不惜千年死라 하나니 雖有雄心猛氣나 不覺化爲冰霰矣니라.

한 가지 일이 일어나면 곧 한 가지 害(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는 항상 일이 없는 것으로써 복을 삼는다.

옛 사람의 시를 읽는데 말하기를,

“그대에게 권하노니, 諸侯(제후)를 대하는 일을 말하지 마라. 한 장수가 공을 이루어 만인의 뼈가 마른다.”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천하가 항상 만사로 하여금 태평케 한다면 칼집 속에 천 년을 죽어 있을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하였다.

비록 영웅의 마음과 용맹한 기운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化(화)하여 얼음과 싹락눈이 될 것이다.

354. 사원(寺院)이란 본래 음란하고 그릇된 사람들이 모이는 숲속이 아니다.

음란한 행동을 하던 여자가 실컷 놀아나다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다 버리고 신중히 되어버린다.

또 남달리 과격하고 정열적이어서 무슨 일에든 곧 잘 열중하는 사람이, 혹 일이 뜻대로 안 되게 되면, 몹시 흥분해서 하던 일 다 집어 던지고 僧侶(승려)로 들어가 버린다.

淸淨(청정)해야 할 신선한 사원이 이와 같이 음란하고 그릇된 사람들이 모이는 숲속이 되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淫奔之婦는 矯而爲尼하고 熱中之人은 激而入道하나니 淸淨之門이 常爲姪邪淵藪也如此로다.

음란한 행동을 하던 지어미가 끝내 가서는 신중히 되고, 열중하던 사람은 너무 지나쳐서 佛道에 들어간다. 청정해야 할 문이 항상 煙邪(연사)의 연못과 숲으로 되는 것이 이와 같다.

-
- 矯(교): 극단에 이른다는 뜻이다.
 - 淸淨之門(청정지문): 寺院(사원)을 가리킨다.

355. 군자는 마음을 항상 일 밖에 두고, 내가 남을 보고 비평하듯 자기 자신의 잘잘 못을 냉정한 눈으로 관찰한다.

하늘을 훔을 듯 거센 물결 속에 배 한 척!

그러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험을 모르는가 그다지 두려운 빛이 없는 데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광경을 보고 간담이 서늘하여 마음을 졸인다. 또 술이 곤죽이 되어 미친 듯 날뛰며 좌중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험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양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가!

전혀 경계할 생각조차 않는다. 오히려 저만큼 떨어져 이 광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대며 이맛살을 찌푸린다.

사람은 이처럼 남이 하는 일은 그 잘잘못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는 그토록 보는 눈이 어두운 것이다.

여기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다. 자기가 자기를 때때로 돌아보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는 눈이다. 그러므로 도덕 수양에 힘쓰는 군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일 가운데 몸을 담아 일에 열중하면서도 마음만은 언제나 그 일밖에 저만큼 떼어 둔다.

그것은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또 하나의 나를 저만큼 세워두고, 내가 남을 바라보고 비평하듯 그렇게 내가 나를 지켜 보며 끊임 없이 고쳐 나가기 위한 것이다.

波浪兼天에 舟中不知懼로되 而舟外者寒心하고 猖狂罵坐에 席上不知警이로되 而席外者咋舌하나니 故로 君子身雖在事申이 心要超事外也니라.

물결이 하늘에 닿으매 배 가운데서는 두려움을 모르는데 배 밖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미친 듯 날뛰며 좌중에 욕하며 자리 위에서는 경계할 줄을 모르는데 자리 밖에 있는 사람이 혀를 깨문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은 비록 일 가운데 있으나 마음은 일 밖에 뛰어나 있어야 한다.

-
- 兼天(겸천): 하늘에 닿음을 뜻한다.
 - 咋舌(색설): 혀를 깨물.

356. 날마다 한 가지 일이라도 덜어서 일을 적게 한다면 덜어낸 만큼 속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단 한 가지 일이라도 덜어서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덜어낸 만큼 세속을 超脫(초탈)할 수가 있다.

만일 꼭 사귀지 않아도 될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덜어 나간다면, 덜어낸 만큼 분잡하고 시끄러운 생활을 면할 수가 있을 것이요,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단 한 마디라도 줄여 나간다면 스스로 짓는 허물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다. 또 꼭 思慮(사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단 한 생각이라도 줄여 나간다면 그만큼 정신적인 소모를 덜 수가 있을 것이요, 꼭 덜어내지 않아도 될 재주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안으로 감춘다면 타고 난 본성의 진실을 그만큼 흠 없이 간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다만 한 가지 일이라도 덜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마음 조출한 생활을 하고자 아니하고 도리어 날마다 할 일, 아니 할 일 할 것 없이 많은 일들을 보태어 나가기를 좋아한다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속된 일들에 휘감겨, 괴롭기가 마치 자기의 생명을 쇠사슬에 얹어 놓은 것과 같을 것이다.

人生이 減省一分하면 便超脫一分하나니 如交遊減이면 便免紛擾요 言語減이면 便寡愆尤요 思慮減이면 則精神不耗요 聰明減이면 則混沌可完이니 彼不求日減而求日增者는 眞桎梏此生哉인저.

인생이 一分을 덜면 문득 일분을 초탈할 수 있다. 만일 사귀어 노는 것을 덜면 문득 분잡하고 시끄러운 것을 면할 것이요, 말을 덜면 문득 허물을 적게 할 것이요, 사려를 덜면 곧 정신이 소모되지 아니할 것이요, 총명을 덜면 곧 혼돈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저가 날마다 덜기를 구하지 아니 하고 날마다 보태기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 생명에 차꼬와 수갑을 채우는 것이다.

-
- 混沌(혼돈): 여기에서는 善惡邪正(선악사정)이 아직 나뉘지 않은 상태, 喜怒哀樂(희노애락)이 아직 未發(미발)의 상태, 곧 사람의 진실 그대로의 타고난 본성을 뜻한다.

357. 사람이 차고 더운 마음의 변덕을 없애버리면 가슴 속 가득히 화한 기운이라, 가는 곳마다 봄바람이 인다.

천지 운행에서 오는 춥고 더운 기후의 변화는 사람의 마음 갖기에 따라서 쉽게 피할 수가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 오가는 뜨거웠다 쌀쌀했다 하는 인정의 변덕은 참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니 그보다 인간 세상에서 오가는 뜨거웠다 쌀쌀했다 하는 인정의 변덕은 차라리 제거하기 쉽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얼음과 숯불은 그 무엇으로도 제거하기 어렵다.

만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얼음과 숯불을 아주 빼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온통 화(和)한 기운으로 가득 차, 어디를 가나 가는 곳마다 따스한 봄바람이 일 것이다.

天運之寒暑는 易避로되 人生之炎涼은 難除하고 人生之炎涼은 易除로되 吾心之氷炭은 難去하나니 去得此中之氷炭이면 則萬腔皆和氣라 自隨地有春風矣니라.

천지 운행에서의 춥고 더운 것은 피하기 쉽지만 인간 세상에서의 덥고 쌀쌀한 것은 제거하기 어렵다. 인간 세상에서의 덥고 쌀쌀한 것은 제거하기 쉽지만 우리 마음의 얼음과 숯불은 버리기 어렵다. 이 마음 속의 얼음과 숯불을 버릴 수만 있다면 곧 가슴 속에 가득 찬 것이 모두가 화한 기운이라, 저절로 곳에 따라 봄바람이 있을 것이다.

358. 사람은 모든 기욕(嗜欲)에서 벗어남으로써 항상 만족에서 머무르며, 인생의 보다 높은 진정한 맛을 얻을 수 있다.

茶(차)는 너무 고급의 것을 찾지 않아야 차 병이 항상 마르지 아니하고, 술은 너무 맛 좋고 독특한 것을 찾지 않아야 술 두루미에 술이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저 차를 마시고 싶을 때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차 병과 술 두루미가 항상 비어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꾸밈 없는 초출한 거문고에 줄은 없어도 마음 속에 울리는 가락은 항상 고르고, 짧은 것대에 구멍은 없어도 혼자서 즐기는 맛은 그 무엇에 비기랴! 이쯤만 된다면 그 옛날 伏羲(복희)씨 훌륭한 天子(천자)님을 넘어서는 수는 물론 없어도 竹林七賢(죽림칠현) 晉(진)나라 때 대숲 속에 모여 清談(청담)으로 소일하던 일곱 분 어진 이 가운데 嵇康(혜강)과 阮籍(완적)쯤이야 넉넉히 벗할 수 있을 것 아닌가!

茶不求精而壺亦不燥하고 酒不求冽而樽亦不空하며 素琴이 無絃而常調하고 短笛이 無腔而自適하면 終難超越羲皇이나 亦可匹儔嵇阮이니라.

차는 精(정)한 것을 구하지 않아야 병이 또한 마르지 아니 하고, 술은 독특한 것을 구하지 않아야 술 두루미가 또한 비지 않는다.

꾸미지 않은 거문고가 줄이 없어도 항상 고르고, 피리가 구멍이 없어도 멋대로 즐길 수 있다면 비록 伏羲(복희) 씨는 넘어서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또한 넉넉히 嵇康(혜강)과 阮籍(완적)을 짝할 수는 있을 것이다.

-
- 羲皇(희황): 중국 고대 三皇(삼황) 가운데 하나인 伏羲(복희)씨.
 - 嵇阮(혜완): 嵇康(혜강)과 阮籍(완적). 晉(진)나라 때의 竹林七賢(죽림칠현) 가운데 두 賢人(현인).

359. 불가(佛家)의 인연 따라 처신하는 일과 유가(儒家)의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일, 이 두 가지는 험한 세상 바다를 건너는 부낭이다.

불교에서는 ‘隨緣(수연)’이란 말을 하고, 유교에서는 ‘素位(소위)’라는 말을 한다. ‘수연’이란 ‘인연을 따른다’는 말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부유하고 귀하고 천한 것이며,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등은 모두가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네 인간은 ‘좋은나 나쁜나 간에 이 인연에 따라 처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란 ‘자기의 지위에 따른다’는 말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주어진 지위를 잘 지키며 분수 밖의 것을 넘겨다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연’과 ‘소위’, 이 네 글자야말로 이 세상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浮囊(부낭)과 같은 것이다.

예나 이제나 세상 길이란 끝없이 넓고 큰 것을, 여기서 만일 다만 한 생각이라도 완전하기를 바란다면 천만 가지 욕심이 어지러이 고개를 들게 될 것이요, 여기서 만일 현실을 중심으로 하여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알맞게 처신하여 욕심 없는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 어디를 가든 안락한 경지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釋氏隨緣과 吾儒素位는 四字는渡海의浮囊이라 蓋世路茫茫하야 一念求全이면 則萬緒紛起요 隨寓而安이면 則無入不得矣리라.

佛家(불가)의 인연을 따른다는 것과, 우리 儒家(유가)에서의 지위에 따른다는 것. 네 글자가 이 바다를 건너는 부낭이다. 대개 세상길은 망망해서 한 생각이 완전하기를 구한다면 곧 만 가지 실마리가 어지러이 일어날 것이요, 경우를 따라서 편안하면 곧 들어가서 얻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 素位(소위): 지위에 따르는 것. 곧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를 잘 지키며 분수 밖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은이 소개 | 홍자성

중국 명나라 말기 사람으로, 호를 환초도인(還初道人)이라 했다는 것 외에는 전해지는 바가 없다. 다만 《채근담》의 서문을 쓴 우공겸(于孔兼)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만력년간(萬曆年間)에 고관을 지냈으며, 황제에게 간언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하여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다 하니, 홍자성 또한 비슷한 인물이었으리라 짐작할 따름이다.

옮긴이 소개 | 송정희 (1933~2009)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부친(독립운동가 진산 송인집 선생)께 한학을 배웠다. 중앙대학교 영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다. 명지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했다. 《楚辭》를 초역하고 《詩經》《墨子》《荀子》《古文眞寶》를 번역하는 등 한학과 동양철학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지천인》《웃음 뒤의 웃음을 보며》 등 8권의 시집을 남기며 창작활동에도 치열했다.

채근담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3년 10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08-2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